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때 :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곳 : 한글학회 강당

주최: 한글학회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글학회 ·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차 례•

〔기조 발표〕

김주원(서울대) : 대중 참여 방식(크라우드소싱)을 통한『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사업 ····· 7

〔제1부 주제 발표〕

이관규(고려대)·남길임(연세대) :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성립 과정과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 23

최경봉(원광대) :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조성과 수정 맥락 ····· 47

도원영(고려대) :『말모이』의 사전학적 구조 분석 ····· 71

〔제2부 주제 발표〕

박동근(대진대) : 이상춘 미간행 국어사전 원고의 거시적 구조와 미시구조 ····· 91

황용주(국립국어원)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의 사전 구조 분석 연구 ··· 117

최운호(국립목포대) :『큰 사전』의 구조적 분석: 풀이말과 관련하여 ····· 147

〔제3부 연구 발표〕

김영규(대만 국립정치대학) : ‘졸리다’의 방언 분화에 대하여 ····· 175

이수진(경북대) : 유튜브 댓글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의 수집 및 기술 방법론 연구 ····· 189

이주현(카이스트) : 17세기 인용 구문의 대표성 연구 ····· 205

기조 발표

대중 참여 방식(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사업 / 김주원

2025 한글 한마당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기조 발표

대중 참여 방식(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사업

김주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jwn@snu.ac.kr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25.10.17)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대중 참여 방식을 통한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사업

김주원(서울대 명예교수)

차례

- 1. 배경
- 2. 큰사전 원고의 됨됨이
- 3. 대중참여 작업의 방식

1.1. 배경(1)

- 주시경 『말모이』(1911~1914)
- 조선어사전편찬회(1929)와 조선어연구회 – 사전 편찬 업무 분담
- 조선어학회 (1931)
- 맞춤법 통일안(1933)
  - 조선어학회 화동 사무실 기증 받음(정세권)
- 사정한 표준말 모음(1936)
-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일을 조선어학회가 이어받음(1936)
- 사전 편찬의 일이 본격화 됨(1937)
  - 수양동우회 사건(1939, 이윤재, 김윤경), 흥업구락부 사건(1938, 최현배, 이만규, 이강래)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어문 3 규범 완성>

1.1. 배경(2)

- 출판을 위하여 검열을 받고 승인을 받음(1940.3.) 이후 200여 쪽 조판(1942.3.)
- 조선어학회 수난 33인 검거(1942.10.)
- 원고는 일본 경찰에 민족 독립운동의 증거물로 압수됨(1942.10)
- 학회의 모든 활동 중단
- 이윤재(1943년), 한징(1944년) 선생 돌아가심
- 광복 후 서울역 창고에서 원고(52책)를 찾음(1945.9.8.)
- 사전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 수정 작업을 시작함(1946.2. 이강로, 유제한, 신영철 등)
- 『조선말 큰 사전』 제1권 발행(1947.10.) 제1권 발행 후 자금 조달이 안 되어 중단.
- 록펠러 재단의 도움으로 제2권(1949.5.), 제3권(『큰 사전』, 1950.6.12.) 출판
- 제4권 첫 교정, 제5권 조판 시작 중에 6.25 전쟁 발발. 편찬 업무 중단.

1.2. 원고의 이동 경로(1)

- 학회 사무실이 인민군 사무실로 접수된 후, 밤에 최현배 선생과 유제한 선생이 제6권 원고를 몰래 빼냄.
- 제6권 원고를 최현배 선생이 장독에 넣어 마당에 묻고 피난 감.
- 918 서울 수복 후에 원고를 꺼내어 1950년 11월 12일부터 임시 직원 11명이 베낌(부록 제외). 원고가 두 벌이 생김(제4권~제6권으로 추정).
- 1951년 1.4 후퇴 때 또 다시 서울을 떠남. 원본은 천안(목천)으로(장독에 넣고 땅에 묻음), 베낌벌은 부산으로 감.
- 정인승 선생이 전주에서 유제한, 권승욱 선생과 함께 교정 작업을 함.
- 1952년 5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 들자 유제한 선생이 원주, 춘천을 돌아서 서울에 들어 와서 태진 선생이 한강을 힘들게 넘어가 서울신문사로 숨어 들어서 편집 작업을 함.
- 1952년 10월 28일에 제4권 지형을 뜬 후에, 정태진 선생이 고향인 파주로 식량 가지러 가다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돌아가심(1952년 11월 2일, 향연 49세).

1.2. 원고의 이동 경로(2)

- 사전 수정 작업 재개: 정인승 선생 전주에서 유제한 선생과 함께 5권, 6권 수정(1953년 5월에 마침)
- 록펠러재단이 지원해 준 사전 제작 재료(종이, 실, 표지, 잉크)들이 불타버렸으나, 재단에서 다시 지원해 주기로 함.
- 이른바 '한글간소화 파동(1953년 4월~1955년 9월)'으로 사전 작업이 중단됨.
- 정부에서 록펠러재단의 지원품이나 유네스코의 지원을 못 받도록 함.
- 1955년 9월 '한글간소화'를 포기함으로써 1956년 4월부터 사전 편찬 작업 재개.
- 1957년 제5권, 제4권, 제6권(10월 9일)으로 완간.

1.2. 원고의 이동 경로(3)

- 원고의 총 책수는 52책으로 추정(이강로 1986:14)
- 이 중 "아, 야"로 시작하는 올림말 항목이 없어짐.(별지 1.3.)
- 서울- 함흥 – 서울 - 부산
  └- 천안 – 전주 – 서울 – (일부) 목천 독립기념관
- 현재 남아 있는 책 수는 18책
- 한글학회: [원고 원본] 8책과 [원고 베낌벌 추정] 4책
- 독립기념관: [원고 원본] 5책(한글학회에서 기증)
- 동숭학술재단: [범례] 포함한 '가-' 부분 1책 (김민수 교수 보관)

- <참고> 이 원고는 현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상태임.

1.3. 넷째 권 고침표 (제4권 2506쪽 이후. 1~6쪽)

- "이 네쨋 권은 한국 전란 중에 편찬원 단 두 사람의 손으로 참고서도 조력원도 없이 서울신문사의 임시 공장 안에서 묵은 원고만을 가지고 총급하게 판을 짜서 지형을 뜨느라고[잡이-1952년] 본의 아닌 착오가 많았기에, 이제 이것을 박음에 있어[잡이-1957년] 대강 땜질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렇게도 못할 것은 부득이 이 고침표를 만들어 붙이게 된 것이니, 이 표에 비추어 고쳐 주기를 바라는 바임.
- (낱말 앞의 숫자는 본문 쪽수이며, +표는 넣을 것, o표는 뺄 것, X표는 고칠 것임)."

(제4권 1957년 8월 30일 발간).

2. 큰사전 원고의 됨됨이

- 전체 분량:

"『큰사전』 원고는 200장 정도를 한 권으로 묶은 것이 52권이었던가로 기억된다." (이강로, 『큰사전』에 얽힌 이야기, 한글새소식 168호, 1968)

- 원고지 총량 26,500여 장이라고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나와 있으나 근거가 없음. 15,000장 내외로 추정됨.

2.1. 큰사전 원고 총괄

4,480장

한글학회 12책
독립기념관 5책
동숭학술재단 1책

2008년 11월 3일
국가기록지정물 지정(17책)
2020년 12월 22일
보물 지정(14책)

순서	수록 항목	인쇄된 책	장수 (표지 포함)	소장 기관
1	범례, 가거지지 - 감각론	1권	52장	동숭학술재단
2	붙다 - 빙다	3권	274장	(재)한글학회
3	시 - 싶	4권	318장	(재)한글학회
4	여 - 옇다		334장	독립기념관
5	외 - 우측통행		188장	(재)한글학회
6	우츰 - 윙윙		182장	(재)한글학회
7	유 - 윷판		160장	(재)한글학회
8	으 - 읫만이		137장	(재)한글학회
9	ㅈ - 잡제	5권	249장	독립기념관
10	절용 - 제밀		201장	(재)한글학회
11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199장	(재)한글학회
12	찌그러지다 - 진도바리		200장	독립기념관
13	척사윤음 - 청찰		201장	독립기념관
14	ㅌ - 팀파니	6권	317장	(재)한글학회
15	ㅍ - 핑핑히		452장	(재)한글학회
16	ㅎ - 핸드백		330장	독립기념관
17	핸드오르간 – 현훈증		255장	(재)한글학회
18	ㅎ – 허리 <베낌벌>	–	431장	(재)한글학회
			4,48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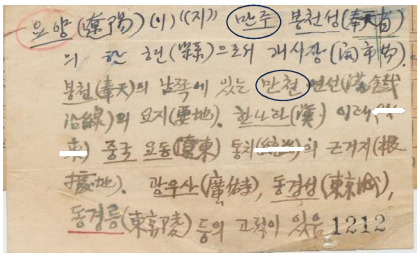
원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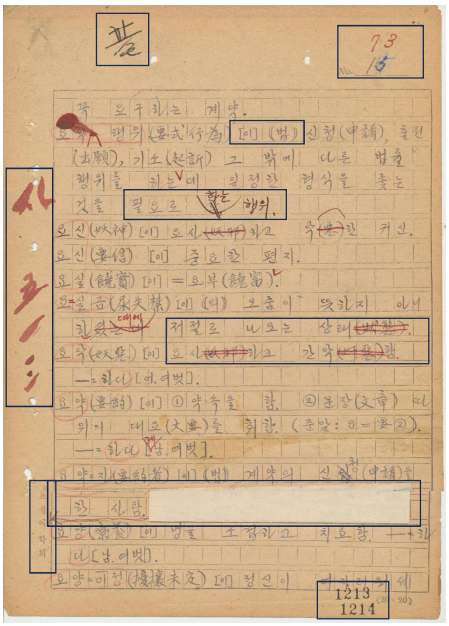
2.2. 원고 보기(제4권)

파일 번호 0041213.jpg

원고용지 : 조선어 학회 전용 용지 (20*20)
윗번호 : 15 -> 73
아래번호(스탬프) : 1213, 1214
왼쪽 번호 : 사 五一三 (인쇄소 식별번호)

수정 사항:
요식행위(要式行爲) [이]* (법)* 신청...
필요로 함. -> 필요로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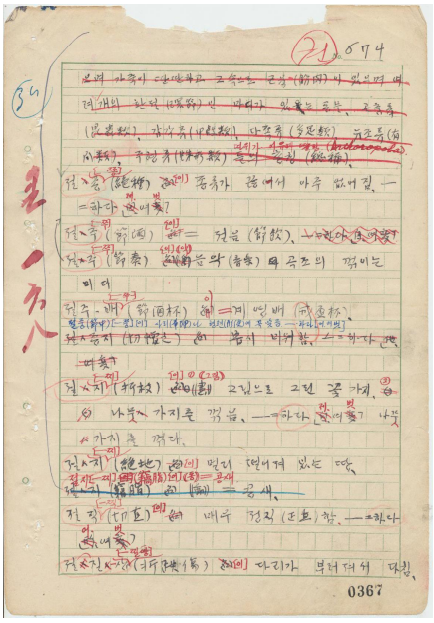


2.3. 원고 보기(제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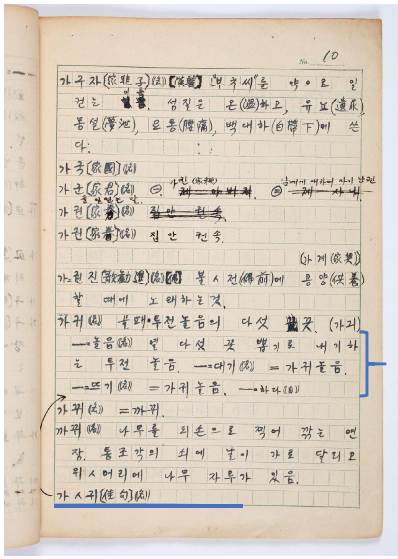
파일 번호 0050367.jpg

원고용지 : 400자(20*20) 원고지
윗번호 : 674
아래번호(스탬프) : 0367
왼쪽 번호 : 큰 一六八 (인쇄소 식별번호)

수정 사항:
절종 [-쫑](絶種) [名]-> [이]]* 종류가 끊여서
... =하다[自여變] ->[제여벗]
절중(節中) <넣기>
절ㅅ증지(切憎之) <빼기>



2.4. 원고와 출판물의 비교(제1권)



가구-자(家韭子)【이】《한의》 부추의 씨. 성질은 온(溫)한데, 유뇨(遺尿), 몽설(夢泄), 요통(腰痛), 백대하(白帶下)에 씀.

가구-장이(家具匠—)【이】 가구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邦』.

가국(家國)【이】 자기의 집안과 나라. (가방=家邦).

가군(家君)【이】① 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 자기의 집안을 다스리는 어른의 뜻으로 씀. (참고: 가부=家父. 가대인=家大人. 가엄=家嚴. 가친=家親. 엄군=嚴君. 엄친=嚴親). ② 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남편을 일컫는 말. 자기의 몸을 말은 이라는 뜻으로 씀. (③참).

가꿀로【명】=가꾸로. 『고: 가부=家夫』.

가권(家祭)【이】《고제》=집문서.

가권(家眷)【이】 집안 권속(眷屬).

가-권진(歌勸進)【이】《불교》 부처 앞에 공양할 때에 노래하는 일. 『일컫는 말. (가귀).

가귀【이】 줄째, 두전 따위의 노름에서 다섯 끗을.

가귀(佳句)【이】 재미있게 잘 된 글귀.

(가뀌【이】=까뀌.

까뀌【이】 나무를 외손으로 찍어 깎는 연장. 몽조각의 허로, 한 끝에 날을 가로 대고, 쇳 머리에 날의 직각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나무로 자루를 박았음. (가귀). 『다【제.여 벗】.

가귀-노름【이】 가귀대기를 하는 노름. ——·하다.

가귀-대기【이】 두전에 열 다섯 끗 풀기로 내기하는 노름의 이름. (가귀뜨기). ——·하다【제.여 벗】.

(가귀-뜨기【이】=가귀대기.

3.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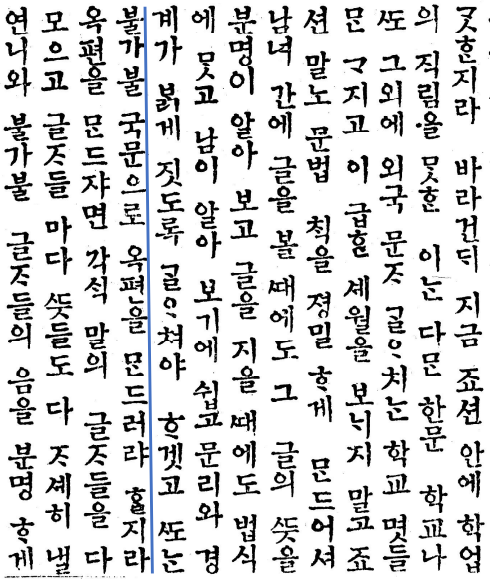
- 한글학회 아카이브를 만들자(한글새소식 633호 2-3쪽, 2025.5.5.)
  - 역사 연표관
  - 인물 자료관
  - 성과 자료관
  - **문헌 및 이미지 자료관**
  - 참여형 교육 마당

- 조선말 큰 사전 및 우리말 큰 사전 텍스트화 작업 완료(2023-24년)
- 조선말 큰 사전 원고 텍스트화 작업(2026년)

3.1. 대중 참여 작업의 방식

- 주시경 선생의 사전을 만들려는 의지

"국문론" 독립신문 1897년 9월 25일


국문으로 옥편을 문드러라 홀지라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문드자면 각식 말의 글조들을 다
모으고 글조들 마다 뜻들도 다 조셰히 낼
연나와 불가불 글조들의 음을 분명 ᄒᆞ게
ᄒᆞ게 ᄌᆞᆺ도록 글ᄋᆞ쳐야 ᄒᆞ겟고 ᄯᅩ는
계가 ᄇᆞᆰ게 글ᄋᆞ쳐야 ᄒᆞ겟고 ᄯᅩ는
에 ᄆᆞᆺ고 남이 알아 보기에 쉽고 문리와 경
분명이 알아 보고 글을 지을 ᄯᅢ에도 법식
남녀 간에 글을 볼 ᄯᅢ에도 그 글의 ᄯᆞᆺ을
션 말노 문법 ᄎᆡᆨ을 졍밀 ᄒᆞ게 문드어셔
문 ᄀᆞ지고 이 급ᄒᆞᆫ 셰월을 보ᄂᆡ지 말고죠
ᄯᅩ 그외에 외국 문조 글ᄋᆞ치는 학교 몃들
의 직림을 ᄆᆞᆺᄒᆞᆫ 이는 다문 한문 학교나
ᄀᆞᆺᄒᆞᆫ지라 바라건ᄃᆡ 지금 죠션 안에 학업

3.2. 대중 참여 작업의 방식

- 1908년 8월 31일 국어연구학회 창립
- 1911년 배달말글몯음(朝鮮言文會)

회칙 제9조 會員의 義務는 左와 如함
一 入會後 一個年 內에 一千種 以上의 朝鮮語를 蒐集하야
本會에 提出할 事

3.3. 대중 참여 작업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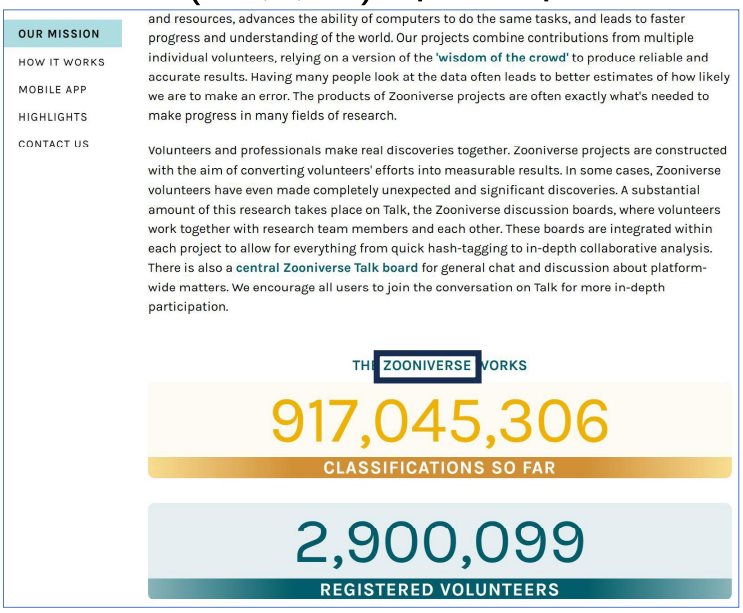
- 方言蒐集
- 朝鮮語學會에서 各地方 方言을 蒐集하기 위하여, 四五年前부터 府內 各 中等學校 以上 學生을 總動員하야, 夏期放學時 歸鄕하는 學生으로 하여금 方言을 蒐集하였던바, 이미 蒐集된 것이 萬餘點에 이른지라. 이것을 장차 整理하여 辭典 語彙로 收用할 豫定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方言調査編을 特設하였으니, 누구시든지 이 欄을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27호, 193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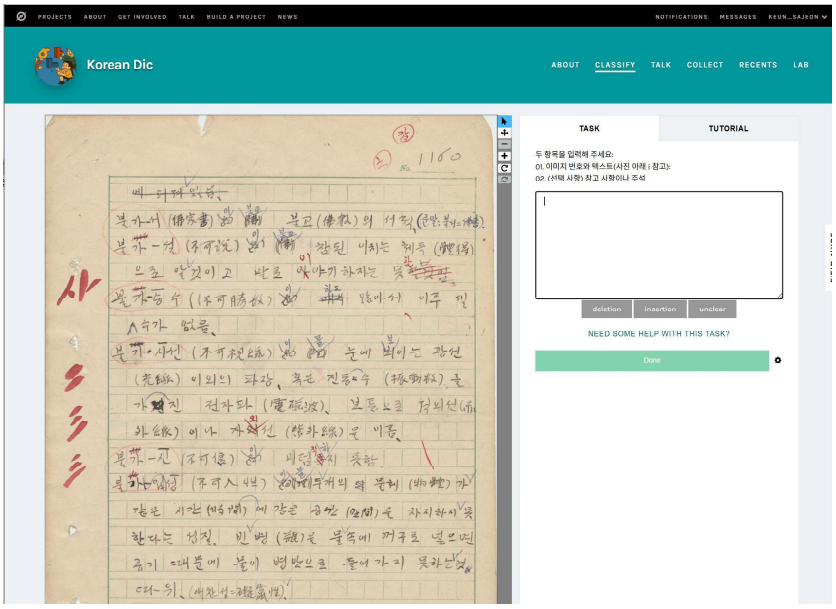
3.4.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디지털화

- 대중 참여 작업 방식(크라우드소싱)이란 한 개인이 해내기 어려운 문제를 집단 지성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 내년은 주시경 선생 탄생 150돌, 훈민정음 반포 580돌, 가갸날 제정 100돌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꿈으로써 오늘날의 한국어 한글이 있게 한 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
- 자원 봉사자의 고마운 뜻을 받아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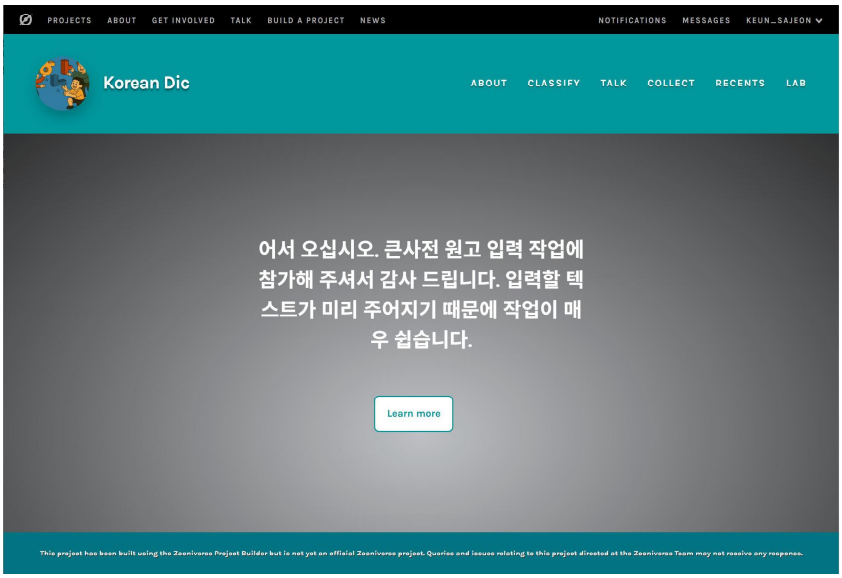
3.5. 작업 연모(플렛폼)의 선택



3.6. 입력 작업 창(1)



3.7. 입력 작업 창 (2)



3.8. 입력자에 대한 혜택

- 일정 시간(24시간) 이상 작업자에게는 주니버스(Zooniverse)가 발행하고 한글학회가 인증하는 "자원 참여자 큰 사전 입력 작업 인증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이강로(1986), 『큰사전』에 얽힌 이야기. 한글새소식 168:13-15.
- 최경봉(2021),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사전화 과정과 사전학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1:9-47.
- 박용규(2024),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한글의 투쟁, 나라사랑 133:54-93.
-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1) 한글 110:43-

제1부 주제 발표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성립 과정과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이관규 · 남길임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조성과 수정 맥락/ 최경봉

『말모이』의 사전학적 구조 분석/ 도원영

2025 한글 한마당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성립 과정과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kklee@korea.ac.kr
남길임(연세대학교 교수) nki@yonsei.ac.kr

1. 서론

사전이 해당 언어 공동체가 가진 역사와 관습, 당대 가치와 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Considine(2013 : 131-133)에서는 역사사전학을 강한 의의와 약한 의의로 구분하여 역사사전학의 범위를 다소 제한하여 논의하고 있지만[1], Zgusta(2006)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모든 사전은 역사적 산물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 모든 사전은, 그 사전이 역사 문화 사전이 아니더라도, 사전 편찬의 의도와 주체, 목적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표제어 선정과 배제의 원칙 기술 내용 전체가 편찬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현대 사전학의 관점에서 한국 최초의 대사전인 『조선말 큰사전』(1947~1957, 총 6권)의 근간이 되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찬 과정과 사전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원고가 지닌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의

1) Considine(2013 : 132)에서는 통시적인 차원을 참조하는 모든 사전을 약한 의미에서의 역사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셰익스피어 사전이나 용어집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약한 의미의 역사사전에서 어원 정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출처나 연도가 필수적이지 않다. 반면 강한 의미로서의 역사사전은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nciple)에 기반하여 편찬된 것으로 인쇄된 출처와 실제 용례, 연도를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항목의 배열도 그러한 역사적 원칙에 입각하여 연대순으로 나열되기도 한다.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원고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중 1929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1908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말모이'의 편찬과 출판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1908년도를 시작점으로 논의할 만하다. 또 이 원고는 『조선말 큰사전』의 마지막 6권이 완간되었던 1957년까지의 수정과 가필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집필과 수정, 가필의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원고와 관련된 극적인 일화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소실되었던 그 원고를 1945년 광복 직후 경성역(현재의 서울역)에서 극적으로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원고는 『조선말 큰사전』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면서 1957년까지 수정 가필되면서 한국 최초 대사전의 출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의 목적과 사전 편찬 주체, 역사적 격동기를 거쳐 사전이 편찬된 과정을 당시 사료들을 중심으로 큰 사전 원고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세계 사전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8년, 2020년에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각각 한국의 국가등록 문화재와 보물로 지정되었을 때,[2] 이 원고의 저작 연대는 1929년에서 1942년대까지로 명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 편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제어 수집의 시점이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국어연구학회가 창립된 시기인 1908년임을 주장하고, 완성의 시점 또한 <큰사전> 총 6권의 완료 시점인 1957년으로 잡아야 함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84년 한글을 '국문'으로 공포한 갑오경장 이후의 사료를 통해 사전 편찬 시작 시점과 편찬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찬 목적이 일반적인 서구의 민족주의 방식과 변별되는 것은 일제의 우리 말글 말살 정책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국어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편찬자들은 사전의 편찬이 한민족 생기 회복의 수단(김두봉 1916 : 220)이고, 한자 중심에서 국어와 국문으로 나아가는 첩경(주시경 1907)이라고 여겼다. 유엔(UN)이 국제 모국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을 지정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된다. 1952년 방글라데시(당시 동파키스탄)의 언어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서 시작한 세계 모국어의 날은 모국어의 중요성, 모국어와 교육 및 문화 정체성의 관계 등을 인식하는 중요한 날이다.[3] 본 연구에서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2) 주시경의 '말모이 원고' 1책(2012년)과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 17책(2008년)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되었고, 이후 2020년에 '말모이 원고' 1책과 '조선말 큰사전 원고' 14책이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14책 속에는 2008년에 지정되지 않았던 범례를 포함한 1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8책 중 4책(4, 5, 6, 12)은 1차 원본이 아닌 베낌벌이었기 때문에 보물로 등록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4책의 베낌벌도 전쟁통에 원고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사전학사에서 민족 정체성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모국어 운동을 이끌어간 매우 드문 사례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셋째,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사전 편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근대 국가 성립 시기에 서양에서는 국가 주도로 사전이 편찬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행정 권력이 아닌 지식인과 ‘대중’이 함께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민간 학회와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1929) 및 조선어사전편찬후원회(1936) 등을 통해서 기획되고 수십 년간의 대중들의 표제어 수집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근대 국가 성립 시기 민간 주도의 사전 편찬은 세계 사전학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이다.[4)]

‘큰사전 원고’의 작성 과정에서 대중의 역할은 OED의 편찬 과정에서 편찬자가 요구하는 특정 문헌이나 표제어에 한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인용문을 수집했던 보조적 역할과 비교될 수 있는데, 큰사전 원고의 경우 표제어 수집과 구성에서 대중의 힘을 빌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식민지 시기 어문민족주의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향후 표제어의 구성과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 의미에서 사전 사용자 참여를 ‘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 ‘보조적 참여’로 유형화한 Abel et al.(2013)의 논의에 근거하여 큰사전 원고의 참여를 ‘직접적 참여’로 논의함으로써, 큰사전 원고의 어문민족주의와 대중의 역할을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찬 목적과 성립 과정

2.1 개화기의 국어사전 필요성 인식

18세기, 19세기 서구에서 사전과 문법서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핵심

3) 방글라데시(당시 동파키스탄)의 언어 운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뱅골어를 공용어로 인정해 달라며 벌인 시위 도중 많은 희생이 있었던 운동이다. 이 사건은 언어의 권리와 정체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1999년 11월 17일, 유네스코는 이날을 공식적으로 '국제 모국어의 날'로 선언하였다.

4) Hartmann(2013 : 373~375)에 의하면 사전편찬의 주요 주체는 국가기관(academies), 대학, 학회, 출판사, 기타 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나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Real Academia Española) 등의 국가기관(academies)의 사전은 자연언어의 ‘표준(standard)’를 개발하는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때로 지나친 규범주의라는 비판(Thommas 1991)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큰사전 원고’의 주체가 일제 강점기의 행정 당국이나 지배 권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 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도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 역사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사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19세기 말부터 민족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직전인 개화기였다는 점, 중국과 한문 중심의 세계관에서 국문 중심으로의 이동 등을 서구 사전학사와 다소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5)]

1894년에 갑오경장이 발발하고 그 해에 고종이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언문)을 '국문'으로 공포한 이후 국어, 국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당연히 우리의 선학들은 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오랜 세월 한자문화권 아래에서 중국의 옥편을 애지중지하면서 봐 왔던 근대 사람들은 국어와 국문 의식이 싹튼 개화기에 우리말 언문 옥편, 즉 국어사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아래는 개화기 인사들의 국어사전의 필요성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2) ㄱ. 리봉운(1897 : 3), 셔문, 《국문졍리》, 역문③2.

문명의 뎨일 요긴ᄒᆞᆫ 거슨 국문이ᄃᆡ 반졀리치를 알 사ᄅᆞᆷ이 적기로 리치를 궁구ᄒᆞ야 언문옥편을 ᄆᆞᆫᄃᆞᄅᆞ 죠야에 발힝ᄒᆞ야 이왕 국문을 안다 ᄒᆞᄂᆞᆫ 사람도 리치와 ᄌᆞ음과 쳥탁과 고뎌를 분명히 알아 힝문케 ᄒᆞ고 동몽도 교육ᄒᆞ면 우리나라 글이 ᄌᆞ연 ᄇᆞᆰ을 거시오 독립권리와 ᄌᆞ쥬ᄉᆞ무에 뎨일 요긴ᄒᆞᆫ 거시니 여러 군ᄌᆞᄂᆞᆫ 깁히 ᄉᆡᆼ각ᄒᆞ시기를 바라옵

ㄴ. 주시경(1897 : 1), 국문론, 《독립신문》 2권 114호 (1897. 9. 25.)

ᄯᅩᄂᆞᆫ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ᄆᆞᆫ드러랴 ᄒᆞᆯ지라 옥편을 ᄆᆞᆫ드쟈면 각식 말의 글ᄌᆞ들을 다 모으고 글ᄌᆞ들 마다 ᄯᅳᆺ들도 다 ᄌᆞ세히 냅연니와 불가불 글ᄌᆞ들의 음을 분명 ᄒᆞ게 펴 ᄒᆞ여야 ᄒᆞᆯ터인ᄃᆡ 그 놉고 나즌 음의 글ᄌᆞ에 표를 각기 ᄒᆞ쟈면 음이 놉흔 글ᄌᆞ에ᄂᆞᆫ 겸 ᄒᆞ나를 치고 음이 나즌 글ᄌᆞ에ᄂᆞᆫ 뎜을 치지 말고 뎜이 업ᄂᆞᆫ 것으로 표를 삼아 옥편을 ᄭᅮᆷ일 것 ᄀᆞᆺᄒᆞ면 누구던지 글을 짓거나 ᄎᆡᆨ을 보다가 무ᄉᆞᆷ 말의 음이 분명치 못ᄒᆞᆫ 곳이 잇ᄂᆞᆫ 째에ᄂᆞᆫ 옥편ᄆᆞᆫ 펴고 보면 환 ᄒᆞ게 알지라

ㄷ. 주시경(1907), 국어와 국문의 필요, 《西友》 2, 서우학회.

… 영미 법덕은 ᄀᆞᆺᄒᆞᆫ 나라들은 한문을 구경도 못ᄒᆞ엿스되

5) Anderson(1991, 5장 Old Languages, New Models)에서는 민족어의 문법서, 사전 등을 생산한 교양 있는 언어 생산자들과 독자층이 민족 운동의 주요 주체가 되었던 유럽 민족주의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사전과 문법서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핵심 도구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뎌렷틋 부강ᄒᆞ믈 보시오 우리동반도 ᄉᆞ쳔여년 젼브터 ᄀᆡ국ᄒᆞᆫ 이쳔만즁 ᄉᆞ회에 날롯ᄃᆡ로 통용ᄒᆞᄂᆞᆫ 말을 입으로만 서로 젼ᄒᆞ던 것도 큰 흠졇이어ᄂᆞᆯ 국문 난 후 긔빅년에 ᄌᆞ뎐 ᄒᆞᆫ 칙도 만달지 안토 한문만 슝샹ᄒᆞᆫ 거시 엇지 붓그럽지 아니ᄒᆞ리오 ᄌᆞ금이후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히 녁이지 말고 힘써 그 범과 리치를 궁구ᄒᆞ며 ᄌᆞ뎐과 문법과 독복들을 잘 만들어 더 죠코 더 편리ᄒᆞᆫ 말과 글이 되게 ᄒᆞᆯᄲᅮᆫ 아니라 우리 왼 나라 사ᄅᆞᆷ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쥬쟝 글노 슝샹ᄒᆞ고 사랑ᄒᆞ여 쓰기를 ᄇᆞ라노라

(2ㄱ)의 리봉운은 역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통번역을 하면서 문명사회에서 국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반절’, 즉 국문의 이치를 잘 알게 하려면 반드시 ‘언문옥편’, 다시 말하면 국어사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ㄴ), (2ㄷ)의 주시경은 국문, 즉 한글의 중흥기를 대표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역시 이른 시기에 그가 깊이 관여한 독립신문 한글면에서 국어사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2.2 ‘조선말 큰사전 원고’ 편찬의 전개

여기서는 개화기부터 이후 식민지 상황에서 모국어를 지키고자 한 모국어 운동으로서의 큰사전 원고의 전개에 대해 사전 편찬을 주도했던 기관의 역사를 중심으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국어연구학회→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 한글모 시기 (1908~1917)

1894년 한글이 국문(國文)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1908년에 결성된 국어연구학회를 통해서 주시경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맞춤법 관련 내용들을 살폈고 국어 문법 체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실행하였다(이관규, 2024ㄴ 참조). 국어연구학회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학회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곧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다시 ‘한글모’(1913)로 바뀌게 된다.[6)]

국어연구학회-조선언문회-한글모의 사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6) 국어연구학회부터 시작하여 현 한글학회로 발전해 온 단계는 다음과 같다(이관규, 2024ㄱ : 384 참조).
ㄱ. 1단계: 국어연구학회(1908),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1911), 한글모(1913)
ㄴ. 2단계: 조선어연구회(1921), 조선어학회(1931)
ㄷ. 3단계: 한글학회(1949～현재)

국어연구학회 회의록과 조선언문회 규칙에서 제시된 회원의 임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7)]

(3) 국어연구학회 회의록 및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 규칙

ㄱ. 국어연구학회 회의록(1909. 9. 5.)

관립사범학교 교수, 부설보통학교 훈도, 사범학교 학생, 관립고등학교 학생, 사립학교 교사급학생, 기타 有志靑年이 다수 입회하다.

ㄴ. 국어연구학회 회의록(1909. 10. 24.)

제 회 총회를 사립청년학원 내에 개하다 고어, 방언 수집하기와 본회를 당국에 청인하자는 주시경 선생의 동의(動議)가 되다

ㄷ.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 규칙(1911. 9. 3)

제2조 本會는 朝鮮의 言文을 實行함을 目的함.

제9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一 입회 후 일년 내에 일천 종 이상의 조선어를 수집해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一 입회 후 오년 내에 자신의 전문 과학의 용어를 조선어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3ㄱ)은 일제 통합 전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회의록에 나와 있던 것인데, 당시에 우리 말글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즉 교수, 교사, 학생, 청년들이 입회를 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ㄴ) 회의록을 통해서는 고어, 방언 등 어휘를 수집하는 것을 학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다.

(3ㄷ)의 제9조에 나와 있는 회원의 의무 조항은 회원의 주요 임무가 입회 후 1년 내에 일천 종 이상의 조선어를 수집하여서 학회에 제출하는 것, 또한 과학 분야의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 후 5년 이내에 자기의 전문 분야의 용어를 조선어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학회가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휘들을 회원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큰사전 원고의 시작을 1908년으로 삼은 이유는 학회 초창기부터 각 분야의 회원들이 고어와 방언 등 각종 어휘를 수집하고(3ㄱ,ㄴ), 또 설립 목적으로 조선의 언문을 실행하는 것에 두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의 의무 조항이 조선말의 수집과 전문용어의 조선말 만들기에 있었다는 데

7) 이것들은 이규영 등이 만든 《한글모죽보기》(1917)에서 가져온 기록이다.

있다(3ㄷ). 국어연구학회 및 조선언문회의 이러한 정책은 이 조직의 최우선 목적이 일제 치하에서 모국어의 보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2] 조선광문회, 계명구락부, 조선어학연구회 시기 (1911~1937)

조선언문회의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사전 편찬 사업을 수행한 것은 조선광문회였고, 그 결과물인 말모이(1911~1914)는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한국어사전 원고로 평가되고 있다.[8] 조선광문회는 본래 일제가 진귀한 조선의 서적과 국보급 문화 유산을 일본으로 반출해 감에 따라 우리 말글로 된 고문서를 수집하고 고전을 간행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최남선, 박은식 등 뜻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10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는 훈몽자회, 용비어천가 등 중요 문헌을 지키고 보급하였는데, 여기서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을 중심으로 ‘말모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 1911년경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16년에는 ‘말모이’ 원고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이병근 1977, 김민수 1983 참조)

(4) 조선광문회, ‘말모이’(1911) 편찬 작업 시작

ㄱ. 김두봉(1916 : 220), 《조선말본》, 신문관 발행 예정 공고

사전 조선광문회 편찬 근간

조선시어 오만의 표준을 정하고 의의를 역한 것이니 조선유어 이후에 초유한 대저라 우리의 정신적 혈액이 종차로 일단의 생기를 가득할지니라

ㄴ. 김두봉(1916: 머리말), 《조선말본》

그러나 나는 아 말본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랴고는 아니하엿고 다만「말모이」만들기에만 얼을 받히엇더니 슬프다 꿈도 생각도 밖에 지난 여름에 우리 한힌샘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이답지 못한 사람이 이 말본가지 짓기에 이르엇도다

ㄷ. 동아일보(1926. 1. 2.)

… 혹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모도 민족운동으로 애를 쓰다가 벌서 백옥루 사람이 되여 책보통이를 엽헤 씨고 혹은 술병을 차고 호긔잇게 드나들던 녯날의 모양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업습니다. 그중에도 주시경 씨는『조선말모이』(조선어사전)의 첫

8)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말모이’가 1914년에 된 것인지 혹은 1916년에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주시경 선생이 사망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고 후자는 김두봉(1916)의 《조선말본》 끄트머리에서 신문관 발행 예정으로 공고되어 있는 ‘사전 조선광문회 편찬 근간’이라는 문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를 수북히 만들어노코는 그만 간다 온다는 말조차 업시 황천으로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한 구석에서 몬지만 쏘이고 잇담니다.

주시경의 수제자인 김두봉은 말모이 사전을 만드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되는 문법서인 「조선말본」(1916)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4ㄴ). 그 책의 광고면에는 (4ㄱ)의 '사전' 편찬 근간 광고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서 1916년에는 말모이 원고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ㄱ)의 광고 문구를 통해서 볼 때 '말모이' 편찬이 한민족 생기 회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전 편찬이 모국어 운동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4ㄷ)에서 나와 있듯이 1914년 7월 주시경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1919년에는 수제자인 김두봉이 중국 상해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고 이규명마저 이듬해에 타계를 하고 말아서 결국 완성된 '말모이' 사전이 출판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식민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선어사전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5) 계명구락부(1927) 및 조선어학연구회(1937)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 이전

ㄱ. 文化史上劃期的事業 朝鮮語辭典을 編纂
광문회에서 오년간 모도흔것을 게명구락부에서 게속 편찬할 터
(매일신보, 1927.6.9.)

ㄴ. 今日 啓明俱樂部에서 時日로 十一年 貨로 數萬圓을 費하야 語彙十數萬個가너믄 朝鮮語辭典을 編纂中 이른바 액김업시 本會에 編纂事業一切을 讓與케돼야 本會는 又復責任임이 重且大한디라. …

이제 大事業인 朝鮮語辭典編纂을引繼바든 本會는 李王殿下를 비롯 諸氏의 精神的物質的 성원에 奉答하랴고必死的 最善의 努力을다하야 朝鮮語辭典을世上에 發行키로 誓約하노라. (고재섭, 1937, '권두언')

(5ㄱ)은 당시 신문의 기사 제목인데 조선말 사전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5ㄱ)에 나와 있듯이 5년간 모아 놓은 조선말사전 '말모이'(사전)를 계명구락부 사업으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역시 최남선을 중심으로 1918년에 출발한 계명구락부는 본래 구락부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우리 문화 증진에 공헌하고자 한 일종의 사교 모임이었는데, 특별히 1927년에 이곳에

‘조선어사전’ 편찬부를 설치하여 2년 남짓 운영하였다. 최남선, 정인보, 이윤재, 임규 등이 ‘말모이’ 원고를 인수하여 조선어사전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재정적 이유 등으로 결국 사전을 내지는 못하고 만다.

이후 계명구락부에서는 1937년 조선어사전 편찬에 손을 떼고 박승빈 중심의 조선어학연구회에서 조선어사전을 내도록 양도하였다.[9] 조선어학연구회에서 발행한 《정음》 20호(1937) 권두언에는 이 사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진행해 온 십수만 개가 넘는 사전 집필용 어휘를 넘겨 받은 조선어학연구회에서는 반드시 조선어사전을 완성하겠노라 하는 다짐을 하고 있다(5ㄴ). 그러나 최남선 중심의 계명구락부 조선어사전 발간 실패에 이어서 이를 이은 박승빈 중심의 조선어학연구회의 조선어사전 발간도 결국 실패를 하고 만다. 가장 큰 이유는 문법 체계의 미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표음주의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적용했던 박승빈의 주장은 사전의 표제어를 특정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3] 조선어연구회 및 조선어사전편찬회 시기 (1921~1936)[10]

‘말모이’의 출판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시작은 조선어연구회 주도로 이루어진 조선어사전편찬회(1929)의 출범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19년 역사적인 3·1 운동 이후 소위 일제의 문화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의 정확한 法理법리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11] 사회 교화를 목적으로 1925년에 창간된 《신민》 잡지사에 소개된 조선어연구회의 주요 목적은 “文法 整理上 朝鮮語에 對한 辭典을 刊行하려 蒐輯에 努力 中(문법 정리를 위해 조선어에 관한 사전을 간행하고자 자료 수집에 힘쓰고 있음)”이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연구회의 주요 회원은 이병기, 신명균, 정렬모 등 모두 주시경으로부터 직접 사사한

9) 미발간으로 되어 있던 주시경, 김두봉 등의 ‘말모이’ 원고는 최남선이 주축이 되어 편찬 작업을 한 계명구락부의 조선어사전 편찬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고려대 도서관의 육당 문고 안에 그 육필 원고가 남아 있었다는 증언에 의한다. 고(故) 김민수 고려대 교수가 육당 문고 안의 관련 문헌들을 조사했었는데, 그만 도서관 직원이 그 육필 원고의 중요성을 모르고 상당 부분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최경봉(2019 : 142) 참조.

10) 조선어연구회의 창립 연도를 1919년으로 잡느냐 아니면 1921년으로 잡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민》 잡지의 기록에 따르면 1919년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한글》 창간호 휘보인 ‘편집부’에 따르면 1921년이라고 나와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관규(2024ㄱ : 385)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1)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의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이관규(2024ㄴ : 9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20년대 및 30년대초(1921.12.3.-1931.1.10.)의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13대 (1921.12.3.-1922/12?): 간사장: 임경재, 간사: 장지영, 최두선
18대 (1926.12.5.-1927.12?): 대표간사: 이병기, 간사: 신명균, 정열모
21대 (1930.1.6.-11931.1.10.): 간사장: 장지영, 간사: 이극로, 최현배

사람들이었다.

조선어연구회에서는 일제 치하에도 불구하고 1926년에 오늘날의 한글날인 가갸날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을 지켜왔는데, 1929년 가갸날 기념식에서는 교육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조선어사전편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08명의 사회적 인사들로 조직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전 편찬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다.

(6) "가갸날紀念盛大"(조선일보 1929. 11. 02. 1쪽)

"朝鮮語典編纂을 發起" "委員을 뽑아서 一任"

지난삼십일일(음구월이십구일)은 이제부터 삼년전인 병인년부터 우리 조선민족이 다가티 깃부게직힐 명절로 작정하고 해마다 직혀 나려오는『가갸날』이니 이날은 곳 우리 력사상 대성주 세종대왕 (大聖主世宗大王)께옵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우리에게 반포하여 주신 날이다 눈이 잇서도 보지못하고 뜻이 잇서도 펴지 못하든 우리로서 이글을 바듬으로부터 눈을 떠서 보게 되며 뜻을 펴서 나타내게 되니 이에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잇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래도 남의 아페 무엇을 내어 보인다면 인글 하나 박게는 업슬지니 이 긔념이야말로 뜻이 잇고 갑시 잇는 긔념일 것이라고 식자간에 깁히 생각하여 왓스나 올에 잇서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긔념을 거륵하게 하지 못하게 되매 한편으로 섭섭하나 조선어연구회원들과 교육계와 언론계의 여러분들이 그날 하오 닐곱시에 시내 수표정 조선교육협회회관(市內水標町朝鮮敎育協會會舘)에 모히어 조선어연구회원 중 신명균(申明均)씨의 개회사와 안재홍(安在鴻)씨의 축사로 간단히 축하식을 마치고 니어서 리극로(李克魯)씨의 발의로 우리가 이날을 축하식만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좀더 뜻이 잇고 힘이 잇게 우리글의 정리와 발전을 위하야 무슨 사업을 맨들어보자는 제의로 이에 딸아 우리글을 정리하고 발전식이랴면 무엇보다도 우리말의 사전을 급히 편찬하자고 하야 그자리에서 곳 조선어사전 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 발긔회를 열고 준비위원 리윤재(李允宰)씨로부터 경과보고를 하고 규약을통과한 다음 위원을 선거하야 모든 사무를 일임하고 폐회하엿다더라

(6)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10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선어사전편찬회는 "눈이 잇서도 보지못하

고 뜻이 잇서도 펴지 못하든 우리로서 이글을 바듬으로부터 눈을 떠서 보게 되며 뜻을 펴서 나타내게 되니”, “좀더 뜻이 잇고 힘이 잇게 우리글의 정리와 발전을 위하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문맹 타파의 수단으로서 한글을 더욱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한민족의 모국어 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졌다.[12)]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 조선어사전편찬회 당시 사전에 대한 염원과 재정적 후원과 관련된다. 당시 <조선일보>(1929년 11월 16일, 4쪽)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 21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상춘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7~8년 동안 수집해 두었던 사전 초고를 편찬회에 기증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원고의 양이 총 9만여 어휘에 달하며 총 페이지 수는 89,820쪽, 28권 분량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전 편찬회 측에서 깊은 감동과 경의를 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7) 이상춘의 어휘 자료 기증 (조선일보 1929. 11. 16. 4쪽)
“우리사전의 태반!” 10년간 쌓은 9만여 어휘를 이씨 편찬회에 제공

이를 통해 볼 때에도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개인과 공동체, 민족 전체의 염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어사전 편찬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는데, 1929년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모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위해 ‘조선어사전편찬후원회’(1936)가 결성되었다. 회장인 이우식 등을 비롯한 11명의 회원들이 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4] 조선어학회 시기 (1936. 3. 19.~1949. 9. 5.): 전담

12) 1929년에 결성된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임원 명단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1929년 위원(21명)
박승빈, 유억겸, 최두선, 안재홍, 주요한, 이시목, 정인보, 방정환, 이광수, 로기정, 권덕규, 최현배, 장지영, 이상춘, 이병기, 김법린, 정열모, 이중건, 신명균, 이윤재, 이극로 (밑줄은 조선어학회 회원)
ㄴ. 1929년 상무 위원(6명)
경리부: 이중건, 편집부: 이극로, 연구부: 최현배
조사부: 신명균, 교양부: 정인보, 출판부: 이윤재
ㄷ. 1931년 1월 16일 집행부
회장: 이우식
간사: 이극로(간사장), 이중건, 신명균, 최현배, 이윤재
ㄹ. 1931년 추가 위원
김병규, 김상호, 김윤경, 김철두, 명도석, 백남준, 윤병호, 이만규, 이순탁, 이우식, 이형재, 이희승, 조만식

조선어연구회는 1931년에 이르러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조선어 연구와 실천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다. 조선어연구회가 특히 중점을 두어 온 사업은 조선어사전 편찬이었는데 1929년에 만들어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사업이 1936년 명실공히 조선어학회의 업무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는 1936년 3월 3일 사전 편찬 후원회가 결성된 것과 시점을 같이한다.

(8) 조선어사전 편찬 업무 이관 및 집필 위원
ㄱ. 1936. 3. 19. 조선어사전 편찬 업무가 조선어학회로 이관됨.
ㄴ. 편찬 전임 집필 위원: 이극로, 이윤재, 이중화, 정인승(1936. 4.)

(8ㄴ)에 제시된 대로 사전 편찬 전임 집필 위원으로 이극로, 이윤재, 이중화, 정인승이 맡았다. 정인승은 학회의 살림을 맡아서 하던 최현배의 요청으로 합류하였는데, 그는 1957년 최종《큰 사전》6권이 완성될 때까지 편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편찬원 이윤재와 김윤경 이사가 잡혀 들어가게 되어 그때부터 정인승의 책임하에 구체적인 사전 편찬 일이 이루어졌다. 수양동우회 사건은 이후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함께 일제가 조선의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을 탄압하여 검거한 사건으로, 사전 원고 집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에 조선말 큰사전 원고 가운데 1/3에 대해 총독부로부터 출판 허락을 받게 되었다. 당시《한글》에 전하는 사전 편찬 관련 대담을 아래에 제시한다.

(9) 사전 편찬 문제 문답기: 1기자(11~14쪽) (《한글》 제51호(1937. 12.))
ㄱ. 기자: 지금 일의 진행은 어떠한 정도까지나 되었습니까?
편찬원: 초대 사전으로서의 전체 작업 과정으로 본다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맞춤법 문제와 표준어 문제, 이 두 가지 큰 과제가 원만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어휘 수집도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각 어휘에 대한 **주해(설명)**도 초벌 주해는 최근까지 전부 끝마쳐져서 모두 “카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어휘별 주해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ㄴ. 기자: 참,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하시는 일은 순전히 주해 정리의 일만 남은 셈인가요?
편찬원: 어찌 그것뿐일 수 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가장 힘든

> 일이 주해 정리이고, 전체 사업 차원에서도 아직 남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주해 작업 외에도, 수년간 조사하고 심리해온 과제로는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규정 마련, 문법 관련 사항의 표시 방식 확립, 그리고 각 전문 분야의 어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작업 등도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대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의 성공 비결이 외래어 표기법, 문법 정비, 표준어 문제 등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말모이> 이후 최남선 주도의 계명구락부 편찬부 작업과 박승빈 주도의 조선어학연구회 편찬 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함에 비해서, 조선어학회는 그러한 표기법과 문법 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전 편찬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조선어학회는 조선말 사전 편찬을 목표로 해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말 표준어 모음’(1936),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40)을 완성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중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은 오늘날 한글 맞춤법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문법 체계 또한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1910),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1922), 최현배의 《우리말본》(1929, 1937) 등이 이론적 토대를 이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제 치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1940년 총독부로부터 ‘조선말 큰사전’이 일부 출판 허락을 받은 이후 제1판 조판을 마쳤는데, 출판 직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하였다. 1942년 10월 1일부터 33인의 조선어학회 관련 인사들이 기소되었고, 또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학회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물로 채택되어 일본 경찰에 압수되고 말았다. 학회의 모든 업무는 멈추었으며 더 이상 사전 원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이 되고 그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광복 이후 조선어학회가 재건된 다음 바로 조선말 큰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새로이 조선어학회 편찬원을 꾸리게 된다. 간사로 세 사람이 수고를 하였는데, 특히 학회의 대표로서 이극로가 건재했으며 옥사한 이윤재의 사위인 김병제가 합류하였고, 사전 편찬의 책임자로는 역시 정인승이 맡았다. 광복 전부터 편찬원 일을 하였던 이중화, 정태진이 복귀하였고 새로이 권승욱, 한갑수, 이강로, 신영철, 정희준, 유열, 김진억, 김원표, 안석재, 최창식, 유제한, 한병호 등 많은 이들이 편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에 역사적인 《조선말 큰사전》 제1

권이 출판되었다.[13)]

3.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문화적 가치

3.1. 사전을 통한 모국어 운동으로서의 위상

이 장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제작 동기와 주체, 파급 효과 등이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또 Anderson(1991) 등에서 언급된 서양의 민족주의 기반의 사전학적 혁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사전=언어 연구’라는 등식은 적절치 않지만, 언어학 관련 연구에서 사전만큼 많은 변화를 거친 분야가 매우 드물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전학적 혁명(lexicogrphic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Anderson(1991) 이후, 좀 더 사전학적 관점에 집중된 많은 연구에서 사전과 관련된 주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술 혁명과 말뭉치 혁명, 디지털 혁명 등으로 논의하거나(Hanks 2012, Rundell 2012, Trap-Jensen 2018), 이러한 혁명 이전, 16~19세기 사이의 중소 사전의 편찬 동인을 인간 문화사와 지성사의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Considine 2017). 이러한 방대한 논의들은 사전학사에서 각각 하나의 주제로 논의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나 변화이지만, 여기서는 시기적으로나 동기의 관점에서 가장 유사한 혁명으로 논의되는, 사전과 민족주의 형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특성을 문화적 가치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Anderson(1991)은 서구의 민족주의 형성 과정에서 인쇄 자본주의와 함께 도입된 사전의 편찬과 문법서의 발간을 일종의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술하면서 이것이 전 유럽을 관통하는 상당히 보편적 사건임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10) 이러한 사전학적 혁명은 마치 불붙은 무기고에서 각종 작은 폭발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점점 커지는 굉음이 결국 밤을 낮으

13) 《조선말 큰사전》은 전체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7년 10월 9일 한글날에 마지막 제6권이 《큰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완간되었다. 그때 한글학회에서 편찬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다음과 같다. 정인승은 1936년 4월부터 1957년 10월 마지막까지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직접 관리하고 집필했던 역사적 인물인 셈이다.

편찬원: 정인승, 권승욱, 유제한, 이강로, 김민수
고문: 정인서
교정원: 한종수, 이승화, 정재도

로 바꿔버릴 정도의 거대한 불길로 번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Anderson 1991 : 72)[14]

Anderson(1991)은 정부나 일부 관료 등이 인쇄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가적 표준어를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사전을 편찬했던 이러한 전통이 1789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전역에서 본격화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림 사전』(1852~1961), 옥스퍼드 영어사전(1884~1928), 스웨덴 학술원 사전(1898~) 등은 언어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언어 공동체가 민족국가 형성의 주체로 자리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이러한 사전 편찬을 ‘혁명’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전 전통과의 단절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전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등 종교적, 학술적 목적에서의 사전에서 국민 국가 건설과 표준어 확립이라는 새로운 동기의 사전 편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술적 언어 도구에서 ‘집단 정체성의 매체’로의 전환이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이라는 점도 ‘사전 편찬의 혁명’이라는 과감한 용어 선택을 뒷받침한다.[15]

이러한 근대국가 시기 사전 편찬의 세계 보편적인 현상에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편찬 동기의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구에 비해 다소 늦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한국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사전 편찬 동기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어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주도의 민족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19세기 유럽의 정치적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19세기 유럽의 사전 편찬은 이러한 혁명을 주도하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이나 집단의 권력 강화, 국가 통합과 중앙집권화를 위한 것이었던 반면,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제작은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 수호와 문화적 저항을 위한 모국어이자 민족어 보존 운동과 관련된다. 이는 ‘독립권리와 자주사무’를 위해 한글 사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리봉운 1897), ‘한문 중심의 언어생활에서 국문 생활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사전 편찬의 주장(주시경 1907),

14) Anderson(1991)의 초판본 Anderson(1982)와 동일 시기의 저술인 Ong(1982)에서도 인쇄문화가 언어를 고정하고 집단 기억 양식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사전을 인쇄문명의 산물로 기술하고 있다. 사전학 밖의 영향력 있는 두 저술이 모두 인류 역사에서 ‘사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큰사전 원고’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15) 다소 늦은 시기이자 Diccionari català-valencià-balear: inventari lexicogràfic i etimològic de la llengua catalana. 『카탈루냐어-발렌시아어-발레아레스어 사전: 카탈루냐어의 어휘 목록 및 어원 사전』. (1926~1962)

아래 조선어학회의 민족 갱생을 위한 사전 편찬의 주장 등의 일제 강점기 하의 사전 편찬 운동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1)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밑줄 필자)

- 한글 제31호, 조선어학회, 1936

둘째로,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의 사전 편찬사와의 비교를 통해 ‘큰사전 원고’의 특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rrington(2007), Kulkarni(2009), Amirell(2023) 등에서 논의된 식민지 지역 국가의 사전 편찬의 경향은 대체로 지배 국가의 통치 편의나 선교 목적으로 제작되어 이중언어사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사전 편찬의 주체 역시 일반 민중이 아니라 지배 국가의 행정가나 선교사 등 외부 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논의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제작된 이중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 사전이 논의되었는데, 당초 사전 편찬의 동기 또한 식민 통치와 선교에서 시작된 경우가 일반적이다.[16] 하지만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경우는 식민지 시기 행정 권력이나 선교자 즉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따라서 이중언어사전이 아닌 모국어 단일어사전의 형태라는 점이 매우 특수하다. 이와 같이 큰사전 원고의 편찬 의도가 언어 주권의 확립에서 비롯되었고, 지식인과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큰사전 원고’의 편찬이 사전편찬을 중심으로 수행된 모국어 운동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2. 현대 사전학의 관점에서의 평가: 사용자의 역할과 표제어의 범위

여기서는 큰사전 원고의 편찬 주체가 식민지 당국이나 행정 주체가 아닌 국어학자와 교육자를 비롯한 ‘대중(민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편찬 과정에서 전국적 어휘 수집 운동(학생·교사·일반인 동원)이 표제어 구성에 중요한

16) Sear & Turin(2021), Quỳnh(2022), Errington(2007), Amirell(2023) 등에서는 식민국가의 사전 정책이나 사전의 역사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식민 당국의 행정 통치와 선교 목적의 이중언어사전에 대해서 소개되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으나 식민국가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중의 주도로 진행된 단일어 사전 편찬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할을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세계 사전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특수성 가운데 사전 사용자, 즉 대중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사전학에서 대중, 즉 사전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전 편찬에서 사용자의 참여는 온라인 사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2장의 기록에서 전하는 큰사전 원고에서 일반 대중의 역할, 즉 표제어 수집에서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논의하기 위해 Abel et al.(2013)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 기여	간접적 기여	보조적 기여
개방형 협업사전에 대한 사용자 기여	명시적 피드백: 양식 기반, 자유 형식	사용자 간의 교류
제도적 협업사전에 대한 사용자 기여	비명시적 피드백: 로그 파일 분석, 외부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전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교류: 단방향 소통, 양방향 소통
준협업사전에 대한 기여		

<표1> Abel et atl.(2013)의 온라인 사전의 사용자 기여의 유형

위 <표1>은 온라인 사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사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기여를 ‘직접적 기여’, ‘간접적 기여’, ‘보조적 기여’로 정밀하게 구분한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Abel et al.(2013)에 의하면 보조적인 기여는 사전 제작자가 관련된 블로그나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사용자들끼리 사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큰사전’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접적 기여와 간접적 기여를 중심으로 ‘큰사전’ 원고 작성 과정에서의 대중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 작성에서 대중은 표제어의 수집, 즉 사전의 거시구조 형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Abel et al.(2013)의 직접적인 기여 중 세 번째 항목인 ‘준협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준협업’은 ‘큰사전’ 원고의 표제어 수집 단계에서 사용자의 표제어 수집 이후 최종 편찬자의 표제어 선정과 기술이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잘 부합한다. 2장에서 논의된 조선언문회의 규정(1911)을 살펴보면, 큰사전 원고 표제어 수집을 위해 당시 회원들에게 표제어 수집 의무를 부여했고, 그 이후 《한글》지를 통해 7년간 방언을 수집한 기록, 전문 분야의 위원들의 전문용어 수집 등에 대한 기록은 최초의 대사전 원고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찬

주체에 '대중'의 기여가 필수적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표제어 수집이 현대판 사용자의 크라우드소싱 작업의 기원으로 논의되는 19세기 OED에서의 사용자의 작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즉 OED에서의 사용자 참여는 사전편찬자가 원하는 표제어의 인용문을 수집하는 것으로, 표제어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았다.[17] 이는 <표1>의 간접적인 사용자 기여, 즉 사전 사용자들이 사전 제작자에게 제안, 수정 사항, 보충 자료, 사용 데이터 등을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일치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편찬자가 원하는 인용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반면 '큰사전' 원고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 최초의 한국어 대사전 편찬을 위해 수십 년간 표제어 수집을 사용자에게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거시구조가 사용자가 추천한 생활어휘, 방언, 전문용어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인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표제어의 선정 범위와 규범 문법의 정립 과정도 근대 민족주의에서 지향되었던 사전 편찬의 특성과 다소 변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근대 민족주의 형성 과정에서의 문법서나 사전의 편찬은 주로 표준어나 공통어의 위상을 강조하고 방언과 표준어가 일종의 '불순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18] 반면, 큰사전 원고의 제작은 이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사정한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0) 등 규범의 제정과 동시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고어 등 민족어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을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래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편찬회는 사전 편찬의 기초 자원이 되는 어휘 수집을 목표로 전국의 방언(사투리, 이후에는 시골말) 채집을 계속해 왔고, "시골말 캐기 운동"(1935~1942)은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12)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각 지방 방언을 수집하기 위해, 사오년 전부터 부내 각 중등학교 이상 학생을 총동원해 하기 방학 시 귀향하는 학생에게 방언을 수집하였던 바, 이미 수집된 것이

17) OED는 1857년 Philological Society of London에서 시작되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던 작업 중에 1879년 Oxford University Press의 인수 이후 스코틀랜드의 학교 교사이자 언어학자인 제임스 머리(James Murray)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8) 이에 대한 기술은 다음의 Wogan(2018 : 4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 illusion of national community based on a certain linguistic standard, the hegemonic standard promoted in print products like dictionaries and grammar manuals. Just as these language standards claim neutrality, « a view from nowhere » removed from dialects and other impurities, Anderson has created a similar picture of the nation and standardized print." 한편 Trap-Jensen(2018)에서는 이러한 규범어 중심의 전통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언어 그대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술 혁명'이라고 칭하고 있다.

> 만여 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장차 정리하여 사전 어휘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방언 조사란을 특설하였으니, 누구 시든지 이 난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한글 제27호, 조선어학회, 1935

시골말 캐기 잡책 (출처: 한글학회)

조선어학회는 <한글>의 독자들이 자기 지역의 사투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물로 각지에서 보내온 사투리를 잡지에 싣는 방식으로 이러한 운동을 확대하였다. 당시 <한글>의 편집장이던 최현배는『시골말 캐기 잡책』전용 수첩을 만들었고, 전국 14개 학교 5백여 명의 초등·중학생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언 표제어의 수집은 초장기에는 국어연구학회 회원들이,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 구독자들로 이어졌으며, 국어학자 외에 물리, 화학, 식물학, 수학, 곤충학, 문학, 속담, 은어, 철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말 큰사전이 식민지 상황에서 특정 표준어나 규범을 강제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폭넓은 민족어 보존과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전의 모국어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한다. 즉 서구의 근대 민족주의의 사전이 주로 행정 권력과 아카데미, 자본이 주체가 된, 위에서 아래로의 사전 편찬이었던 반면,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민중의 주체적 기획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준어-방언의 위계보다, 방언·고어, 전문용어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표제어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모국어 운동으로서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세계 사전학적 위상을 평가하게 한다.

4. 결론

언어는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대 민족국가 수립 시기에나 식민지 시대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모두에서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수립과 동질성의 확보에 중요한 도구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전과

문법, 표준어, 어문 규범은 모두 중요한 하위 수단 중의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한국어 대사전이 식민지 시기에 편찬된 과정을 문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큰사전 원고의 편찬 시작 시점과 전개 과정, 편찬 과정에서의 지식인과 대중의 역할, '사전'을 통한 모국어 운동으로서의 특수성과 가치 등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들이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의와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구 민족국가 수립 시기의 사전 편찬 운동과 유사 시기의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이중언어사전 편찬 과정도 검토하였다.

세계 사전학사적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근대국가 성립 시기 '언어'에 대한 민족적 인식이 상당히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에 '사전'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특히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전을 편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특히 모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은 향후 세계 사전학계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논의될 만하다. 이러한 논의가 더 많은 논문 등 저술에서 유사 시기 타 언어의 사전 편찬 사례가 함께 비교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사례는 사전학 밖에서 사전학적 혁명을 살핀 Anderson(1991)이나 Ong(1981) 등의 역사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도 고찰될 필요가 있는데, 향후 큰사전원고의 연구가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지식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전학적 연구의 확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고영근. 1983. 「개화기의 국어연구단체와 국문보급활동(1907~1917) -「한글모죽보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1). 일지사. 83～127쪽.

고재섭. 1937. 「조선어사전 편찬을 인수하면서」, 정음 20. 조선어학연구회. 1~8쪽.

국립중앙박물관. 2008. 《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김두봉. 1916. 《조선말본》. 『역문』 22.

김두봉. 1922. 《깁더 조선말본》. 『역문』 23.

김민수. 1977/1986. 《주시경 연구》. 탑출판사.

김민수. 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1~54쪽.

김민수. 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1~53쪽.

김민수. 1990.「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연혁」, 주시경학보 5. 주시경연구소. 50~74쪽.
남길임. 2024.『큰 사전』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의미 단위로서의 ‘종합용어’를 중심으로-」, 한글 85(2). 277~307쪽.
리봉운. 1897.「셔문」,《국문졍리》.『역문』③2.
박병채. 1977.「1930년대 국어학 진흥운동」, 민족문화연구 1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47쪽.
신민사 편집부. 1927.「재경성 중요 단체 현상 조사」, 신민 23. 신민사. 47~73쪽.
유제한. 1955.「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一)」, 한글 110. 한글학회. 43~49쪽.
유제한. 1957.「“큰 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한글학회. 32쪽.
유제한. 1982.「생각 나는 몇 가지 일」, 한글 새소식 121. 한글학회.
유춘동. 2021.「『조선말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 근대서지 23. 근대서지학회. 665～678쪽.
이관규. 2024ㄱ.「개화기 국어연구학회의 활동과 창립 의의 -‘한글모죽보기’를 중심으로-」, 한글 84(1). 한글학회. 381~413쪽.
이관규. 2024ㄴ.「광복 이전『한글』에 나타난 맞춤법 논의에 대한 연구」, 한글 84(4). 한글학회. 975~1027쪽.
이규영 외. 1917.《한글모죽보기》. 필사본.
이규영. 1916~1919.《한글적새 말본》. 필사본.
이병근. 1977.「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67~84쪽.
이상각. 2013.《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조선어학회, 47년간의 말모이 투쟁기》. 유리창.
이윤재. 1936.「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31. 조선어학회, 3~5쪽.
이춘경. 1937.「사전은 문명의 표식」, 정음 20. 조선어학회. 9~13쪽.
정인승. 1957.「“큰 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25쪽.
정인승·권승욱·이강로·유제한·김민수. 1957.「“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한글학회. 22~33쪽.
정재환. 2020.《나라말이 사라진 날: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의 말모이 투쟁사》. 생각정원.
조선어학회 편집부. 1932.「본회중요일지(삼년 이래의 일)」, 한글 창간호. 한글학회. 37쪽.
조재수. 2021.《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우리말 거두기와 정리의 역사》. 한글학회.
조태린. 2024.「『큰사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한글 85(1). 한글학회. 131~157쪽.
주시경. 1897.「국문론」,《독립신문》2권 114호(1897. 9. 25.).
주시경. 1906.《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주시경. 1907.「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 2. 서우학회.
주시경. 1910.《국어문법》. 박문서관.
최경봉. 2005/2019.《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 2021.「'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사전화 과정과 사전학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9~47쪽.
최현배. 1929.《우리말본(소리갈)(첫째매)》. 연희 전문 출판부.
최현배. 1937/1955.《우리말본》. 샘문화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6.《역사채널e. Vol.10 [비디오녹화자료]》. EBS미디어센터.
한글학회. 1971.《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한글학회. 2009.《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한용운. 2019.「현대 국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그 특징 -『큰사전』을 중심으로-」, 한글 80(3). 한글학회. 659～686쪽.
허재영. 2009.「국어사전 편찬연구사」, 한국사전학 13. 한국사전학회. 286~312쪽.
홍종선. 2012.「『겨레말 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 295. 한글학회. 135~161쪽.

Abel, A., & Meyer, C. M. 2013. The dynamics outside the paper: user contributions to online dictionaries. In W I. Kosem, J. Kallas, P. Gantar, S. Krek, M. Langemets, & M. Tuulik (Red.), *Electronic lexicography in the 21st century: Thinking outside the paper*. Proceedings of the eLex 2013 conference. pp. 17~19.
Amirell, S. E. 2023. Nationalism, colonialism and decolonisation in Southeast Asia: The rise of emancipatory nationalism.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Nationalism in East and Southeast Asia*. pp. 361~374. Routledge.
Bertulessi, C. 2020. Lexicography and Ideology in Modern China. In P. Durkin (Ed.), *The Oxford Handbook of Lexicography*. 493-508. Oxford University Press.
Coleman, J., & McDermott, A. (Eds.). 2005. *Historical Dictionaries and Historical Dictionary Research*. Niemeyer.
Considine, J. 2013. Researching historical lexicography and etymology. In H. Jackson (Ed.), *The Bloomsbury Companion to Lexicography* (pp. 148~164). London: Bloomsbury
Considine, J. P. 2017. *Small dictionaries and curiosity: Lexicography and fieldwork in post-medieval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Daniel, R. 2023. Standardization and vitality: The role of linguistic purism in preventing extinction.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47(2). pp. 182~207.
Dolezal, F. T., & Van de Velde, F. 2022. Broadening perspectives in the history of dictionaries and word studies. In F. T. Dolezal & F. Van de Velde (Eds.), *Broadening Perspectives in the History of Dictionaries and Word Studies*. John Benjamins. pp. 1~18.

Errington, J. 2007. Linguistics in a colonial world: A story of language, meaning, and power. John Wiley & Sons.

Kahane, H., & Kahane, R. 1992. Sociolinguistics and Lexicography. In H. Tommola, K. Varantola, T. Salmi-Tolonen, & J. Schopp (Eds.), Euralex *'92 Proceedings (pp. 1~10)*.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Kulkarni, M. 2009. Lexicography and Linguistic Identity in Colonial Maharashtra.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Language and Identity.* pp. 49~54.

Magga, O. H. 2012. Lexicography and indigenous languages. In *Proceedings of the 15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pp. 3~18.

Nam, K., Lee, S., & Jung, H. Y. (2025). Korean Lexicography. In P. Milin & H. Nesi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3rd ed.). Elsevier.

Ong, W. J.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Methuen.

Perea, M. P. 2017. *The Diccionari català-valencià-balear: past, present and beyond.* Dialectologia: revista electrònica, pp. 1~6.

Quỳnh, Z. M. 2022. Quốc Ngữ: The Shackle that Became the Sword. diaCRITICS, *Diasporic Vietnamese Artists Network*. DVAN.

Rundell, M. & Stock, P. 1992. "The Corpus Revolution." *English Today, 8(2)*, pp. 9~14; 8(3), pp. 21~32; 8(4), pp. 45~51.

Rundell, M. 2008. "The Corpus Revolution Revisited." *English Today, 24(1)*, pp. 23~27.

Sear, V., & Turin, M. 2021. Locating criticality in the lexicography of historically marginalized languages. *history of humanities, 6(1),* pp. 237~259.

Trap-Jensen, L. 2018. Lexicography between NLP and Linguistics: Aspects of Theory and Practice. In Proceedings of *the XVI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Lexicography in Global Contexts*. Ljubljana: Ljubljana University Press. pp. 25~37.

Wogan, P. 2018. "Reading, Writing and Imagining the Kurdish Nation." In *OpenEdition Books.*

Zgusta, L. 2006. *Lexicography Then and Now: Selected Essays*. Niemeyer.

<사전류>

Alcover, Antoni Maria & Moll, Francesc de Borja. *Diccionari català-valencià-balear: inventari lexicogràfic i etimològic de la llengua catalana.* Palma de Mallorca: Editorial Moll, 1926~1962.(알코베르, 안토니 마리아 & 몰, 프란세스크 데 보르하. 『카탈루냐어-발렌시아어-발레아레스어 사전: 카탈루냐어의 어휘 목록 및 어원 사전』. 팔마 데 마요르카: 몰 출판사, 1926~1962.)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조성과 수정 맥락
—사전편찬사와 근대 어문정리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kbchoi2001@hanmail.net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이하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을 살펴보면서, 『원고본』의 의미를 사전편찬사와 근대 어문정리사의 차원에서 서술할 것이다.

『큰 사전』과 관련한 논의는 그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지만, 그 『원고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최경봉(2021)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본격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원고본』과 『큰 사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최경봉(2021)에서는, 개괄적 소개에 머문 이전 논의와 달리, 『원고본』의 조성 및 수정 맥락과 더불어 『원고본』의 수정 과정을 면밀하게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시금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을 살펴보려는

1) 김민수(1973 : 82~85), 최경봉(2016 : 351~355), 최경봉(2017 : 53~57) 등에서 『원고본』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최경봉(2021)이 『원고본』의 자료적 성격 및 출판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전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면서, 사전편찬사 및 근대 어문정리사의 맥락에서 『원고본』의 조성 및 수정의 의미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다음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최경봉(2021)의 논의를 심화·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원고본』과 『말모이』의 관련성 여부, 『원고본』과 『조선어사전』(1938)의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원고본』의 사전편찬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고에서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 표준말 모음집』,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 조선어학회 어문규범화 사업의 결과물이 『원고본』에 어떻게 반영되어 『큰 사전』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원고본』의 어문규범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본고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언어정화 운동의 지침서였던 『우리말 도로찾기』(1948)가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언어운동사에서 『원고본』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원고본』의 사전 편찬사적 의미

2.1. 『말모이』와 『원고본』의 연관성

최경봉(2025)에서는 『말모이』와 『조선어사전』(1920)를 대상으로 접두사 '가(假)-'가 포함된 어휘의 수록 양상을 비교하면서, 학습용 실용사전으로서 『말모이』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2] 여기에서 밝힌 것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말모이』에만 실린 어휘가 이후 편찬된 국어사전에서 부분적으로 계승된 반면, 『조선어사전』(1920)에만 실린 어휘는 거의 대부분 계승되었다는 사실이다.[3]

(1) 『말모이』에만 실린 올림말의 계승 양상

ㄱ. 계승되지 않은 말:

2) 최경봉(2025)에서는 『말모이』가 학습용 실용사전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구관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백과사전과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을 위한 이중어사전의 용도로 편찬된 『조선어사전』(1920)과 대비된다고 하였다.

3) 『말모이』에만 실린 어휘는 18개이고, 『조선어사전』(1920)에만 실린 어휘는 23개이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1920)에 모두 올림말로 수록된 '가(假)-' 포함 어휘의 수는 13개이다.

가관(假管)/가도사(假都事)/가모긔(假母器)/가피층(假皮層)

ㄴ.『조선어사전』(1938)부터 실린 말:
가분수(假分數)/가정(假晶)/가집힝(假執行)/가집힝션언/
가차압(假差押)/가쳐분(假處分)/가출옥(假出獄)

ㄷ.『큰 사전』부터 실린 말:
가두(假痘)/가미장(假埋葬)/가엽(假葉)/가장(假裝)

ㄹ.『국어대사전』(1961)부터 실린 말:
가감역(假監役)/가근(假根)/가죵피(假種皮)

『조선어사전』(1920)에만 실렸던 어휘들은 '假啣(가함)'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어사전』(1938)에 그대로 계승되면서, 『큰 사전』(1957)과 『국어대사전』(1961)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에서 볼 수 있듯이, 『말모이』에만 실린 올림말은 4개의 어휘가 계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의 어휘도 『조선어사전』(1938)에 일괄적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조선어사전』(1938)에 7개가 수록된 후 『큰 사전』에 4개가 추가되고 그 이후 출간된 『국어대사전』 3개가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록 양상은 『말모이』가 이후 사전편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참고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말모이』와 『원고본』의 연관성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말모이』 편찬자 중 권덕규가 '조선말 큰 사전 편찬위원'으로 편찬 사업에 참여했고, 김두봉이 망명 중에도 조선어사전편찬회에 사전 편찬과 관련한 조언을 했었음을 감안하면, 『말모이』에서 구상한 사전의 구조와 사전 편찬의 문제의식은 『큰 사전』의 편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즉, 『말모이』가 용례를 수록하고 용례에 근거하여 의미 항목을 구분한 점, 형태주의 표기법을 유지한 점, 전문어의 수록과 풀이를 중시한 점 등에서 『말모이』와 『원고본』의 연관성을 짐작하는 것이다.

2.2. 『조선어사전』(1938)과 『원고본』의 연관성

『큰 사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조선어사전』(1938)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고, 『조선어사전』(1938)이 출판된 뒤에 『원고본』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어사전』(1938)과 『원고본』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두 사전의 편찬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은 두 사전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유사성은 비슷한 문제의식과 사전편찬방법론을 공유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차이점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는 사전으로서 차별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영향 관계를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거시구조적 측면에서는 표제어 선정과 배열에서의 영향 관계가 두드러지고, 미시구조적 측면에서는 뜻풀이와 용례 및 관련어 정보 기술이 두드러진다.

『조선어사전』(1938)의 표제어 선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문어[4]나 방언은 수록한 반면 고유명사는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어사전』은 언어사전으로서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전이라 할 수있다. 이는 편찬자인 문세영이 이 사전의 역할을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편찬 중이었던 『큰 사전』과 다르게 설정하고 사전의 규모와 형식을 조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올림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조선어사전』(1938)의 올림말이 『큰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사례 중 상당수가 수정 전 『원고본』에는 수록했었다는 사실이다. 다음 올림말들은 『조선어사전』(1938)과 수정 전 『원고본』에 수록되었지만,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삭제한 것이다.

(2) 불경죄(不敬罪), 불경기(不景氣), 불경지설(不敬之說), 불로하다(不老-), 불탈주인석(不奪主人席), 붕(崩), 비야사(飛也似), 외뢰(魂礧), 자손선선(子孫先先), 자자(藉藉), 지차불선(只此不宣), 탈속반(脫粟飯), 탑연(嗒然), 탑용(闟茸), 까끼춤, 외김치, 잠주정(-酒-), 잡수시다, 찍소리못하다, 찍소리없다,

위의 예들은 『원고본』 조성 당시는 『조선어사전』(1938)과 『원고본』의 올림말 선정 기준이 유사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는 곧 수정 과정에서 어휘 평정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사전』과 『조선어사전』(1938) 간 올림말의 차이가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성은 올림말의 배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사전』(1938)의 올림말 배열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접두사나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를 별도의 올림말로 배열하지 않고 접두사와 어근 명사의 뜻풀이 뒤에 부표제어 형식으로 배열한 점이고, 둘째는 단어와 관용구를 독립적인 올림말로 각각 배열하고 있다는 점

4) 전문 분야는 '동물, 식물, 광물, 의학, 약학, 문법, 수학, 물리학, 화학, 법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논리학, 경제학, 천문학, 지문학'으로 나누었다.

이고, 셋째는 한 음절 내에서 예사소리 배열이 끝난 뒤에 된소리를 배열하는 방식(한 음절 내에서 ‘ㄱ’ 부분 올림말 배열이 끝난 뒤에 ‘ㄲ’ 부분 올림말을 배열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때 『조선어사전』(1938)의 첫째 특징은 『원고본』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러나 둘째 특징은 수정 전 『원고본』에서 확인되지만 수정 과정에서 달라졌으며, 셋째 특징은 『원고본』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배열 방식이다.

(3) 관용구의 처리 방식에 나타난 영향 관계

ㄱ. 『조선어사전』에서 관용구의 처리

【왼빚】 名 「외상」(外上)의 옛말.

【왼:-새끼-꼬:다】 句 매우 근심하다.

【왼:-세:상:】 名 「온세상」과 같음.

【왼:-소리】 名 사람이 죽은 소문. 이 말을 들으면 부녀들은 그날(사람이 죽은 날) 바누질을 아니하는 풍속이 있음.

ㄴ. 수정 전 『원고본』에서 관용구의 처리

왼=새끼 (名) 외로 꼰 새끼.

왼새끼를 꼰다 (句) 퍽 걱정스러운 일이 어찌 될른지 궁금하다는 말.

《왼새미로 (副) =온새미로.

《왼=세상 (名) =온 세상.

왼소리 (名)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 듣다]

ㄷ. 수정 후 『원고본』에서 관용구의 처리

왼=새끼 (이) 외로 꼰 새끼. 왼새끼를 꼰다 (마디) 퍽 걱정스러운 일이 어찌 될른지 궁금하다는 말.

《왼새미로 (엊) =온새미로.

왼소리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를 들었다]

『원고본』에서의 관용구 처리 방식을 보면, 『원고본』이 관용구를 단어와 동일하게 독립적인 올림말로 처리하다가, 수정 단계에서 관용구의 구성어에 딸린 부표제어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고본』이 조성될 시기에는 관용구의 배열이 『조선어사전』(1938)과 동일했지만, 수정 단계에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본』에서 관용구를 독립적인 올림말로 다루다가 구성어에 딸린 부표제어로 바꾼 수정 방향은 『원고본』에서 복합어 배열 방식을 수정한 방향과 다른 면이 있다. 『원고본』 중 ‘ㄱ 자모 올림말’ 일부에서는 복합어

올림말을 어근 올림말 아래 제시하고 있다.

(4) 수정 전『원고본』에서 복합어 올림말의 배열 방식

ㄱ. 가뜩 「副」“가뜩이나”의 준말. [- 죽을지경인데, 흉년까지 들었다.] -=에 「副」그 위에 또. 엎치기에 덮치기로.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 너까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나 「副」이미 있는 사정만으로도 극도로. (…)

ㄴ. 가계(家計) 「名」가정(家庭)의 생계(生計). -=경제(家計經濟) 「名」가정생활에 관한 경제. -=부(家計簿) 「名」한 가정의 생계(生計)의 수지(收支)를 기록하는 장부. -=부기(家計簿記) 「名」한 가정의 생계(生計)의 수지를 기록하는 부기.

ㄷ. 가격표기[價格表記]((名))내용물(內容物)의 가격(價格)을 거죽에 적어 나타냄. - =우편물[價格表記郵便物]((名))[法]가격표기를 한 우편물

위와 같은 복합어 올림말의 배열 방식은 가장 초기의 원고 작성 과정에서 시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전하는『원고본』중에는 ‘범례’가 딸린 ‘ㄱ’ 항목 원고가 다른 원고와 이질적인 면이 있는데, 이는 ‘ㄱ’ 항목 원고가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원고이고, 이후 사전의 구조에 대한 수정 논의를 하면서 배열 방식을 바꾸었음을 말해준다. 즉, 복합어 배열 시 어근 중심 배열 방식은『원고본』조성 중에 철회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어근 중심 배열 방식을 시도한 ‘ㄱ’ 항목 원고도, (4ㄷ)에서 볼 수 있듯이, 어근 중심 배열 방식을 올림말 배열 원칙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격표기우편물’이 ‘가격표기’의 부표제어 형식으로 배열된 데 비해 ‘가격’과 ‘가격표기’가 별도의 올림말로 배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원고본』조성 초기에 다양한 표제어 배열 방식을 시도했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관용구는 부표제어로 배열하고 복합어는 독립적인 올림말로 배열하는 원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현대 국어사전에서 대체로 따르고 있다.

다만 된소리 자모가 포함된 올림말의 배열은『큰 사전』의 배열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다. 한글 자모순에서 ‘ㄲ’은 ‘ㄱ’ 뒤에 배치되지만, ‘ㄱ’ 뒤에 ‘ㄲ’을 배치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전의 올림말 배열이 달라졌다.

(5) 사전의 올림말 배열 방식

ㄱ. 가귀, 가규 … 가히, 까까중, 까꿀루, 까뀌 … 까풀, 각(『조선어사전』, 1938)

ㄴ. 가귀, 가뀌, 까뀌, 가ㅅ귀, 가규(『원고본』)

ㄷ. 가귀, 가뀌, 까뀌, 가규(『큰 사전』)

ㄹ. … 깊이, 까까중이, 까뀌, 까끄라기(『표준 조선말 사전』, 1947)

(5ㄱ)의 배열 방식은 ‘ㄲ’을 ‘ㄱ’과 구분해 배열하는 것이지만, 한 음절 내에서만 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 까, 갸, 꺄, 거, 꺼, 겨, 껴 …’와 같이 배열한 것이다. 반면 (5ㄴ, ㄷ)에서 보이는 『원고본』과 『큰 사전』은 ‘ㄲ’을 자모로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원고본』의 범례 중 ‘어휘의 벌린 순서’에 대한 설명의 수정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6) 어휘의 벌린 순서에 대한 설명의 수정

ㄱ. (수정 전) 모든 어휘는 각 음절(音節) 단위의 자모(字母) 순서에 의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차례로 벌리되, ㄲ ㄸ ㅃ ㅆ ㅉ은 각각 ㄱ ㄴ ㄷ ㅂ ㅅ ㅈ의 <u>다음에 넣고</u>, ㅇ은 ㆁ의 <u>다음에 넣었음</u>.

ㄴ. (수정 후) 모든 어휘는 각 음절(音節) 단위의 자모(字母) 순서에 의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차례로 벌리되, <u>찾기의 편의를 위하여 홑닿소리(單音)</u> ㄲ ㄸ ㅃ ㅆ ㅉ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의 <u>자리에 붙이어 넣고</u>, <u>옛말의 ㅸ ㅿ ㆁ ㆆ ㆍ ㆍㅡ 는 각각 ㅂ ㅅ ㅇ ㅇ ㅇ ㅎ ㅏ의 자리에 붙이어 넣었음</u>.

“다음에 넣고”를 “자리에 붙이어 넣고”로 바꾼 것은 곧 “ㄲ ㄸ ㅃ ㅆ ㅉ”를 자모로서 따로 ‘ㄱ ㄷ ㅂ ㅅ ㅈ’와 구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범례’가 나머지 원고보다 먼저 작성되었음을 고려하면, 본문 원고를 작성하기 전 세웠던 원칙은 『조선어사전』(1938)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큰 사전』의 배열 원칙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후의 사전들은 『큰 사전』과 달리 ‘ㄲ’을 자모로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방향을 처음 제시한 사전은 (5ㄹ)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사전』 편찬을 이끌었던 이윤재가 편찬한 『표준 조선말 사전』이다, 이윤재가 문세영을 도와 『조선어사

전』(1938)을 편찬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윤재는『조선어사전』(1938)의 배열 방식에서 'ㄱ'과 'ㄲ'을 별도 자모로서 분명히 구별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윤재는 'ㄱ'과 'ㄲ'을 자모로서 구별하지 않는『원고본』범례의 수정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 거시구조적 측면에서『조선어사전』(1938)과『원고본』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시구조적 측면에서도 상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미시구조적 측면에서 상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뜻풀이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조선어사전』(1938)에 이르러서야 명사 올림말의 풀이말은 명사형으로 동사 올림말의 풀이말은 동사형으로 끝을 맺는다는 형식을 체계화했다는 사실이다.

(7)『말모이』와『조선어사전』(1938)의 뜻풀이 비교

ㄱ. 개 (안) 비나눈따위가오다가걷움. (말모이)

ㄴ. 감동 [感動](제) 저절로느끼어지는것. (말모이)

ㄷ. 개다 '自' 비가 그치고 구름 안개가 흩어지다. (조선어사전)

ㄹ. 감동(感動) '名' 마음에 깊이 느끼는것. [-하다'他'] (조선어사전)

그런데 뜻풀이의 형식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원고본』작성 과정에서 더 분명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은 뜻풀이 체계화가『큰사전』편찬 원칙을 세우는 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말해준다.

(8) 뜻풀이 체계화를 위한 수정 양상

ㄱ. 거꾸로 [副] ①위가 아래로 앞이 뒤로 되는 모양. ②사물이 그 자리를 바꾸어 아주 딴 것이 되는 모양. ③도리어. (『조선어사전』, 1938)

ㄴ. 가꾸로 [副] 위를 아래로. 먼저 할것을 뒤로. (<거꾸로)(수정 전『원고본』)

ㄷ. 가꾸로 [엊] 방향이나 차례가 반대로 바뀌게. (<거꾸로)(수정 후『원고본』)

위를 보면 (8ㄱ)에서 부사 '거꾸로'의 풀이가 부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위언어적 뜻풀이를 하고 있는 반면, (8ㄴ, ㄷ)의 경우 동일하게 부사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8ㄷ)을 보면, 부사형 어미를 '-게'로 통일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8ㄷ)의 수정이 해방 이전에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뜻풀이의 체계화는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과

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조선어사전』(1938)과 『원고본』의 이러한 상호 영향 관계는 『조선어사전』의 편찬에 관여했던 이윤재가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전 편찬 역량이 집중되었던 조선어학회에서 주도한 『큰 사전』 편찬 과정에서 사전 편찬 방법론이 체계화될 수 있었고 『조선어사전』(1938)의 편자가 조선어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전 편찬 방법론이 상호 공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1938)과 『원고본』의 사전 기술 방법론이 다른 부분도 많았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조선어사전』(1938)에서 용례와 관련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원고본』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용례가 뜻풀이의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어사전』(1938)에서 용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미 기술을 정교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고본』에서 출판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용례를 축소하거나 수정한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9) 용례의 수록 상황 변화

ㄱ. [수정 전] 『원고본』

가뜩 「副」 분량이 가장자리까지 꽉 찬 꼴. "가뜩이"의 준말. (…)

가뜩 「副」"가뜩이나"의 준말. [--- 죽을지경인데, 흉년까지 들었다.] -=에 「副」그 위에 또. 엎치기에 덮치기로.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 너까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나 「副」 이미 있는 사정만으로도 극도로. [--- 경황없는데 왜 또 성가신 말을 하느냐.] -=한데 「副」 이미 있는 걱정이나 곤란도 극도에 이르러 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 또 흉년까지 들었지오.]

ㄴ. 『큰 사전』

가뜩 「엊」 ①"가뜩이"의 준말. ②"가뜩이나"의 준말.

가뜩-에 「엊」 곤난이 가뜩한 위에 또. [몸이 몹시 고달픈데, — 일까지 시키는가?]

가뜩-이나 「엊」 이미 있는 사정만으로도 극도로. [— 경황 없는데, 왜 너까지 성가신 말을 하느냐?] (가따가나. 가따기나). (준말: 가뜩②. 가뜩이②).

가뜩-한데 「엊」 이미 있는 걱정이나 곤난도 극도에 이르러 있는데. [그나 그뿐인가, — 또 흉년까지 들었네그려]

『원고본』은 준말과 본말을 가리지 않고 용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올림말에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출판본에서는 '준말'의 경우 용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례를 교체하거나 일부 표현을 바꾸는 등의 수정을 하고 있다. 이는 수정 과정에서 적절한 용례를 지속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용례 수록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용례뿐만 아니라 관련어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서도 『원고본』과 『조선어사전』(1938) 간 차이는 두드러진다. 『조선어사전』(1938)에는 관련어 정보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5]을 볼 수 있다.

(10) 관련어 수록 양상

ㄱ. 『조선어사전』(1920)

잣치다 『活』 ㊀ 表返ろ.(잣기다·잣키다·잿기다·잿치다·잿키다·젓기다·젓치다·젓키다·젯기다·젯치다·젯키다). ㊁ 反ろ.(잣기다·잣키다·잿기다·잿치다·젯키다·젓기다·젓치다·젓키다·젯기다·젯치다·젯키다). ㊂ 開く(門扉又は書物等にいふ)(他).(잣기다·잣써리다·잣키다·잿기다·잿써리다·잿치다·잿키다·젓기다·젓써리다·젓치다·젓키다·젯기다·젯써리다·젯치다·젯키다).

ㄴ. 『조선어사전』(1938)[6]

자치다 ① 물건을 뒤집어 놓다. ② 문을 열어 놓다. 자키다.

ㄷ. 『원고본』

젖히다 「他」 ㊀ 물건의 밑쪽이 겉으로 나오게 뒤집다. ㊁ 문짝의 안 면(面)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 (저치다. 젖기다. 젖키다. 제끼다. 제떠리다[7]. 제치다. 제키다). (>잦히다).

[수정]

젖히다 「남」 ①물건의 밑쪽이 겉으로 나오게 뒤집다. ②문짝 따위의 안 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 (저치다. 젖기다. 젖키다. 제끼다. 제치다②. 제키다2). (>잦히다).

ㄹ. 『큰 사전』

젖히다[1] 「남」 ① 물건의 밑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 ② 문짝 따

5)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개별 단어의 뜻풀이에만 '-과 같은 말'로, '-의 준말' 등을 제시한다.
6) '자치다'를 대표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의 관계의 어휘를 모아 제시하지는 않는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동의 관계 어휘는 저치다, 자치다, 제치다, 제키다, 제끼다, 재치다, 재키다, 재끼다, 자떠리다 등이 있다. '제떠리다'는 '자떠리다'의 동의어로 제시하였다.
7) '제떠리다'는 삭제하였지만, 『큰 사전』에서 '자떠리다'는 '잦히다[2]'와 동의 관계에 있는 비표준어로 제시하였다.

위의 안 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 (젖기다. 젖키다. 제끼다. 제치다②. 제키다2). (①②>잦히다2)

젖히다[2] 「남」 몸의 윗부분을 뒤로 젖게 하다. (젖기다. 젖키다. 제끼다. 제치다②. 제키다2). (>잦히다3).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저치다, 자치다, 제치다, 제키다, 제끼다, 재치다, 재키다, 재끼다" 등을 동의 관계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 관련어를 한꺼번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반면 『원고본』에서는 '젖히다'의 관련어로 (저치다, 젖기다, 저키다, 제끼다, 제치다, 제키다, 제떠리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고본』이 관련어 정보의 기술에서 『조선어사전』(1920)을 참조했음을 말해준다. 차이를 든다면 『조선어사전』(1920)이 위의 어휘들을 동의 관계로 기술한 반면, 『원고본』은 이들을 비표준어로 기술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고본』에서 관련어를 모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표준어와 비표준어임을 굳이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큰 사전』에 그대로 이어지고, 수정 과정에서 사례의 조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영향 관계가 있었음에도 『조선어사전』(1938)이 『큰 사전』과 달리 용례와 관련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조선어사전』(1938)의 올림말에 고유명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세영은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하는 사전과 자신이 편찬하는 사전의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이 편찬하고자 하는 사전의 용도에서 '용례'와 '관련어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원고본』의 어문규범사적 의미

3.1. 표기법의 개정의 흔적으로서 『원고본』의 의미

『원고본』의 조성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판정 근거가 되는 표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고본』 범례에는 "순 조선말이나 한문말의 철자는 소화 8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제정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의 소화 12년 수정본(修正本)에 의하였음."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1937년에 수정한 맞춤법에 맞춰 원고가 작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본』에서 '사이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양상을 보면, 『원고본』은 1937년의 수정안이 아닌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 6.)에 따

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8)]

이처럼 '범례'의 설명과 '본문'의 기술이 다른 것은 '범례'와 '본문'의 집필 시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범례'에서 1937년 맞춤법을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범례'가 검열 원고에 첨부되었음을 말해주고, '본문'이 1940년 6월에 발표된 맞춤법 개정안을 따른 것은 '본문'이 검열 통과 이후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맞춤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편찬위원과의 협의가 있었음[9)]을 감안하면, 본문 원고의 작성은 검열 통과 직후인 1940년 4월부터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1942년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의 맞춤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이시옷 표기다. 사이시옷 규정의 개정은 1940년 개정안에서 "뒤ㅅ간, 고ㅅ집, 나무ㅅ배 (…)"로 바꿨던 것을 1933년의 통일안으로 회귀해 "뒷간, 곳집, 나뭇배"와 같이 쓰는 것이다.

1947년『큰 사전』첫째 권이 나온 후 맞춤법 개정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의 한글간소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지만, 규범 사전의 발간이 시작된 이상 맞춤법의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해방 직후『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을 공식 표기법으로 삼고 다양한 국어사전이 출간되었던 것이다.

1947년『큰 사전』첫째 권이 출간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사전 편찬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이 본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국어사전』(1946),『학생조선어사전』(1947),『표준조선말사전』(1947),『중등조선어사전』(1948) 등 다양한 학습사전이 발간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승만 정부가『한글간소화방안』(1954)을 제안하며 추진한 철자법 개혁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북한은 주시경과 김두봉이 구상한 형태주의 철자법의 확립을 민족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고, 1948년에 형태주의를 강화한 철자법 개혁안인『신철자법』(1948)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이 철자법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로동신문』에서조차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8) 1937년의 수정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규정 개정은 1940년 개정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뀐 것은 '사이ㅅ' 규정이다. 개정 방향은 1933년 통일안의 "뒷간, 손등, 나뭇배 (…)"를 "뒤ㅅ간, 손ㅅ등, 나무ㅅ배 (…)"로 바꿔 쓰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원고본』의 수정 전 표기는 이 개정안을 따랐다.

9)『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原案 一部 改定에 對하여"에는 경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사전편찬위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1940년 4월 25일에 개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조선어철자법』(1954)을 공포할 때까지, 규범 사전을 출간할 수 없었다. 1956년에야 『조선말 소사전』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고본』은 사전 편찬과 표기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조정과 타협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전 편찬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맞춤법을 개정한 것은 사전 편찬을 지연시킨 주요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맞춤법 개정의 폭이 최소화되었던 것은 사전 편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 표준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원고본』의 의미

『조선어사전』(1938)의 ‘일러두기’에는 “주해의 표준은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 주해를 붙였습니다.”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표준말 모음』(1936)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조선어사전』에 등재한 표준어가 『표준말 모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면 『표준말 모음』을 기준으로 삼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별도의 어휘 평정(評定)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선어사전』 편찬자에게 닥친 문제만은 아니었고, 『원고본』 편찬자에게도 닥친 문제였다.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위해 기획·출간했던 『표준말 모음』이 사전 편찬 과정에서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표준말 모음』이 전체 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라 9천여 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사정한 결과라는 점이고, 둘째는 『표준말 모음』이 엄격한 단수표준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언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측면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본의 작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최경봉(2021)에서는 원고 수정 과정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바뀐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1) 원고 수정 과정에서 규범성 판단의 변화
여라문~여남은, 태끈스럽다~타끈스럽다, 자그만치~자그마치, 자봉침(自縫針)~자봉틀, 직수굿하다~직수굿하다, 자동차즉통(自動車唧筒)~자동차펌프(自動車pumpe), 불구멍~불집, 식빵(食-)~식팡, 신기(新奇)스럽다~신기롭다 (…)

(11)에 제시한 예들은『표준말 모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경우 표준성 판단은 사전편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 표준성 판단이 쉽지 않았음은 (11)의 사례처럼 표준어가 뒤바뀐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의 왼쪽 올림말은 수정 전『원고본』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것이고, 오른쪽 올림말은 수정 후『원고본』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어가 바뀌면서 왼쪽의 올림말에는 비표준어임을 나타내는 '⟨' 표시가 붙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표준말 모음』에서의 판단을 부정해야 했다는 점에서 사전편찬자로서는 더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뜻풀이를 달리하여 단수표준어 원칙을 지키거나 복수표준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다.

(12)『표준말 모음』과 달리 처리한 사례1

ㄱ. [수정 전] 실과(實果) [名] = 과실(果實)
[수정 후] 실과(實果) [이] ① 모든 초목의 먹을 만한 열매의 통틀어 일컬음. ② 열매로 된 과자. ("조과=造果"의 대) (참고 과실=果實. 과일)

ㄴ. [수정 전] 신랑(新郞)[10] [名] ??? 새스배). ("신부 ???
[수정 후] 신랑(新郞) [이] 새로 결혼한 또는 새로 결혼하는 남자. ("신부=新婦"의 대)

ㄷ. [수정 전] 신부(新婦) [名] =새색시
[수정 후] 신부(新婦) [이] =새색시

(12ㄱ)은 '과실'을 표준어로 '실과'와 '과일'을 비표준어로 사정한『표준말 모음』과 달리, '실과'를 '과실'의 동의어로 처리한 예이다. 이때 수정 전『원고본』에서 대표 표제어를 '과실'로 한 것은『표준말 모음』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과실'에 별도의 뜻풀이를 하고 '과실'과 '과일'을 참고어로 제시하는 수정은『표준말 모음』과 대조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큰 사전』의 최종 처리[11]를 보면, '과실, 실과, 과일'의 뜻풀이를 달리하여 단수표준어 원칙을 유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2ㄴ, ㄷ)은 '신랑'과 '신부'를 비표준어로 사정한『표준말 모음』과 달리

10) 수정한 내용의 부전지를 원고에 붙여 수정 전 사항을 일부만 확인할 수 있음.
11)『큰 사전』에서는 세 단어를 "과실=가꾼 과목에서 열린 열매", "과일='과실'을 젊잖게 이르는 말", "실과=①모든 초목의 먹을 만한 열매의 통틀어 일컬음. ②열매로 된 과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모두 표준어로 처리한 사례이다. 이때 ‘신랑’의 경우는 뜻풀이를 새로 하는 처리 방식을 취한 반면, ‘신부’의 경우는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새색시’와 동의어로 하는 처리 방식을 취하였다. ‘신랑’의 경우 수정 전 『원고본』에서의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새서방’을 대표 표제어로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다. 『큰 사전』에서 ‘새서방’을 “"신랑=新郞"의 속어”로 풀이한 것에서 언어 현실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3) 『표준말 모음』과 달리 처리한 사례2

ㄱ. [수정 전]
비빈밥 [名] 그때 그때 되는 대로 비벼서 먹는 밥
비빔밥 [名] 고기붙이와 나물붙이를 섞고 온갖 양념과 고명을 더하여 비벼서 맛있게 만든 밥. (부빔밥)

ㄴ. [수정 후]
비빔밥 [이] 고기붙이와 나물붙이를 섞고 온갖 양념과 고명을 더하여 비벼서 맛있게 만든 밥. (골동반=骨董飯)

ㄷ. 『큰 사전』
비빔밥 [이] 고기붙이와 나물붙이를 섞고 온갖 양념과 고명을 더하여 비벼서 맛있게 만든 밥. (부빔밥. 골동반=骨董飯)

(13)은 『표준말 모음』에서 ‘비빈밥’과 ‘비빔밥’을 별도의 의미로 존재하는 각각의 표준어로 사정했던 결과에 따라 사전 원고를 작성했다가 수정 과정에서 ‘비빈밥’을 삭제한 예이다. 수정 과정에서 관련어 정보로 제시했던 ‘부빔밥’을 삭제하고 ‘골동반’을 추가했다가 출판 단계에서 ‘부빔밥’을 복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처리 방향을 보면, 『큰 사전』 편찬자들이 『표준말 모음』의 사정 결과를 의식하면서도, 독자적인 어휘 평정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어휘 평정을 거쳤던 『조선어사전』(1938)과 『큰 사전』의 차이는 표준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조선어사전』(1938)이 복수 표준어를 원칙으로 삼는 방향이었다면, 『큰 사전』은 단수 표준어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는 방향이었던 것이다.

4. 『원고본』의 언어운동사적 의미

최경봉(2021)에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과 '우리말 도로찾기'와 같은 언어정화 운동의 맥락에서, 『원고본』의 올림말에 대한 첨삭과 뜻풀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추진된 언어정화 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우리말 도로찾기』(1948)가 당시 편찬되던 사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우리말 가운데, 한 마디라도, 일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곧 일본 정신이 우리에게 한 점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여기에, 찾아 놓은 우리말을 곧 쓰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튼튼한 국민정신을, 살려내자."라는 『우리말도로찾기』(문교부, 1948)의 「머리말」은 당시 언어정화정책의 목표와 논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해방 직후 추진된 일본 한자어 청산 운동이 실질보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칠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당시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의 급진성은 한글학회의 원로였던 아래 김윤경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윤경은 언어정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강조하며 이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언어정화 운동의 지나친 경향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 (14) 해방 뒤에 문교부에서 '우리말 도로찾기'의 방법을 발표하였을 때에 상당한 교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이가 있었다. 물론 그 책 중에는 일본말에 압박당하던 반동으로 좀 지나친 경향이 없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신만은 우리가 존경하여야 할 것이다. … 해방을 얻게 되어 국어 회복 운동이 강력히 일어나게 되었지마는 위정자의 몰이해로 인한 그릇된 지도와 외국어(서양말) 존숭의 폐해로 국어는 다시 전철(前轍)을 밟게 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교양 있는 사람이 자만스러운 태도로 외국말의 '역할'(役割, 이는 우리가 써 오던 소임·맡은 일·사명·구실), '조합'(組合, 모임·회계의 뜻), '에노구'(繪具, 염토), '구루마'(車, 수레), '뉴앙쓰', '로칼 뉴쓰', '하이에터쓰', '멜로디' …. 기타 무수한 외국어 따위를 예사로 쓰고 있다.[12]

그렇다면 이처럼 언어정화와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고본』은 당시 제기되던 언어정화 제안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였을까? 『원고본』의

12) 김윤경, 「국어 정리의 여러 문제」, 『한글』 113, 1955, 41~42쪽.

조성 시 언어정화 제안에 대한 사전편찬자들의 입장은 『큰 사전』의 올림말과 『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어를 비교한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인데, 『큰 사전』에서는 『우리말 도로찾기』에서 일본어 잔재로 목록화한 어휘 중 40% 이상의 어휘, 즉 943개 정화 대상어 중 409개의 어휘(표기가 다른 4개의 일본식 외래어 포함)를 올림말로 수록하고 있다.

『우리말 도로찾기』를 편찬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문교부 편수국장 최현배가 조선어학회를 이끌던 인물이었고, 조선어학회가 문교부와 함께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교 결과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큰 사전』에 뒤이어 간행된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61)에는 50% 이상의 어휘, 즉 943개 정화 대상어 중 509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화 대상어를 수록한 사례가 『큰 사전』보다 『국어대사전』이 많지만, '서류(書留), 위채(爲替)' 등처럼 『큰 사전』에 수록된 정화대상어가 『국어대사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어 중 40~50% 어휘가 국어사전에 수록되었다는 사실과 국어사전에 수록된 정화 대상어가 엇갈리기도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해방 이후 진행된 언어정화정책과 국어사전 편찬이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국어사전 편찬 시 『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 어휘 또한 어휘 평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휘 평정은 캠페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언어정화정책의 성과물을 평가하며 현실 언어를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고본』에서 정화 대상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수정 과정에서 달라지는 사례들은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정화 대상어의 현실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음을 말해준다. 정화 대상어의 현실적 위상에 대한 검토 결과는 네 가지 정도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원고본』에 포함된 정화 대상어를 올림말에서 삭제한 경우이다. 이는 해방 후 이루어진 원고 수정 과정에서 언어정화 운동의 제안을 사전편찬에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5) 정화 대상어를 올림말에서 삭제한 사례

ㄱ. 심득(心得)

[수정 전] 심득(心得) [名] ㉠ 마음에 얻음. ㉡ 그 방면에 대하여 알아 두어야 할 일.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알아 두어야 할 사항(事項).

[수정 후] 삭제

ㄴ. 역할(役割)
[수정 전] 역할(役割) [명] 어떠한 일에서 각각 떼어 맡은 부분.
[1차 수정] 역할(役割) [이] =구실
[2차 수정] 삭제

ㄷ. 정미(正味)
[수정 전] 정미(正味) [名]=겉싸개, 껍데기, 또는 다른 잡살뱅이는 덜쳐 버린 사잘(?)의 무게.
[1차 수정] 정미(正味) [이]=알속③
[2차 수정] 삭제

ㄹ. 불경기(不景氣)
[수정 전] 불경기(不景氣) (名) 경제계(經濟界)에서 시세(時勢)가 좋지 못함. (디프레션=Depression)
[수정 후] 삭제

위의 사례를 보면, (15ㄱ, ㄹ)처럼 정화 대상어를 곧바로 삭제한 경우도 있지만, (15ㄴ, ㄷ)처럼 대표 표제어의 유의어로 처리했다가 2차 수정에서 삭제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할(役割), 정미(正味)' 등이 당시 현실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는데, 이들 어휘는 현재『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더구나 곧바로 삭제했던 '심득(心得), 불경기(不景氣)' 등 역시 현재『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국어대사전』(1961)에서 이들이 모두 올림말에 포함된 데에서, 당시 언어 현실의 반영과 언어정화 제안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 편찬자들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올림말에 포함하지 않거나 삭제했던 정화 대상어를 올림말로 복원한 처리이다. 이는 정화 대상어를 올림말에서 삭제한 것과 정반대로 정화 대상어의 현실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정화 대상어를 올림말에 추가하거나 폐기 후 복원한 경우
ㄱ. 피복(被服) [이]=옷.
ㄴ. 지양(止揚) [이] ((철)) 두 개의 모순 개념(矛盾槪念)이 서로 관련하여 그 모순을 다시 한층 높은 개념에서 조화 통일(調和統

ㅡ)시키고자 하는 작용. (양기=揚棄).
ㄷ. 용담(穴談) [이] 쓸 데 없이 하는 말. 희롱하는 말. 작란말.
[1차 수정] 삭제
[출판본] 용담(穴談) [이] 쓸 데 없이 하는 말. 희롱하는 말.

(16ㄱ, ㄴ)은 애초『원고본』에 없었던 올림말인데, 해방 후 올림말로 추가한 정화 대상어이다. (16ㄷ)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했다가 2차 수정에서 다시 복원시켜『큰 사전』에 포함한 정화 대상어이다. 이러한 수정 과정은 정화 대상어에 대한 어휘 평정이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세 번째 유형은 정화 대상어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사례들이다.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해 정화 대상어를 수록한 것은 사전편찬자들이 현실 언어에서 정화 대상어의 용법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 위상을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17) 정화 대상어의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한 경우
ㄱ. 신원(身元)
[수정 전] 신원(身元) [名] = 신분(身分)
[수정 후] 신원(身元) [이] 개인(個人)의 주소(住所) 원적(元籍) 신분(身分) 성행(性行) 따위.

ㄴ. 우동(ウドン)
[수정 전] 우동(ウドン) [名] = 밀국수
[수정 후] 우동(일ウドン←饂飩) [이] 일본식 밀국수

ㄷ. 정녕(叮嚀, 丁寧)
[수정 전] 정녕(叮嚀, 丁寧) [副] 틀림이 없이. 확실히 단단히 조지는 뜻을 표하는 말.
[수정 후] 정녕(叮嚀, 丁寧)「엊」추측건대 틀림이 없이 꼭

ㄹ. 정원(庭院, 庭園)
[수정 전] 정원(庭院, 庭園)「名」집안에 있는 마당과 자그마한 동산. (가든=Garden).
[수정 후] 정원(庭院, 庭園)「이」집 안에 있는 마당과 화초밭.

(17ㄱ, ㄴ)은 정화 대상어의 뜻풀이를 하지 않고 대표 올림말의 유의어로 처리하였다가, 그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하면서 독립적인 대표 올림말로 처리한 사례이다. 이는 현실 언어에서 정화 대상어의 쓰임을 파악해 그 위상

을 재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ㄷ, ㄹ)은 정화 대상어의 독립적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뜻풀이를 수정한 사례이다. ‘정녕’은 ‘틀림이 없이’로, ‘정원’은 ‘마당’이나 ‘뜰’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독립적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대표 올림말의 교체이다. 이는 정화 대상어의 뜻풀이를 삭제하고 새로 정한 대표 올림말과의 유의 관계만 표시하는 처리이다. 이 역시 정화 대상어의 현실적 위상을 인정한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 올림말을 교체한 것은, 『우리말 도로찾기』를 의식해, 정화 대상어인 해당 어휘의 위상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8) 대표 올림말을 교체한 경우

ㄱ. 불구자(不具者)

[수정 전] 불구자(不具者) [名] 몸의 어느 국부(局部)에 고장(故障)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 곧 병신.

[수정 후] 불구자(不具者) [이] =병신②

ㄴ. 역원(役員)

[수정 전] 역원(役員) [名] 어떠한 단체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 회사 따위 단체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 ㉠ =임원

[수정 후] 역원(役員) [이] = 임원(任員)

ㄷ.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1차 수정]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이] 우편물을 모우고 배달하고 하는 이. 우편 집배인(集配人)

[2차 수정] 삭제

[3차 수정]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이]=체전부(遞傳夫)

[출판본]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이]=체전원(遞傳員)

ㄹ. 표구(表具)

[수정 전] 표구(表具) (名) 병풍(屛風), 장첩(粧帖), 족자(簇子) 따위들을 꾸미어 만드는 일. (표장=表裝). --=하다 [他 여變]

[수정 후] 표구(表具) (이) =장황(裝潢)

대표 올림말의 교체는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폭넓게 이루어진 바 있는데, 위의 사례는 일본식 한자어로 규정된 한자어의 위상을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국어대사전』(1961)과도 일치한다.[13] 그럼에도 당

시 신문에서 ‘불구자, 우편배달부, 표구’ 등을 ‘병신, 체전원, 장황’보다 압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대표 올림말의 교체는『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어 목록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경봉(2021)에서 제시한 대표 표제어의 교체 사례를 참고해 보면,『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어가 아닌 경우, 대표 올림말의 교체는 사용 빈도를 고려하거나 어종을 고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최경봉(2021)에서 제시한 대표 표제어의 교체 사례
ㄱ. 외실(外室)~사랑(舍廊), 지문학(地文學)~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 타애주의(他愛主義)~애타주의(愛他主義), 타락(酡酪)~우유(牛乳), 탁음(濁音)~유성음(有聲音), 외국전보(外國電報)~해외전보
ㄴ. 비녀(婢女)~계집종, 비환(臂環)~팔가락지, 비취(翡翠)~쇠새, 시체(屍體)~송장, 자두(紫-)~오얏, 타국조(打蟈鳥)~검은도요
ㄷ. 보이코트(Boycott)~불매동맹(不買同盟), 타널(Tunnel)~굴②[14], 핑퐁(ping-pong)~탁구

위에서 왼쪽은 수정 전의 대표 올림말이고 오른쪽은 수정 후의 대표 올림말이다. (19ㄱ)은 한자어와 한자어 간, (19ㄴ)은 한자어와 고유어 간, (19ㄷ)은 ‘외래어’와 ‘한자어 및 고유어’ 간 교체를 보여준다. (19ㄱ)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의 경우 사용 빈도가 고려되었음을 볼 수 있고, (19ㄴ, ㄷ)에서는 고유어 우선 한자어 차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우리말 도로찾기』의 정화 대상어를 사전에 수록하면서도,『우리말 도로찾기』의 제안을 의식해 언어 현실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표 올림말의 교체가『우리말 도로찾기』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도, 그 정신과 취지를 의식했음은 분명한데, 이는 대표 올림말을 고유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도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원고본』과 다른 사전과의 관련성,『원고본』과 어문규범 결과

13)『국어대사전』(1961)에서는 ‘우편 배달부’를 ‘우편 집배원’으로 교체한 것이 다르다.
14) 수정 전 뜻풀이는 ‘탄넬’에서 하였지만 ‘굴’로 대표표제어를 이동시키면서 ‘탄넬’ 대신 ‘타널’을 바른 외래어 표기로 수정하였다.

물과의 관련성, 『원고본』과 『우리말 도로찾기』와의 관련성 등 세 측면을 중심으로, 『원고본』의 사전편찬사적 의미와 근대 어문정리사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원고본』과 『말모이』의 관련성 여부, 『원고본』과 『조선어사전』(1938)의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원고본』과 『말모이』의 관련성 논의에서는 『원고본』이 『말모이』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었지만, 『말모이』에서 구상한 사전의 구조와 사전 편찬의 문제의식이 『원고본』의 편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원고본』과 『조선어사전』(1938)의 관련성 논의에서는 두 작업에 관여한 이윤재의 역할이라는 사전 외적 문제를 전제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적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밝히며 두 작업의 상호 영향 관계를 설명하였다.

둘째, 3장에서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 표준말 모음집』 등 조선어학회 어문규범화 사업의 결과물이 『원고본』에 어떻게 반영되어 『큰 사전』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표기법의 개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 표준어 규범의 준수와 언어 현실의 반영이 충돌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원고본』의 수정이 어휘 평정을 통한 조정과 절충의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셋째, 4장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언어정화 운동의 지침서였던 『우리말 도로찾기』(1948)가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언어정화의 당위성과 언어 현실의 반영이 충돌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원고본』의 수정이 현실 언어에서 정화 대상어의 위상을 재규정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참고 문헌>

김민수. 1973.『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안예리. 2024.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 미간행 원고의 비교 연구」, 한말연구 65(41). 1~22쪽.

정희창. 2015.「표준어의 성립과 변화 - “표준말모음(1936)”에서 “표준국어대사전(1999)”까지」, 반교어문연구 39. 305~332쪽.

정희창. 2018.「표준어 어휘 항목의 수립과 전개 과정 - 국어사전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 」, 인문과학 69. 99~134쪽.

최경봉. 2016.『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최경봉. 2017.「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한국어사전학 30. 37~66쪽.

최경봉. 2021.「‘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사전화 과정과 사전학적 의의」. 민족문

화연구 91. 9~47쪽.
최경봉. 2024.「100여 년의 언어 변화와 규범 -어문규범안과 국어사전의 길항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 109. 203~243쪽.
최경봉. 2025.「국어사전 편찬 과제의 인식과 사전 구조의 변천」, 한국어학 106. 39~80쪽.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말모이』의 사전학적 구조 분석

도원영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dony68@korea.ac.kr

1. 머리말

《말모이》(1911~1914)는 주시경과 그의 제자였던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가 함께 편찬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 조선광문회가 설립된 후 어문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원고 집필이 마무리되어 가던 1914년에 주시경이 타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919년 김두봉이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이 사망하면서 갈무리되어 가던 원고는 계명구락부와 조선어학연구회를 거쳐 조선어학회의 편찬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전하지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고 1책과 주시경 사후에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가 교열한《辭典》원고 일부가 전한다.[2] 그중 제1책에는 '알기', 'ㄱ'부터 '걀

1) 김두봉이 지은 ≪조선말본≫(1916) 뒷면에 실린 신문관의 조선어 사전 광고는 그 당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2) 김민수(1983)에 따르면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에 '마름질'부터 '봐씅'까지의 고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쪽', '찾기', '字劃 찾기' 등 일러두기부터 본문, 부록에 이르기까지 사전의 전체 구조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말모이》가 출판을 대비하여 검수용으로 작성된 원고로 추정되는바, 편찬자의 사전에 대한 철학, 사전 이용자를 위한 기술 방식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사전학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모이》 1책을 대상으로 사전의 여러 구조와 그 기술의 실제를 살피고자 한다.

그간 개화기 이후 근대 우리말 사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국어학사, 사전편찬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누가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전을 편찬하였는지, 어떠한 표기 원칙을 세웠는지, 표제어 선정은 어휘의 규범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품사 구분은 어떠한 문법 인식에 따른 것인지, 뜻풀이는 어떤 원칙에 따라 기술하였는지 등이 주요한 논점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중심으로 편찬자의 연구적 시각에서 사전 구조와 세부 기술을 다룬 것으로 《말모이》의 역사적 의의와 사전학적 특징을 규명해 내었다.[3)]

이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넘어서서 《말모이》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로 대표되는 틀 구성의 문제, 표제어의 언어 정보 기술에 관한 문제 외에도 물성을 가진 텍스트로서의 구조, 언어 정보 간 상호 참조의 구조, 이용자의 사전 접근을 위한 구조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전을 만드는 일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다.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고 칸을 나눠 벽돌을 쌓아야 갖가지 살림살이를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벽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아야 가구며 세간이 제자리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방과 방을 연결하는 문도 달고 바깥 공기를 들이는 창도 내어야 하는 것이다. 틀과 내용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구조화되어야 집이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모이》의 편찬자들이 '우리말'의 사전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당시 편찬자들은 자전이나 물명, 유해류와 같은 전통 어휘집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된 외국어 사전, 개화기에 외국인이 편찬한 이언어 사전, 신학문과 신문물에 대한 신어 자료 등을 접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4)] 다양한 사전에 관

3) 이병근(1977), 김민수(1983), 이병근(1986)에서는 자료 소개, 편찬 경위 등을 자세히 다루었고, 이병근(1977)에서는 '알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경봉(2014)에서는 말모이의 편찬 배경, 편찬자, 체제와 내용, 어문 운동 역사에서의 의의 등에 대해 개괄하면서 최경봉(2017)를 통해 근대 초기에 시작된 개혁 운동에서 국어사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어문민족주의가 그 이념으로 작용해 왔음을 《말모이》를 통해 증명하였다. 김병문(2013)에서는 주시경의 '씨난'에 나타난 문법 이론과 『말모이』의 문법 정보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 바 있다. 조재수(2021)에서는 《말모이》의 사전학적 특징을 표기법, 뜻풀이, 용례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4) 허재영(2013 : 474~475)에서는 근대 계몽기의 어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 학문 용어, 신

한 경험과 활용을 통해 사전의 체제와 기술 방법론을 세웠을 터, 말 그대로 당시 언중의 말을 모은 《말모이》를 사전학적 구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2장에서는 Hartmann(2001), 홍종선 외(2009)를 바탕으로 《말모이》 제1책의 최대 구조,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배분 구조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말모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구조 기술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사전의 현대적 구조가 《말모이》에서 출발하였음을 증명하고 당대 편찬자의 사전 구조에 대한 다층적 인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말모이》의 구조 분석

2.1. 사전의 구조

사전은 본질적으로 참조용 텍스트라는 속성을 갖는다. 어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구서이다. 사전 이용자가 표제어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 표제어와 연계된 언어적 지식을 파악하고 학습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은 규범적, 교육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언중이 공유하는 언어지식과 언어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전은 경험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Hartmann(2001 : 62~68)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전이 정보 전달을 구체화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의 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종이책이라는 물성을 가진 텍스트의 총체로서 최대 구조, 사전의 핵심을 이루는 표제어로 구성된 종적 구조로서 거시 구조, 표제어에 대해 선형적으로 기술되는 미시 구조, 표제어 간의 참고 관계를 표시하는 매개 구조, 사전과 이용자를 이어 주는 접근 구조, 사전의 정보량을 배분하는 배분 구조이다.[5)]

사전의 복잡한 정보 전달 구조에 대해 이용자가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사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전학에서도 거시 구조와

어부터 학습서, 참고서, 전문용어, 사전류까지 소개하고 있다. 최경봉(2022 : 34~37)에서는 《말모이》가 최남선의 《신자전》과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자전과 독립적인 구조화를 이루었음을 밝히고 있다.

5) 홍종선 외(2009 : 126)에서는 최대 구조, 거시 구조, 미시 구조 외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배분 구조를 묶어서 기타 구조로 보았다. 조남신(2015 : 25~28)에서는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 나타나는 어휘 의미들이 지니는 모든 정보 사이의 다양한 연관 관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배분 구조를 연관 구조로 통합하였다.

미시 구조를 이어 주거나 거시 구조 간 상관성을 표시하는 기능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텍스트 내적 질서와 원리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텍스트와 텍스트 간, 텍스트와 독자 간 연결 방법론을 세우는 방법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각 정보의 위계적 배열이 중요했던 종이사전과 달리 정보의 독립성을 전제로 정보와 지식 간 연결성을 실현한 디지털 사전의 활용에서 더욱 그러하다.[6] 사전이 품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연결지어 수용하게 할 것인지는 사전이 갖는 실용적 기능 이상으로 유의미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살피면 우선 최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표지부터 일러두기, 본문, 부록을 포함한 제1책이 원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1,590항목의 표제어를 수록한 거시 구조, 원어, 품사, 전문 분야,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을 제시한 미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말모이》에 수록된 각 정보를 연결하는 매개 구조,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를 알려 주는 표제어 앞 약물, 원고지 상단에 표시된 길잡이말 등이 보이는 접근 구조, 일상어와 전문어 간 정보량의 대비에서 확인되는 배분 구조 등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2. 《말모이》의 최대 구조

사전의 최대 구조란 종이책이라는 물성을 가진 대상이 가진 총제적인 구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지부터 머리말, 일러두기, 본문, 부록, 판권지[7] 등을 포함한다. 《말모이》는 표지 ‘ㅁㅏㄹ ㅁㅗㅇㅣ’, ‘알기’, ‘ㄱ’부터 ‘걀쭉’까지의 본문, ‘찾기’, ‘자획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근(1977 : 71)에 따르면 표제는 원래 없고 내제에 가로쓰기한 ‘ㅁㅏㄹ ㅁㅗㅇㅣ’로 되어 있다. 출간되지 않은 원고본이지만, 형식을 갖춘 표지를 수기로 보이고 있다.

‘알기’는 이용자가 사전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러두기, 즉 범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사전 편집 방식, 표제어 배열, 동의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음의 고저, 차용어 구별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기도 하였다.[8] 그리고 22개의 품사 정보, 19종의 전문어 분야, 그리고 ‘홀소리, 닷소리’ 등 자모 정보를 약호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역시 모두 원고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정서되어 있다.

6) 특히 김경(2016)에서는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 이용자의 측면에서 사전에 대한 접근 구조의 전면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7) 《말모이》는 출간된 도서가 아니므로 머리말, 판권지는 없다.
8) 자세한 내용은 이병근(1977 : 71~72) 참조.

본문은 청색으로 인쇄된 원고지에 붓글씨로 쓴 원고본인데,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원고지는 판심서명(版心書名)으로 '말모이'가 활자화되어 있고, 원고를 둘러싼 상단과 양옆 가장자리에 '첫소리, 가온대소리, 받힘'에 오는 글자의 배열 순서가 있고, 하단에 'ㅡ, •, ··, +, x' 등 사전 약물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1> 《말모이》의 표지, 알기, 본문, 찾기, 자획 찾기의 일부

《말모이》는 부록에 해당하는 '찾기'와 '자획 찾기'가 총 76쪽에 걸쳐 작성되어 있다. '찾기'는 표제어의 색인으로 주표제어를 대상으로 본문의 쪽수를 제시하였다. 원고지 50쪽에 이른다. 자획 찾기는 표제어로 등재된 1음절 한자어를 총획 순으로 나눈 뒤 해당 한자어와 결합한 한자어를 부수별로 배열하고 본문의 쪽수를 제시하고 있다. 총 26쪽에 이른다.

2.3. 《말모이》의 매개 구조

사전의 매개 구조는 사전 속에 존재하는 상호 참조의 체계를 말한다. 즉 표제어나 관련어에 붙이는 어깨번호, 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기호, 가표제어(假表題語)를[9] 대표 표제어로 보내는 화살표 등이 대표적인 매개 구조에 속한다. 《말모이》에서 확인되는 매개 구조를 살펴보자.

(1) ㄱ. **가느** (엇) 「가늘」에 보임。
가마괴 (제) 「가마기」에 보임。
가마귀 (제) 「가마기」에 보임。
+**갈** 〔葛〕(제) 「츩」에 보임。
ㄴ. **강동** (억) 재게 졸막졸막 뛰는 것。 ーー**하** (안) 재게 졸막졸막 뜀。
강똥 (억) 「강동」에 보임。
강둥 (억) 「강동」에 보임。
강뚱 (억) 「강동」에 보임。

(1ㄱ)의 형용사 '가느'는 대표형 '가늘'에서 풀이를 살피도록 하고 있다. 명사 '가마괴', '가마귀'는 대표형을 '가마기'로, 한자어 '갈'은 대표형 '츩'으로 보내고 있다. (1ㄴ)의 '강동'에서는 무려 세 가지 형태의 동의어를 가표제어로 등재하여 '강동'을 대표형으로 보내고 있다. 가표제어를 대표 표제어와의 관계를 이어 주는 '-에 보임'은 사전에서 널리 쓰이는 찾아가기 표시인 화살표(→)나 '☞'의 기능을 하는 메타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최경봉(2017 : 38~41)에서는 당시 온전한 서울말을 통일된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말모이》를 규범 사전으로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표제어를 통해 대표 표제어를 찾아가도록 하는 데에서 규범어를 세우려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나아가 복수의 가표제어를 등재한 《말모이》의 이러한 방식은 이후의 국어대사전과 견주어도 드문 사례이다.

물론 《말모이》에는 아래와 같이 가표제어와 대표 표제어 정보가 잉여적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가살'의 경우 '가살이'와 '가살지'를 각각 부표

9) 강현화(2003 : 158)에서는 가표제어를 '의미와 내용 기술이 없이 본표제어로 안내하는 길잡이적인 표제어'로 정의하였다. 홍종선 외(2009 : 424)에서는 hollow headword를 '임시 표제어'로 번역하고 직접 뜻풀이를 하지 않고 다른 표제어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역할만 하는 표제어라고 정의하였다.

제어로 두어서 하나의 표제항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음에도 부표제어로 수록한 '가살이'와 '가살지'를 주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살'만큼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쓰이는 '가살이'와 '가살지'도 주표제어로 올려서 어떤 이용자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살** (제) 거죽을 꾸미는 짓。**ㅡ이** (제) 거죽을 꾸미는 일。**ㅡ지** (엇) ㅡ의 꼴이 낱아남。
가살이 (제)「가살」에 보임。
가살지 (엇)「가살」에 보임。

이렇게 가표제어를 대표 표제어와 연결하는 것은 표준형이 없었던 당시를 고려할 때 사전 이용자가 미시 정보가 기술된 표제어를 찾는 데 길잡이가 된다. '가마기'의 경우 '가마괴', '가마귀' 등 두 개의 가표제어를 등재하였고, '강동'의 경우 세 개의 가표제어를 등재하였다.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형태를 여럿 올리고 있는데, 전체 주표제어 1,470개 중에 가표제어가 무려 265개로 18%에 이른다. 최근의 국어대사전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10)]

《말모이》에는 뜻풀이나 용례 뒤에 관련어로서 동의어를 제시하고 있다. 주표제어만이 아니라 부표제어에도 동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을 보이고 있다.

(3) +**가계**〔家契〕(제)「가권」에 보임。
+**가권**〔家券〕(제) 집 文書。또「가계」
가난 (제) 살림이 어렵은 것。또「구차」。**ㅡ하** (엇) 또「구차하」
까딱 (제.억) 흔들리는 일(ㅡ없)。**ㅡㅡ하** (밖) 흔들음. 또 「ㅡ거리. ㅡ대」。

위의 예를 보면 '가권'에서 '가계'를 '또'라는 메타언어를 통해 동의 관계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계'에서는 '가권'을 대표 표제어로 지정해 줌으로써 '가권'과 '가계'가 상호 참조 관계를 이루었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동의 관계어 중 대표형에만 뜻풀이를 하고 나머지 동의어에서 '=' 또는 '≒'와 같은 약물로 처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가난하'와 같은 부표제

10) 비표준어로 한정하여 국어대사전을 살피면,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비표준어를 표준어 표제어로 보내는 화살표(→)가 8,613개 수록되어 있다. 43만 6천여 항목 중 약 1.97% 정도이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경우 40만 항목 중 5,634개로 1.41% 정도이다.

어에도 동의어 ‘구차하’를 제시함으로써 표제어와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를 충실하게 보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까딱까딱하다’와 같은 의성의태 파생 용언에서는 ‘-거리다’, ‘-대다’류를 일관되게 동의 관계어로 수록하였다. 그래서 《말모이》의 풀이항에 쓰인 ‘또’는 동의 관계와 연결하는 술어이자 ‘=’과 같은 약물의 기능을 한다.

다만, 《말모이》에는 동형어를 구분해 주는 어깨번호가 적용되지 않았다. 어깨번호는 사전의 표제어 간 상호 참조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매개 구조여서 언어사전에서 널리 쓰인다. 《말모이》에서는 복수의 동형어가 일정한 표시 없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ㄴ)에 제시된 ‘강동2[11]’ 외 ‘아이들이 가볍게 자조자조 잘막잘막 뒤는 꼴’을 뜻하는 ‘강동1’이 ‘강동2’ 앞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뒤이어 나오는 ‘강똥’, ‘강둥’, ‘강뚱’의 풀이에 제시된 ‘강동’이 강동1인지, 강동1인지 또는 둘 다를 가리키는지 이용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2.4. 《말모이》의 접근 구조

사전에서 접근 구조는 사전 이용자를 사전의 특정 정보로 안내하는 사전학적 표지의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표제어의 중요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등급 표시, 표제어가 비표준어임을 나타내는 약물 등이 대표적이다. Hartmann(2001)에서는 이용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라고 하면서 외적 접근 구조와 내적 접근 구조로 나누었다. 외적 접근 구조는 본문 밖에서 본문 속 정보로 이어 주는 표시로서, 자모순 배열의 거시 구조, 본문 상단의 안내어, 별도의 색인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내적 접근 구조는 하나의 표제어 항목 내 특정 정보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다의어를 구분하기 위해 알파벳이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거나 품사, 전문 분야 표시 등 각 항목을 보이는 표시자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말모이》에서도 이용자가 사전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외적 접근 구조로는 첫째, 2단 구성으로 인쇄된 원고지 상단에 각 단별로 시작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안내어로 각각 보이고 있다. 둘째, 표제어를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특히 2.2 최대 구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단 구성의 원고 테두리에 초성, 중성, 종성에 오는 글자의 차례를 배치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찾고자 하

11) 둘을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는 표제어를 좀더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셋째, 표제어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썼다.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모두 굵게 표시하고 있다. 넷째, '찾기'와 '자획 찾기' 등 두 가지 종류의 색인을 덧붙여 이용자의 표제어 접근 경로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내적 접근 구조로는 첫째, 표제어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알려 주는 표시가 있다. 표제어가 한자어나 외래어일 때 표제항 앞머리에 각각 '+', '×' 등을 두어 독자가 쉽게 표제어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말모이》의 미시 구조에 차용어의 원어를 두고 대괄호 '〔〕' 속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독자로 하여금 원고지의 네모 칸 밖 여백에 기원을 가진 말임을 따로 표시한 것이다. '한문말', 즉 한자어 앞에는 +, '다른나라말', 즉 외래어 앞에는 ×로 나타내었다.

(4) 한자어와 외래어 표시
+**가무** 〔歌舞〕(제) 노래와 춤。
×**가방** (제) 집이나 가죽 따위로 거죽을 두르어 싸고 그 어울어진는 두 가의 태는 쇠로 두르고 그긔에 잠그는 틀을 갖흔 주머이니。 나다닐 때에 가지고 다니기 좋음〔그림〕。
×**까스** 〔gas〕(제) ㉠尋常한 상태에서는 液化하기 難한 氣體니 水素 沼氣 따위 ㉡石炭까스의 俗稱。
가스리 (제) 바다가 바위에 붙은 소털 같은 나물이니 이를 고아서 풀을 만들기도 함〔그림〕。

한자어 '가무' 앞에 '+'를, 외래어 '가방'과 '까스' 앞에는 '×'를 표시하였다. 반면 '가스리'와 같은 고유어에는 따로 표시를 주지 않았다. '가방'의 경우 일본어에서 온 말이라는 점에서 약물을 주었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2)]

둘째, 표제어의 의미가 여럿일 때 ㉠, ㉡, ㉢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품사 정보, 전문 분야 정보 등을 일정한 약호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알기'에 일괄 제시되어 있다.

《말모이》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밖의 접근 구조를 찾을 수 있다. 홍종선 외(2009 : 13)에서는 문법 정보나 유의어 정보에 대한 해설, 어휘 풀이의 이해를 돕는 그림, 사진, 도표 등도 사전의

12) 네덜란드어 'kabas'가 일본어 'かばん'으로 쓰인 말이 당시 《말모이》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섭(2024)의 《용례 기반 일본어 유래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1890년대 말에 용례가 확인된다. ¶이돌 쵸일일 저녁에 아라샤 공ᄉᆞ 부인의 집물을 룡산셔 옴길 쌔에 검은 가방 ᄒᆞ나를 일헛ᄂᆞᆫᄃᆡ(〈독립신문〉 1898년 7월 5일 4면 '광고')

접근 구조로 보았다. 《말모이》에는 표제어가 지시하는 사물 등에 '그림'을 넣으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면 각 풀이항 말미에 '〔그림〕'이라는 표시를 두었다.

(5) +**가감뎌항기** [加減抵抗器](제) 電路에 삽입하아 電流를 加減하는 그릇이니...〔그림〕。
가개 (제) 장사의 몬을 팔는 집〔그림〕。
+**가교** [架橋](제) ㉠걸치어 놓은 다리. ㉡다리를 걸치어 놓음〔그림〕。
+**가교** [駕轎](제) 임검의 타시는 말에 멍에한 가마〔그림〕。
가늠쇠 (제) 저울의 가늠을 보라고 달는 쇠덩이〔그림〕。
가달박 (제) 큰 박아지〔그림〕。

'가감뎌항기'와 같은 신문물, '가교(駕轎)'와 같이 교통수단 등은 사물의 형상을 보여 주면 이용자가 단박에 표제어를 이해할 수 있어 학습 기능도 크다. 나아가 '가개', '가교', '가늠쇠', '가달박' 등과 같은 일상어에도 그림 정보 표시를 주었다. '가늠쇠'의 경우 물건의 무게를 달 때 저울이 바른지 기우는지를 볼 수 있도록 다는 쇠덩이를 말한다. 물건을 사고파는 데 꼭 필요한 물품인 '저울'의 부분 명칭을 표제어로 올리고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보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가래'와 같은 농기구, '가랑이'와 같이 신체명도 모두 그림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에 그림 정보를 주려고 한 것은 어휘를 수집하여 그 의미와 용법을 기술하는 언어사전의 역할을 넘어서는 시도이다. 어휘가 지시하는 사물에 대해 명칭과 이미지를 이용자가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말모이》에서 확인되는 '〔그림〕' 정보는 총 65개 표제어에 제시되어 있다. 'ㄱ'부터 '걀쭉'까지의 표제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량이다. 《조선말 큰사전》의 동일한 표제어 구간, 즉 'ㄱ'에서 '걀쭉' 항목을 살피면, 약 80개 항목에 컷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표제어 규모가 방대한 사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림 정보를 넣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말모이》는 그림 정보를 통한 이용자 접근 구조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말모이》는 출간 사전이 아니라 출판을 위한 검토용 원고였기 때문에 완성된 사전에서 그림 정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실렸을지는 알 길이 없다. 종이사전으로 편집, 제작할 때 그림 정보를 넣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밀화로 제작해서 출판용 원고지 또는 제작용 조판에 새기는 것 자체가 당시 인쇄 기술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모이》 편찬자들은 사전 이용자가 그림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20세기 전후로 출간된 이언어 사전에서 이러한 그림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말모이》의 사전학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5. 《말모이》의 배분 구조

배분 구조는 사전 내 정보 간 배분 관계를 설계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는 언어적•어휘적 지식과 기술적•백과사전적 지식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말모이》의 배분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배분 구조로는 표제어를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어기를 주표제어로 제시하고 어기와 결합한 복합어를 부표제어로 배치하여 종이사전이 가지는 지면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13] 《말모이》의 경우 당시 총 5만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사전을 목표로 하였다. 종이책에 이 많은 분량의 어휘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표제항의 정보 구조를 경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어기를 공유하는 말을 모아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로 구분하되, 하나의 표제항 속에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말모이》 제1책에는 주표제어 1,470개, 부표제어 120개로 총 1,59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주표제어는 표제항의 전면에 굵게 표기하고 원어, 품사,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부표제어는 주표제어의 뜻풀이 뒤에 제시하고 있다.

(6) 부표제어의 예[14]

+**가** 〔加〕(제) 더하는 셈。 **ㅡ하** (밖) 더함. 보탬。
 가닥 (제) 벗 사이에 서로 논이는 것。 **ㅡ질** (제) 서로 논이 짓。
 가랑 (제) 물이 조금 끼이는 것。
 ㅡㅡ하 (엇) 물이 조금 끼이는 꼴(눈물이 ㅡㅡ하)。
+**가쇼** 〔可笑〕(억) 웃을 만한 것。 **ㅡ롭** (엇) 웃을 만함
+**감독** 〔監督〕(제) ㉠보살피어 董督하는 것…。
 ㅡ관청 〔監督官廳〕(제) 官廳 又는 사물의 監督을 하는 官廳이니…。
 ㅡ셔긔 〔監督書記〕(제) 地方裁判所 區裁判所에…。

13) 이는 일면 거시 구조의 구성과도 관련된다. 사전의 거시 구조는 표제항을 구성하는 체계로서, 표제어의 선정과 표기, 배열, 동음이의어의 처리,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구분 등이 핵심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홍종선 외(2009)에서는 거시 구조와 배분 구조에서 주/부 표제어의 처리를 모두 다루고 있다.

14) 표기는 원고본에 제시된 형태대로 옮겼다. 다만 뜻풀이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는 적용하였다.

ㅡ쳥 〔監督廳〕(제)... **ㅡ판ᄉ**〔監督判事〕(제)...

(6)에서 명사 '가'에 '하-'와 결합한 말인 타동사 '가하'를 부표제어로 보였다. '가닥'의 경우 명사 파생 접사와 결합한 '가닥질'을, 부사 '가쇼'는 형용사 '가쇼롭'을 부표제어로 두었다. '감독'의 경우 '감독관쳥, 감독셔긔, 감독쳥', '감독판ᄉ' 등 4개의 부표제어를 두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이후 국어사전에 널리 수용되었다.

반면 《말모이》의 부표제어 기술 내용은 이후 국어사전의 처리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통 어기의 뜻풀이를 주표제어에만 하고 부표제어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모이》는 모든 부표제어에 뜻풀이가 제시하고 있다. 주표제어가 다의어이면 부표제어도 다의어로 처리하였고, '가랑가랑하다'의 경우에는 용례도 주었다. 주•부로 구분하되, 핵심 미시 구조인 뜻풀이를 빠짐없이 제시한 것은 이용자를 고려한 기술 방식이다.[15)]

둘째는 일반어와 전문어의 뜻풀이 형식과 분량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상어의 경우 같은 의미의 한자를 제시하거나 단어형으로 간단히 풀이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문어나 사물을 나타내는 표제어에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설명한다. 특히 전문어의 경우 국한문 혼용의 문체로 쓰고 있다.

(7) ㄱ. **가** (제)㉠끝 ㉡둘레 ㉢곁...。
+**가** 〔歌〕(제)노래。
+**가감승제** 〔加減乘除〕(제)더하고 덜고 곱하고 난호는 셈。
ㄴ. +**가감뎌항긔** 〔加減抵抗器〕(제) 電路에 揷入하아 電流를 加減하는 그릇이니 한 櫝 속에 洋銀줄이나 또 다른 쇠붙이로 一定한 電氣의 抵抗을 알맞게 걷으며 石板으로 짓은 뚝게에는 數介 又 는 數十介의 接觸點을 排列하고 그 한 끝을 電路한 끝에 連結하고 接觸片에서 電路 다른 끝에 連結하면서 任意로 接觸點에 觸하아 回轉하게 한 裝置니 抵抗을 加減하고 電路에 流하는 電流의 强弱을 加減함.
가디 (제)메나 들에 스스로 나는 잎 덜어지는 등그럭 나무니 키는 두세 길이나 되고 잎은 두집은 알꼴 같아 자루 붙은 짬이 뽀죽하고 서로 낳었으며 꽃은 년과 비슷한데 꽃잎은 흔히 여섯이며 꽃봉오리 우에 한 묶음 털이 잇어 붓꼴 같으므로 붓꽃이라도 함 꽃빛은 힌 것과 붉은 것 두 가지가

15) 홍종선 외(2009:131)에서는 주표제어에만 뜻풀이를 제시하고 부표제어에서 주표제어로 찾아가기 표시를 하는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불친절한 방식이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잇음。
가래 (제)흙을 파거나 다스리는 대 쓰는 연장이니 두티 치 가웃. 가로 여들치. 세로 자 세치쯤 되는 펀덕이 끝에는 쇠날이 둘리엇으며 굵기 치 가웃. 길기 너다섯 자쯤 되는 자루가 잇음。 펀덕이 두 옆에는 구녕을 뚤어 두 줄을 달고 두 사람은 앞에서 단기고 한 사람은 뒤에 뜨어 말어 흙 파는 대에 쓰기가 매우 좋음。
+**가비지리** 〔加比之理〕(제)〔數〕 同種類되는 數個의 量이 比例를 成할 때 前項의 和와 後項의 和의 比가 一의 前項과 後項과의 比에 等한 것。

(7ㄱ)의 'ㄱ'와 같은 일반어는 쉬운 우리말로 간명하게 풀이한 반면, (7ㄴ)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가감뎌항기'나 '가비지리'와 같은 한자어 전문어에서는 국한문 혼용의 문체를 쓰고 있다. 최경봉(2022 : 36~37)에서는 《말모이》에서 우리말 표제어를 우리말로 풀이하였으나 한자어의 뜻풀이에는 한자를, 전문어의 풀이에는 전형적인 국한문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문어 상황을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상황으로 판단하고 표제어의 사용 영역과 환경을 고려하여 뜻풀이 방식을 구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모이》는 언어적 의미와 백과적 정보를 서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병근(1986)에서는 19개 분야의 전문어를 선정하고 언어적 풀이가 아닌 백과적 풀이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전(事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3.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본에 미친 영향

이 장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본(1929-1942)을 대상으로 《말모이》(1911-1914)에서 채택된 사전의 구조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매개 구조와 접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7년에 발간된 《조선말 큰 사전》이 아닌, 《조선말 큰사전》 원고본을 선택한 이유는 《말모이》처럼 일러두기를 갖추고 출판을 위해 원고지에 작성된 자료이며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편찬자의 사전 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 구조를 충실히 알기 어려우나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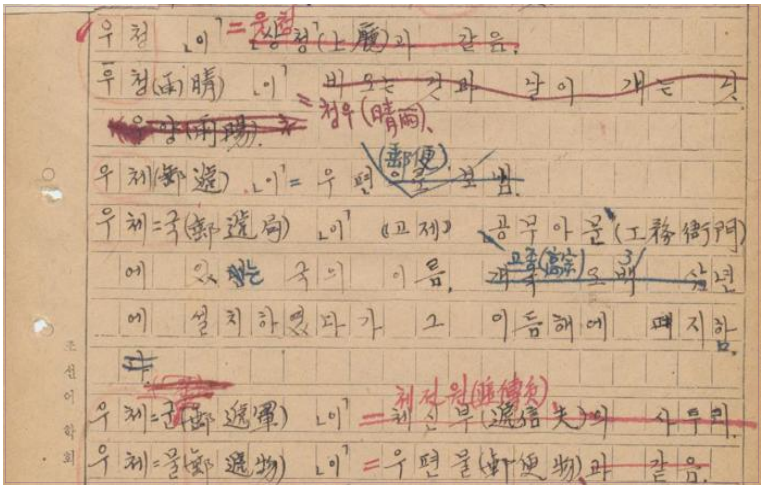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어학회는 큰사전의 편찬을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과정을 거쳤다. 편찬원들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헌 자료를 섭렵하면서 어휘를 수집하였고 학회지 『한글』의 독자와 방학 때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지의 방언을 모았다. 또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을 제정하여 사전 편찬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마련하여 사전의 기술에 적용하고 당대 최고의 국어학자가 집필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조선말 큰사전》원고 총 18책에는 편찬자의 육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편찬이 시작된 1929년부터 1942년까지[16] 집필, 교열, 교정 작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의 구조를 살펴보는 데 적절하다.

최대 구조의 경우 표지, 머리말, 부록, 판권지는 남아 있지 않다. 비교할 만한 대상은 1책에 제시된 범례인데,《말모이》의 '알기' 6개 항목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나아가 사전의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목차로 나누어 작성한 뒤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내적 원리를 보이고 있다. '1. 어휘, 2. 어휘의 벌린 순서, 3. 철자, 4. 발음의 표시, 5. 어원의 표시, 6. 문법 형태의 표시, 7. 해석의 방식' 등 총 7개 항목을 먼저 제시한 뒤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과 같은 약호를 일괄적으로 보였다. 1, 2, 3항목은 사전의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표제어, 표제어의 배열, 표기법 등을 다룬 것이며, 4, 5, 6 항목은 사전의 미시 구조의 핵심이 되는 발음, 원어, 품사 등의 문법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이후 국어사전이 취한 일러두기의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매개 구조의 경우《말모이》에서 적용한 가표제어와 대표 표제어의 상호 참조 체계가《조선말 큰사전》원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초고에 교열 교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두 표제어를 동의어로 보고 '=' 표시로 수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8) 우체(郵遞)「이」= 우편(郵便).
우체=군(郵遞軍)「이」= 체전원(遞傳員).
우체=물(郵遞物)「이」= 우편물(郵便物).

16) 1942년 큰사전 출간을 위한 조판 교정 단계에서 그해 10월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편찬 활동이 강제로 중단되었다.
17) 1947년 출간된 1권의 범례에서도 동일한 목차를 적용하였다. 다만, '철자'가 '맞춤법'으로 바뀌었고, 전문어 부호의 표시에 8번을, 외래어 부호의 표시에 9번으로 목차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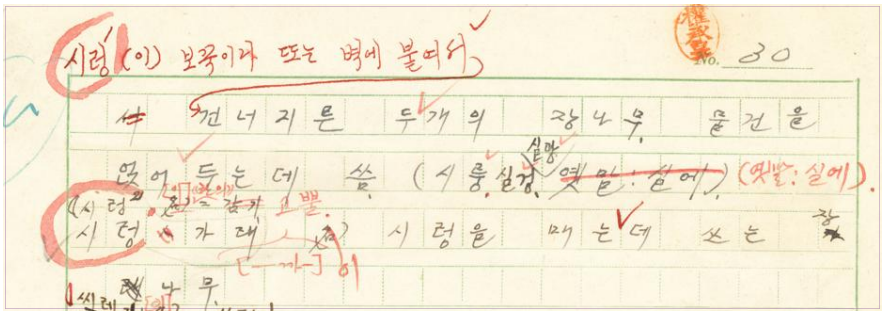


<그림 2>《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예

‘우체(郵遞)’는 본래 “우편으로 보냄”으로 작성되었다가 교열 과정에서 동의 관계 표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체물’은 “우편물(郵便物)과 같음”으로 풀이된 것에서 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 표시로 수정되었다. ‘우체군’의 경우 본래 ‘~의 사투리’에서 ‘=’ 표시, 즉 동의 관계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의어 표시를 널리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말모이》와 달리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깨번호를 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일관되게 적용된 것은 아니나, 일부 고유어 동음이의어에서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

(9) 시렁1 (이) 보꾹이나 또는 벽에 붙여서 건너지른 두 개의 장나무...
《시렁2 (이) ((한의)) =고뿔.
시련(侍輦) [이] ((불교)) 불상(佛像)이나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를 연(輦) 안에 두고 절 안을 세 번씩 돌아다니는 일.
시련(試鍊) [이] 시험(試驗)하고 단련(鍛鍊)함.



<그림 3>《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 어깨번호 예시

그림 3에서 ‘시렁’을 살피면, 아라비아 숫자를 위첨자로 해서 1, 2를 추가로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련’과 같은 한자어는 원어로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어깨번호를 주지 않았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적용된 접근 구조를 살피면, 《말모이》와 동일하게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수월하게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외적 접근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내적 접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9)의 ‘시렁2’처럼 표준어가 아닌 표제어 앞에 ‘⟨’표시를 추가하거나 발음이 길게 나는 음절에는 음절 위에 줄표를 주었다. 옛말의 성조 표시도 옛 문헌에 표시된 그대로 해당 글자 왼쪽에 ‘•’나 ‘:’로 표시하는 등 독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접근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어의 의미 구분은 ‘①, ②, ③...’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품사 정보나 전문 분야 정보는 범례에 제시된 대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책별 조성 시기가 다른 탓에 약물 모양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어 품사를 나타내는 약물은 원괄호, 낫표, 대괄호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참여자가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필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말모이》와 달리 출판용 원고가 아닌 점 등이 이유로 들 수 있다.

기타 접근 구조로 살폈던 그림 정보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반면 《조선말 큰사전》에는 상당수의 그림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식물이나 동물, 기구 등에 세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말모이》의 배분 구조에서 살폈던 주•부 표제어 처리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도 확인된다. 주로 ‘-하다’ 파생 동사를 어근 표제어 말미에 품사 정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로 뜻풀이를 하지 않은 점은 《말모이》와 다르다.

일반어와 전문어 간 정보량을 배분하는 데에서 《말모이》처럼 《조선말 큰사전》 원고도 전문어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인명, 지명, 책명, 사건명, 유물명, 유적명 등의 고유명이 표제어로 상당수 등재되었고 이를 설명해 주는 뜻풀이는 백과적 정보를 담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체를 달리했던 《말모이》와 달리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는 모든 표제어의 풀이말을 국문으로만 표시하였고,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0) 점액선(黏液腺) 「이」((생)) 몸 안의 장기(臟器)의 겉을 덮은 점막(粘膜) 사이에 점액(粘液)을 뿜는 선(腺).

(10)의 ‘점액선’은《조선말 큰사전》원고에서 확인한 예로, 교열을 거친 풀이문에서 한자어의 원어를 괄호 안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필 전의 풀이는 “몸 안의 장기의 표면(表面)에 있어서를 덮은 점막(粘膜) 사이에 있어서 점액(粘液)을 분비(分泌)하는 선(腺)”이다. 교열 과정에서 ‘표면’을 ‘겉’으로, ‘분비하는’을 ‘뿜는’으로 수정한 것이다.

《조선말 큰사전》(1947~1957)은 16만 항목이 넘는 표제어를 수록한 대사전이니만큼 종이책 속에 다양한 정보 항목을 담아 사전 이용자를 배려한 사전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조선말 큰사전》원고본에서 확인이 되었다.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배분 구조를 통해 사전 이용자를 고려한 수준 높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은《말모이》에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추후 보완)

<참고 문헌>

강현화. 2003.「한국어학습사전의 가표제어 선정에 관한 논의」.『언어사실과 관점』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7-179쪽.

김경. 2016.「네이버 독일어사전의 접근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독어학』34. 한국독어학회. 49-76쪽.

김민수. 1983.「「말모이」편찬에 대하여」.『동양학』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1-54쪽.

김병문. 2013.「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한국사전학』21. 한국사전학회. 7-39쪽.

이병근. 1977.「최초의 국어사전「말모이」(稿本)《알기》를 중심으로」.『언어』2-1. 한국언어학회. 67-84쪽.

이병근. 1986.「조선광문회 편 <말모이>(사전)」.『한국문화』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7-303쪽.

이병근. 1990.「사전 및 사전학」.『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태학사. 554-567쪽.

조남신. 2016.『사전학』. 한국문화사.

조재수. 2021.『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한글학회.

최경봉. 2014.「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새국어생활』24-3.

국립국어원. 20-37쪽.
최경봉. 2017.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한국사전학』30. 한국사전학회. 37-66쪽.
최경봉. 2022.「국어사전의 개념과 구조의 형성 맥락」.『한국사전학』40. 한국사전학회. 7-45쪽.
한글학회. 2009.『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허재영. 2013.「근대어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자료 기초 연구: 1910~1920년대의 어휘 자료를 대상으로」.『국문학논집』22.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71-495쪽.
홍종선 외. 2009.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R.R.K., Hartmann.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lexicography*. NewYork: Longman.

국립국어원. 2025.《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글학회. 1947-1957.《조선말 큰사전》 https://hangeul.or.kr/homepage/custom/koreanbig

제2부 주제 발표

이상춘 미간행 국어사전 원고의 거시적 구조와 미시구조/ 박동근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의 사전 구조 분석 연구/ 황용주

『큰 사전』의 구조적 분석: 풀이말과 관련하여/ 최운호

2025 한글 한마당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이상춘 미간행 국어사전 원고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박동근

대진대학교 교수
muse13@hanmail.net

1. 머리말

이 연구는 1929년 백야(白夜) 이상춘(1882~?) 선생이 한글학회(당시 조선어사전편찬회)에 기증한 미발행 국어사전 원고를 대상으로[1], 그 기증 경위와 원고의 현존 상태를 살펴본 후, 이를 사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춘은 개성 출신의 교육자이자 국어학자로, 송도고등보통학교·루씨고등여학교·개성고등여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철자법 제정과 사전 편찬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이수영, 2016). 그는 수년간에 걸쳐 수집한 약 9만여 표제어에 28권에 이르는 방대한 국어사전 원고를 홀로 집필하였고,[2]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었을 때 이를 무보수로 편찬회에 기증하였다.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등은 이 사실을 관심있게 보도하는 한편 “십 년

1) 이하 <원고>라 부르도록 한다.
2) ‘원고’의 총 표제어 수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함.

적공의 심혈을 기울인 결정체(조선일보, 1929. 11. 15.)"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이상춘의 원고 기증은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사업이 본격화하는 데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상춘의 <원고>는 체제상 자모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나 일부 권차는 표제어만 나열되어 있거나 풀이가 미비하고, 교열 흔적과 삭제·추가 기록이 남아 있어 완전한 간행본으로 발전하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 한편 원고 작성 전에 어휘 카드를 사용한 흔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3] 이는 표제어 배열과 교정 작업 과정에서 현대적 의미의 '카드식 편찬법'이 시도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전학사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원고>의 사전학적 가치는 당대 사전 편찬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910년대 주시경과 제자들이 시도한 '말모이' 원고가 'ㄱ'에서 '갈죽'까지만 남아 있고, 식민지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된 한일 대역사전인 『조선어사전』(1920)은 고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수록하여 20세기 이후 신지식과 관련한 새로운 낱말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수도 58,639개에 그쳤다. 백야 '원고'의 집필 기간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출판된 국어사전은 1925년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다.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6,106개의 표제어가 실린 소규모 학습용 사전으로 규모면에서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독자적인 출판에 이르지 못했지만 온전한 사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9만여 어휘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를 갖춘 '원고'는 사전학사의 측면에서 '말모이'와 『큰 사전』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백야의 <원고>가 편찬회에 기증된 당시 상황을 살피고 그중 학회에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살펴 구체적인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원고>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백야의 <원고>가 근대 한국 사전학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920~30년대 국어사전 편찬사 속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4]

---

3) "원고지에 옮겨 적기 전에 먼저 7.5(가로)×13.2(세로)cm의 카드에 올림말을 적었거나 집필을 한 듯 하다. 올림말의 차례 잡기를 위해 어휘 카드를 섰을 것이다. 이 카드는 용케도 원고 노트의 한 갈피에 들어 있던 1매를 발견한 것이다. 이 카드에 '朝鮮語字典'이란 사전 이름이 오른쪽에 세로 적혀 있다."(조재수, 2021 : 152)

4) 한글학회 월간지 『한글 새소식』 제435호~제439호(2008. 11.~2009. 3.)에는 백야의 원고 1차 발견본에 대해 연재하였는데 이는 조재수(2021)로 다시 자세히 정리된 바 있다. 이 글은 조재수(2021)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

2. 이상춘 '원고'의 기증과 한글학회 보관본 현황

먼저, 백야가 편찬회에 <원고>를 기증할 당시의 상황은 다음 세 신문의 기사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백야의 <원고> 기증 기사

신문사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29. 11. 15.	完成된 **九萬餘 語彙** 松高 李常春氏의 心血結晶 한글 辭典에 大楚石
중외일보, 1929. 11. 15.	**九萬 語彙로** 完成된 朝鮮語 大辭典 登梓 개성 리상춘 씨의 **칠년 로력** **修正만 하여 印刷한다**
조선일보, 1929. 11. 16.	우리 사전(辭典)의 태반(胎盤)! **십년 적공**(十年積功)한 **구만여 어휘**(九萬餘語彙)를 이 씨 편찬회(李氏編纂會)에 제공(提供)

기증 당시 세 신문 기사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5)]

(동아일보, 1929. 11. 15.)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가 조직되엇다는 말을 듯고 현재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普)에 조선어 담임 교원으로 재직 중인 리상춘(李常春)씨는 그가 과거 칠팔 년 동안이나 학교 교수 여가에 거위침식을 이저가면서 모아 노흔 **구만여 어휘(語彙)로** 수집되어 총 페이지 수 **팔만구천팔백이십 페지**에 **스물여듧 권**으로 분책되어 잇는 거진 완성되엇다고 볼 수 잇는 원고 전부를 동편찬회에 **무보수로** 자진하야 제공하얏다는바 사전편찬회 위원 제씨는 그의 독지를 찬양하기마지 안는 동시에 일충 진력키로 원긔를 내게 되엇다더라

(중외일보, 1929. 11. 15.)

시내 수표뎡에 잇는 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 안에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가 성립되엿다함은 ○도하엿거니와 동회에서는 각방면으로 어휘(語

5) 띄어쓰기와 굵은 표시는 글쓴이가 함.

彙) 모집에 로력 중인 요지음 개성 송도고보(松都高普) 조선어 교수로 잇는 리상춘(李常春) 씨에게로부터 전 **이십팔 권(全二十八券) 팔만구천팔백이십페지**(八萬九千八百二十頁)의 대원고가 도착되엇는데 이것은 의외에도 완료(完了) 되엿다고 볼만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원고인바 동회에서는 놀라는 한편에 내용이 ○성함에 감탄할 뿐 아니라 이 저술자인 리상춘 씨의 노력에 대하여 동회 간부 리극로(李克魯) 씨는 다음과 가티 말하더라

「실로 놀라운 보물이올시다 이것은 리상춘 씨가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더구나 낫에는 학교 일로 온전히 밤 시간에만 하엿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칠 년전(七年前) 계해(癸亥) 정월부터 착수**하였고 이 쪽에 모힌 말 수가 **구만 어휘(九萬語彙)**가 넘음으로 총독부에서 십여 인이 십일 년간 낸○ 조선어사전이 겨우 오만여 어휘(五萬餘語彙)에 불과하는데 비기여 내용이 얼마나 충분하며 ○○서 씨의 로력을 상상할 수 잇습니다. 이와 가치 **다소 수정만 가하면 씨 개인의 사업으로 완전한 사전 하나를 인쇄할 수 잇는 원고**임에 불구하고 통일적 사전 하나를 위하여 그처럼 심혈○○ 대성한 원고를 우리에게 아모런 모수도 업시 내여 놋는 것을 우리 간부 일동은 눈물겨움의 감사할 뿐 안이라 압흐로 우리의 로력도 임이 반성(半成)한 한 즐거움이 잇습이다」하더라

(조선일보, 1929. 11. 16.)

지난번『한글』기념일(紀念日)을 기(期)하야 이극로(李克魯), 이윤재 등 제씨(李允宰等諸氏)의 노력(努力)으로 새로히 조선사전편찬회(朝鮮辭典編纂會)가 조직(組織)되엇슴은 기보(己報)와 갓거니와 이 깁분 소식(消息)을 들은 송도고보교 조선어 담임교사 이상춘씨(松都高普校朝鮮語擔任敎師李常春氏)는 저간 칠팔년간 교편(這間七八年間敎鞭)을 삽은 일편 심혈(一便心血)을 기우려 수집(蒐集)하야 두엇든 사전 초고(史典草稿)를 동회(同會)에 **무보수(無報酬)로 자진 제공**(自進提供)하얏는데 그 내용(內容)은 **범구만여 어휘(凡九萬餘語彙)**로 총 **혈수 팔만구천팔백이십혈**(總頁數八萬九千八百二十頁)을 **이십팔 권(二十八卷)**에 성책(成冊)한 호한(浩瀚)한 저작(著作)인바 이와 가튼 거룩한 노력(努力)에 대(對)하야는 오족(吾族)의 누구나 치사(致謝)할 바임은 물론(勿論)이요 특(特)히 그 귀중(貴重)한 정려(精勵)의 결정(結晶)을 무보수(無報酬)로 제공(提供)함에 대(對)하야 동회(同會)에서는 감패(感佩)함을 마지 안는다 한다 (조선일보, 1929. 11. 16.)

세 신문사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증 원고의 규모가 총 9만여 어휘(표제어)에 89,820쪽에 이르며 모두 28권이라는 점이다. 또 거의 완성된 원고를 무보수로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지로 89,820쪽이면 거의 9만 가까운데, 총 어휘(표제어) 수가 9만이라는 것은 원고지 한 쪽당 표제어가 1개라는 것이니 수치상 가능하지 않고 실제와도 다

르다. 기사에서 제시하는 원고 쪽수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기사는 편찬 회측에서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6)]

신문 기사 외에 이상춘의 원고 기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한글학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으로는 개성의 이상춘 씨와 상행에 교거(僑居)하는 김두봉 씨가 각기 적년(積年) 신고(辛苦)하여 **10만에 가까운** 어휘를 수집한 바이 있었으나, 이상춘 씨는 이것이 도저히 개인으로서 완성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 전부를 조선어 학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지금 동회에 보간되어 있다. (이윤재(1935), 조선어 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31)

> 개성의 이상춘이 송도 고등 보통학교의 재직 중에 독력으로 **약 7만에 가까운** 어휘를 모아서, 간략한 주석을 붙이어 원고로 작성하였으나, 간행을 하지 못한 채 조선어 학회에 기증한 바 있었다. (『한글학회 50년사(1971 : 262))

원고의 표제어 수에 대해 이윤재(1935)는 10만에 가까운 어휘라 하고, 『한글학회 50년사』의 기록에서는 약 7만에 가까운 어휘라 하여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세 신문 기사에서는 약 9만여 어휘라 하여 학회의 기록과도 차이를 보인다.[7)]

현재 사전 전체의 내용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만으로는 '원고'의 표제어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조재수(2021)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원고' 중 전체가 온전한 'ㅁ' 항목의 표제어 수를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과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1940)의 표제어 수와 비교하여 "7만 어휘 채집"이라는 『한글학회 50년사』의 기록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백야가 기증한 '원고'는 학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90년대 초 큰 사전 원고 노트에 함께 들어 있는 '원고' 일부를 당시 큰 사전 보유 편찬원으로 근무하던 조재수 님이 확인하게 된다. 이때 발견한 원고 노트는 모두 6권이며, 원고지로는 1,759쪽의 분량이다(1차 발견본).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6)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토록 함.

7) 이 밖에 백과사전이나 개인 연구에서 원고의 표제어 수를 말하고 있으나 모두 이들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발견 원고]
- 11권(1~251쪽): 마, 머, 모
- 12권(252~487쪽): 무, 므, 미, 먀, 며, 묘
- ○권(5쪽~327쪽): 사객~생육
- 19권(1926. 9.)(214~615쪽): 저, 조
- 20권(1926. 12.)(616~918쪽): 주, 즈, 지
- 22권(1927. 3.)(364~611쪽)

이후 추가로 4권이 더 발견되었는데(2차 발견본) 원고지 분량으로는 1,033쪽이다.

[2차 발견 원고]
- 3권(1925. 9. 1.): 으, 이
- 4권(2025. 10. 15.): 야, 여, 요, 유
- 10권(1927. 6. 8.): 도, 두, 드, ㄹ
- 13권(1926. 8.): 바, 버, 브

이에 현재 확인된 1차 발견본과 2차 발견본의 원고는 1929년에 백야가 기증한 총 28권 가운데 10권이며, 원고지로는 모두 2,792쪽이다.[10)]

<표 2> 백야 <원고> 학회 보관본

권	묶은 날	쪽수	자모	수록 표제	특이 사항
3	1925. 9. 1.	751~988	으, 이	으나~잊우악하	- 표지 맨 뒤에 '鮮語文法'이라 써 있음 - 10*24의 '송도고등보통학교' 원고지 사용(966쪽부터 10*20 원고지 사용) - 표제어마다 품사 표시 - 누락된 어휘를 뒤에 추가한 것이 적지 않음

8) 엮은 날로 보면 19권(저, 조)이 1926년 9월이고 자모순으로 앞서는 10권(도, 두, 드, ㄹ)이 1927년 6월이다. 엮은 날은 19권(저, 조)가 앞이나 10권과 달리 19권은 표제어와 한자 어원만 있고 뜻풀이는 대부분 없다.

9) 사전을 묶은 날이 대개 자모 순과 일치하긴 하나 'ㅇ' 항목이 1권으로 시작하는 점이 특이하고, 'ㅂ' 항목인 13권을 묶은 날과 19권(저, 조)을 묶은 날이 한 달 간격이어서 그 사이에 오는 'ㅅ' 항목을 묶은 날이 언제쯤일지 의문이다.

10) 앞에 제시한 기사에는 기증한 원고가 총 89,820매에 28권으로 분책되어 있다고 했으나 약 1/3의 분량에 해당하는 10권 원고의 총 분량이 2,792쪽인 것을 보면 8,982쪽의 잘못된 기록으

4	1925. 10. 15.	989~1000	야, 여, 요, 유	야~야유하	- 쪽 번호는 최대 1,000번까지 부여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 1쪽으로 시작 - 뒷장 없음 - 이하 '백야원고' 사용 - 137쪽 유고(遺稿)부터 품사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음 - 교정 시 빠진 표제어 다수 추가
		1~173		약~융텸(戎點)	
10	1927. 6. 8.	249~507	도, 두, 드, ㄹ	도~띵하 (249~494)	
				ㄹ~료 (495~507)	
11	날짜 없음	1~251	마, 머, 모	ㅁ~뫼아리	
12	날짜 없음	252~487	무, 므, 미, 먀, 며, 묘	무~묘유사	
13	1926. 8.	1~354	바, 버, 보	ㅂ나이까~뵈옵다	- 출석부 표지를 겉지로 사용
번호 없음	날짜 없음	5~327	사	사객~생육	- '1924년도 성경과 제1학년 출석부 겉표지'를 원고 노트의 겉표지 사용 - 1~4쪽은 낙장임.
19	1926. 09.	214~615	저, 조	저~죄역	- 표제어 및 표제어에 대한 한자만 있고 대부분 풀이가 없음. - 이하 마찬가지[8]
20	1926. 12.	616~918	주, 즈, 지	주~찚으리	
22	1927. 03[9]	364~611	호~	호(웃는 소리)~횡역(橫逆)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차 발견본임)

각 권의 원고 분량은 많게는 401쪽(19권)에서 적게는 184쪽(4권)으로 평균 279쪽이다. 각 권은 원고지 앞뒤를 출석부 표지 등의 두꺼운 종이를 데고 실끈으로 4구 제본하였다. 표지에는 권수와 수록 자모를 '가, 나, 다' 형태로 표시하고 제본 날짜를 기입하였다. 책등에도 수록 자모를 표시하였다.

사전은 원고지에 세로로 작성하였는데, 3권은 10*24의 '송도고등보통학교' 원고지를 사용하였고, 같은 권 966쪽부터는 10*20=200자 원고지 사용하였다. 4권부터 확인된 마지막 22권까지는 12(가로)×24(세로)=288자로 된 '白夜原稿紙'를 사용하였다.

로 보인다.

11권(마, 머, 모), 12권(무, 므, 미, 먀, 며, 묘)의 ㅁ으로 시작하는 표제 항목만 누락된 것이 없으며,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권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 해당 자모의 온전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

마(11권), 바(13권)처럼 자모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권은 1쪽으로 시작하고 '무'로 시작하는 12권은 11권에 이어서 쪽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4권은 989쪽으로 시작하는데 1000쪽까지 쪽 번호를 붙이고 다음 쪽은 다시 1번부터 번호를 새로 매기고 있다. 19권(저, 조)부터는 표제어와 한자 정보만 있고 일부 표제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뜻풀이가 없다. 20권, 22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아 미발견된 28권까지는 풀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원고를 묶은 날은 학회 보관본 가운데 3권(으, 이)이 1925년 9월 1일로 가장 빠르고 22권(호)이 1927년 3월로 가장 늦다. 백야의 사전 집필 시기에 대해 조재수(2021 : 152)는 1차로 발견한 원고 노트 중 19권에 1926년 9월, 20권에 1926년 12월, 22권에 1927년 3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첫 권인 '가' 어휘의 집필은 1926년보다 여러 해 전이었을 것으로 보아 사전 편찬은 1920년을 전후한 때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11] 최경봉(2005 : 244)에서도 사전 집필이 10년에 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선일보>(1929. 11. 16.) 기사에 "십년 적공(十年積功)한 구만여 어휘(九萬餘語彙)"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외일보>(1929. 11. 15.)에서 인용한 이극로의 말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칠 년 전(七年前) 계해(癸亥) 정월부터 착수하였고…"라 하여 사전을 집필하기 시작한 때를 1922년 1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다른 기록보다 신뢰할 만하다.

기증한 사전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책(成冊)한 호한(浩瀚)한 저작(著作)인바…"(조선일보, 1929. 11. 16), "스물여듧 권으로 분책되어 잇는 거진 완성되엇다고 볼 수 잇는 원고…"(동아일보, 1929. 11. 15.), "다소 수정만 가하면 씨 개인의 사업으로 완전한 사전 하나를 인쇄할 수 잇는 원고임에 불구하고."(중외일보, 1929. 11. 15.) 등의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12] '말모이'의 원고가 상당히 정제된 형태임에 비해 앞에서도 보았듯이 총 28권 중 19권(저, 조)부터는 표제어만 있고 대부분 풀이가 없어 완성된 원고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도 다소 거칠고 일관성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수정·첨가·삭제 등의 가필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부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정도의 원고라고 보기는

11) 2차본 발견 결과 첫 권은 '가'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표제 항목들이고 모음의 마지막 4권을 묶은 날이 1925년 10월 15일이니 4권 다음이 '가' 항목이라고 할 때 '가' 항목의 집필 시기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12) 최경봉(2005 : 244)에서도 백야의 원고가 '가'행부터 '하행까지 전부 정리가 된 것으로 원고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개인적인 출판도 가능한 일로 보았다.

어렵다. 이윤재(1936)의 말대로 사전 편찬은 도저히 개인이 완성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발족하고 그 편찬 위원이 되면서 원고를 조선어연구회에 기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조재수(2021 : 153)의 당시 상황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3. 이상춘 '원고'의 최대 구조와 거시 구조

사전은 어휘 목록과 각 표제어에 대한 풀이를 포함해 표지, 머리말, 일러두기, 자모표, 부록, 색인, 인지 등을 포함한 독립된 텍스트로 이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전의 '최대 구조(mega-structure)'라 한다. 한편 사전의 '거시 구조(macrostructure)'란 사전의 본문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선정 원칙과 배열, 다의어·동형어의 처리 방식 및 부가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한 것으로 구조적으로 독자가 사전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게 조직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백야의 원고는 기증한 28권 중 현재 열 권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원고의 최대 구조나 거시 구조를 온전히 알기는 어렵다. 다행히 동아일보(1929. 11. 15.)에는 백야가 사전 원고를 조선어사전편찬회에 기증한 사실과 함께 기증한 원고를 세로로 쌓아놓은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각 권의 등에 보이는 일부 자모 표시를 통해 미발견된 나머지 권의 빈칸을 어느 정도 재구할 수 있다.

<표 3> 백야 사전 원고의 추정 권 수

권	묶은 날	쪽수	수록 자모
1		1~?	아, 어,
2		?~750	오, 우
3	1925. 9. 1.	751-988	으, 이
4	1925. 10. 15.	989~1000	야, 여, 요, 유
		1~173	
5		1~?	가, 거
6			고, 구
7			그, 기, 갸, 겨, 교, 규
8		1~?	나
9		1~248	다, 더

10	1927. 6. 8.	249~507	도, 두, 드, ㄹ
11	날짜 없음	1~251	마, 머, 모
12	날짜 없음	252~487	무, 므, 미, 먀, 며, 묘
13	1926. 8.	1~354	바, 버, 보
14		**354~?**	**부, 브 비, 뱌, 벼, 뵤, 뷰**
15	날짜 없음	5~327	사
16		**328~?**	**서, 소**
18		**1~213**	**자**
19	1926. 09.	214~615	저, 조
20	1926. 12.	616~918	주, 즈, 지
21		**1~364**	**하, 허**
22	1927. 03.	364~611	호
23		**612~?**	**후, 흐, 히**
24~28			**(ㅋ, ㅌ, ㅍ, ㅊ)**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발표자가 예측한 권수과 수록 자모임)

예를 들어, 기사의 사진을 통해 ‘아, 어’를 한 권으로 묶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확인된 3권(으, 이)과 4권(야, 여, 요, ㅠ)이 ‘ㅇ’의 어휘 항목을 표제어로 묶은 것으로 보아 ‘아, 어’ 항목이 1권임을 재구할 수 있다. 또 기사의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모순으로 볼 때 2권은 ‘오, 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6권(고, 구), 7권(그, 기, 갸, 겨, 교 규), 8권(나), 9권(다, 더), 14권(부, 브, 비, 뱌, 벼, 뵤, 뷰), 16권(서, 소), 18권(자)의 권 수와 수록 내용을 알 수 있다. ‘ㅎ’ 항목은 현재 22권(호)만 발견되었고 기사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자모순으로 볼 때 21권으로 ‘하, 허’를 23권으로 ‘후, 흐, 히,...’를 엮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ㅎ 이후의 자모 항목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총 28권을 기증한 것으로 보아 24권~28권은 ‘ㅋ, ㅌ, ㅍ, ㅊ’에 해당하는 어휘를 묶었을 것으로 보는데 통상 사전의 분량을 고려하면 24권 ‘ㅋ’, 25권 ‘ㅌ’, 26권 ‘ㅍ’, 27권·28권 ‘ㅊ’으로 묶었을 것으로 본다.

<원고>는 원고지에 세로로 집필하였는데, 권차 중 제일 빠른 3권(으, 이)은 대부분 하나의 표제어와 뜻풀이가 한 줄을 차지하지만 뜻풀이가 긴 경우 그에 따라 2줄~4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는 집필 시 표제어와 해당하는 뜻풀이를 원고지에 순서대로 작성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4권의 새로 시작하는 1쪽부터 확인된 마지막 <원고>까지는 하나의 표제어와 그 뜻풀이는 한 줄을 넘는 경우가 없다. 표제어와 뜻풀이가 원고지의 한 줄(25칸)을

넘는 분량인 경우에는 뜻풀이 글자를 작게 하고 원고지 한 줄을 두세 줄로 나누어 쓰거나, 원고지의 빈자리에 써넣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3권 이후 하나의 표제어가 한 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고> 집필 과정에서 권마다 표제어를 먼저 일괄 입력하고 뒤에 뜻풀이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3권 이후의 원고를 보면 표제어의 필기 상태와 뜻풀이의 필기 상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원고>에 수록된 어종으로는 고유어와 한자어, 서양 외래어가 있는데 외래어의 비중은 높지 않다.[14)] 표제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늘날의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문법형태소의 결합형을 표제어로 적극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원고>에 표제어로 수록된 의존형태 표제어들

으로	ㅂ나이까
으로가	ㅂ니이다
으로나	ㅂ니까
으로니	ㅂ니다
으로는	ㅂ더이까
으로도	ㅂ더이다
으로든지	ㅂ데까
으로라도	ㅂ데다
으로라야	ㅂ소서
으로만	ㅂ시다
으로만은	ㅂ시오
으로만이	ㅂ쇼
으로만이라도	ㅂ지요
으로만이야	ㅂ죠

이에 대해 조재수(2021 : 154)는 백야가 어느 편찬자보다 우리말의 문법형태소를 중요하게 다룬 첫 보기로 보았는데, 전체 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표제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지금 기준으로 볼 때 방언과 고어, 은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어는 뜻풀이에 다음과 같이 '~의 古'로 표시하여 지금말과 구분하였다.[15)]

13) 이는 권19(저, 조), 권20(주, 즈, 지), 권22(호)의 경우 뜻풀이 없이 표제어만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4) <원고>에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보지 못했다.

15) 백야는 1946년에 『註解龍飛御天歌』를 펴냈으며 1949년에 『조선 옛말 사전』을 펴낸 것으로

(2) <원고>의 ‘고어’ 제시
바랄 바다의 古
잇브 갓브의 古
사랑하 생각하다의 古語

단어 이외에 ‘관용구’나 ‘사자성어 등의 표제어도 볼 수 있다.

(3) <원고>에 표제어로 수록된 사자성어와 관용어
주객지간 主客之間
반면지분 半面之分
발본색원 拔本塞源
밤눈어둡 日沒 後에 눈이 어두버 도모지 몯봄.
밤이슬맞 盜賊함의 隱語‘

또 일부 잘못도니 말도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4) <원고>의 ’잘못된 말‘ 표제어
은응나무 명 은행나무 의 잘몯

표제어는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조재수(2021)에서는 온전히 남아 있는 ’ㅁ‘의 원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순서를 밝힌 바 있다.

<표 4> <원고>의 표제어 자모에 따른 표제어 배열 순(조재수, 2021 참조)

첫소리(자음)	마**가**, 마**나**님, 마**당**, 마**람**, 마**마**, 마**바**리, 마**사**, 마**자**, 마**한**, 마**탁**, 마**파**람, 마**차**, 마**아**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ㅌ, ㅍ, ㅊ, ㅇ
모음	마, 매, 머, 메, 모, 뫼, 무, 뭐, 뮈, 므, 미, 먀, 며, 몌, 묘, (뮤)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ㅝ, ㅢ, ㅡ, ㅣ, ㅑ, ㅕ, ㅖ, ㅛ, ㅠ
받침	막, 만, 많, 말, 맑, 맘, (　), 맛, 망, 맞, … // … 짐, 집, 짓, 징, 짖, 찧, 짙, 짚 // 밑 며누리, 및,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ㅋ), ㅌ, ㅊ, ㅍ

각 표제어의 둘째 음절 첫소리의 배열 차례는 백야(1925)의『조선어 문법』의 자음 차례와 같은데 ’ㅇ‘자로 시작하는 표제어를 맨 뒤에 둔 것이 특징

보아 고어에도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다. 그런데 백야의 <원고>에서는 'ㅇ' 자모를 초성으로 하는 표제어를 1권~4권으로 묶고 있어 각 자모 내에서의 배열 순서와 다르다. 'ㅇ'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서는 <표>와 같은데 단순히 작업 순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출판 시에 'ㅇ' 자모의 표제어로 시작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16] 된소리는 <말모이>나 『큰사전』과 같이 된소리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 다음에 각 음절 단위로 배열하고 있다.

사전의 표제어 배열 시 동형어는 자모 순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사전마다 세부 편찬 지침을 두기 마련이다.

<표 5> 국어사전의 동형어 배열 원칙

『표준국어대사전』(1999)	『고려대 한국어사전』(2009)
어휘 형태 - 문법 형태 (조사 - 어미 - 접사)	어휘 형태 - 문법형태
일반어 - 전문어	
현대어 - 고어	
	품사 - 무품사
자립명사 - 의존명사 - 대명사 - 수사 - 동사 - 형용사 - 보조용언 - 관형사 - 부사 -감 탄사 - 어근	명사 - 대명사 - 수사 - 동사 - 형용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 조사 - 접사 - 어미
	표준어, 비표준어, 방언
고유어 - 한자어(총획수 순) - 외래어(원어의 알파벳 순)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어휘 형태의 사용 빈도
	단일어 - 복합어
표준어 - 북한어 - 방언 - 오표기	

검토 결과, <원고>의 경우 '동형어' 배열에 엄격한 순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5) '베' 동음이의어의 배열 순서

베1[17] 布 삼실로 무명같이 짠 천

베2 割 칼 같은 것으로 썰어 깎음 (베히)

베3 枕 잘 때에 베개로 머리를 고임

16) 원고는 자모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자모 순서와 이를 묶은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10권(도, 두, 드, ㄹ)을 묶은 날이 27년 6월인데, 20권(주, ㅈ, 지)을 묶은 날은 이보다 늦은 26년 12월이다.

17) 어깨 번호는 편의상 글쓴이가 붙임.

동사인 ‘베2’가 명사인 명사 베1과 베3 놓인 것을 보면 순서에 품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도’ 동음이의어의 배열 순서

도1 ㄷ + ㅗ
도2 도아지의 畧
도3 윳의 하나 잦브어진 것
도4 [助] 主, 客,...에 通用 하는 토
도5 [接] 同一 狀態의 事物을 竝列하는 토
도6 道 사람이 바래는 길

문법형태소인 ‘도4’와 ‘도5’가 어휘 형태인 ‘도3’이나 ‘도6’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의존형태소와 어휘 형태의 순서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8]

(7) <원고>에서 동형어 한자어의 배열 보기

ㄱ. 정당(政當) - 정당(政堂) - 정당(正堂) - 정당(正當) - 정당(停當)
ㄴ. 정사(政事) - 정사(正史) - 정사(正使) - 정사(情私) - 정사(精舍) - 정사(正寫) - 정사(淨寫) - 정사(呈辭) - 정사(亭榭)

한편 <말모이>나 <큰사전>에서 파생어를 부표제어로 처리한 것에 반해 <원고>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 관용구 등을 자모 순에 따라 모두 주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한 표제의 뜻풀이는 한 줄을 넘지 않는다. 글씨 크기를 작게 하여 한 줄에 다 넣는다. 여백에 쓴다. 이로보아 어휘 수집 후 이를 원고지에 기입하고 사전의 뜻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재수(2021 : 153)에 따르면 ㅁ의 표제어수가 5,800여개인데 ㅁ의 원고 매수가 487쪽이고 각 원고지의 줄 수가 12개이므로 487×12=5,840으로 일부 원고지는 끝까지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지 수를 세면 얼추 표제어 수를 예측할 수 있다.

<원고>의 표기는 국한문 혼용체로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백야의 표기법에 대한 태도는 <조선일보>(1928. 11. 6.) “나의意見, 朝鮮語綴字法에對한 斯界學者의 意見은 어떠한가(2) : 李常春”와 <조선일보>(1929. 6. 7.)

18) 물론 이상춘(1925)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한글정리(整理)는 어떻게할가”에서 대략을 살필 수 있다. 그에 표기법 태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8) 백야의 표기법에 대한 태도
ㄱ. 모든 자음은 받침으로 쓴다.
ㄴ. 된소리는 병서로 쓴다. (된시옷을 사용하지 않음)
ㄷ. 한자의 음은 표음식으로 한다.
ㄹ. 뜻은 하나로 꼴이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쓴다.
ㅁ, 어간과 토(조사, 어미)는 구분하여 쓴다.

전반적으로 현대 표기보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경향이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원고>의 원형 밝혀 적기
죽을어지고(쭈그러지고), 한울(하늘), 두들억이(두드러기), 어렵은(어려운)

1차본 발견 당시에는 ‘ㄴ’, ‘ㄹ’ 항목과 ‘ㅇ’ 항목이 없어, 두음법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재수(2021 : 158)은 이상춘의 『조선어 문법』(2025) 제11장의 ‘습관음’ 설명과 예시를 토대로 표기에 두음법칙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추정한 바 있다.

> “漢字音은 表音的 記音이 옳습니다 音符文字의 生命은 소리에 있다. 곳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대서 音符文字의 값이 낱아나는 것이다. 何必 漢字音이 어떠하니 英字音이 어떠하니 할 까닭이 없이 소리나는 대로만 쓰면 그만일 것입니다. 玉篇音에 拘束될 것이 없읍니다”(조선일보, 1929. 6. 7.)

백야는 위의 기사에서 한자어 표기에서 표음주의(현실 발음) 원칙을 주장하였고, 예시로 “羅州는 나주, 女子는 여자” 등을 들고 있는데, 기사가 실린 날짜는 <원고>를 기증하기 몇 달 전이니 표기법에 대한 백야의 입장은 <원고>의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실제 2차본에서는 ‘ㄹ’ 항목과 ‘ㅇ’ 항목의 일부가 발견되어 ‘ㄹ’ 두음법칙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ㄹ’(권10, 495~507쪽) 항목의 표제어가 모두 143개인데 어미나 조사 외에 일반 어휘의 표제어가 없다. 이는 <원고>에서 ‘ㄹ’

두음법칙을 철저히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ㄴ두음 법칙 적용 여부를 살필 수 있는 'ㄴ' 항목의 권차는 2차 발견본에도 없다. 그런데 <원고>에서 '잉부(孕婦)'의 뜻풀이를 '아이 밴 녀자'로 풀이하고 있어 '녀자'는 두음법칙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9]

<표 6> <원고>의 두음 법칙 적용 표제어

ㄹ 두음법칙 어휘	<원고>	ㄴ 두음법칙 어휘	<원고>
양심(良心)	표제어 있음	여자(女子)	표제어 없음
양반(兩班)	표제어 있음	연도(年度)	표제어 없음
역사(歷史)	표제어 있음	연세(年歲)	표제어 없음
용궁(龍宮)	표제어 있음	염불(念佛)	표제어 없음
이론(理論)	표제어 있음	익명(匿名)	표제어 없음

이는 ㅇ 항목인 3권과 4권의 표제어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심, 양반, 역사, 용궁, 이론' 등의 표제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ㄹ' 두음 법칙이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여자, 연도, 연세, 염불 익명' 등의 표제어가 3~4권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ㄴ' 항목에 '녀자, 년도, 년세, 념불, 닉명'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원고>에서는 ㄹ 두음법칙만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이상춘은 그의 『조선어 문법』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을 어간과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사전에서는 'ㄴ'은 어간과 분리하여 표기하되 'ㄹ'은 어간과 분리하여 표기하지 않고 있다.

> 「우리 글 은 배우기 가 쉽, 고, 쓰기 가 좋다.」라는 한 마디 말 에는, 「우리」「글」「은」「배우기」「가」「쉽」「고」「쓰기」「가」「좋」「다」—이 아홉 낯 의 單語 로 이루 ㄴ 것이 니리. (이상춘, 『조선어문법』 33쪽)

백야는 『조선어문법』(1925 : 33)에서 현대문법의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고 있어, 이에 따라 띄어쓰기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19) 현대어에 ㄴ 두음법칙에 어긋난 고유어는 '냠냠' 정도인데, <원고>의 뜻풀이에는 '닙울'(이불) 등 고유어 표기에도 ㄴ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어휘들이 눈에 뜨인다.

(10) <원고>의 띄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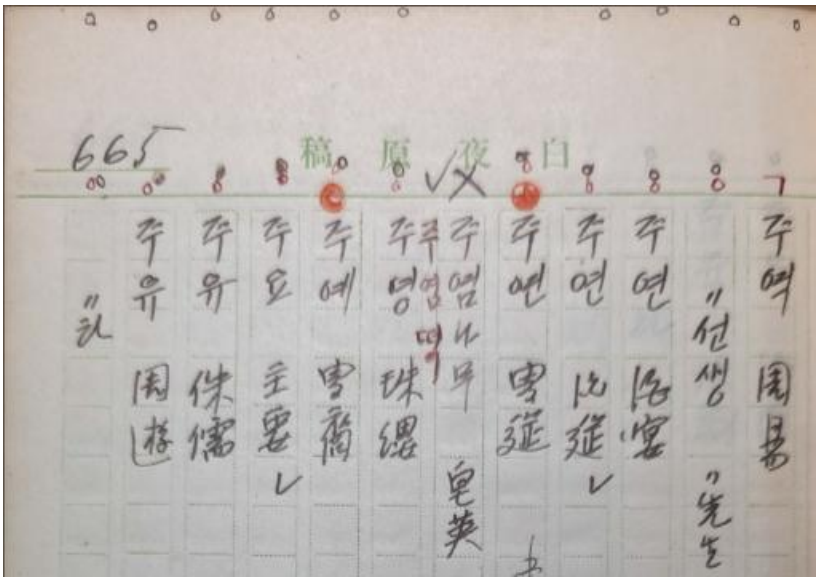
으냐 終 냐 와 같으되, 자음 아래 쓰임

은밀하 형 隱密. 숨어 들어나 지 않은 것

은린 명 물고기 의 비눌

은인 명 恩人. 惠를 베푸 ㄴ 사람.

다만 육필로 쓴 원고에서 대부분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는다. 4권(야, 여, 요, 유)까지만 해도 '의'의 띄어쓰기 원칙을 대체로 지키고 있으나 10권(도, 두, 들, ㄹ)에서는 어미와 조사 띄어쓰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림 16> <원고>에 사용된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밖에 <원고>는 검토 과정에서 여러 기호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그림 1>과 같이 표제어 위에 'o, x, ㄱ, ∨' 등의 기호는 뜻풀이가 없는 19권, 20권, 22권을 포함해 전 권에 표시가 있으며 그 밖에 표제어 밑에 'ㄴ, △' 표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또 표제어 위에 '결재인'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도장 표시를 종종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찾지 못했다.[20]

20) 'o, x,'는 표제어 누락 여부를 확인을 위한 표시가 아닌가 싶은데, 백야의 집필 과정에서 표시한 것일 수도 있고 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표시한 것일 수도 있겠다.

4. 이상춘 <원고>의 미시 구조

4.0. 미시 구조의 요소들

거시 구조가 사전 정체의 틀과 배열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미시 구조는 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관한 것이다.

<표 7> 국어사전 표제항의 미시 구조(홍종선 2009 : 118)

형식 항목(왼쪽 항목)					내용 항목(오른쪽 항목)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전문어	논항틀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어
형태 분석 및 어깨번호 포함	어원 포함	표준 발음 및 허용 발음	고유명, 불규칙 활용 포함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주술 주목술 주부술 주목부술	기본 의미+ 부가 의미	출전 포함	준-본, 큰-작은, 센-거센-여린 등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홍종선 외(2009 : 117)에서는 국어사전의 미시 구조를 <표 7>과 같이 크게 형식적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원고>의 미시 정보의 최대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 '원고'의 미시 구조
표제어 - 원어 정보 - 품사 - [전문어 표지] - (한자 풀이), 뜻풀이, (한자 풀이) - 「용례」 - (관련어/참고어)

<표 7>의 미시 정보 가운데 <원고>에서는 형식 항목으로 '발음' 정보가 없으며, 내용 항목으로 논항틀 정보가 없다. 즉, 발음 정보와 논항틀을 제외하면 현대 사전의 미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4.1. 표제어

용언 표제어의 경우 현대 국어사전들이 'X-다' 형태를 표제어로 수록하는데 반해 <원고>에서는 <말모이>처럼 어간 형태까지만 표제어로 수록한다.

(12) **의젓하** 形 젊고 어리ㄴ이 가 어룬같이 行動하는 꼴(무던하)
이르 形 때가 아즉 몯되ㄴ꼴

잃 動 길이고 떨어떠리어 찾지못함

이는『조선어 문법』(1925)에서 알 수 있듯이 백야가 조사와 더불어 어미에 해당하는 말을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제어에는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어사전의 표제어에는 동형어를 구분하기 위해 통상 어깨번호 사용하는데 <원고>에는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형태 경계나 의존 형태소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이픈 역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말모이>에서는 표제어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 표제어의 해당 음절 위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큰사전』에서는 음의 장단을 표시하기 위해 표제어 위에 머릿줄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ː’로 장음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원고>에서는 따로 이를 위해 별도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파생어는 부표제어로 삼지 않고 모두 독립된 표제어로 설정하였다.[21] 다만 ‘ㅇ’ 항목(3권, 4권)의 경우 부표제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다.

(13) **이렇** 形 이러하의 畧
이렇게
이렇ㄴ
이렇ㄴ대로
이렇ㄴ즉
이렇ㄴ양으로
이렇듯이
이렇나저렇나
이렇니저렇니
이렇궁저렇궁 副 이리하고 저리하야 변덕스럼은꼴

<원고>에서 표제어는 첫 칸에서 시작하는데 ‘이렇’ 표제어 다음 줄에 오는 ‘이렇게~이렇니저렇니’는 형용사 ‘이렇’의 활용형으로 모두 첫 칸을 비우고 들여썼으며 그 다음에 오는 ‘이렇궁저렇궁’은 다시 첫 칸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이렇니저렇니’는 일종의 부표제어로 볼 만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표제어 처리는 3권에서만 나타난다.

4.2. 원어

21) ‘말모이’에서는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를 모두 부표제어로 처리함

원어 표시는 표제어에 바로 이어서 하였다. 원어 표시 대상은 '한자어'와 '외래어'인데 한자어 표제어 뒤에는 빠짐없이 한자 원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자어 외에 서양 외래어는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음역한 한자어를 표제어 다음에 쓰고 원어를 쓰거나, 원어는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22]

(14) **미돌** 米突 meter
미라 木乃伊 mummy
사탄 魔 [宗] 基督敎의 惡魔의 稱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일 경우 현대 사전에서는 한자어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자어를 제시하는 데 반해 <원고>에서는 고유어-한자어 합성어의 경우 원어인 한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15) **바돍점** 바돍판 위에 벌린 낯낯의 바돍 곳 말
바돍판 바돍을 두는 판.

'조라치'는 고려 후기에 몽골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국왕 숙위 조직의 하나로 『표준』에서는 '詔羅赤'로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詔羅 몽.chi(赤)'로 표시하고 있는데 <원고>에서는 따로 원어 표시가 없다.[23]

(16) **조라치**

4.3. 품사

<원고>는 표제어에 대한 원어가 있는 경우 원어 뒤에, 원어가 없는 경우 표제어 다음에 '품사'를 약물로 표시하였다. 백야는 『조선어 문법』(1925)에서 다음과 같이 10개의 품사를 제시하고 있다.

(17) 이상춘(1925) 『조선어 문법』의 품사 체계
一, 名詞 (서울. 한울. 말. 사랑. 바람 따위.)
二, 代名詞 (나. 누구. 여긔. 하나. 바 따위.)
三, 動詞 (가. 피. 있. 싸호. 빌. 걷우 따위.)
四, 形容詞 (높. 짜르. 붉. 깃브. 아름답 따위.)

22) 외래어 원어 표시는 조재수(2021:156) 참조.
23) 홍종선 외(209:238) 참조.

五, 助射　　(이.을. 는. 어.처럼. 으로 따위.)
六, 接續詞　(과. 나. 든지. 요. 는데 따위.)
七, 終止辭　(다. 도다. 습니다. 소. 어라 따위.)
八, 冠詞　　(요. 그. 도다. 습니다. 소. 어라 따위.)
九, 副詞　　(이리. 늘. 어찌. 잘. 아마 따위.)
十, 感歎詞　(아. 어. 허. 아이구. 에. 응 따위.)

품사는 名, 代, 動, …. 처럼 품사 이름의 첫 글자를 한자로 네모 안에 표시하였다. 백야는 자신의 책에서 스승인 주시경의 고유어 품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24] 이수영(2016)은 백야가 주시경의 용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을 영어 문법의 용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았다.

동사는 다음과 같이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여 표시하기도 하였다.

(18) **이루어지** 動 自 일이 잘 끝이 남
　　이루 動 (ㄱ) 自 일이 다 됨 (ㄴ) 他 일을 성취 함

3권과 4권의 '유고(遺稿)' 전까지는 표제어마다 품사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는 품사를 충실히 표시하지 않았다.

4.4. 전문어 표지

국어사전은 일반어와 구분하여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사용역 표지로 전문 분야를 약물로 제시한다. 전문 분야의 분류는 사전마다 달라, <말모이>는 19개[25], 『큰사전』(1957)은 47개, 『우리말큰사전』(1992)은 57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51개, 『고려대 국어대사전』(2009)는 62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의 경우 전문 영역 설정 전체를 알 수 없다. 조재수(2021 : 154)에 따르면, <원고>에서는 '광물, 기독교, 논리, 동물, 식물, 문법, 물리, 미학, 법률, 병학, 불교, 생리, 수학, 약학, 의학, 정치, 제도, 종교, 지문학, 철학, 화학' 등 21개의 전문어 표지를 확인할 수 있으

24) "이 책은 아즉 흖이 쓰는 學語를 좇아, <움씨, 늑씨>라 하지 않고, <動詞, 感歎詞>라 하야 홀로 배우기에 쉽게 하얐노라"(이상춘, 1925)
25) '대종교, 불교, 예수교, 철학, 심리학, 윤리학, 논리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화학'

며 특이하게 '무사도, 문부성, 사륙판' 등에 붙인 [日] 표지가 있는데 일본 용어나, 일본 제도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전문어는 [ ] 안에 전문 분야의 첫 글자를 한자로 표시하였다. 일부 사용역은 뜻풀이로 제공하기도 한다.

(19) **밖집** 民家의 宮語

4.5. 뜻풀이

현대 국어사전 편찬에서 뜻풀이는 표제어의 품사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표제어가 명사면, 명사나 명사형으로 동사나 형용사이면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의 경우 부사나 부사형으로 뜻풀이를 맺는 것이 원칙이다.

(20) ㄱ. **빈틈**[명] 비어 있는 사이.(명사)
ㄴ. **빈틈없다**[형] 비이 있는 사이가 없다.(형용사)
ㄷ. **빈틈없이**[부] 비어 있는 사이가 없이.(부사형)

<원고>에서는 <말모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풀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표제어의 품사에 관계없이 명사나 명사형으로 뜻풀이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이웃집** 名 우리집에 갓갑은 집.
이룩하 動 自 일이 잘 끝이 남.
이르 形 EO가 아즉 몯되ㄴ꼴. 늦의 반대.
이만 副 이것만의 뜻[26]

그리고, 다의어의 경우는 (ㄱ), (ㄴ)으로 뜻을 구분하였다.

(22) **바라** (ㄱ) 되고 싶어 기다리고 원함. 希望 (ㄴ) 물끄럼 건너다 봄

동의어(사투리, 비표준어 등)의 경우 '~와 同'의 형태로, 준말의 경우 '~의 畧'의 형태로 풀이하는데 동의어나 본말이 바로 앞에 올 때는 '上~'를 붙여

26) 표제어가 부사일 때 부사형을 취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리 [副] 이와 같이. 이렇게.

뜻풀이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23) **돌자갈** 작은 돌망이 (돌재악, 자약돌)
돌재악 돌자갈 同

(24) **밝** 바르(正)의 畧
밤낡 上의 畧

표제어가 고유어일 경우 뜻풀이 앞이나 뒤에 고유어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표시하기도 한다.

(25) **바지** 다리에 가랑이를 꿰여 닙는 옷. (袴)
입맞후 動 입술을 서로 댐 (接吻)
사랑 愛 깃버하고 좋아하고 귀엽게 녀기는 것. 닞지 못하고 사모함.

백야는 의성어, 의태어와 그 파생어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관련어들의 어감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뜻풀이에 '銳, 小銳, 强' 등을 사용하기

(26) **빤빤하** '뻔뻔하'의 銳
새죽 시죽보다 小銳
빤짝 上의 强

그 밖에, 전문어 특히, 식물 이름은 백과사전식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뜻풀이는 국한문을 혼용하는데, '이묵이'의 풀이에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27) **이묵이** 名, [動] うわばみ

4.6. 용례

국어사전에서 '용례'는 단어의 뜻을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실제 문장 속 사용 예를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에는 많지는 않지만 짧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어 국어사전의

구성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용례는 뜻풀이 뒤에 오며, 대개 「　」 안에 넣어 구분하고 예문에서 표제어에 해당하는 자리는 줄표(—)로 나타내기도 한다.

(28) **이랬** 동 이리하였의 약 「이랬다 저랬다」
방긋 적이 여는 꼴 「문을 — 엶고」

그 밖에 국어사전의 삽화는 표제어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충하고 단어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원고> 중에 유일하기는 하니 다음과 같이 '익선관' 뜻풀이 뒤에 삽화를 넣은 그려 넣은 것이 주목을 끈다.

<그림 2> <원고> 3권 911쪽

국어사전에 삽화가 들어간 것은 『큰사전』 1권(1947)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원고>에 삽화를 직접 그려 넣은 것은 향후 출판 사전에도 삽화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

4.7. 관련어

국어사전에서 관련어는 특정 단어와 의미나 쓰임이 연관된 다른 단어를 제시하여,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등)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단어를 검색했을 때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마지막 미시 정보로 '관련어'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어는 대개 (　　) 안에 넣어서 표시하되, 관련어의 종류(유의어, 반의어 등)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다.

(29) **방글**　　어엿브게 적이 웃는 꼴 (방긋, 방실) (벙글)
방글거리　어엿브게 잠깐 웃음 (방긋거리 방긋대, 방실거리) (벙글거리)
방글대　　上同 (방긋대) (방싯대) (벙글대)
방글방글　자꾸 방글거리는 꼴. (방긋방긋, 방싯방싯) (벙글벙글)

5. 맺음말

백야의 <원고>를 분석하는 과정은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여정과도 같았다. 그는 식민지라는 냉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홀로 수년간 사전 원고를 집필하였고, 이를 아무런 물질적 대가 없이 기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로 학문적·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원고>는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말모이>와 『큰사전』 사이의 긴 공백을 메우는 보완 자료이자, 1930년대 국어 표준화 이전의 언어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사전학적 분석 대상으로서 학문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한국어학사 및 문화사적 기록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원고>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였고 각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조선어학회의 『큰사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고는 누군가의 협업 흔적 없이 철저히 개인의 노력으로 집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후 문세영 사전이 조력자의 도움에 의해 편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당시 보도 기사에서 강조된 바와 달리, 이 원고는 정제된 형태로 바로 출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 이전 시기에 개인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대하다.

<원고>를 분석하는 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원본의 훼손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를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 문헌>

박형익. 2004.『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박형익. 2023.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의 분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59쪽.
유현경·남길임. 2008.『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이상춘. 1925.『조선어 문법』. 숭남서관.
이수영. 2016.「백야 이상춘의 생애와 학문」,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17~225쪽.
조재수. 2021.『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우리말 거두기와 정리의 역사』. 한글학회.
최경봉. 2005.『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한글학회. 1971.『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홍종선 외. 2009.『국어 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사전 구조 분석 연구
-표제어 수용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황용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hwangyongju@korea.kr

1. 머리말

이 글은 문세영 선생의 『修正增補 朝鮮語辭典』[1](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하 『수정 조선』)의 표제어 선정과 관련된 내용과 사전 뜻풀이에 대해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정 조선』이 국어 사전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미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조선어사전, 이하 『조선』)에 대한 사전사적인 평가와 함께 거시구조나 미시구조를 조명한 논문들이 다수 있지만, 사전 표제어가 기존의 문헌에서 얼마나 확인할 수

1) 이 연구에서 『朝鮮語辭典』(1938) 초판 대신에 '수정증보'한 『修正增補 朝鮮語辭典』(1940)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정증보판이 최종판으로 사전 전모를 살피는데 큰 무리가 없고 증보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 작성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근현대 국어사전>(https://opendict.korean.go.kr/modern/main)에서 제공하는 『修正增補 朝鮮語辭典』의 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했다.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구축하여 활용하던 자료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각각 표제어 누락과 입력 오류가 확인되어 최대한 수정 보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여전히 표제어 누락이나 입력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있는지와 사전 뜻풀이에 사용된 풀이말의 사용 양상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분석한다면 문세영 선생이 펴낸 『조선』과 『수정 조선』의 의의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세영 선생의 『조선』은 1938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되고 12월에 재판이 발행되었으며 약 1만 어휘를 증보한 『수정 조선』이 1940년에 간행되었다. 『조선』과 『수정 조선』은 이후 여러 차례 인쇄되어 보급되었다.[2] 그런데 이 사전들은 한글학회의 『큰사전』[3]이 간행되기 전까지 가장 표제어 수가 많은 국어사전으로 1960년대 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긴 했으나 저자인 문세영 선생이 이미 육이오 때 북한으로 가서 남한에서 더 이상 수정이나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4] 그렇지만 이 사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를 거쳐 육이오 전쟁 이후까지 널리 활용된 사전이며 외국에서도 한국어 관련 사전을 편찬할 때 주요 참고 사전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5]

필자가 『조선』과 『수정 조선』을 살피면서 들었던 의문은 문세영 선생이 사전을 처음 만들고 이후 수정증보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에서 단어를 수집하고 정리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의 확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초기 사전 편찬자들의 표제어 수집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세영 선생이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표제어 수집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 알기 어렵지만[6] 『조선』과 『수정 조선』에 실린 단어가 당시 접하기 쉬운 자료 중에서, 특히 문세영 선생과 사전 편찬에 관여한 이윤재 선생, 한징 선생이 연관된 자료에 등장한다면, 그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간행된 사전을 참고하게 된다. 문세영 선생이 『조선』과 『수정 조선』을 '편찬'하고 '수정증보'하

2) 『조선』은 삼문사에서 『우리말사전』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수정 조선』은 1942년(재판), 1944년(3판), 1946년판, 1949년판이 간행되었고 1954년에는 『수정증보 국어대사전』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간행하였다. 또한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연맹중앙총본부에서 1946년에 『수정 조선』을 복제하여 간행하였고, 중국에서 책 내지에 '조선어사전 수정증보 1954년판'이라고 쓴 『수정 조선』을 복제 간행하였다. 중국에서 간행한 책은 일부 표제어를 가림 처리하였다. 박용규(2011ㄱ,ㄴ)와 황용주(2016: 104-107) 참고.

3) 이 논문에서 이 사전의 이름은 1권이 발행된 시기의 학회 이름인 조선어학회를 사용하지 않고 6권이 완간된 시기의 학회의 이름인 한글학회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조재수(2021:190)에 따르면 문세영 선생은 1951년 유열 선생과 월북해 북의 조선어 및 조선문학 연구소 사전편찬실에서 일을 했고 이듬해인 1952년 사망했다고 한다.

5) 이 사전은 모스코바에서 간행된 『로조사전』(1951), 『조로사전』(1951)과 헝가리에서 간행된 『웽조사전』(1957) 등을 편찬할 때 참고한 사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6) 사전이 출간된 후 지방의 독자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는 과정에서도 당시에 간행되고 유통되었던 사전을 참고했을 것이다. 당시의 사전 유통 맥락을 살펴보면서『조선』과『수정 조선』의 차이점도 파악할 수 있고 사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 표제어의 수록 내용과 뜻풀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사전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1920년대에서~30년대까지의 사전 유통 맥락

사전 편찬에 대한 열망은 물론 19세기말부터 이미 있었으나, '말모이'와 '사전' 원고가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을 뿐, 학습사전을 제외하고는 문세영 선생의『조선』이 간행되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출간된 한국어 사전은 없었다. 한국어 표제어와 뜻풀이를 한글을 활용한 사전은 학습사전으로 심의린의『보통학교 조선어사전』정도가 유일했다. 대부분 이중어사전이거나 한자 옥편류의 것들이었다.

1920년대부터 1930년 중반까지의 한국에서 간행된 사전[7]으로 일본어 이중어 사전인 조선총독부의『朝鮮語辭典』(1920)[8], 후나오카 켄지(船岡獻治)의『鮮譯國語大辭典』[9](1919), 조선어연구회의『鮮和新辭典』(1930) 등이 있고, 영어 이중어 사전으로는 한국인 김동성이 펴낸『鮮英辭典』(1928), 게일의『韓英大字典』(1931) 등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학습사전으로 심의린의『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보통학교국어독본자습사전』(1922),『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3 난구문자숙어해석』(1922) 등이 있다. 외래어 사전으로는 이종극의『鮮和兩人모던朝鮮外來語辭典』(1937)이 있다.『聖經事典』(1927),『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1917)과 같이 전문용어[10] 사전

7) 이 장의 내용은 박형익(2015)의 1920년대 간행된 사전에 대한 언급을 참고하였다.

8) 이 사전은 1927년 1932년 재간행되었다.

9)『鮮譯國語大辭典』은 1919년에 간행된 사전으로 1920년대에 간행된 사전은 아니나 1931년에 재판이 간행된 점에서 언급해 두기로 한다. 이 사전의 인기는 크지 않은 듯 보이는데 재판이 무려 12년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10) 국어사전이 편찬되기 이전에 전문어 사전이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오영근(吳榮根)의『敎育辭典』(1909)이 비록 국한문이지만 우리말이 포함된 풀이가 있는 최초의 전문용어 사전으로 보인다. 이 사전은 서문에서 사전의 역할을 창고의 열쇠에 비유하여 고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교육 서적이 많이 출판되지만 이를 해석할 사전이 없어 출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전의 표제어 표기는 한자어가 표제어인 경우에는 한자만을 썼고 영어 표제어인 경우에는 한글로 표제어를 삼았다. 이 책은 현담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나 필자는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담문고에 열람을 요청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문과 사전 내용은 인터넷 고서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참고하여 기술한 것이다.

<단어 예시>

可能性 Possiblity 吾人의 心身은 敎育에 由ᄒᆞ야 多少間改良變更을 得ᄒᆞᄂᆞᆫ 事를 「敎育

도 간행되었다. 또한 백과사전으로 송완식이 펴낸 『最新 百科新辭典』(1927)이 있다. 『現代文藝熟語小辭典』(1922 초판/1929 재판)이 간행되었다. 또한 학습사전의 일종으로 등이 간행되었다. 신어사전으로는 『現代新語釋義』(1922)와 청년사에서 간행한 『신어사전』 등이 간행되었다. 또한 속담 사전으로 『朝鮮俗談』(1922), 조선총독부의 『朝鮮俚諺集』(1926) 등이 있다. 어휘 자료집으로 『無雙註解新舊文字集』(1923)이 있고 한자 자전 중에는 조선광문회의 『新字典』도 꾸준하게 간행되고 있었다. 또한 『模範鮮和辭典』(1936)은 오늘날과 같은 한자 옥편과 같이 한자어를 제시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두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총독부의 『吏讀集成』(1937)이 간행되었다.

이상의 사전들은 표제어 수록이나 뜻풀이 기술 측면에서 『수정 조선』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전들과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 사전 중에 일부는 사전 원고의 초고가 완성된 후에 간행된 것들도 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표제어 수용

2장에서 언급한 사전들과 비교를 통해 『조선』과 『수정 조선』의 표제어 수용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표제어 통계

『수정 조선』의 표제어 수록 범위는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 (1ㄱ~ㅅ)과 같이 언급돼 있다. 이 사전의 표제어 수는 94,571개이며 접두사에 포함된 단어 769개를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표제어로 계산하면 95,340개의 단어가 주표제어로 올라가 있다. 부표제어는 15,326개이다. 접두사에 포함된 단어의 부표제어는 7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접두사 표제어에 포함된 부표제어까지 포함하면 15,333개이며 모두 110,672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는 셈이다.[11] 이는 최초의 국어사전이면서 당시에 편찬된 이중어 사전을 비롯

의 可能」 이라 云함.

아리스도돌 Aristotle 紀元前三八四年에 生ᄒᆞ야 同三二二年에 死ᄒᆞ얏스니 希臘國의 哲學家로서 歐洲學術의 鼻祖라

11) 황용주(2014)에서는 주표제어를 94,466개로 제시했는데 당시 구축한 자료의 누락 등을 보완하여 새롭게 확인한 숫자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자료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연구자의 힘으로는 데이터 오류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경

한 한국 내 언어 사전 중에 가장 많은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다.

(1). ㄱ. 이 책은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吏讀)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를 ㄱ ㄴ ㄷ 의 차례로 벌려 놓고 이에 대하여 낱낱이 우리말로 알기 쉽게 주해(註解)한 것입니다.
ㄴ. 한문 글자 한자만 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도 우리가 실제로 쓰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빼었습니다. 이를테면 보리(맥=麥), 젖(유=乳), 황새(관=鸛) 따위.
ㄷ. 옛날 말은 지금 발음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였습니다.
ㄹ. 발음을 잘못하는 말이나 철자를 그릇 쓰는 말들은 그 바른 말인 그것에 '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ㅁ. 우리말이나 한문으로 된 속담. 성귀(成句)들도 항용 많이 쓰는 것은 골라 넣기로 하였습니다.
ㅂ. 각 지방의 사투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용하여 표준말과 비교하여 놓았습니다.
ㅅ. 고유명사 가령 나라 이름, 땅이름, 사람 이름들은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겨레의 성자(性字)만 기록하였습니다.

(1ㄱ-ㅅ)의 전체 일러두기에서 볼 수 있듯이『수정 조선』의 표제어 등재 범위는 고유어, 한자어, 전문용어, 옛말, 이두, 사투리, 표준어, 비표준어(오철자·오발음어)[12], 외국말, 한국인의 성(性) 등이다. 표제어로 제외한 것은 '나라 이름, 땅이름, 사람 이름'은 제외하였다. 또한 1음절 한자어 중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것도 제외하였다.

이 사전의 전체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어종별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주표제어를 기준으로 어종별로는 크게 고유어는 35,560여개, 한자어 55,570여개, 외래어는 2,070여 개, 혼종어[13] 2,120여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어 풀이가 있는 단어는 6,860여 개, 옛말 뜻풀이가 있는 단어는 910여 개, 이두는 930여 개, 방언은 6,200여 개, 비표준어[14]는 5,000여 개가 등재되어 있다.

개인이 편찬한 사전으로서 상당한 규모로 한글학회의『큰사전』과 표제어

우를 제외하고는 '10여 개'와 같이 10개를 기준으로 하여 개수를 어림잡아 언급하고자 한다.
12) 비표준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오표기나 오발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명명하였다.
13) 혼종어는 '한자어+고유어', '외래어+고유어' 등으로 동일 어종이 아니라 혼합되어 조어된 표제어를 말한다.
14) 비표준어는 '~에 보라'라고 풀이한 단어를 말한다. 안예리(2025)에서는 '가표제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규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큰사전』의 표제어 규모는 164,000여 개인데 이중 주표제어는 142,000여 개로 『수정 조선』보다 약 47,000여 개가 더 많이 등재되어 규모가 확대되어 사전 표제어가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방언 표제어는 13,005개, 옛말은 3,013개, 이두는 1,449개, 관용구 990개 등 『수정 조선』보다 표제어가 늘어났으며, 고유명사도 5,200여 개가 등재되어 사전 이용자의 활용성을 높여준 특성이 있다. 또한 『큰사전』은 전문용어 분야를 확대해서 사전을 지식의 확장 역할까지 했다. 『큰사전』 편찬에도 『조선』과 『수정 조선』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3.2. 표제어 배열

사전에서 찾아보기는 사전 거시구조를 논할 때 중요한 요소로 이 사전의 표제어 배열은 ㄱㄴㄷ 순으로 배열한다고 하였는데 일러두기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모든 차례는 가.까.갸.꺄.거.꺼.겨.껴……로 되었고 또 바침은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ㄾ.ㄿ.ㅀ.ㅁ..ㅂ.ㅄ.ㅅ.ㅆ.ㅇ.ㅈ.ㅊ.ㅋ.ㅌ.ㅍ.ㅎ.ㅣ의 차례로 되었습니다.”(일러두기 4면)

지금의 사전 배열 순서와는 다르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경우 제시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접사나 문법형태소의 경우는 맨 뒤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3)과 (4)에서 보는 것처럼 외래어 표제어가 있을 경우도 순서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3) ㄱ.【만홀】(Manhole) 名 ① 땅 속에 묻은 수도관(水道管) 또는 하수관(下水管)의 검사·소제를 위하여 인부가 드나드는 구멍. ② 기관(汽罐) 속의 소재를 위하여 그 위에 설치한 출입구.
ㄴ.【만홀】(漫忽) 名 副 등한히 하는 것.

(4) ㄱ.【문】(紋) 名 무늬.
ㄴ.【문】(Moon) 名 ① 달. 태음(太陰). ② 한 달.
ㄷ.【문】(門) 接尾 대포를 세는 말.
ㄹ.【문】助 語尾「면」의 사투리.

3.3. 1음절 한자어

1음절 한자어를 제한적으로 수록하는 기준을 세운『수정 조선』에는 원어 기준으로 1음절의 한자어 표제어가 약 900여개를 등재하였다. 성(姓), 이두, 접두사, 접미사 등을 제외하면 약 450여 개의 1음절 한자어가 등재되어 있다. 표제어 수록 범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의『朝鮮語辭典』범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5) 漢字一字にて意義を有する場合と雖も普通語辭として用ひざるものは之を省略せり. 例へば 鸛 (황새), 鶚(종달새), 鴿(비둙이) 蕻(장다리) 貜(너구리)の如し[15]

(6) ㄱ.【궐】(闕) 名 ① 빠지는 것. 참녜하지 아니하는 것. ② 할 것을 아니하는 것. 闕榜. [-하다他]
ㄴ.【묘】(卯) 名 십이지(十二支)의 넷째. 토끼.
ㄷ.【용:】(用) 名 「용돈」의 준말.
ㄹ.【이:】(哩) 名 마일.
ㅁ.【이:】(浬) 名 너트.
ㅂ.【주】(主) 名 ① 임금. ② 주인. ③ 임자. ④ 어른. ⑤ 예수교에서 하느님 또는 예수를 일컫는 말. ⑥ 근본. 주장.

(6)의 예시는 1음절 한자어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위 표제어 중에서 '이(哩) 名 마일,[16] 【이:】(浬) 名 너트.'는『큰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우리말샘』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단어 일본에서 영어 단어 마일(Mile)과 노트(Knot)를 음차한 한자어이다. 이 두 한자어는 조선광문회의『新字典』4권 마지막 부분에 있는 '新字新義部'에 나오는 단어이다.

(7) ㄱ. 哩【마일】(Mile)又讀如英里.『新字典』四卷, 59ㄱ
ㄴ. 浬【너트】(Knot)又讀如海里每一海里當子午周一分爲六千零六十八英尺又十二分之一各國行海通用之.『新字典』四卷, 59ㄱ

조선광문회의『新字典』의 신자신의부(新字新義部)에는 '碼'(마)도 제시하

15)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한자 한 글자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상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를 생략하였다." 예로는 鸛(황새)、鶚(종달새) 비둙이(鴿) 장다리(蕻) 너구리(貜)와 같은 것이다.

16) '마일'과 '야드'는 1896년 12월 31일 간행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3호의 「內外貨幣及度量衡比較表」에서도 용례를 찾을 수 있다. 哩〔마일〕 (一七六0碼) 凡我 五千二百八十尺, 碼〔야드〕 (三呎) 凡我 三尺

고 있는데 (8ㄱ)은 『新字典』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68)은 『수정 조선』에서의 제시 내용이다.

(8) ㄱ. 碼【야드】 (Yard) 英國度名每碼計英尺三尺. 《新字典》四卷, 59ㄴ
ㄴ. 【마】(碼) 名 영국 척도의 기본 단위. 곧 셰피드. 포백척으로 한 자 일곱 치.

'리(哩), 리(浬)' 두 한자는 당시의 신문에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기는 하나 문세영 선생이 『新字典』을 참고했다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3.4. 고유명사

『수정 조선』에서 표제어로 제외하는 것으로 1음절 한자어 이외에 고유명사를 들었는데 현대의 국어사전에 다수의 인명과 지명이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전 일러두기에서 '(1) ㅅ'에서처럼 지명이나 인명, 국가명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17] 그러나 이미 선행 연구 김민지(2011), 조재수(2021)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의 역사적 나라 이름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실존하는 국가명을 등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명이나 지명이 비유적으로 쓰인 뜻풀이를 제시한 단어를 표제어로 등재했다. 뜻풀이에서 '사람의 별명', '사람을 가리치는 말', '사람을 일컫는 말' 등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9) ㄱ. 【장비】(張飛) 名 용맹할 사람의 별명. (지나 삼국시대의 촉(蜀)나라의 맹장(猛將)의 이름).
ㄴ. 【제갈-량】(諸葛亮) 名 재주가 비범한 사람의 별명. (지나 삼국시대 명상(名相)의 이름. 181~234 A.D.).
ㄷ. 【조무상】(曹無傷) 名 남을 참소하는 소인을 가리치는 말. (한패공(漢沛公)을 항우(項羽)에게 참소하던 사람의 이름).

17) 비록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지만 '말모이'와 조선광문회의 '사전' 원고에도 지명과 인명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고 이상춘의 사전 원고에 대해 검토한 조재수(2021)을 참고할 때 '인명, 지명' 표제어는 살필 수 없다. 국어사전에 지명이 등재된 사전으로는 이영철의 『학생조선어사전』(1946)에 "부여(扶餘) 명 백제(百濟) 의 옛 서울. 충청남도에 있음.", 경주(慶州) 명 신라의 옛 서울. 경상북도에 있음." 등이 나오며, 이윤재·김병제의 『표준조선말사전』(1948)에 '북미, 소비에트, 중화민국, 북망산 등이 등재되어 있고 인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응웬 티 뚜엣 늉(2024:85~86) 참고.

ㄹ.【항:우】(項羽) 名 기운이 썩 많은 사람을 가리치는 말. 項壯士. (지나 초한(楚漢) 적의 장수의 이름).

ㅁ.【도:척 】(盜跖) 名 인륜에 벗어난 악한 사람을 일컫는 말. (옛날 지나의 큰 도적의 이름. 현인 유하혜(賢人柳下惠)의 아우).

ㅂ.【소진-장의: 】(蘇秦張儀) 名 말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치는 말. (지나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람의 이름). [18]

(10)【양산박】(梁山泊) 名 호걸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리치는 말. (지나 산동성 양산 밑에 있는 땅 이름인데 수허지(水滸誌)에 송강(宋江) 들 백팔 인의 호걸이 웅거하였다고 하는 곳). [19]

『수정 조선』에서 고유명사를 배제했다면 한글학회의 『큰사전』의 경우 적극 수용하여 지명 3,200여 개, 인명 1,160여 개를 등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3.5. 은어

『수정 조선』의 표제어 중에 일러두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풀이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휘군들이 있다. 『수정 조선』에 등재한 말 중에서 뜻풀이 뒤에 괄호 안에 뜻풀이를 부가하였는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사용역을 표시한 것이다. 술가의 말(71개), 불가의 말(406개), 무당의 말(2개), 대궐말(10개), 심만이 말(75개), 사공의 말(10개), 점괘의 말(1개), 활터에서 쓰는 말(2개), 놀음판에서 쓰는 말(2개), 수하에 쓰는 말(1개), 여자에게 씀(1개), 여자쪽에서 쓰는 말(1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무당의 말', '술가의 말, '불가의 말'은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전문어로 분류될 수 있는 부가 설명이고 '심만이 말, 사공의 말' 등은 은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가 설명을 모두 '은어 표현'으로 받아들여 관련 표제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문세영 사전의 뜻풀이에서 부가 설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불가의 말'이다. 모두 406개가 나온다. 계첩, 고해, 고행 회상, 화택 등이 표제

18) 『큰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 하고 있다.
소진-장의(蘇秦張儀)【이】소진(蘇秦)과 장의(張儀)처럼 구변(口辯)이 썩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
그런데 『큰사전』 장비, 제갈량 조무상 등은 역사적 인물로만 기술하고 있다.
장비(張飛)【이】《사람》중국 삼국 시대(三國時代)의 촉한(蜀漢)의 맹장(猛將). 자(字)는 익덕(翼德). 소열제(昭烈帝)를 도와 공이 많았는데, 그의 부하에게 죽었음.

19) 큰사전에는 양산박 1 「梁山泊」 「이」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땅. 수호지(水滸誌)에 있는 호걸 송강(宋江)등 백팔 인(百八人)이 웅거하였던 곳.

어로 실렸다.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에서도 뜻풀이에서 불교와 관련된 단어에 '(佛家語)'를 표시해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전에는 종교 관련 단어는 불교 용어 외에도 '천주교' 용어도 40개 이상 등장하는데 뜻풀이 시작을 '천주교에서' 등과 같이하여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임을 명시하였고 '(천주교의 말)'과 같이 별도 표지가 없었다. 또한 현재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이 사전에서의 뜻풀이는 '예수교'가 더 빈번하게 쓰인다. 뜻풀이에서 120여 개 항목 정도에서 '예수교'[20]를 사용하고 있다. '천도교' 용어도 등장하는데 약 30항목 정도가 뜻풀이에서 '천도교'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11) ㄱ. 【성:당】(聖堂) 名 천주교에서 예배하는 집.
ㄴ. 【수사:】(修士) 名 천주교에서 수도하는 남자. 곧 청빈(淸貧)과 동정(童貞)과 복종(服從)을 서약한 사내.
ㄷ. 【보:혈】(寶血) 名 예수교에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일컫는 말.
ㄹ. 【예배:-당】(禮拜堂) 名 예수교 교인이 모이어 전도하는 곳.
ㅁ. 【시:일】(侍日) 名 천도교들에서 일요일을 일컫는 말.
ㅂ. 【지일-기념:일】(地日記念日) 名 천도교에서 해월최시형(海月崔時亨)의 승통(承統)한 날을 기념하는 날. 八月 十四日.

다음은 '술가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전은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데 문세영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어휘를 수집하던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술가'라는 단어의 실제 사용이 포착되지만 최근의 자료에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말이기도 한다. '술가'의 『수정 조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2) "음양(陰陽)·복서(卜筮)·점술(占術)에 정통한 사람. 術客. 術士."[21]

『수정 조선』에 '술가의 말'은 71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단어들이 해당한다.

(13) ㄱ. 【개문방】(開門方) 名 팔문(八門)의 하나. 길한 방위. (술가의 말)

20) 20~30년대 잡지 자료의 실제 쓰임을 보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우세하게 쓰이고 있는데 1800년대 말에서 1910년대의 신문 자료에는 '예수교'라는 단어가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큰사전』에서도 '예수교'라는 단어가 사전 뜻풀이에서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술가'의 뜻풀이는 문세영의 사전 이후로 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모두 동일하다. '술가'라는 말은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다.

ㄴ. 【금성】(金姓) 名오행의 금에 해당하는 성. 성자를 오음(宮·商·角·徵·羽)에 나누고 이를 오행에 분배한다. (술가의 말).
ㄷ. 【길성】(吉星) 名 길상이 있는 별. 별에 길성과 흉성이 있는데 길성이 비치는 곳에는 좋은 일이 있고 흉성이 비치는 곳에는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함. (술가의 말).

이 외에도 '생문방, 생왕방, 수성, 유혼일, 목성, 황건력사, 팔장신' 등을 '술가의 말'로 찾아볼 수 있다. '술가의 말'은 조선총독부의『朝鮮語辭典』에 '(術家の語)'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뜻풀이의 유사성도 발견된다.

(15) ㄱ. 福德日(복덕일)㊀ 人の干支な八卦の數に配當して選擇したろ吉日の一(術家の語)。
ㄴ. 【복덕일】(福德日) 名 사람의 간지(干支)를 팔괘의 수에 배당하여 고른 좋은 날의 하나. (술가의 말).
ㄷ. 복덕-일(福德日)【이】《민》생깃법(生氣法)으르 본 길일(吉日)의 하나.

(16) ㄱ. 生氣日(생긔일) ㊀ 人の生命干支を八卦の數に配當選擇したろ吉日の一(術家の語)。
ㄴ. 【생기:일】(生氣日) 名 사람의 간지(干支)를 팔괘의 수에 나누어 고른 좋은 날의 하나. (술가의 말).
ㄷ. 생기-일「生氣日」【이】생깃법으로 본 길일(吉日)의 하나.

(15), (16)은 '복덕일'과 '생기일'에 대한 각 사전 뜻풀이로 'ㄱ'은 조선총독부『朝鮮語辭典』, 'ㄴ'은 문세영『수정 조선』, 'ㄷ'은 한글학회『큰사전』을 제시한 것이다. 표제어 전반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문세영 사전은 총독부 사전과 유사한 면이 보인다. 반면『큰사전』의 경우에는 뜻풀이에서 '술가의 말'이이라는 부가 설명이 없어졌다.『큰사전』에서 부가 설명으로 '술가의 말'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큰사전』의 뜻풀이 방침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는데 불가의 말과 '술가의 말'의 표제어를 <<불교>>. <<민속>> 등 전문용어로 처리하였다. 뜻풀이에서 일반용어와 전문분야 용어를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로 사전 편찬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마니'의 말이 75개가 등재되었는데 모두 고유어로 '모둠, 모새, 멀커니, 매치니' 등 특수 직역에서 사용된 말이 수집되었다. 이 단어들의 수집 경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933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이은상의 '심메마니의 변말'이라는 글에는 강원도 설악산 지역

의 말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 이은상은 이 글에서 심마니의 은어는 평북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서 110여 개 발표했다. 또한 『수정 조선』의 간행 시기와 비슷한 때인 1937년 한글 제50호(1937년 11월)에 이신팔이 평안도 지역의 '삼메말'을 발표하였고[22] 1938년에 한글 58호(1938년 7월)에 최진원이 강릉 지역의 채삼 용어를 소개하였다. 동아일보 자료와 한글지의 최진원 자료를 『수정 조선』과 비교하면 표제어 상당수가 강릉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마니 용어와 다수 일치한다. 특히 한글학회의 최진원이 조사한 내용에 '감사, 감재비, 곰, 넙데기, 중거리' 등은 『조선』에는 없던 표제어로 『수정 조선』에 실린 것을 보면 『수정 조선』의 표제어 추가 과정에서 잡지 『한글』을 참고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7) 심만이 말 표제어 등재 비교

심만이 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뜻풀이	동아일보(1933)	한글학회(최진원)
【감사】	고추장.		고추장
【감재비】	낫(鎌).		낫
【개장-만이】	안해. 계집.	여자	
【곰】	소리지름. (부르는 뜻).		소리지름
【꼽쟁이】	담뱃대	(곱쟁이)담배대	담뱃대
【구레미】	범.		범
【넌추리】	바가지.		바가지
【넘패】	곰(熊).		곰
【넙데기】	수건(手巾).		수건
【노래기】	해(太陽).	해	
【더그레】	③ 저고리.	(더거리)저구리	적삼
【듭새】	버섯.		버섯
【디디미】	신발.		(디딤이) 신
【마대】	지팽이.	작대기	
【만이】	사람.	사람	
【모새】	쌀.		모새
【무리:미:】	밥.	밥	
【반짐이】	새옹		생융[23]
【백사】	소금.	소금	소금
【산제】	젓가락.		젓가락
【설피】	손. 手.	손	
【소장-만이】	아이들. 소쟁이.	아이	
【숨】	물.		물
【시더기】	② 떡.	(시도기)떡	
【심】	산삼(山蔘).	삼	
【올림-대】	숟가락.	(울림ㅅ대) 숫가락	숫가락
【우렝이】	두가리.		두가리

22) 이신팔은 평북의 강계, 자성 후창 등지에서 사용하는 '삼메말'을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문세영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동일한 것은 '시더구-떡'와 '끼애기-닭, 모래미-밥', '정재깐-부엌' 등의 유사어가 보인다. 이 단어들은 양 지역에서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 조선』 강원 지역의 심마니 은어가 수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평북 지역의 산삼 캐는 사람을 '삼메꾼'이라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심메마니'라고 한다.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동아일보(1933)	한글학회(최진원)
심만이 말	뜻풀이		
【자래】	땔나무 또는 (生)나무.	나무	
【잘메】	도끼	도끼	도끼
【종종이】	별. 星宿.	별	
【중거리】	점심.		점심
【추잡이】	바지·고이들의 총칭.	바지	
【흑서구】	까마귀.	흑저귀	
【흘-림이】	술(酒).	흘림	흘림이

다음으로 일상에서 잘 쓰지 않았을 것 같은 궁중어가 등재되어 있다. 문세영『수정 조선』에서 게재한 단어는 조선총독부의『朝鮮語辭典』에도 등재된 단어이다.『수정 조선』등재된 대궐말은 10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18) ㄱ.【기숫-잇】名 금침을 덮는 흰 보자. (대궐 말).
ㄴ.【긴:-의대】名 궁중에서 옷을 걸어 놓은 뒤에 그 위에 덮어 거는 보자의 한 가지. (대궐 말)
ㄷ.【단-녀의 】(單女衣) 名 부녀가 입는 속속것. (대궐말).[24]
ㄹ.【동-의대】名 저고리. (대궐말).
ㅁ.【두먼】 名 갓. 笠. (대궐말).
ㅂ.【봉:지】名 바지. (대궐말).
ㅅ.【소고의】名」저고리. (대궐말).
ㅇ.【수:긴】名 수건(手巾). (대궐 말).
ㅈ.【올리다】他 ① 올라가게 하다. 올리어 보내다. ② 채색을 바르다. ③ 도금을 하다. ④ 바치다. 드리다. ⑤ 기록하다. ⑥ 잡숩다. (대궐말).
ㅊ.【푸짓-잇】名 이불의 위를 덮는 물건. (대궐말).

(18)의 단어 중에 '기숫-잇'을 제외하고는 모두『큰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큰사전』에는 (16)과 같이 풀이말을 궁중말로 하여 더 많이 등재된 것을 볼 수 있다.

(19) ㄱ. 고도 【이】흰 겹저고리의 궁중 말.
ㄴ. 계수 1【이】이불의 궁중말.
ㄷ. 낮곁 수라【이】곁두리의 궁중말.
ㄹ. 낮-수라【이】점심의 궁중 말.

23) 『수정 조선』에는 '새옹'의 사투리도 풀이되어 있다.
24) 『큰사전』에는 '단-여의'로 등재되어 있다.

ㅁ. 매화 【이】 똥의 궁중말(宮中語).
ㅂ. 밭-집【이】「1」"백성의 집"의 궁중말.[25)]
ㅅ. 족건 (足件)【이】 버선의 궁중말(宮中語).
ㅈ. 지 【이】 요강의 궁중말.
ㅊ. 치 1「이」신의 궁중말.

『수정 조선』에 풀이말에 '대궐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소목, 액정, 여관, 예합, 신부' 등 대궐 또는 궁중과 관련되어 풀이한 표제어가 170여 개 등재되어 있다. '궁중어'는 이윤재·김병제의 『표준조선말사전』에도 궁중과 관련된 단어 등을 찾을 수 있다.[26)] 현대의 온라인 전자사전인 『우리말샘』에는 그보다 더 많은 궁중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뜻풀이에서 '궁중에서'로 시작되는 표제어가 323개 검색된다.

풀이말의 부가 설명으로 '무당의 말'은 아래와 같이 2개가 등재되어 있다.

(20) ㄱ.【귓-것】 名 이름을 모르는 잡귀. (무당의 말).[27)]
ㄴ.【뜬-것】 名 ① 이름을 모르는 귀신. 뜬귀신. (무당의 말).[28)]

부가 설명으로 '무당의 말'은 없지만 뜻풀이에 무당과 관련된 풀이가 보이는 말은 '몸굿, 무고, 무꾸리, 삼성들리다, 선두리' 등 80여 개가 등재되어 있다. 『큰사전』에는 『수정 조선』의 부가 설명인 "무당의 말"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뜻풀이를 통해 '무당'과 관계된 단어들을 꽤 많이 확인할 수 있어 관련 단어가 풍부하게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외래어

현재와 같이 1930년대에 외래어의 개념은 국어에 정착하여 널리 사용되는 외국에서 온 말과 같은 좁은 개념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와 쓰이는 말

25) 『수정 조선』에는 "「농막」(農幕)의 옛말."로 풀이되어 있다.
26) (아:악 (雅樂) 이 궁중에서 쓰던 구악.
(어:의 (御醫) 이 궁중(宮中)의 시의(侍醫)
(입참 (入參) 이 궁중(宮中)의 축하 또는 제례에 참렬함. -하다._움
(진:연: (進宴) 이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에 궁중에서 열던 잔치.
(진:예 (進詣) 이 궁중에 들어 감. -하다._움
27) 『우리말샘』에는 비표준어로 '귓것'을 풀이하고 있다.
"귓-것 「001」 「명사」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규범 표기는 '귀신'이다."
28) 『우리말샘』에서는 민속 전문어로 풀이하고 있다.
"뜬-것 「003」 「명사」 『민속』 떠돌아다니는 못된 귀신."

로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할 수 있다.[29] 따라서 외국 문물과 접촉의 초기인『수정 조선』에 등재된 약 2,070여 개의 외래어 단어들의 지위는『수정 조선』에서 스스로 정의한 '국어화한 외국말'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표준 표기를 제공하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전에서 혼종어를 제외하고 등재된 외래어의 언어 기원 분포를 보면 영어가 1,892개 일어가 175개, 기타어가 10개 정도이다.『조선』에는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의 경우 55개가 등재되어 있었다.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수정 조선』에서『조선』보다 약 120여 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과『수정 조선』의 일본어 어원 단어의 수록 경향을 분석해 보면『조선』에 등재된 항목은 일상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21) 가나(カナ), 가방(カバン), 고무(ゴム), 구루마(クルマ), 기니네(キニネ), 기모노(キモノ), 우동(ウドン), 레루(レール), 와이-샤쓰(ワイシャツ), 사구라(サクラ), 사시미(サシミ) 등.

『수정 조선』에서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음식과 의복 관련하여 일상에서 자주 접할 것으로 판단된 단어, 영어에서 일본어로 유입되어 다시 한국으로 건너온 단어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국어로 "씨" 정도를 나타내는 상(サン)과 속어로 쓰이는 겁쟁이라는 말로 상대를 얕잡아 보는 말인 요와무시(弱虫)도 추가되었다.

(22) ㄱ. 출판/인쇄(가에, 도루, 이끼, 하시마루, 쏘강), 교통/철도(후미끼리, 노리까에), 금융/상업(와리, 와리비끼, 가와세).
ㄴ. 와리바시(젓가락), 하오리/유까다(의복), 우데마끼(팔뚝시계), 우라가에/우라가끼(뒤집어짓기/이서), 덴뿌라, 오뎅, 스끼야끼, 다마넹이(양파), 아이스-게끼, 메리겡꼬(양밀가루)
ㄷ. 도라꾸(Truck), 스리빠(Slipper), 온쓰(Ounce), 아이스-게끼(Ice cake), 스데끼(Stick)
ㄹ. 상(サン, 접미), 요와무시(弱虫)

29) 실제로 외래어의 정의를 현대의 사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에 널리 쓰이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널리'를 적용할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어규정 조항에 있는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가 나와 있지만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일본어 표기는 비어두음운에서 현재의 표기와 다르게 유기음 표기가 아니라 (22 ㄱ~ㄹ)에서 볼수 있듯이 일관적으로 된소리 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쏘강(ザウガン)은 예외로 되어 있다.[30] 『큰사전』에는 일본어 어원인 단어가 30여 개만 등재되어 있다.

영어 표제어의 경우 『조선』에는 '나이브(Naive) 형 순직한. 천진한. 원시적(原始的)' '나렌지(Knowledge) 명 「날레찌」에 보라.' 표제어가 있는데 『수정 조선』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문세영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은 안예리(2020)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외래어에 대해 『조선』과 『鮮和兩人모던朝鮮外來語辭典』을 비교를 참고할 수 있는데 외래어 표제어는 '가표제어'가 드물다는 점과 영어 유래의 외래어의 어두음 'g, b, d'는 모두 된소리로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직 데이(day)만 평음 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3) ㄱ.【까솔린】(Gasoline)
ㄴ.【빠이오그래피】(Biography)
ㄷ.【따블】(Double)

(24) ㄱ.【메이-데이】(May day)
ㄴ.【뻐드데이】(Birthday) 名
ㄷ.【데이】(Day) 名

『조선』과 『수정 조선』의 'g, b, d' 어두음을 일관되게 된소리로 표기한 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표제어의 일관성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방언

『수정 조선』이 『조선』과 달라진 점은 대거 '사투리'를 등재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ㄱ항목 부분에서는 사투리는 180개 정도 등재되어 있는데 『수정 조선』에는 795개가 등재되어 있어 약 600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사투리 표제어가 늘어난 것은 지방 독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조선어학회의 사투리 수집 사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31] 『수정 조

30) 이 말은 1970년대 순화자료집에 나오는 다듬어 써야 할 단어로 인쇄 용어 순화한 자료에 '쏘강'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의 다듬은 말은 파넣기, 땜질, 홈메움, 상감인데 문교부, 국어순화자료 제2집(1978) 국어순화자료집(1992) <행정용어>(1993 고시) 국어순화용어자료집-일본어투 생활 용어(1997) 자료집에 나온다.(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검색)

선』의 방언에 해당하는 '~의 사투리' 표제어는 쓰이는 지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지역의 말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초판에 '-에 사투리'라고 풀이된 말이 '-에 보라'로 수정되거나 반대로 '-에 보라' 가 '-에 사투리'로 바뀐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32] 또한(25)에서처럼 표제어 중에 뜻풀이에 사투리와 옛말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25) ㄱ.【가시】 名 ①「안해」의 옛말 ②「계집」(女子)의 사투리
ㄴ.【까풀】 名 ①「가죽」의 옛말 皮 ②「껍질」의 사투리
ㄷ.【마리】 名 ①「마루」의 사투리 ②「마루」의 옛말 ③「머리」의 옛말
ㄹ.【바람】 名 ①「벽」(壁)의 옛말 ②「바람벽」의 사투리
ㅁ.【상해】 名 ①「늘」의 사투리 常川 ②「그때」의 옛말
ㅂ.【수】 名 ①「추수」의 사투리 ②「벼」의 옛말
ㅅ.【오래】 名 ①「문중」(門中)의 옛말 ②「마을」② 의 사투리 村 ③「이웃」의 사투리
ㅇ.【이바지】 名 ① '잔치'의 옛말. ② '혼례'(婚禮)의 사투리.
ㅈ.【한새】 名 ①「황새」의 옛말 ②「왜가리」의 사투리
ㅊ.【헤뜨다】 名 ① 자다가 놀라다 ②「허둥거리다」의 옛말 ③「덤벙거리다」의 사투리

아래는 '~의 사투리'로 풀이된 단어의 고빈도 목록이다.

---

31) 「한글」 27호(1935)~75호(1939)까지에는 '방언' 혹은 '시골말' 이라는 제목으로 방언 자료를 제시한 것이 있다. 이 자료의 분량은 1쪽부터 5쪽까지이며 해당 지방의 방언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다루었다. (1) 김용운,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2) 장지용, '평북 벽동을 중심하고 ①' (3) 이강수, '전남 함평을 중심으로' (4) 전몽수, '평북 선천 지방을 중심으로' (5) 이용환, '경남 하동 진교를 중심하고' (6) 김 여진, '함북 길주 . 성진 지방을 중심하고' (7) 김성환, '광복 강게를 중심으로 ①' (8) 이호춘, '경북 영천 지방' (9) 장지용, '평북 벽동을 중심하고 ②', (10) 천혁, '함남 고원 지방을 중심으로 ①' (11) 지봉욱, '함남 정평 지방 ①' (12) 지봉욱, '함남 정평 지방 ②' (13) 지봉욱, '함남 정평 지방' ③ (14) 양원화, '황해 송화 . 은율 지방', (15) 김득룡, '경북 대구 지방' (16) 김귀인, '함북 경원을 중심으로' (17) 안창섭, '함북 경성 지방' (18) 채대원, '평남 용강을 중심하고' (19) 공석주, '평북 벽동 지방을 중심하고' (20) 김효성 . 장필관, '문화, 평북 칠평시', R생, '함남 원산' (21) 백남종, '전북 정읍 중심', 이상인, '경북 풍산 지방' (22) 김규환, '북간도 지방' (23) 천혁, '함남 고원을 중심하고 ②', 이상인, '경북 안동 지방' (24) 김여진, '함북 길주군 동해면' (25) 천영회 . 김성환, '전남 광주, 평북 강계 ② (26) 안영준, '평북 용천' (27) 최상수, '경남 동래 지방' (28) 박종주, '함남 함흥' (29) 최상수, '경남 동래 지방', (30) 천혁, '함남 고원 지방 ③' (31) 천혁 '함남 고원 지방 ④' (32) 김여진 . 최영해 '함북 길주 지방, 경상도' (33) 장지용, '평북 창성 지방' (34) 전길성, '평남 개천 지방 ①' (35) 전길성, '평남 개천 지방 ②' (36) 허철, '함북 회령 지방' (37) 최금용, '평북 의주 지방' (38) 신숙철, 정태윤 '강원 춘천. 울진, 강릉' ① (39) 신숙철, 정태윤, '강원 춘천, 울진, 강릉③' (이광정, 2003 참고)

32) 안예리(2025)에서는 조선어사전의 '~에 보라'로 풀이된 단어를 '가표제어'라 부르고 '가표제어'를 분석하였는데 『조선』과 『수정 조선』에서 차이가 난 표제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26) '~의 사투리' 풀이 고빈도 단어 목록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소꿉질	47	어머니	15	부뚜막	12	젓가락	11
잠자리	26	혀	15	언덕	12	턱	11
겨우	20	그네	14	거지	11	할아버지	11
비탈	19	늘	14	눌은밥	11	거짓말	10
개구리	17	바구니	14	대님	11	노나끈	10
할머니	17	병아리	14	대야	11	누에	10
허수아비	17	여위	14	때쩌구리	11	둑	10
뒷간	16	겨울	13	말더듬이	11	뚜껑	10
석냥	16	낭	13	새끼	11	멍청이	10
송아지	16	두루마기	13	수말	11	숨박곡질	10
팽이	16	사내	13	수수	11	애꾸눈이	10
고양이	15	계집애	12	수수꺼끼	11	주머니	10
부엌	15	벼룩	12	점심	11		

방언 표제어로 가장 많이 등재된 것은 '소꿉질'의 방언형이다. 47개가 등재되어 있다.[33]

(27) 갓감지, 공곱질, 도깝놀이, 도꼬바지놀음, 또꼬방질, 또구방놀이, 또굽질, 돈드깨비, 돗굽질, 동곱파리, 동구뱅이, 동두깨비, 동드깨미, 바꿈사리, 바꿈새기, 바꿈질, 바치논굴, 바치놀음, 반도깨미질, 반두깨비, 반두깽이, 반주깨, 반주깽이, 반치놀음, 밥짓놀이, 밥해놀이, 방도꺄미, 방두깨미, 살림살이, 서굼지, 세간녹질, 세간놀이, 세간살이, 손곱질, 솥가락질, 시간살이, 조꿉질, 쫑곱질, 톱곱질, 통곱질, 통구박질놀음, 통굽작란, 한갑질, 혼두까지, 혼두깨미, 혼두깨비, 혼잡

초판에는 '또꼬방질, 동드깨미, 바꿈사리, 바치놀음, 방두깨미, 세간놀이, 세간살이, 솥가락질, 통곱질, 한갑질, 혼잡' 등 11개만 나온다.[34] 초판에 '바꿈질, 반치놀음, 살림살이' 등의 표제어가 나오지만 '소꼽질'의 사투리로 풀이되지는 않았다. 다만 '반치놀음'은 각씨놀음의 사투리로 풀이되어 있다.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새로 추가된 방언형의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

33) 『우리말샘』에서 자세히 찾기로 "소꿉질의 방언"으로 검색하면 179건이 나온다.

34) 소꿉질의 방언형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자료인 『방언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솟굽질통(서울), 굽작난(洋平), 시감사리(間島), 동구박지노름(咸州), 바치노름(城津), 독갑노리(安邊), 세간사리(中和, 平壤, 大同), 공급질(江西), 독구바노리(寧邊), 소곱질(平山), 통곱질(原州), 통곱질(洪川), 소꼽작난(鐵原), 통곱질(忠州, 槐山), 솟곱질(淸揚), 바굼사리, 바곰사리(論山), 반두까(沃川, 瑞山), 솟곱질(洪城), 소(수)집 작난(瑞山), 혼잡(延日), 동드깨미(安康), 동두깽이(密陽), 바구사리(泗川), 솟굽질(善山), 박금새기(남원), 손가락질(영암), 한갑질(광주)

다.

(28) ㄱ. 또꼬방질-평안,
ㄴ. 바치놀이-함북,
ㄷ. 방두깨미-경북,
ㄹ. 세간놀이[35]-충청, 황해, 중국길림성,
ㅁ. 통곱질-경기

『우리말샘』에서의 '한갑질과 혼잡'은 방언 표기가 없이 비규범 표기로 되어 있다.

『수정 조선』에서 잠자리의 사투리는 26개 등재되어 있는데 『조선』에는 '장잘기, 잼재, 잼재리' 3개를 제외하고 23개가 모두 실려 있다. '장잘기'는 황해도의 방언이고 '잼재'는 '평안, 함남'의 방언 '잼재리'는 '경북, 함경'의 방언이다.

(29) 까랭이, 남자리,밤버리, 소금장이, 소금재, 앉은뱅이, 앉을바이, 어러리, 자마리, 잔자리, 짠다리, 잠드래비, 짬자리, 짬잘래, 장애, 장잘기, 잰재리, 잼자리, 잼재, 잼재리, 절갱이, 점자리, 차랑이, 철기, 철리, 초리

개구리의 방언형은『수정 조선』에는 17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초판에 없던 꽤꼬리, 깨고락지, 깨구락대기, 깨굴테기, 머그락지, 메구리, 멱장구 7개가 새로 등재되었다. 이중 '꽤꼬리'의 방언형이 어디에 등재하는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에 새로 등재된 방언형 중에 '깨구락대기, 깨꿀태기, 깨고락지' 듣은 전남에서 사용되는 방언형으로 알려져 있다. 깨고락지는 남부지역에서 주로 사용한는 방언형이지만 추가된 방언형의 일부는 전남에서 분포한다고 조사된 자료이다. 그리고 '메구리, 멱장구'는 평안도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조사 보고된 방언형이다.

(30) 개구리: 가갑이, 개구락지, 개구래기, 개굴태기, 깨고락지, 깨구락대기, 깨굴태기, 꽤꼬리, 때구라기, 머그락지[36], 먹저기, 메구락쥐, 메구리, 멕자귀, 멕장구, 멱자구, 멱장구

『수정 조선』에서 '사투리'로 뜻풀이된 단어를 올린 것에 대해 근대 한국

35) 『우리말샘』에는 소꿉놀이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
36) 『수정 조선』에 머그락지는 "머구리, 개구리의 사투리"로 풀이되어 있다.

어의 어휘 차원의 규범화로 해석하는 주장[37]에 필자도 동의하지만 각 지방의 사투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등재한 것은 단순히 표기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어휘 차원의 규범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투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은 1950년대 이후에서나 주류 인식으로 떠오른 것으로 1930년대의 서울 인구와 서울의 지리적 범위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이 중심지이기는 했지만 언어적 측면에서도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3.7. 옛말과 이두

이제 ‘옛말’ 표제어에 대해서는 “옛날 말은 지금 발음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순경음이나 반치음 등이 들어간 단어들은 등재하지 않고 이 사전 편찬된 시기에 옛말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올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등재된 옛말 중 일부는 현대국어의 일부로 인정되어 ‘옛말’의 표지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일부는 비규범 표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대의 뜻풀이로 된 것도 있다.

(31) ㄱ.【갖대】 名 개잘량의 옛말[38]
ㄴ.【갖풀】 名 아교의 옛말[39]

옛말로 풀이된 것이 현대에는 사투리로 된 것도 있는데 ‘갈오기, 가로기’ 등이 그 사례다. ‘갈오기’는 제주의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갈오기’가 쌍동의 옛말로 풀이되어 있다. 조재수(2021 참고). 옛말로 제시된 ‘거훔, 걸말’은 『훈몽자회』에 나오는 말이다. 또한 ‘도화잠불말’이 노걸대에 나오는데 『수정 조선』에는 ‘도화잠불’로 나온다. ‘혓가래’는 『한불자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옛말의 사전 등재 경향 파악을 위해서는 옛말의 출전을 모두 살피고 당시 문헌 자료와 비교 검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전에는 이두가 720여개 등재되어 있는데 이두의 특성상 실질형태소

37) 안예리(2025:3)의 각주 2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근대 한국어의 규범화 과정에서는 표기의 혼란을 바로잡는 외에도 옛말, 방언, 은어 등을 표준화하는 문제도 중대 과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러한 어휘 차원의 규범화는 가표제어가 아닌 특정 유형의 주표제어를 통해 다루어졌다. 즉, 해당 표제어들은 ‘~와 같음’, ‘~의 속어’, ‘~의 사투리’, ‘~의 옛말’, ‘~의 딴이름’, ‘~의 준말’ 등의 뜻풀이를 취했던 것이다.”

38) 『우리말샘』에서 풀이는 다음과 같다. 갖-대 「001」 「명사」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의 가죽. 흔히 방석처럼 깔고 앉는 데에 쓴다. ⇒규범 표기는 ‘개잘량’이다.

39) 『우리말샘』에서 ‘갖풀’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갖-풀 「001」 「명사」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 풀로도 쓰고 지혈제로도 쓴다.

보다는 활용형이 많은데 720여개 중에 660여개가 활용형의 이두가 제시되어 있다. 문세영 선생이 사전을 편찬할 당시에 이두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儒胥必知』부편으로「吏讀彙編」과『註解語錄總覽』에「吏文語錄」등이 있었다.

(32) ㄱ.【가로혀】(歧如) 吏 겨끔나기
ㄴ.【갓갓】(物物) 吏 갖갖.
ㄷ.【과글리】(戈只) 吏 심하게. 甚.
ㄹ.【나으리】(進賜) 吏 나으리.[40]
ㅁ.【발괄】(白活) 吏 발괄.
ㅂ.【의네】(矣徒) 吏「의몸」(矣身)과 같음.
ㅅ.【지위】(節) 吏 이번. 지금. 때.
ㅇ.【갓】(校只) 吏 산림(山林).

(32)의 예들은 실질형태소에 해당하는 명사와 부사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이 사전에서만 보이는 이두의 예로 (31 ㅇ)이 있는데 이 표제어는『수정 조선』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당시의 이두 자료집이라 할 수 있는『吏讀集成』에도 찾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단어는 일부 고어사전에서만 확인된다. 정태진의『조선고어방언사전』(1948)과『큰사전』,『우리말 큰사전』(1992), 금성판『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고어사전 중에는 정희준이 펴낸『조선고어사전』(1949), 유창돈이 펴낸『고어사전』(1955), 전규태의『고어사전』(1981:790)[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만이 말을 추가할 때『한글』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두의 추가도『한글』잡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의 확인을 위해『한글』을 살펴보았다. 이 표제어는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한글』제67호(1939년 5월)에 이상인이 쓴 이두초(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두 '校只(갓)'이 '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수정 조선』에서 '갓'을 '산의 사투리'로 추가된 점도 참고가 된다.

(33) 校只.
音: 갓.
意: 山林.

『수정 조선』은 이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 말미에 이두찾기를 배치해 두었다. 국어사전 중에 이두만을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정태진의『고어

40)『註解語錄總覽』은 '나리'로 되어 있다.
41) <朝鮮>을 출전으로 표시하고 있다.

방언사전』과 전규태의 『고어사전』, 한글학회의 『큰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등이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4. 뜻풀이의 유형화

이제 『수정 조선』에서 뜻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수정 조선』에서는 최근 사전학에서 사용하는 '뜻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註解'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사전 일러두기에 '주해'가 사용된 것은 아래와 같다.

(34) ㄱ. "이 책은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吏讀)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를 ㄱ ㄴ ㄷ의 차례로 벌려 놓고 이에 대하여 낱낱이 우리말로 알기 쉽게 주해(註解)한 것입니다."
ㄴ. 주해의 표준은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 주해를 붙이었습니다.
ㄷ. 동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에 주해를 붙이고 끝에 한문 글자를 적었습니다.
ㄹ. 한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때마다 ①②③의 부호를 붙이어 갈라서 주해하였습니다.
ㅁ.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말은 그중에서 표준될 만한 말에 주해를 달고 다른 말들은 그것과 <같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수정 조선』의 뜻풀이 기술의 대원칙은 (30ㄱ)에서 "우리말로 알기 쉽게 주해한 것"과 "주해의 표준은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 주해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동식물과 관련된 단어는 우리말 주해 외에 '한문 글자'를 넣었다. 다의어는 번호를 붙여 갈래를 나누어 주해하고 동의어 중에서는 표준이 될 만한 것만 주해를 하고 나머지는 동의어 처리하였다. 뜻풀이를 기술할 때 다음 항목도 일러두기에 포함하여 사전의 뜻풀이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35) ㄱ. 우리말과 한문 글자가 합하여 된 말은 죄다 한글로만 적었고 참고가 될만한 말에만 주해 끝에 한문 글자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ㄴ. 철자는 같되 다른 조선말은 설명 끝에 한문 글자를 참고로 표하였습니다.

ㄷ. 발음을 잘못하는 말이나 철자를 그릇 쓰는 말들은 그 바른 말인 그것에 <보라>로 지정하였습니다

(35ㄴ)은 동음이의어의 경우 마지막에 한자를 두어 뜻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제 이 사전의 뜻풀이 기술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수정 조선』의 뜻풀이가 몇 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42] 이 사전은 의미 구분을 ①,②,③번호로 하고 있는데 뜻풀이가 가장 많은 단어는 3개로 '껄다, 보다, 힘'이다. (36)의 표에서 구분은 뜻풀이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1개의 뜻풀이만 있는 표제어는 85,338개라는 뜻이다. 그리고 뜻풀이 번호로 구분하면 1개만 있는 뜻풀이도 ①번 뜻풀이로 계산하여 처리한 숫자이다.

(36)『수정 조선』의 표제어 수와 뜻풀이 수

구분	표제어 수	뜻풀이 수	평균 뜻풀이 어절 수
1개 뜻풀이	85,338	95,340	4.17
2개 뜻풀이	7,154	1,0002	3.54
3개 뜻풀이	1,739	2,848	2.91
4개 뜻풀이	583	1,109	2.48
5개 뜻풀이	258	526	2.44
6개 뜻풀이	133	268	2.24
7개 뜻풀이	44	135	2.14
8개 뜻풀이	35	91	2.22
9개 뜻풀이	23	56	2.21
10개 뜻풀이	7	33	2.19
11개 뜻풀이	5	26	2.58
12개 뜻풀이	11	21	1.78
13개 뜻풀이	1	10	1.6
14개 뜻풀이	3	9	1.5
15개 뜻풀이	3	6	2.83
16개 뜻풀이	3	3	2
합계	95,340	110,483	

42) 황용주(2014)에서도 뜻풀이 숫자를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여기서 제시한 숫자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평균 뜻풀이 어절 수 계산도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힌다.

『수정 조선』은 표제어 당 약 1.16개의 뜻풀이가 있다. 뜻풀이가 하나만 있는 단수 뜻풀이 표제어와 뜻풀이 2개 있는 표제어의 숫자를 비교하면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뜻풀이에 사용된 어절 수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뜻풀이의 어절 수는 4.17개이지만 두 번째 뜻풀이는 3.54개로 낮아지고 세 번째 뜻풀이는 2.91로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번째 뜻풀이까지도 계속 평균 뜻풀이 어절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평균 뜻풀이 어절수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뜻풀이에서 고유어가 3.8개 정도의 평균 어절 수를 보인 반면에 한자어는 약 4.4개 정도의 어절 수를 보였다. 고유어를 더 짧게 설명했는데 고유어의 뜻풀이 중에 '~의 사투리, ~의 옛말, ~에 보라 ~와 같음, ~의 준말'과 같이 단어 대응 방식의 뜻풀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투적인 풀이를 제외하면 고유어에서의 뜻풀이 길이가 약 5.2개 어절로 늘어나게 된다. 한자어의 경우도 상투적인 것을 제외하면 약 4.7개 정도의 어절로 늘어나게 된다. 사전 뜻풀이 길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훈민정음, 한글, 반절'의 뜻풀이는 자세하게 풀이했다는 점이다. 『수정 조선』 가장 긴 뜻풀이를 가진 말은 '훈민정음'으로 아래 뜻풀이 이외에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의 예의 부분이 게재되어 있다.

(37) ㄱ.【訓民正音】 名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지으신 글을 정인지(鄭麟趾)·최항(崔恒)·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으로 하여금 해석을 더하여 이십오 년 계해(癸亥) 겨울에 완성하고 이십팔 년 병인(丙寅) 구월 그믐날 곧 이십구 일 (서력기원 一四四六年 十月 二十八日)에 중외(中外)에 반포하신 것.
(예의 부분 생략)
ㄴ.【한글】 名 조선에 고유한 알파베트 문자 세종(世宗) 이십팔 년 병인(丙寅) 구월 그믐날 곧 이십구 일(October 28th,1446)에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반포한 것. 지금 쓰는 자모(字母)는 다음과 같음. 한글의 자모 ㄱ(기역)·ㄴ(니은)·ㄷ(디귿)·ㄹ(리을)·ㅁ(미음)·ㅂ(비읍)·ㅅ(시옷)·ㅇ(이응)·ㅈ(지읒)·ㅊ(치읓)·ㅋ(키읔)·ㅌ(티읕)·ㅍ(피읖)·ㅎ(히읗) ㅏ(아)·ㅑ(야)·ㅓ(어)·ㅕ(여)·ㅗ(오)·ㅛ(요)·ㅜ(우)·ㅠ(유)·ㅡ(으)·ㅣ(이) 위의 스물넉 자의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 ㄲ(쌍기역)·ㄸ(쌍디귿)··ㅃ(쌍비읍)·ㅆ(쌍시옷)·ㅉ(쌍지읒) ㅐ(애)·ㅔ(에)·ㅚ(외)·ㅟ(위)·ㅒ(얘)·ㅖ(예)·ㅘ(와)·ㅝ(워)·ㅙ(왜)·ㅞ(웨)·ㅢ(의)의 열여섯 자 모두 마흔 자가 있다. 朝鮮文. 韓文.(「언문」(諺文)과 「훈민정음」(訓民正音) 참조).
ㄷ.【반절】 名 ②종래의 쓰던 언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ㅣ

ㅇ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ᄀᆡ 나냐 너녀 노뇨 누뉴 느니ᄂᆡ 다댜 더뎌 도됴 두듀 드디ᄃᆡ 라랴 러려 로료 루류 르리ᄅᆡ 마먀 머며 모묘 무뮤 므미ᄆᆡ 바뱌 버벼 보뵤 부뷰 브비ᄇᆡ 사샤 서셔 소쇼 수슈 스시ᄉᆡ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ᄋᆡ 자쟈 저져 조죠 주쥬 즈지ᄌᆡ 차챠 처쳐 초쵸 추츄 츠치ᄎᆡ 카캬 커켜 코쿄 쿠큐 크키ᄏᆡ 타탸 터텨 토툐 투튜 트티ᄐᆡ 파퍄 퍼펴 포표 푸퓨 프피ᄑᆡ 하햐 허혀 호효 후휴 흐히ᄒᆡ 과궈 놔눠 돠둬 롸뤄 뫄뭐 봐붜 솨숴 와워 좌줘 촤춰 콰쿼 톼퉈 퐈풔 화훠 각간 갇 갈 감 갑 갓 강 개.

‘훈민정음’과 ‘한글’의 뜻풀이를 보면 당시에는 훈민정음 반포일을 세종실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28년 9월 그믐으로 판단하여 양력으로는 10월 29일로 환산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뜻풀이는『조선』이 간행된 이후 1954년판에 이르기까지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다.

『수정 조선』에서는 어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자성어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표제어에서는 괄호()에 부가 설명을 함으로써 어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단어의 뜻풀이를 간결하게 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 사자성어, 역사 용어, 외래어 표제어에 해당 단어의 어원이나 풍습을 알 수 있도록 풀이한 경우가 많다. 사전 뜻풀이의 유형으로 ‘~에서 온 말’ 또는 ‘~에서 나온 말’로 나오는데 ‘~에서 온 말’은 설명이 따로 없지만 ‘~에서 나온 말’은 34개가 있는데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유형화된 뜻풀이 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그 단어의 탄생 배경을 알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7) ㄱ.【개:-보름-쇠듯】句 잘 먹을 날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보내는 것을 가리치는 말. (정월보름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파리가 성한다 하여 사람은 잘 먹는 이 날에는 개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던 풍습에서 나온 말).

ㄴ.【계림】(鷄林) ■名 ① 신라의 예전 국명. (시림(始林) 나뭇가지에 아이가 들어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었다는 데서 나온 말). ② 조선 나라의 딴 이름.

ㄷ.【와:신-상담】(臥薪嘗膽) ■名섶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이니 원수를 갚고저 고생하는 것. (옛적에 월왕 구천(越王句踐)이 오왕 부차(吳王夫差)에게 나라를 잃고 매우 고심하여 나라를 회복한 일에서 나온 말).

ㄹ.【함흥-차사:】(咸興差使) ■ 누구에게든지 심부름을 시켜

놓고 소식이 아주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디 올 때에 쓰는 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정종(定宗)께 선위하시고 함흥에 계옵실 때 태종(太宗)께서 보낸 사자를 혹은 죽이기도 하고 혹은 붓잡아 두기도 하여 돌려 보내지 아니하던 옛일에서 나온 말).

ㅁ. 【좌:경】(坐更) 名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서울 안에 시각을 알리던 것. (이전에 궁중에 누국(漏局)이 있어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경(更)과 점(點)을 알렸었는데 그 법은 이경·삼경·사경·(二更·三更·四更)을 오점(五點)에 나누고 초경·오경(初更·五更)을 삼점(三點)에 나누어 경에는 북 점에는 징을 쳤다. 곧 삼경 일점에는 북을 세 번 징을 한번 치고 사경 이점에는 북을 네 번 징을 두 번 치는데 초경 삼점부터 시작하여 오경 삼점에 그쳤다. 그리하여 서울 각처에 있던 경점군사(更點軍士)가 누국의 징·북을 받아 다시 북과 징을 쳐서 차례로 시각을 알렸었다).

최경봉(2025:65)에서는 우리말 집대성이라는 사전 편찬의 시대적 요구는 표제어 양적 증대외에 어휘의 내재한 의미정보의 발굴과 체계화하고 하면서 ‘뜻풀이의 형식화’, ‘의미항목 구분의 정교화’, ‘의미항목 배열 기준의 확립’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뜻풀이의 형식화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일러두기 등에서 수록 범위를 정한 어종이 있는데 해당 표제어를 표현하기 위한 종결 표현으로 ‘~의 사투리’ ‘~의 옛말’ ‘~에 보라’ ‘~와(과) 같음’ 등이 사용되었다. 아래는 뜻풀이에 사용된 종결 표현의 빈도이다.

(38) 종결 표현 사용 양상

종결 표현	빈도
~는 것	14876
~와 같음	8702
~의 사투리	6206
~에 보라	5063
모양	2019
~의 준말	1887
사람	1758
이름	1302
가지	1130
쓰는 말	1042
~의 옛말	947

벼슬	783
~에서 온 말	427
총칭	392
~의 속어	382
존대	320
	47,236

『수정 조선』 사전의 뜻풀이 중에 일러두기에 언급한 동식물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9) 동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에 주해를 붙이고 끝에 한문 글자를 적었습니다.

식물 관련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 식물 전문어로 표시된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오식이 있는 경우도 필자가 판단하여 제외하거나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필자가 식물 관련 표제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표제어 2010개이다.[43]

상위 빈도 어휘를 살펴보면 다른 말뭉치 분석과 마찬가지로 문법 형태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실질형태소의 빈도를 보면 이 텍스트의 특성답게 식물의 부분 명칭과 형태적 속성을 가리키는 어휘가 돋보인다. 예를 들어 '잎'(509회), '꽃'(451회), '열매'(218회), '줄기'(164회), '풀'(167회), '나무'(137회) 등이 대표적이다. 식물 정의문에서 해당 식물의 구조적 특징(잎, 꽃, 열매 등)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많은 정의문이 "잎은…", "꽃은…"처럼 잎과 꽃의 형태나 색을 설명하고, 나아가 "열매는 견과이다"처럼 열매의 종류까지 명시한다.

그리고 식물의 분류나 종류와 관련된 단어도 두드러지는데, "'가지'(224회)"는 "~의 한 가지"라는 종 구분이 빈번하고, '숙근초'(121회), '낙엽교목'(62회), '상록교목'(30회) 등 분류학적 명칭(다년생풀, 낙엽성 교목, 상록 교목 등)이 빈번하게 쓰였다. 이런 정보가 식물 설명에 중요 정보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식물의 용도를 나타내는 '약재'(70회)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약재로 씀."과 같이 그 식물이 약재로 쓰인다는 용법 정보를 기술한 뜻풀이가 많아서이다.

이러한 빈도 분석을 통해 '식물' 관련 전문어 풀이가 일정한 틀인 "예컨대 "X는 Y의 한 가지이다", "잎은 …, 꽃은 …, 열매는 …", "… 약재로

43) 이 표제어는 1번 뜻풀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쓰인다” 등으로 정형화되어 풀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다른 사전의 뜻풀이와 비교를 통해 전문용어 사전에서 사전의 뜻풀이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 정보와 서술 구조 등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전 기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0) ㄱ. 【고채:】 (菰菜) ◙ ㊍ 화본과(禾本科)에 붙은 숙근초(宿根草). 잎은 창포 잎 같고 빛이 엷으며 가을에 화경(花梗)이 나와 작고 흰 꽃이 피는 풀. 열매를 조호미(彫胡米)라고 함. 고미.

ㄴ. 【꼬아리】 ◙ ㊍ 가과(茄科)에 붙은 숙근초(宿根草). 잎은 타원형 꽃은 백색 열매는 꼴꼴한 껍질에 싸인 장과(漿果). 계집애들이 그 열매의 속을 빼어 버리고 입에 넣어 뿌드득 소리를 내어 부는 것. 酸漿. 紅姑娘.

ㄷ. 【골:속:】 ◙ ㊍ 등심초과(燈心草科)에 붙은 숙근초(宿根草). 줄기는 둥글고 가늘고 길며 꽃은 황록색으로 피는데 줄기는 이뇨제(利尿劑)로 씀. 燈心草.

ㄹ. 【골쇄:보:】 {-쐐-} (骨碎補) ◙ ㊍ 양치과(羊齒科)에 붙은 숙근초(宿根草). 흑갈색의 털이 돋은 지하경(地下莖)이 있고 잎은 해금사(海金沙)의 잎과 비슷하며 꽃은 없다 지하경은 흙을 떠나서도 오래 마르지 않는고로 여름에 처마끝에 달아 그 녹엽을 완상(玩賞)하고 지하경은 약재로 씀. 石毛薑. 胡蓀薑. 猴薑.

(밑줄은 필자가 표시함)

5. 마무리

이 글은 문세영 선생의『수정 조선』의 표제어 수용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사전은 약 95,340개의 주표제어와 15,333개의 부표제어를 포함하여 총 110,672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어종별로는 고유어 35,560여 개, 한자어 55,570여 개, 외래어 2,070여 개, 혼종어 2,120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어, 옛말, 이두, 방언, 비표준어 등을 망라하여 당대 한국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920~30년대 사전 유통 맥락 속에서『수정 조선』은 조선총독부『朝鮮語辭典』, 조선어학회의『한글』잡지 등을 참고하면서도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방언 표제어는『조선』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수정 조선』에는 약 6,200여 개가 수록되었는데 이는 조선어학회의 방언 수집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어는 영어 유래 단어가 1,89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본어 유래 단어는 175개가 등재되었다.

뜻풀이 분석 결과『수정 조선』은 총 110,483개의 뜻풀이를 담고 있으며 표제어당 평균 1.16개의 뜻풀이가 제시되었다. 뜻풀이의 형식화 경향도 두드러지는데 '~는 것', '~와 같음', '~의 사투리', '~에 보라', '~의 준말', '~의 옛말' 등 종결 표현이 일정한 패턴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식물 관련 전문어의 경우 "X는 Y의 한 가지", "잎은…, 꽃은…, 열매는…", "약재로 씀" 등의 정형화된 구조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계량적 분석 방법은 표제어의 어종별·유형별 통계를 통해 사전의 거시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간 비교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 뜻풀이 어절 수, 빈도 어휘 분석 등을 통해 사전 편찬자의 뜻풀이 전략과 미시구조의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결 표현이나 전문어 뜻풀이 구조의 패턴 분석은 사전 뜻풀이의 형식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사전 편찬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글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개인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표제어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조선』초판과『수정 조선』의 전면적인 대조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보 과정의 세부적인 변화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 뜻풀이 분석이 주로 형식적·통계적 측면에 집중되어 사전학적 분석이나 뜻풀이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까지는 살피지 못했다. 당시 문헌 자료와의 비교가 일부 표제어에 한정되어 표제어 수집 과정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수정 조선』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국어사전으로서 당대 한국어 어휘의 담아내고자 한 선구적 시도였음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후 국어사전 편찬에도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김민지. 2011.「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7. 역락. 199~215쪽.

박용규. 2011ㄱ.「조선어사전□저자 문세영 연구」, 사총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7~102쪽.

박용규. 2011ㄴ.「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9~300쪽.

박형익. 2015.「송완식의『최신 백과 신사전』(1927)」, 한국사전학 25. 한국사전학회. 183~202쪽.

안예리. 2020.「1930년대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조선어사전(193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1, 7~34쪽.

안예리. 2025.「『조선어사전』(1938)을 통해 본 근대 한국어의 표기 변이와 규범화」, 제16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응웬 티 뚜옛 늉. 2024.「이윤재 저 표준 조선말 사전(1947)의 사전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이광정. 2003.「석인 정태진 연구(1)」, 한국어학 19. 29~57쪽.

이상인. 1939.「이두 초(1)」, 한글 67. 조선어학회.

이신팔. 1937.「삼메말(채삼어)」, 한글 5(10). 조선어학회.

이은상. 1933.「심메만이의 변말」, 동아일보. 1933년 10월 29일 3면.

조재수. 2021.『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한글학회.

최경봉. 2022.「국어사전의 개념과 구조의 형성 맥락」,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7~45쪽.

최경봉. 2025.「국어사전 편찬 과제의 인식과 사전 구조의 변천」, 한국어학 106. 한국어학회. 39~80쪽.

최경봉·김양진·이상혁·이봉원·오새내. 2023.『우리말이 국어가 되기까지』. 푸른역사.

최진원. 1938.「채삼용어(강원도 강릉)」, 한글 6(7). 조선어학회.

황용주. 2014.「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전학회. 111~139쪽.

황용주. 2016.「≪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의 편찬과 현대 한국어문학: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의 출판 이력과 사전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99~132쪽.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큰 사전』의 구조적 분석: 풀이말과 관련하여

최운호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whchoi@mnu.ac.kr

2025/10/17 (금)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큰사전>의 구조적 분석

-풀이말과 관련하여-

최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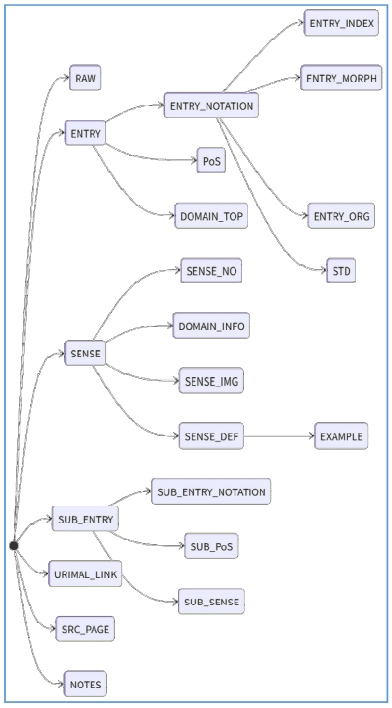
국립목포대학교

목차

- 사전의 구조화, 그리고 오류 유형
  - 컴파일 과정의 오류 검출
- 명사 풀이말의 구조
  - 명사 풀이말과 통제어 분석
- 향후 과제
  - 분석, 비판 정본

사전의 구조화, 그리고 오류 유형

컴파일 과정의 오류 검출



가관(可觀)【이】볼 만함.
가관(假官)【이】《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가:관 (假官)

「이」

『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0003 가:관(假官)【이】《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가:관(假官)【이】 《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가관004/005 큰1_0003

0003 가:관(假官)【이】《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가:관(假官)【이】 《고제》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가관004/005 큰1_0003

- **36 단계의 FST & Transformation**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formation**
  -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L00000100	ENTRY	std	1	가관	가:관	nil	(假官)
L00000100	POS	【이】					
L00000100	DOMAIN_TOP	《고제》					
L00000100	SENSE	0	nil	pic_nil	임시로 특별히 또는 정원(定員) 이외에 임용(任用)하는 관원(宜員).		
L00000100	SUB	nil					
L00000100	URIMAL	가관004/005					
L00000100	SRCPAGE	큰1_0003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 <국어원> 서비스, 입력 자료 모두 오류 기록				
21548	MOD	L00021547	【이】	길시[ㅡ씨])(吉時)
			【이】	옴:자-병[晻字餠)
99208	MOD	L00099207	【이】	일석-이:조[ㅡ썩ㅡ](一石二鳥]
▷ 입력 자료에만 오류 기록				
85758	MOD	L00085757	【이】	염세[ㅡ쎄](鹽稅】
126844	MOD	L00126843	nil	토호^열신[ㅡ씬](土豪劣紳》
134481	MOD	L00134480	【이】	해:열-약[ㅡ략](解熱藥】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국어원>	<입력 자료>
L00003057	ENTRY	갈이-방【(ㅡ房)【이】		오류
L00005402	ENTRY	《 갱:-조개【이】【동】	오류	오류
L00009976	ENTRY	고리-잠【ㅡ簪】【이】		오류
L00028550	ENTRY	담보^청구권(擔保請求權)【이】【법】	오류	오류
L00030219	ENTRY	대:장-괘(大壯卦)【이】【민】	오류	오류
L00041649	ENTRY	목슬(木蝨)【이【】		오류
L00048445	ENTRY	방풍-원(防風垣)【이】【건】	오류	오류
L00052808	ENTRY	보:충-대【이】(補充隊)【이】		오류
L00077069	ENTRY	씹-조개【이】【동】	오류	오류
L00086712	ENTRY	예:놈【이】【옛】	오류	오류
L00087931	ENTRY	오:중(五中)【이【		오류
L00090152	ENTRY	요과(蓼科)【이】【식】	오류	오류
L00093096	ENTRY	위수【(位數)【이】		오류

L00003562	ENTRY	감:전^전:류(感傳電流)【이】
L00011127	ENTRY	곡정-초(穀精草)【이】
L00022071	ENTRY	나무^잔(ㅡ盞)【이】
L00023386	ENTRY	납전(拉典)【이】
L00027338	ENTRY	다언-자(多言者)】이】
L00028470	ENTRY	땀-기[ㅡ끼)【이】
L00029592	ENTRY	대:로(代勞)】이】
L00030196	ENTRY	대:자-대:비(大慈大悲)【이】
L00032905	ENTRY	돌:구멍-안[ㅡ꾸ㅡ)【이】
*L00033322	ENTRY	동당(東堂)】이】
*L00036829	ENTRY	마:가^복음(←히Mark^福音)【이】
L00040953	ENTRY	모란-병(牡丹餠)【이】
L00041690	ENTRY	목이(木耳.木栮)【이】
L00057491	ENTRY	비:밀^회:의(秘密會議)【이】
L00063210	ENTRY	상사(祥事)【이】
*L00063706	ENTRY	쌍창-미단이)[ㅡ다지](雙窓ㅡ)【이】
*L00064227	ENTRY	《 새양-버들【이】《식】
L00065128	ENTRY	《 서끌다】【어.ㄹ벗】
L00084714	ENTRY	연로(年老)【이】
L00103486	ENTRY	장중-득실(場中得失)【이】
L00126755	ENTRY	토지(土芝)【이】
*L00133900	ENTRY	항덕(恒德)】이】
L00134599	ENTRY	《 해질-결[ㅡ껼)【이】

- '*' 표시는 <국어원>, <입력자료> 모두 오류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L00003413	ENTRY	감:속-동[減速動)【이】
*L00037632	ENTRY	만:고-절창依古絶唱)【이】
L00037990	ENTRY	만종蠻種)【이】
L00040833	ENTRY	모:과-숙[木瓜熟)【이】
*L00052824	ENTRY	호태평絳太平)【이】
*L00062790	ENTRY	쌍관-법[ㅡ뻡]雙關法)【이】
L00085722	ENTRY	염산^에메틴[鹽酸^Emetin)【이】
*L00089530	ENTRY	《 왜-철쭉【이】)
L00128009	ENTRY	파:광[破壙)【이】
L00128412	ENTRY	파:혹破惑)【이】
L00134775	ENTRY	행낭[行囊)【이】
L00137184	ENTRY	호:암:虎巖)【이】

- '*' 표시는 <국어원>, <입력자료> 모두 오류
- '만고절창'은 이미지 자료의 '만'과 한자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고, <국어원> 서비스에도 오류임. ▷ 萬古絶唱
- '호태평'
  - <큰사전> 이미지에는 표제어가 '보태평'으로 되어 있다. <국어원> 서비스에도 '호태평'으로 되어 있다.
  - '보태평'과 '보태평무' 사이에 '보태평악'이 있는데, 입력 자료에는 없다. 이를 추가해야 한다.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L00002421	ENTRY	간:-무침《(肝ㅡ)
*L00006342	ENTRY	건-강요주《(乾江瑤珠)
*L00029847	ENTRY	대시(臺詞)(극》
*L00036252	ENTRY	디:이즘2(영Theism)(종》
*L00045203	ENTRY	민관(民官)(고제》
L00065254	ENTRY	서리(書吏)(고제》
*L00075903	ENTRY	신:용^화:폐(信用貨幣)(경》
L00078341	ENTRY	아해두(良中置)(이두》
*L00079060	ENTRY	안:^회(顔回)(사람》
*L00084640	ENTRY	연단(鉛丹)(화》
*L00105138	ENTRY	전:건:(電鍵)(물》
*L00105559	ENTRY	전별-과(田鼈科)(동》
*L00120840	ENTRY	초엄(初嚴)(고제》
*L00121656	ENTRY	추가^조약(追加條約)(법》
L00124328	ENTRY	《케이-오:(영K.O.)(체》
*L00133505	ENTRY	함남(咸南)(지》

- '*' 표시는 <국어원>, <입력 자료> 모두 오류임.
- '전건'의 경우 영역 표시 기호 "물"이 <국어원> 서비스에서 사라짐.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L00016463	ENTRY	국제^올림픽^경:기^대:회(國際Olympic競技大會》
L00020731	ENTRY	기생-물(寄生物》
L00032184	ENTRY	도안-색(都案色》
%L00036539	ENTRY	-런고^옛(*^》
L00039501	ENTRY	맹장어-과(盲長魚科》
L00040238	ENTRY	면:사-포(面紗布》
L00042077	ENTRY	못:질하누온(不得爲臥乎》
%L00077352	ENTRY	-ᄋᆞ·니·라(옛》
L00086596	ENTRY	영호(동》
L00088373	ENTRY	온디-콩(식》
L00114734	ENTRY	《지:-조개(동》

- <국어원> 자료에서는 수정이 되었지만, <입력 자료>에는 오류가 있음.
- '%'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들이 섞여 있는 형태임. <국어원>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입력 자료>에서는 오류가 잡힘.
- Unicode U+200B (zero with space)가 '%' 기호의 표제항에는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어휘 항목에서 U+200B 교정함.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불복(不服) 【이】 ②복죄(服罪)하지 아니함. ② 복종하지 아니함. ——-하다 【제.남.여벗】.

- 의의 번호가 ②부터 시작함.
- 동일 번호 ②가 연속 사용됨.

불복 (不服)

「이」

「2」 복죄(服罪)하지 아니함. 복종하지 아니함.

——-하다 「제.남」(여벗)

(국어원)

- 의미 번호 오류로 데이터가 사라짐.
- 수정 필요.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택심(宅心) 【이】 =존심(存心). 『벗】.
택용(擇用) 【이】 골라서 씀. ——-하다 【남. 여】

택심】 (宅心)

=존심(存心).

- 품사 표지 기호가 입력 과정에서 입력됨.

- **Cascaded FST (Finite-State Transducer)**
- **Parsing & Translation (flat-text to structured format)**

묻다[3] 【남.ㄷ벗】 ① 남에게 대답을 구하다. ② 불행한 일을 당한 이에게 인사의 말을 하다.

묻:다 [3]

「남」

활용 구분 ㄷ벗

「1」 남에게 대답을 구하다.

「2」 불행한 일을 당한 이에게 인사의 말을 하다.

1136 묻:다3【남.ㄷ벗】 ③남에게 대답을 구하다. ②불행한 일을 당한 이에게 인사의 말을 하다. 묻:다3【남.ㄷ벗】 ③남에게 대답을 구하다. ②불행한 일을 당한 이에게 인사의 말을 하다.
묻다008 큰2_1136

- 다운로드 데이터가 [큰사전], [국어원]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

- **풀이말 검토**

모제(母弟) 【이】 "동모제(同母弟)"의 준말.
모조(毛彫) 【이】 《조각》 조각법에 나무나 〔모전〕 쇠붙이에 털과 선(線)을 새긴 조각.

모:제 (母弟)

「이」

"동모제(司母弟)"의 준말.

- '동(同)'이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사(司)'로 입력되었음.

1069 모:제(母弟)【이】 "동모제(司母弟)"의 준말.
모:제(母弟)【이】 "동모제(司母弟)"의 준말.
모제001 큰2_1069

- 자료 교정 필요.

- **풀이말 검토**

본위(本位) 【이】 ① 표준을 삼는 기본. ② 근본의 위치(位置). 『의 준말.』
본위-화(本位貨) 【이】《경》"본위 화폐(本位貨幣)"

본위 (本位)
「이」
「1」 표준을 삼는 기본.
「2」 "근본의"의 준말.

본위-화: (本位貨)
「이」
「경」 본위 화폐(本位貨幣) 위치(位置).

- '본위(本位)'와 '본위화(本位貨)' 풀이말의 입력에서 오류 발생

"근본의"의 **준말**.
본위화폐(本位貨幣) **위치(位置)**.

▷ ② 근본의 위치(位置).
▷ "본위 화폐(本位貨幣)"의 준말.

- **풀이말 검토**

빈지 【이】 "널반지"의 준말.

- 풀이말에서 "널반지"인지 "널빈지"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널반지"인 것으로 보임.

빈지
「이」
"널반지"의 준말.

- <국어원>에서는 "널반지"로 풀이되어 있음.

- **풀이말 검토**

의살(縊殺) 【이】 "액살(縊殺)"의 원말.

의살 (縊殺)

「이」

액살(縊役)의 원말.

- '의살'은 '액살'의 원말로 풀이되어 있음.
- <표준/우리말샘>에도 '의살'은 "'액살'의 원말"로 풀이되어 있음.
- '액'의 원음은 [의/예]라고 함.
-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음.
- 풀이말에서 '살(殺)'을 '역(役)'으로 잘못 입력함.

- **풀이말 검토**

계란-탕(鷄卵湯) 【이】 맑은 장국이 끓을 때에 달걀을 깨뜨려 풀거나 그냥 넣어 익힌

- <큰사전> 이미지

계란-탕 (鷄卵湯)

「이」

맑은 장국이 끓을 때에 달걀을 깨뜨려 풀거나 그냥 넣어 익힌@.

- <국어원> 서비스.
- 종(genus)의 통제어가 없어서 @으로 대치.

계란-탕(鷄卵湯)

사전 내려받기 | 목록으로 보기 | 내용으로 보기

발음 [계란탕/게란탕]

「명사」

맑은장국에 달걀을 풀어서 끓인 국. =달걀국.

- <표준>의 풀이말. '국'을 상위어로 하고 있음.

- <큰사전>이 현대 국어 사전의 탄생에 끼친 영향을 풀이말을 중심으로 관찰할 때, 풀이말의 유사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풀이말 검토**

능행(陵幸)		
<수정>	임금이 능에 참배하는 것.	幸 (다행 행) 1. 다행(多幸), 행복(幸福), 좋은 운(運) 2. 요행(僥倖), 뜻하지 않은 좋은 운(運) 3. 거둥(擧動: 임금의 나들이)
<큰사진>	임금이 능에 거둥힘.	
<표준>	임금이 능에 거둥함.	
<고려대>	임금이 능에 행차함.	
거둥		
<수정>	없음	
<큰사전>	임금의 나들이. (원말: 거동=擧動)	
<표준>	(擧動▽) 임금의 나들이. ≒거가.	
<고려대>	임금의 행차. (=거가2, 동가4, 선필2)	

1. <큰사전>과 <수정증보조선어사전>의 표제어, 풀이말의 관계(상속 관계).
2. <큰사전>과 <표준>의 표제어, 풀이말의 상속 관계.
3. <고려대> 사전 등 <표준> 이후 풀이말의 변화가 필요하여 반영된 사례.

·긔·ᄒᆞ다 【남】《옛》 술을 쉬이 괴게 하다. 〔긔홀범=齋.(訓蒙 下:12)〕.

- <큰사전>

• 긔 • ᄒᆞ다

「남」

『옛』 술을 쉬이 괴게 하다.

• [긔홀범=@(訓蒙 下12)].

- <국어원> 서비스.
- <훈몽자회>에는 "긔홀 번"으로 되어 있음.
- 한자는 齋 (계명수 반, 술이 빨리 익나. 쌀을 고르지 않고 빚다.)

긔ᄒᆞ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동사」
분류 「옛말」

「001」 뜨다. 발효하다.

▸ 이ᄠᆞᆫ나래 남지ᄂᆡ 모미 **긔ᄒᆞ며** 해믈어 빼 글희드렛거놀.≪월석 10:24≫
번역: 이튿날 남편의 몸이 떠 **물러 터져서** 뼈가 풀어졌거늘.
▸ 힝역 더데 비록 뻐러디나 그 허믈이 오히려 검고 슬히 **긔ᄒᆞ야** 훅 오목ᄒᆞ며 훅 내왇ᄂᆞ니.≪언두 하:36≫

- <우리말샘>에서는 <표준>에 없는 표제어가 추가되었는데, 풀이말을 다시 정의하였다.

누위 [이] 《옛》 누이¹. [아수와 누위를 추자 = 尋弟妹. (杜解 23: 46)]. 『驟. (訓蒙下 10)].
누웃굴다 [제] 《옛》 발버둥질 치다. [누웃굴면 =

- <큰사전>의 표제어 순서는 "누위" ▷ "누웃굴다"이다. "웃(ㅇㅜㅅ)"이 아니라 "읏(ㅇㅡㅅ)"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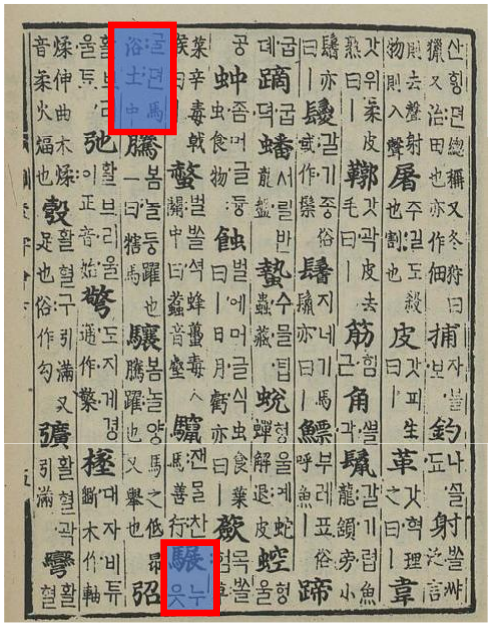
누웃굴다

「제」

『옛』 발버둥질 치다.

- [누웃굴면=@. (訓蒙 下10)].

- <국어원> 서비스와 <입력 자료>에는 "누웃(ㅇㅜㅅ)굴다"로 되어 있음.
- <우리말샘>에서는 (훈몽자회 하10)이 아니라 (훈몽자회 하5)로 나옴.
- <큰사전>의 가치를 고려할 때, 텍스트 비판을 통한 교정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누웃굴다

「제」

『옛』 발버둥질 치다.

- [누웃굴면=@. (訓蒙 下10)].

누웃-굴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동사」
분류	「옛말」

「001」 말이 뒹굴다.

▸ 驟 **누웃굴** 면 馬浴土中.≪훈몽 하:5≫

- 출전의 변경은 교정의 과정임.
- 풀이말의 변화는 사전 풀이말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로 필요함.
  - "발버둥질 치다." → "말이 뒹굴다."

한자 이체자의 사용

- '열'이 熱 (U+71B1)과 熱 (U+24360) 두 가지 이체자가 사전에 사용되었다.
- 이전에 사용되던 한자 이체자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는 한자를 통합하여 정규화하여서 이런 이체자의 사용 양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2145 열-력학(熱力學)【이】《지》 =열역학(熱力學).
2145 열렬(烈烈.熱烈)【이】 주의(主義), 주장(主張), 애정(愛情), 실행(實行) 따위가 대단히 맹렬함. /ㅡ-하다【어.여벗】.
2145 열렬(熱裂)【이】《광》 열로 인하여 광물이 분열(分裂)되는 현상(現象).
2145 열루(熱淚)【이】 감촉(感觸)이 심하여 뜨겁게 흘러 내리는 눈물.
2145 열리(熱離)【이】《회》 "열해리(熱解離)"의 준말.
2145 열리(熱痢)【이】《의》 =서리(暑痢).

▷ <표준>에서는 모두 U+71B1으로 정규화되어 있다.
▷ 이체자(異體字) 사용 양상에 대한 기록과 확인은 중요한데, 그러한 근거 자료를 <큰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자 이체자의 사용

酵(삭힐 효/교)의 음과 표제어

효모(酵母)【이】① 효모균(酵母菌)을 배양(培養)하여 변질(變質)된 전분(澱粉). 주정 발효(酒精醱酵)에, 또는 씨누룩, 광 따위를 만들기에 쓰이며,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의약(醫藥), 영양

교모(酵母)【이】 "효모(酵母)"의 원말.

교모 (酵母)
「이」

효모(酵母)의 @.

- <국어원> 서비스와 <입력 자료>에는 @이 표시되어 있음.
- <큰사전> 이미지를 참조하여 "~의 원말."로 수정함.

- 한자 酵의 음은 '효'와 '교'가 있음.
- <표준>이나 <우리말샘>에서는 '교모'를 등재하지 않고 있음.
- 한자의 사용 양상과 현실음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검토가 필요함.

한자 이체자의 사용

'단견'과 '단유': 墳의 음.

단-견

단-견 「壇@」「名」 제터와 곡장. 수정 중보 조선어사전

단-견 「壇@」「이」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흙무더기의 터. 큰사전

- <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 모두 '墳'의 음을 '견'으로 사용하여 '단견'으로 표제어를 등록하였음.
- '제단의 담 유'가 뜻과 음으로, '土(흙 토) + 遺(남길 유)'로 구성된 한자임.

의 겸손하게 일컬음. 『기의 터.』
단-견(壇墳)【이】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흙무더

- <큰사전>에는 '단견'으로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고, '단유'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

사전 내려받기 | 목록으로 보기 | 내용으로 보기

단유[1](壇墳)

발음 [다뉴]

동형어 1 2

「명사」

제사를 지내는 터. 흙무더기로 단을 모으고 그 둘레를 낮은 흙담으로 둘러막아 만든다.

- <표준>에서는 '단유'만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음.

한자 이체자의 사용

'도충'과 '조충': 絛(끈 조, 끈 도)와 條(끈 조, 끈 도)

도충(絛蟲)【이】《동》 =촌백충(寸白蟲). 『원말.』
도충-류(絛蟲類)【이】《동》 "조충류(絛蟲類)"의

- <큰사전>에서 조판한 '도/조'의 한자는 이체자 정보에서 검색이 되지 않음.
- 한자 사용 양상의 변화에서 검토할 대상으로 보임.

조충(條蟲)【이】《동》 =촌백충(寸白蟲).

- <큰사전>에서 '조충'의 한자는 '끈 조(條)'를 사용하였음.

도충[2](條蟲)

발음 [도충]

편집 이력

동형어 1 2 3

「명사」

'조충'의 전 용어.

- <표준>에서는 '도충'을 ('조충'의 전 용어.)라고 풀이하고 있음.
- 한자 사용의 시대적 양상에 대한 추적 조사를 위한 자료로 <큰사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명사 풀이말의 구조

명사 풀이말과 통제어 분석

원시 자료, 구조화 텍스트, 주석 자료

- 원시 자료의 구조화
  - 사전 표제항의 구조화
- 풀이말의 형태 분석
  - 형태소 단위 분석
- 사전 정의문
  - 풀이말에서 첫 번째 문장이 어휘의 유개념(genus)과 종차(differentia)를 규정함.
- 명사의 풀이말 구조
  - 풀이말에서 명사만 추출하여, 명사의 풀이말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포하는지 규명.

풀이말 형태 주석 첨가

- 형태 주석 말뭉치 구축

```
L00000005   ENTRY     std   1   가   가   nil   (加)
L00000005   POS  【이】
L00000005   SENSE①    nil   pic_nil"갓법(加法)"의 준말.
L00000005   SENSE②    nil   pic_nil"가산(加算)"의 준말.
```

```
L00000005   ①   "갓법(加法)"의 준말.
      "/SS + 갓법/NNG + (/SS + 加法/SH + )/SS + "/SS + 의/JKG
      준말/NNG + ./SF
L00000005   ②   "가산(加算)"의 준말.
      "/SS + 가산/NNG + (/SS + 加算/SH + )/SS + "/SS + 의/JKG
      준말/NNG + ./SF
```

형태 주석 말뭉치 구축

```
L00000006   POS  【이】
L00000006   SENSE①    nil   pic_nil무던하게 옳음. 무던하게 좋음.
L00000006   SENSE②    nil   pic_nil의안(議案)을 표결(表決)할 때, 찬성하는 의사(意思)의 표시. ("부=否"의 대).
```

```
L00000006   ①   무던하게 옳음.
      무던하/VA + 게/EC
      옳/VA + 음/ETN + ./SF
L00000006   ②   의안(議案)을 표결(表決)할 때, 찬성하는 의사(意思)의 표시.
      의안/NNG + (/SS + 議案/SH + )/SS + 을/JKO
      표결/NNG ㅣ (/SS ㅣ 表決/SH ㅣ )/SS
      하/VV + ㄹ/ETM
      때/NNG + ,/SP
      찬성하/VV + 는/ETM
      의사/NNG + (/SS + 意思/SH + )/SS + 의/JKG
      표시/NNG + ./SF
```

통제어 다언어 단위 표현

0001 가:(賈)【이】 **성(姓)의 하나.**

0008 가덕-대:부(嘉德大夫)【이】《고제》 종일품(從一品)인 종친(宗親)의 **관계(官階)의 하나.**

0038 가을-갈이【이】《농》 "**가을카리**"의 **원말.** (준말: 갈갈이). /ㅡ-하다【남.여벗】.

0690 니스【이】《화》 "**바니쉬**"의 **변한말.**

0693 따:귀【이】 "**뺨따귀**"의 **준말.**

0810 덧 문(ㅡ門)【이】 ①문짝 곁 쪽에 덧달아 여닫게 된 **문짝의 통칭.** ②=곁창.

0812 덮개1【이】 ①이불. **처늬 따위의 일컬음.** ②=뚜껑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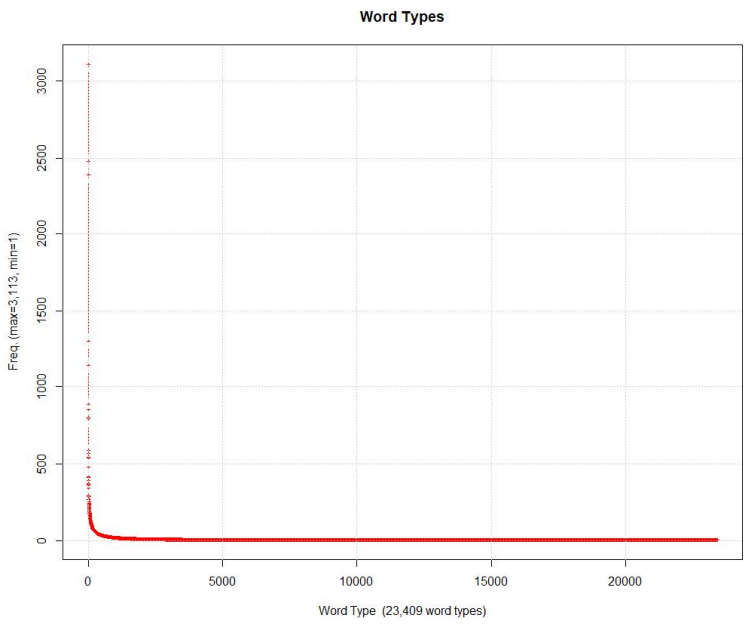
1037 메-탕:(ㅡ湯)【이】 ①"**국**"의 **높임말.** ②=갱(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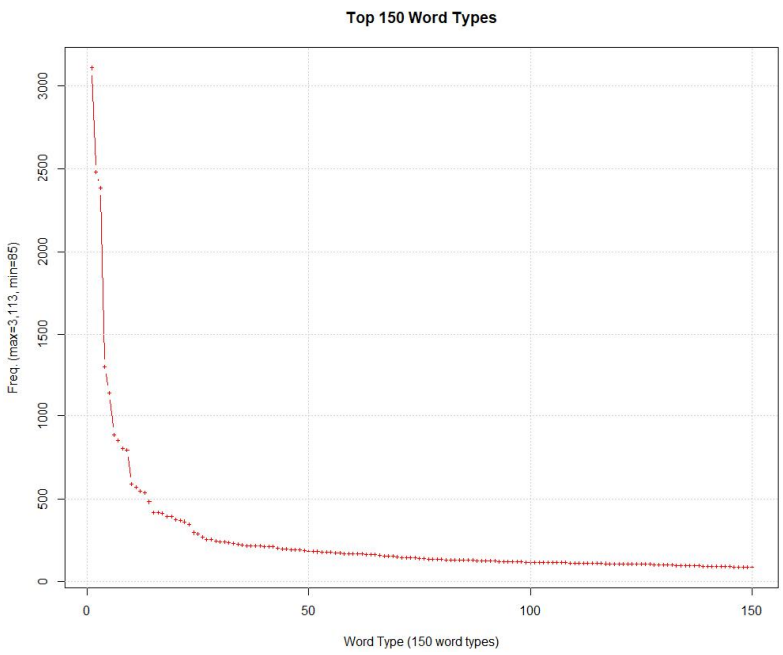
1554 사타구니【이】 "**샅**"의 **낮춤말.** (사타기. 사타리. 사채기. 사추기. 사추리. 아금장이). (준말: 사타귀).

연번	통제표현	빈도	연번	통제표현	빈도	연번	통제표현	빈도
1	의/JKG_준말/NNG	3,187	16	의/JKG_속칭/NNG	30	31	의/JKG_첫째/NR	14
2	의/JKG_하나/NR	2,414	17	의/JKG_종류/NNG	26	32	의/JKG_둘째/NR	10
3	의/JKG_이름/NNG	642	18	의/JKG_절반/NNG	25	33	의/JKG_세째/NR	9
4	의/JKG_원말/NNG	331	19	의/JKG_심미니말/NNG	25	34	의/JKG_네째/NR	8
5	의/JKG_비유/NNG	259	20	의/JKG_변한말/NNG	23	35	의/JKG_여섯째/NR	5
6	의/JKG_낮은말/NNG	124	21	의/JKG_범칭/NNG	21	36	의/JKG_여덟째/NNG	5
7	의/JKG_총칭/NNG	101	22	의/JKG_존칭/NNG	20	…	…	…
8	의/JKG_통칭/NNG	96	23	의/JKG_칭호/NNG	16			
9	의/JKG_낮춤말/NNG	66	24	의/JKG_높인말/NNG	16			
10	의/JKG 높임말/NNG	57	25	의/JKG 궁중말/NNG	12			
11	의/JKG_취음/NNG	56	26	의/JKG_변말/NNG	11			
12	의/JKG_별명/NNG	55	27	의/JKG_속어/NNG	8			
13	의/JKG_단위/NNG	51	28	의/JKG_겸칭/NNG	8			
14	의/JKG_부분/NNG	50	29	의/JKG_어린이말/NNG	4			
15	의/JKG_낮춘말/NNG	31	30	의/JKG_계통/NNG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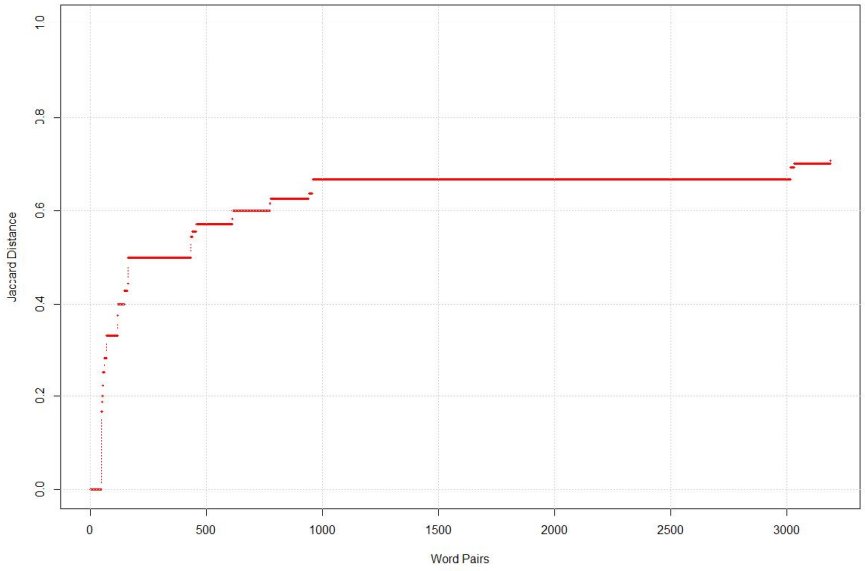
명사 풀이말에 사용된 유개념(genus) 어휘

연번	머리어	빈도	연번	머리어	빈도	연번	머리어	빈도	연번	머리어	빈도	연번	머리어	빈도
1	말/NNG	3113	21	하/VV	369	41	학문/NNG	212	61	약/NNG	167	81	관아/NNG	130
2	일/NNG	2482	22	짓/NNG	362	42	따위/NNB	209	62	종이/NNG	167	82	밥/NNG	130
3	사람/NNG	2384	23	마을/NNG	344	43	벌레/NNG	203	63	기관/NNG	164	83	식물/NNG	130
4	벼슬/NNG	1304	24	성/NNG	295	44	그릇/NNG	195	64	반찬/NNG	163	84	뿌리/NNG	129
5	일컫/VV	1147	25	쓰/VV	287	45	힘/NNG	195	65	방법/NNG	163	85	군사/NNG	129
6	풀/NNG	887	26	돈/NNG	269	46	현상/NNG	194	66	성질/NNG	159	86	바람/NNG	129
7	산/NNG	854	27	마음/NNG	254	47	교목/NNG	193	67	옷/NNG	155	87	빛/NNG	128
8	곳/NNG	806	28	제구/NNG	253	48	악장/NNP	192	68	기운/NNG	154	88	장치/NNG	125
9	물건/NNG	796	29	물/NNG	246	49	나라/NNG	189	69	가/VV	153	89	학자/NNG	125
10	병/NNG	588	30	땅/NNG	242	50	만들/VV	182	70	기계/NNG	149	90	신/NNG	124
11	없/VA	569	31	자리/NNG	238	51	주의/NNG	182	71	기구/NNG	146	91	도시/NNG	124
12	과/NNG	545	32	글/NNG	235	52	조각/NNG	180	72	강/NNG	146	92	떡/NNG	123
13	이름/NNG	539	33	소리/NNG	231	53	계/NNG	178	73	국/NNG	146	93	꽃/NNG	121
14	뜻/NNG	482	34	길/NNG	227	54	고기/NNG	177	74	임금/NNG	142	94	보내/VV	120
15	책/NNG	418	35	군/NNG	219	55	목/NNG	176	75	방/NNG	141	95	돌/NNG	119
16	것/NNB	417	36	날/NNG	218	56	보/VV	173	76	학설/NNG	139	96	가루/NNG	119
17	부분/NNG	411	37	나무/NNG	217	57	받/VV	173	77	품계/NNG	135	97	권리/NNG	118
18	집/NNG	393	38	새/NNG	217	58	섬/NNG	169	78	배/NNG	135	98	비/NNG	118
19	음식/NNG	392	39	있/VA	214	59	상태/NNG	169	79	그림/NNG	134	99	제도/NNG	117
20	되/VV	374	40	술/NNG	213	60	관목/NNG	167	80	중/NNG	134	100	재주/NNG	117





유개념(genus) '사람'인 어휘의 의미 거리



- 유개념 '사람'인 어휘 (2,384)
- 어휘 쌍 조합(2,840,536)
- 거리 < 0.71인 3,187개 쌍의 거리 분포

유개념 ‘사람 ' 인 어휘

- 유개념(genus)
  - ‘사람’인 어휘들만 추출하여, 의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고, 종차(differentia)의 정도를 시각화 함.
  - 유사도를 거리로 환산하여 거리 0.5 이하인 어휘쌍만을 추출함.
  - 모든 어휘(명사)에 대한 유사도 검사는 계산 부담량이 큼.
  - 유개념 ‘사람 ' 인 어휘 2,384개 중 거리 0.5 이하인 어휘만 추출하여 어휘 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구성함.

명사 풀이말의 주석과 변환:

칼감

칼-감〔一깜〕【이】성질이 아주 표독한 사람의 별명.

칼-감
발음 〔一깜〕
「이」
성질이 아주 표독한 사람의 별명.

		Lex. No.	유개념 (genus)	유개념 머리어	통제어 (controlled voc.)	종차 (differentia)
DPT04	칼감	L00124128#0	사람/NNG	사람/NNG	의/JKG_별명/NNG	성질/NNG 아주/MAG 표독하/VA

망나니

망나니【이】《고제》① 죄를 지은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을 맡아 보던 사람. ②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의 별명. (③망난당. ①③ 망냉이. 망종이). ③《동》=노래기.

망나니
「이」
「1」「고제」 죄를 지은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을 맡아보던 사람.
「2」「고제」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의 별명.
(②망난당. ①②망냉이. 망종이).
「3」「동」=노래기.

		Lex. No.	유개념 (genus)	유개념 머리어	통제어 (controlled voc.)	종차 (differentia)
DPT04	망나니	L00038582#②	사람/NNG	사람/NNG	의/JKG_별명/NNG	성질/NNG 아주/MAG 못되/VA

명사 풀이말 의미 파티션(partition)

- 모두 473개의 파티션(partition)이 추출됨

	KEY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1	가구장이_0	공장_0	0.5000								
2	가독상속인_0	피상속인_0	0.3333								
3	가마ㅎ수_0	하장_⑦	0.2000	번사_0	0.4286						
4	가수_①	가인_0	0.5000								
5	가수_②	소리장이_0	0.3333								
		… …									
14	개초장이_0	기와장이_0	0.2857								
15	객공잡이_0	일공장이_0	0.4444								
16	거간군_0	장주릅_0	0.1667	집주름_0	0.3333	관상장이_0	0.5000	큰톱장이_0	0.5000		
17	거머리_③	찰거머리_②	0.5000								
		… …									
22	꼬마동이_0	당닭_②	0.5000								
23	고본주_0	소유자_②	0.2500								
24	고인_②	망인_0	0.0001	망자_0	0.0001	사인_0	0.0001	옛사람_②	0.0001	이물_③	0.5000
		… …									

명사 풀이말 의미 파티션(partition)

	KEY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46	굴때장군_①	키다리_0	0.5000								
47	권리자_0	선거인_0	0.3333								
48	권용정_0	기인_①	0.5000	액내_②	0.5000	일ㄱ_①	0.5000				
49	궐자_0	당자_0	0.0001								
50	금어_0	불모_②	0.0001								
51	급병인_0	병인_0	0.5000								
		… …									
60	나다나엘_0	빌립_0	0.5000	야고보_0	0.5000						
61	난봉군_0	탕객_0	0.5000								
62	날짜_②	생무지_0	0.2500								
63	날탕_0	무세객_0	0.5000	생사람_②	0.5000	행로지인_0	0.5000				
64	날피_0	빈자_0	0.5000								
65	남_①	생사람_②	0.3333	한잡인_0	0.3333	행로지인_0	0.3333				
		… …									
71	노햇사람_0	생자_①	0.5000								
72	놈_0	샹녯사ᄅᆞᆷ_0	0.0001								
		… …									
118	망인_0	고인_②	0.0001	망자_0	0.0001	사인_0	0.0001	옛사람_②	0.0001	이물_③	0.5000
119	망자_0	고인_②	0.0001	망인_0	0.0001	사인_0	0.0001	옛사람_②	0.0001	이물_③	0.5000
120	매수인_0	매주_①	0.3333	작자_④	0.3333						
		… …									
139	무두장이_0	필공_0	0.4286	갖바치_0	0.5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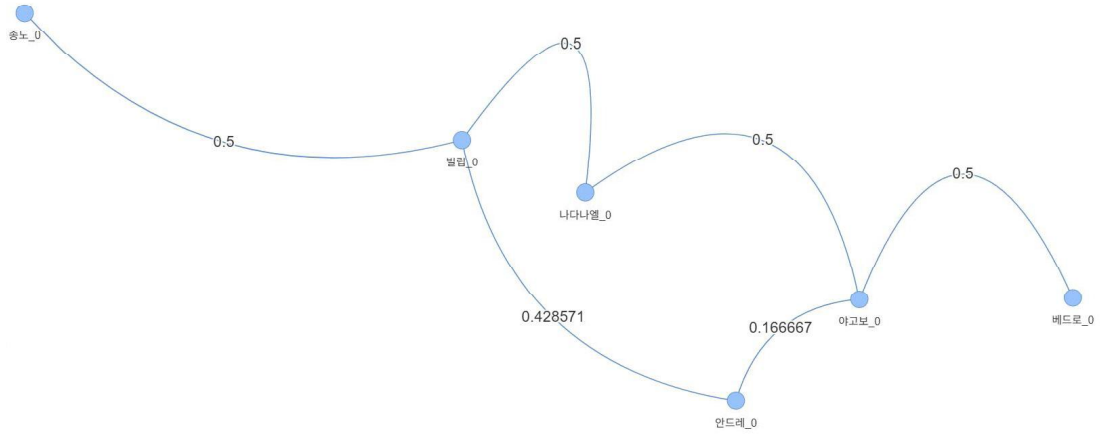
명사 풀이말 의미 파티션(par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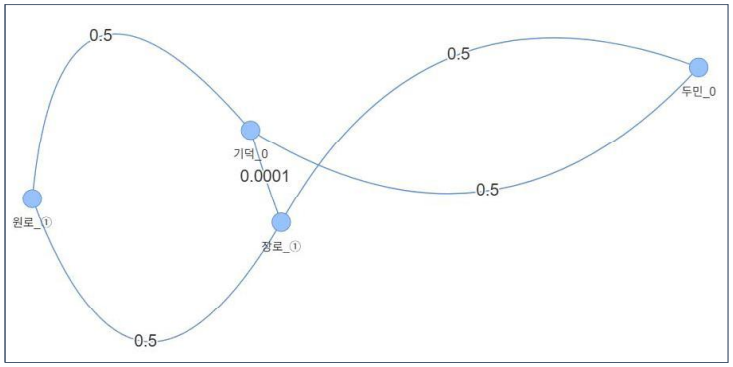
KEY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Word	Dist.
167 번사_0	가마호수_0	0.4286								
168 범류_0	범인_0	0.5000								
169 범인_0	범류_0	0.5000								
170 범죄인_0	위범자_0	0.5000								
		… …								
209 색광_0	광인_0	0.5000	미치광이_①	0.5000						
210 생무지_0	날짜_②	0.2500								
211 생사람_②	행로지인_0	0.0001	남_①	0.3333	날탕_0	0.5000	무세객_0	0.5000	한잡인_0	0.5000
		… …								
431 크리스천_0	예수교인_0	0.0001								
		… …								
461 협객 0	수놈 ②	0.0001								
462 호랑이_②	자객간인_0	0.5000								
463 호세아_①	아모스_0	0.4000	예레미아_0	0.4000						
		… …								
472 환장이_0	화공_0	0.1667								
473 흑인_①	백인_①	0.2857								

명사 풀이말 의미 파티션(partition)에 사용되는 어휘 노드(node): 470 개

1 소유자_②	31 가구장이_0	151 어리보기_0	181 화가_0	211 이야기장이_0	361 백낙_0	421 스승_0	451 거머리_③
2 모살범_0	32 탕자_0	152 주인_①	182 알음알이_②	212 무명지인_0	362 고인_②	422 진주인_①	452 선도자_0
3 앍작배기_0	33 마니_0	153 껑충이_0	183 유지군자_0	213 봇짐장수_0	363 묘생_0	423 수할치_0	453 서가_0
4 애꾸눈이_0	34 부루나_0	154 늦깎이_①	184 대령_0	214 흑인_①	364 매수인_0	424 당닭_②	454 객공잡이_0
5 액내_②	35 찰거머리_②	155 늦깎이_②	185 지도자_0	215 화장_②	365 호랑이_②	425 세객_0	455 은거자_0
6 눈끔적이_0	36 가수_①	156 줄군_①	186 행인_0	216 국외자_0	366 평인_②	426 자춤발이_0	456 해생_0
7 얼뜨기_0	37 가수_②	157 소릿군_0	187 대서인_0	217 범죄인_0	367 소설가_0	427 위정자_0	457 대중_①
8 당자_0	38 명하사_②	158 주권자_0	188 고자_0	218 권리자_0	368 유객_②	428 산장이_0	458 어부_0
9 눈깜작이_0	39 독신자_0	159 아부베크르_0	189 성삼문_0	219 요술장이_0	369 뒤뚱발이_0	429 개백장_0	459 불신자_0
10 신선_0	40 무신겸선전관_0	160 졸자_①	190 노동자_0	220 기덕_0	370 기수_0	430 이야깃군_0	460 민완가_0
11 옛사람_①	41 삼재_①	161 개조장이_0	191 미치광이_①	221 사대부_0	371 중척대신_0	431 유객_0	461 기연장자_0
12 증인_①	42 광인_0	162 범류_0	192 능력자_①	222 김알지_0	372 마장수_0	432 날짜_②	462 문학가_0
13 옛사람_②	43 유지자_0	163 익살군_0	193 능력자_②	223 당국자_0	373 도배장이_0	433 모모제인_0	463 가마호수_0
14 집사_①	44 세력가_0	164 보따리장수_0	194 지인_0	224 농업노동자_0	374 방정군_0	434 운송영업인_0	464 신자_0
15 지휘자_0	45 웃음가마리_0	165 공경대부_0	195 성덕군자_0	225 남_①	375 능필_0	435 수창_0	465 신래_0
16 놈_0	46 사환_0	166 마상객_0	196 생자_①	226 노래자_0	376 떡심_②	436 용인_0	466 필공_0
17 준판임_0	47 일구_①	167 두령_0	197 까명_0	227 망인_0	377 왕자_0	437 문하인_0	467 심부름군_0
18 처사_①	48 매주_①	168 빌립_0	198 모살미수범_0	228 영륜_0	378 손오공_①	438 차주_0	468 구사_0
19 잡인_0	49 여류문사_0	169 김암_0	199 더더리_0	229 죄수_0	379 명률_②	439 양노_0	469 임원_0
20 연장자_0	50 매주_②	170 노주_②	200 막일군_0	230 크리스천_0	380 죄인_①	440 얽배기_0	470 맹탕_②
21 치우_0	51 관후장자_0	171 외인_①	201 쇠귀신_②	231 범인_0	381 일악_0	441 술생_0	
22 남효온_0	52 지명지사_0	172 외인_②	202 닦이장이_0	232 시골고라리_0	382 문신겸선전관_0	442 생무지_0	
23 알금뱅이_0	53 이개_0	173 공장_0	203 사냥군_0	233 본토박이_0	383 고령_②	443 존사람_0	
24 사인_0	54 준금치산자_0	174 부자_0	204 거벽_0	234 여배우_0	384 호호인_0	444 요죽_0	
25 도사_①	55 교인_0	175 판조사_0	205 쇠백장_0	235 강습생_0	385 육손이_0	445 버꾸잡이_0	
26 도사_②	56 도가자류_0	176 홍익한_0	206 은행업자_0	236 장의_0	386 여류시인_0	446 대변인_0	
27 반빗아치_0	57 상일군_0	177 용정장이_0	207 나다나엘_0	237 잔소릿군_0	387 천문가_0	447 병인_0	
28 소진_0	58 수완가_0	178 좌협무_0	208 얽적배기_0	238 선거인_0	388 선사_②	448 미련통이_0	
29 치룽_0	59 피상속인_0	179 칼감_0	209 차지_①	239 배우는이_0	389 도척_0	449 한잡인_0	
30 신사_0	60 발김장이_0	180 일공장이_0	210 뱃사공_0	240 병가자류_0	390 패자_②	450 미련장이_0	

ウズル). 『두 사람.
종도(宗徒) 【이】《천주》 예수의 으뜸 제자 열





기덕(耆德) 【이】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사람.

않다. 『이가 많은 사람.
두민(頭民) 【이】 동네에 식견(識見)이 높고 나

장로(長老) 【이】 ① 덕(德)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② 《불교》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고 모든 종(宗)에 따라서 덕이 높으며, 그 절의 원로(元老)인 중을 높여 부르는 말. ③ 《예수》 초대 교회(初代敎會)에서 나이가 높고 많은 경력(經歷)이 있어서 뭇 사람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교직(敎職). 모세 시대에 70 장로를 임직(任職)하였고, 현대 교회에서도 이에 따라 투표 선정(投票選定)하여 노회(老會)의 승인을 얻어 임직함.

원로(元老) 【이】 ① 나이 많은 관위(官位)와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 ② 오래 그 일에 종사하여 공로가 있는 연로자(年老者).

향후 과제

분석, 비판정본

향후 과제

- 분석 대상 품사의 확대
  - 명사 분석에서 동사, 형용사 등으로 분석 확대
  - 품사 사이의 어휘 의미 상관성 추적, 분석
- 통제어 집합
  - <큰사전> 사전 풀이말의 통제어 구성 확인
- 사전 편찬의 역사
  - <조선어사전>, <큰사전>, <표준>의 표제어, 뜻풀이 상관성 추적 조사.
- 방법론 확대
  - 우리말 사전 분석 방법론을 다른 사전 분석으로 확대: 만주어 사전

향후 과제

- 한자어와 한자 사용 변화 양상 연구
-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접목
  - 공동 연구로 확대
- 비판 정본
  - <큰사전>의 교정, 교감 등을 통해 정본화 작업

제3부 연구 주제 발표

‘졸리다’의 방언 분화에 대하여/ 김영규

유튜브 댓글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의 수집 및 기술 방법론 연구/ 이수진

17세기 인용 구문의 대표성 연구/ 이주현

2025 한글 한마당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연구 주제 발표

‘졸리다’의 방언 분화에 대하여

김영규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환조리교수
kyk2837@nccu.edu.tw

1. 서론

자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중부방언 화자들은 흔히 ‘졸린다’고 하고, 서남방언 화자들은 ‘잠온다’고 한다. ‘졸리-’는 자동사 ‘졸-’에서 파생한 피동형이며, ‘잠오-’는 구(句) 구성인 ‘잠이 오-’에서 어휘화한 합성어이다. 동일한 사태를 두고도 방언마다 어휘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상이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분화는 젊은 층에서도 또렷하게 의식되어, 일종의 사회언어학적 통념형(stereotype)으로 굳어져 있다.

그런데 중부방언에서도 ‘잠이 오-’라는 구성 자체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졸리-’는 어색하고 ‘잠이 오-’만이 허용되는 맥락도 있다.

(1) ㄱ. 오늘 밤은 {잠이 잘 오겠다/*잘 졸리겠다}.
ㄴ. 이 집 베개가 {잠이 잘 온다/*잘 졸린다}.
ㄷ. 너는 이 시국에 {잠이 오냐/*졸리냐}?

흥미롭게도, 서남방언에서 또한 (1)의 '잠이 오-'를 '잠오-'로 대체할 수 없다.[1)]

(2) ㄱ. 오늘 밤은 {잠이 잘 오겄다/*잘 잠오겄다}.
ㄴ. 이 집 비개가 {잠이 잘 온다/*잘 잠온다}.
ㄷ. 너는 이 시국에 {잠이 오냐/*잠오냐}?

다음 대화에서는 '졸리-'와 '잠이 오-' 모두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미묘한 의미 차를 가져온다.

(3) A: 왜 여태 잠을 안 자고 있니?
B: 잠이 안 와서요.
C: 안 졸려서요.

A의 질문에 대하여 B의 대답은, 이를테면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C의 대답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막연히 잠에 들어지지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 서남방언의 '잠오-'를 대입해도 비슷한 해석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중부방언의 '졸리-', 서남방언의 '잠오-', 그리고 두 방언에 공통되는 '잠이 오-'가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그 같고 다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지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우선은, 이들의 방언 분포를 간략히 살펴본 뒤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본다.

2. '졸리-'와 '잠오-'의 방언 분포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습니까?".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1995)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난다.

(4) Ⅰ. '졸-리-다' 계열: '졸리다, 자올리다, 자불리다, …'
Ⅱ. '졸-압/업/읍-다' 계열: '졸압다, 자올읍다, 자불압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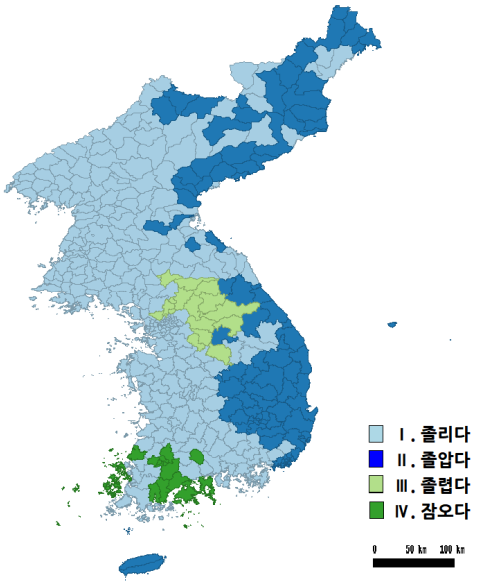
1) 이 글의 서남방언 예는 대체로 필자의 직관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거나 필자가 일상에서 채집한 것들이다. 장차 확인 조사를 거치고자 한다.

Ⅲ. '졸-리-압/업/읍-다' 계열: '졸렵다, 졸립다, …'
Ⅳ. '잠-오-다' 계열: '잠오다'

Ⅰ-Ⅲ 유형은 모두 동사 '졸-(*ᄌᆞᄫᆞᆯ-)'[3]로부터 파생된 것들인데, 형태론적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Ⅰ 유형은 '졸-'에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형이고, Ⅱ 유형은 '졸-'에 접사 '-압/업-, -읍-' 따위가 결합한 파생형용사이다. Ⅲ 유형은 '졸-'의 피동형에 다시 형용사 파생이 더해져, 앞의 두 유형이 중첩된 듯한 모습을 띤다. 이들과 달리, Ⅳ 유형은 '졸-'와 관계가 없다. 구 구성인 '잠이 오-'로부터 어휘화한 합성동사이다.

이 네 유형은 형태론적으로 혹은 어휘적으로 상이할 뿐 아니라, 지역 분포도 달리한다. 『한국방언자료집』 및 김병제(1980) 등을 참고할 때, 이들의 분포는 대략 다음과 같다.

(5) '졸리다'의 방언 분포



대체로 '졸리-' 계열이 우세한 가운데, 동남방언, 동북방언, 제주방언에 Ⅱ 유형인 '졸압-' 계열이 분포한다. 두 유형이 더해진 Ⅲ 유형은 서부방언과 동부방언이 만나는 경기 동부 및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졸렵-' 계열이 방언 접촉의 산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계통을 달리하는 Ⅳ 유형 '잠오-'는 서남방언에 고립된 분포를 갖는다.

2)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조랍다, 자오릅다, 자부랍다'처럼 적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어기와 접사를 분리해 적는다.
3) '*ᄌᆞᄫᆞᆯ-'의 재구는 이병근(1997), 성은실(2013), 이동석(2020)을 참고할 수 있다. '*ᄌᆞᄫᆞᆯ-'는 중부방언, 서북방언, 제주방언에서 '졸-'로, 서남방언에서 '자올-, 자울-'로,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서 '자불-'로 반사되어 있다.

다만, 실제의 분포는 이보다 더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갑 외(1997)에서는 '잠오-'가 전라남도 전역에서 관찰된다고 보고했으며, 배윤정(2020)에 따르면 부산의 젊은 층에서도 '잠오-'가 널리 쓰인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잠오-'는 전라남도에서 출발해 경상도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분포를 갖는 셈이다.

한편으로, '잠이 오-'에 대해서는, 小倉進平(1939)의 언급이 눈에 띈다. 小倉進平(1939)은 '잠이 오-'가 '특정한 방언에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진호 역, 2009 : 104). 이는, 이 글의 서론에서 포착한 바와 같이, '잠오-' 방언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동사구 구성으로서 '잠이 오-'가 쓰이고 있음을 관찰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잠이 오-' 구성이 전국적으로 쓰이되, 거기서 굳어진 '잠오-'는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남부방언에만 분포한다. 중부방언 등 다른 방언에서는, '졸리-'를 비롯한 '졸-'의 파생어들이 그 자리를 점하고 있다.

3. '잠이 오-'와 '잠오-'

3.1. '잠이 오-'의 어휘화

'잠이 오-'와 '잠오-'의 관계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본다. 이 둘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잘 알려져 있다(한송화, 2000; 남길임, 2004; 김선영, 2011; 목정수, 2014 등).

(6) ㄱ. 목이 마른다 > 목마르다, 배가 부른다 > 배부르다, 눈이 부신다 > 눈부시다, …
ㄴ. 신이 난다 > 신난다, 겁이 난다 > 겁난다, 화가 난다 > 화난다, …

이들은 감각이나 생리 현상을 표현하는 자동사구 구성인데, '목이 마르-'처럼 신체 부위 명사에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결합한 것들과, '신이 나-'처럼 감각, 생리 현상을 가리키는 명사에 이동동사가 결합한 것들이 있다. '잠이 오-'는 후자에 해당하겠다.

이 구성들은 화자의 신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하므로, 주어 인칭 제약을 받는다. 곧, 1인칭 주어와만 어울리고, 3인칭 주어에는 추측 표현 내지는 증거적 요소가 덧붙어야 한다. 동사구 구성이지만,

심리형용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7) ㄱ. (내가) 목이 마른다. ㄴ. *철수가 목이 마른다.
ㄷ. 철수가 목이 마르나 보다. ㄹ. 철수가 목이 마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동작성을 띤다는 점에서 심리형용사와는 차별된다. 예컨대, ‘목이 마르-’는 목이 마른 상태뿐 아니라 목이 마르는 과정까지도 지시한다.

(8) ㄱ. 목이 바짝바짝 마른다.
ㄴ. 산 정상이 가까우니 슬슬 목이 마른다.
ㄷ. 나는 일어난 지 30초 만에 목이 마른다.

(8ㄱ)의 ‘바짝바짝’은 목이 마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의태어인데, ‘목이 마르-’가 형용사처럼 단지 상태만을 가리킨다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없다. 슬슬 목이 마르기 시작한다거나(ㄴ), 일정한 시간을 거쳐 목이 마를 수 있는 것도(ㄷ), ‘목이 마르-’가 동작성을 띠기 때문이다. 심리형용사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목이 마르-’에서 굳어진 ‘목마르-’는 동작성을 띠지 않고, 위의 예문들을 모두 비문으로 만든다. 이제 ‘목마르-’는 여느 심리형용사나 다름이 없다.

(9) ㄱ. *바짝바짝 목마르다.
ㄴ. *산 정상이 가까우니 슬슬 목마르다.
ㄷ. *나는 일어난 지 30초 만에 목마르다.

‘잠이 오-’와 ‘잠오-’도 이에 평행한 것으로 보인다. (8-9)에서 ‘목이 마르-’와 ‘목마르-’가 보인 대비를 ‘잠이 오-’와 ‘잠오-’에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10) ㄱ. {잠이 솔솔 온다/*솔솔 잠온다}.
ㄴ. 수업이 늘어지니 {슬슬 잠이 온다/*슬슬 잠온다}.
ㄷ. 약 먹고 {10분 만에 잠이 온다/*10분 만에 잠온다}.

서남방언의 다음 예문들도 ‘잠이 오-’와 ‘잠오-’ 간 동작성의 차이로써 설명된다고 보인다.

(11) ㄱ. {잠이 오다가 말아 부네/*잠오다가 말아 부네}.
ㄴ. 워메, {*잠이 와라/잠와라}![4)]

다만, ‘목마르-’는 활용에 있어서도 형용사 쪽으로 옮겨 간 반면(‘목마르다’), ‘잠오-’는 동사적 활용을 고집한다는 차이가 있다(‘잠온다, *잠오다’). (6)에 보듯, ‘신나-, 겁나-, 화나-’ 등등도 동사적 활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아, 단음절 동사가 활용의 변화에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는 듯싶다.

3.2. 어휘화의 과정

그런데 동사구 구성의 어휘화와 동작성의 상실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목이 마르-, 잠이 오-’가 ‘목마르-, 잠오-’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동작성이 사라지고 형용사화하는 변화와 도대체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이기갑 외(1998)에 제시된 서남방언의 다음 예는 시사적이다.

(12) 아들 나서 업고 온디 목이 마랍드라여.
(아들 낳아서 업고 오는데 목이 마르더래.)

이 예문에서 서남방언의 형용사파생접사 ‘-압-’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방언에는 ‘제랍-(저리다), 날쌉-(날쌔다), 서툴읍-(서툴다)’ 등등 대체로 형용사 어기에 결합해서 다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 ‘-압-, -읍-’이 나타난다(이기갑, 2022 : 97~99).

그런데 ‘마르-’ 자체는 동사이므로, ‘마르-’에 ‘-압-’이 결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보다는, ‘목이마르-’ 전체가 이 방언 화자들에게 하나의 형용사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목이마르-’에 ‘-압-’이 결합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옷이 마르다, 강이 마르다’ 따위에서는 ‘마랍-’ 꼴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명된다.

따라서 동사구 구성의 어휘화가 (13ㄱ)이 아니라 (ㄴ)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13) ㄱ. [목이] [마르-] > [목] [마르-] > [목마르-]
ㄴ. [목이] [마르-] > [목(이)마르-] > [목마르-]

4) 필자의 관찰로는, 이 방언의 감탄형 어미로 ‘-아라’보다 ‘-아르’ 꼴이 활발히 쓰이는 듯하다(‘잠와르! 징해르! 더와르!’).

(13ㄱ)의 '[목] [마르-]'는, 비록 조사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목'과 '마르-'가 통사적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구성이다. 곧, '목'과 '마르-'가 술어와 논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ㄴ)의 '[목(이)마르-]'는 '목'과 '마르-' 간의 단어경계가 허물어지고, '마르-'가 논항 '목'을 취하는 통합 관계가 깨지게 된다. 동사구 '목이 마르-'의 어휘화에 있어, 조사가 겉으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일 것이다.

요컨대, 의미적으로는 동작성이 약해지고, 통사적으로는 동사-논항의 관계가 깨지는 변화가 서로 평행하게 발생하는 셈이다. 동사구 구성의 어휘화와 동작성의 상실 간의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3.3. '잠이 오-'와 '잠오-'의 관계

동사구 '잠이 오-'는 동사-논항 관계가 깨지고 '잠오-' 한 단위로 어휘화하면서, 동작성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 일면을 (10-11)에서 보았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잠이 오-'와 '잠오-'의 차이도 같은 궤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14) ㄱ. 오늘 밤은 {잠이 잘 오겄다/*잘 잠오겄다}.
ㄴ. 이 집 비개가 {잠이 잘 온다/*잘 잠온다}.
ㄷ. 너는 이 시국에 {잠이 오냐/*잠오냐}?

(14ㄱ-ㄴ)의 '잘'은 방식 부사로서 잠이 오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때의 '잘'은 피수식어의 동작성에 호응하는데(김태인, 2014), '잠이 오-'와 달리 '잠오-'는 동작성이 지극히 약해져서 '잘'과의 공기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방식 부사 '잘'이 심리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 현상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14ㄷ)은 이런 시국에는 도저히 잠이 올 수가 없음을 표현하는 수사의문문이다. 이 문장은 잠이 오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담고 있다. 단지 상태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어느 정도 동작성을 갖춘 '잠이 오-'에 대해서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다.[5)]

요컨대, 서남방언의 '잠오-'는 동사구 '잠이 오-'로부터 어휘화한 것인데,

5) 이 대목은 능력의 양태 의미에 대한 박재연(2007)의 설명을 참고해 본 것이다.

감각이나 심리 현상을 나타내는 자동사구 구성이 어휘화하며 동작성이 약해지고 일종의 형용사처럼 되는 현상은 비슷한 다른 구 구성들에서도 관찰된다(‘목이 마르-’>‘목마르-’). ‘잠이 오-’와 ‘잠오-’는 동작성의 정도에 따라 통사·의미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 방언에 공존하고 있다(8-11; 14).

4. ‘졸리-’의 형성과 변화

4.1. ‘졸리-’의 형성

서남방언과 달리, 중부방언에서는 ‘잠이 오-’의 어휘화가 일어나지 않고 ‘졸-’에서 파생된 피동형 ‘졸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지(blocking) 현상의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졸-’의 피동형이 ‘잠이 오-’의 어휘화된 형용사와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을까. 흥미롭게도, ‘졸리-’가 경험한 변화 과정은 ‘잠이 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졸리-’는 동작동사인 ‘졸-’에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형이다. 자동사가 피동형을 취한다는 점이 특이한데, 아래와 같이 무의도적(unintentional)인 사태를 표현할 때 자동사가 ‘-어지-’에 의한 피동 형식을 취하는 수가 있다(박재연, 2007; 남수경, 2011ㄱ).

(15) ㄱ.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ㄴ.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가진다.
ㄷ. 저절로 걸음이 빠르게 걸어졌다.
ㄹ. 아이고, 자꾸 누워지네.

위의 ‘서-, 가-, 걷-, 눕-’는 모두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자동사인데, 그 동작이 행위주의 의도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지-’에 의한 피동 형식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들은 주어의 인칭 제약을 받는다. 1인칭 주어와만 어울리고, 3인칭 주어에서는 추측 표현이 필요하다. 마치 심리형용사와 같고, (7)에 보았던 ‘잠이 오-, 목이 마르-’ 구성과도 같다.

(16) ㄱ. (내가) 저절로 몸이 서진다.
ㄴ. *철수가 저절로 몸이 서진다.
ㄷ. 철수가 저절로 몸이 서지나 보다.
ㄹ. 철수가 저절로 몸이 서지는 것 같다.

여기서 ‘서지-’가 인칭 제약을 받는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철수’가 몸을 의도적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철수’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서게 된 것인지는 오로지 ‘철수’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3인칭 주어에서 (16ㄴ)과 같은 단언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제삼자는 겉으로 동작을 관찰할 수 있을 따름이지 의도의 개입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졸-’의 피동인 ‘졸리-’ 또한 조는 동작이 화자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남을 표현하는 피동 형식이라면(남수경, 2011ㄴ), 주어 인칭 제약을 받음이 당연하다. 역시 심리형용사나 ‘잠이 오-’ 구성과 같다.

(17) ㄱ. (내가) 졸린다.
ㄴ. *철수가 졸린다.
ㄷ. 철수가 졸리나 보다.
ㄹ. 철수가 졸리는 것 같다.

그런데 ‘졸리-’는 ‘서지-, 가지-, 걸어지-, 누워지-’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뒤엣것들은 ‘-어하-’와의 결합이 어색한 데에 반해, ‘졸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18) ㄱ. *철수가 저절로 몸이 서져한다.
ㄴ. *철수가 자꾸만 가져한다.
ㄷ. 철수가 졸려한다.
ㄹ. 철수가 박 선생 수업을 졸려한다.

‘-어하-’는 일종의 증거성 표현으로서 심리형용사의 인칭 제약을 해소하는 데에 동원되는 장치 중 하나이다(‘철수가 무서워한다’). 그런데 ‘서지-’ 등등은 ‘-어하-’와 결합하지 못하지만(18ㄱ-ㄴ), ‘졸리-’는 ‘-어하-’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ㄷ) 심지어는 타동문을 형성하기도 한다(ㄹ). 심리형용사와 동일한 양상이다(‘철수가 귀신을 무서워한다’).

‘졸리-’가 보이는 특수성은 아마도 ‘졸-’ 자체의 의미 특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서고, 가고, 걷고, 눕고’ 하는 것과 달리, ‘조는’ 일은 화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으로서 언제나 무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느 동작동사들보다는 심리형용사가 나타내는 사건과 훨씬 더 동질적이다.

다른 동작동사들은 통사적인 피동으로써 무의도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졸-’는 형태적 피동으로써 무의도를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 말미암는다고 보인다. ‘조는’ 동작은 항상 무의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동사들과 달리 파생어를 형성할 동기가 많았을 것이다.

자동사가 형태적 피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의도를 갖지 못하는 무정물 주어를 취하는 때이다(백채원, 2017; 2018).

(19) ㄱ. 먼지가 펄펄 난다. → 먼지가 펄펄 날린다.
ㄴ. 종이 울었다. → 종이 울렸다.
ㄷ. 소름이 돋는다. → 소름이 돋힌다.
ㄹ. 손끝이 곪았다. → 손끝이 곪겼다.[6)]

(20) ㄱ. 새가 훨훨 난다. → *새가 훨훨 날린다.
ㄴ.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난다. →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날린다.
ㄷ. 교실에 종이비행기가 난다. → 교실에 종이비행기가 날린다.

(19)에 보인 ‘날-, 울-, 돋-, 곪-’는 모두 자동사인데, 무정물 주어를 취하는 때에 피동형 ‘날리-, 울리-, 돋히-, 곪기-’와 통용된다. 반면에, (20)에서처럼, 주어가 유정물이거나(ㄱ) 무정물일지라도 자체의 능력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는(ㄴ), 피동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이비행기’처럼 자체의 의지나 능력이 없이 외력에 의해 날게 되는 경우, 곧 나는 동작이 자연히 발생하는 때에만 ‘날리다’가 쓰일 수 있다(ㄷ). 자연발생의 의미가 피동으로써 표현되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라고 한다(연재훈, 2011; 남수경, 2011ㄱ; 백채원, 2017 등).

동북방언으로부터 몇 가지 예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곽충구, 2004; 2019).

(21) ㄱ. 날이 궂히갰다. (날이 궂겠다.)
ㄴ. 물이 갭히구 있다. (물이 괴고 있다.)
ㄷ. 길이 다슬긴다. (길이 닳는다. 길이 반들반들해진다.)
ㄹ. 눈이 퉁퉁 붓겠다. (눈이 퉁퉁 부었다.)

이 방언에서 ‘궂-, 갑-(괴다), 다슬-(닳다), 붓-’는 역시 모두 자동사인데, 피동사 ‘궂히-, 갭히-, 다슬기-, 붓기-’와 공존한다. 이들은 물론 무정물

6) (ㄷ)의 ‘돋히다[도치-]’는 ‘돋다’의 피동사가 아니라 ‘돋다’에 강세접사 ‘-치-’가 결합한 ‘돋치다’로 파악될 여지도 있다. 지금의 어문 규범에서는 ‘돋치다’만을 인정하고 있다. (ㄹ)의 ‘곪기다’ 또한, 어문 규범에서는 ‘곪다’와의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곰기다’로 표기하도록 정해 놓았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로 백채원(2017 : 119~123)을 참고할 수 있다.

주어를 취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사태를 표현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졸-’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유정물이지만, ‘조는’ 동작은 주어의 유정성에 무관하게 항상 무의도적으로 일어나므로 (19, 21)과 같이 형태적인 피동이 가능했을 것이다.[7)]

4.2. ‘졸리-’의 변화

‘잠이 오-’가 ‘잠오-’로 어휘화하며 동작성이 약해지듯, ‘졸리-’도 동작성의 약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졸리-’의 의미 변화는 활용 양상의 변화를 수반한다.

(22) ㄱ. 수업이 늘어지니 슬슬 {졸린다/*졸리다}.
ㄴ. 약을 먹은 지 10분 만에 {졸린다/*졸리다}.

‘졸리-’가 ‘슬슬, 10분 만에’처럼 동작성에 호응하는 부사어와 어울리는 경우, ‘졸리-’는 동사적인 활용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졸린다’). 활용마저 형용사화된 ‘졸리-’는 여느 심리형용사와 다를 바 없으며, 2장에서 보았던, 일부 방언의 파생형용사 ‘졸압-’와도 동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3) ㄱ. 오늘 밤은 {잠이 잘 오겠다/*잘 졸리겠다}.
ㄴ. 이 집 베개가 {잠이 잘 온다/*잘 졸린다}.
ㄷ. 너는 이 시국에 {잠이 오냐/*졸리냐}?

‘졸리-’는 동작성이 요구되는 일부 문맥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잠이 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결과적으로, ‘잠이 오-’와 ‘졸리-’의 관계는 서남방언에서 ‘잠이 오-’와 ‘잠오-’의 관계와 거의 같다.

(24) A: 왜 여태 잠을 안 자고 있니?
B: 잠이 안 와서요.
C: 안 졸려서요.

위의 대화에서 B와 C가 갖는 의미 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C의 대답인 ‘안 졸린다’는 무의도, 곧 화자의 의도에 무관하게 졸게 되지가 않

7) 그런데 (19)의 ‘소름이 돋히-, 손끝이 곪기-’나 (21)의 ‘눈이 붓기-’ 등도 이른바 이중주어문 ‘NP-은 NP-이 V-’ 구문을 통해 결국엔 유정물 주어와 호응하게 된다(‘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히셨어요.). 목정수·김영중(2006), 최선지(2024) 등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에 비추어, B의 대답인 '잠이 안 온다'는 걱정거리든 질병이든 어떤 이유에선가 잠이 오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표현한다.

5. 결론

(추후 보완)

<참고 문헌>

곽충구. 2004.「함북방언의 피·사동사」, 어문학 85. 1~36쪽.

곽충구. 2019.『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김병제. 1980.『방언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선영. 2010.「내부 감각 용언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109. 319~344쪽.

김선영. 2011.「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태인. 2014.「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남길임. 2004.「활용 양용 용언 연구」. 형태론 6(2). 221~236쪽.

남수경. 2011ㄱ.「'어지다' 의미 고찰에 대한 시론: 유형론적 관점에서」, 어문연구 39(3). 175~202쪽.

남수경. 2011ㄴ.『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목정수·김영중. 2006.「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가능(potential)의 의미 해석」, 인문언어 30(8). 369~387쪽.

목정수. 2014.『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박재연. 2007.「보조용언 구성 '-어지-'의 양태 의미에 대하여」, 국어학 50. 269~293쪽.

배윤정. 2020.「사투리 인지와 언어 변화」, 방언학 32. 253~281쪽.

백채원. 2017.「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백채원. 2018.「통사·의미적 특성이 유사한 어기와 피동사의 공존」. 국어학 85. 295~332쪽.

성은실. 2013.「'졸다', '졸음', '졸리다'의 방언 분화」, 방언학 18. 265~287쪽.

연재훈. 2011.『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이기갑. 2022.『서남방언의 문법』. 태학사.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세문·송하진 편. 1997.『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이동석. 2020.「'자다'에서 파생된 어휘의 통시적 변화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41, 111~145쪽.

이병근. 1997.「〈해바라기(向日花)〉의 어휘사」,『관악어문연구』22. 61~73쪽.
이의종. 2012.「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정민. 2016.「심리술어와 1인칭」. 언어 41(4). 679~713쪽.
최선지. 2024.「한국어 [NP1은 NP2이 VP] 구조 피동문의 유형과 특성」. 국어학 112. 321~350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7~1995.『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송화. 2000.『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연구 주제 발표

유튜브 댓글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의 수집 및 기술 방법론 연구

이수진

경북대학교 강사
sjmano27@naver.com

1. 서론

신어(neologism)는 언어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동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언어 현상으로서, 특정 시점 이후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어휘를 의미한다. 신어는 단순히 새로운 어휘의 발생(new word, nonce word)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화자들에 의해 사회적 쓰임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체 언어의 일부로 자리잡는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신어 연구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회 변동을 읽어내는 창으로 기능해 왔다.

한국어 신어 연구는 1994년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신어의 의미적 특성이나 형성 방식이 분석되었으나, 신어 수집의 주요 원천 자료는 오랫동안 신문 기사에 국한되어 왔다. 신문 텍스트는 [+공공성], [+문어성], [+격식성]이라는 특성을 지

닌 장르로서 신어의 발생과 확산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실제 언어 생활의 전 영역을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이수진(2023)은 2015~2021년 신어를 분석한 결과, '사회생활·경제생활·정치/행정' 의미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신어 수집의 주요 자료가 신문 기사라는 점에서 비롯된 장르적 편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금현(2019), 남길임·안진산·강현아(2021), 남길임·송현주·안진산·강범일(2024) 등의 최근 연구들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대화,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는 규범성의 결핍, 자유로운 표기, 오탈자와 이모티콘의 빈번한 사용 등 신문 텍스트와 상이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며, 새로운 어휘가 출현하고 확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유튜브는 한국인의 모바일 이용 시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으로서 방대한 규모의 댓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어 연구의 본격적 자료로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을 기반으로 한 신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어의 수집과 기술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기존 신문 위주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르적 편향성을 보완함으로써 신어 연구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둘째, 새로운 말뭉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신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어 자료는 자연어처리(NLP) 분야에서 신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어학의 성과가 사회·문화 연구 및 인접 학문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유튜브 댓글 신어의 수집 방법

2.1. 말뭉치 구축

본 연구에서 신어 수집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유튜브 댓글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뭉치에 포함될 댓글들의 주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집할 텍스트의 양과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영상 시청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정한 주제 분류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1)]

1) 유튜브 '홈' 화면의 검색창 아래쪽에 '요리 프로그램', '뉴스', '인테리어' 따위의 주제어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전체 주제 분류가 모두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이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구독 정보 따위를 바탕으로 주제어의 일부만이 노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영상 업로드 시

우선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업로드 시 제공되는 주제 분류 체계와 'Vling', '유튜브랭킹', '소셜러스' 등 주요 유튜브 통계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주제 분류를 검토하였다.

유튜브 업로드 기본 분류	Vling	유튜브랭킹	소셜러스
자동차&탈것	패션	패션/미용	라이프스타일
코메디	뷰티	게임	음악/댄스
교육	푸드/먹방	BJ/인물/연예인	뷰티/패션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TV/방송	영화/애니메이션
영화&애니메이션	여행	음식/요리/레시피	키즈
게임	ASMR	뉴스/정치/사회	게임
노하우&스타일	게임	취미/라이프	여행/아웃도어
음악	펫/동물	IT/기술/컴퓨터	스포츠/헬스
뉴스&정치	IT/과학기술	회사/오피셜	뉴스/정치/이슈
봉사	영화/애니메이션	교육/강의	정부/기관/비영리
인물&블로그	자동차	영화/만화/애니	엔터테인먼트
펫&동물	음악	키즈/어린이	푸드/쿠킹
과학&기술	스포츠	애완/반려동물	인물/유명인
스포츠	키즈	스포츠/운동	IT/기술/과학
여행&행사	경제	국내/해외/여행	동물/펫
	뉴스	자동차	취미
	교육	주식/경제/부동산	차/배/바이크
	Vlog/라이프스타일	미분류	경제/금융/재테크
	헬스		교육/강의
	사회/문화		미분류
	육아/패밀리		
	기타		

<표 1> 유튜브 주제 분류 체계 비교

위 표는 유튜브 자체 업로드 기본 주제 분류와 'Vling', '유튜브랭킹', '소셜러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영상 카테고리를 제시한 것이다. 동일한 플랫폼(유튜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각 사이트마다 세부 분류 명칭과 범주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 목적에 맞는 주제 분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분류들을 종합·비교하여 다음 13개 주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영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박스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홈 화면에서 시청자들이 영상을 해당 주제에 따라 브라우징할 수 있는 형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제		주제
1	뉴스/정치/사회	8	음식/먹방
2	경제/금융/재테크	9	IT/과학기술
3	엔터테인먼트	10	교육/강의
4	영화/드라마	11	생활/노하우/반려동물
5	게임	12	여행/아웃도어
6	음악/댄스	13	스포츠/헬스
7	뷰티/패션		

<표 2> 유튜브 댓글 말뭉치의 주제 분류(13개 영역)

위 표의 13개 주제 영역은 <표 1>의 기존 유튜브 기본 주제 분류, 랭킹 사이트 분류 체계 등을 비교·검토한 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영역은 유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은 통합한 결과이다. 이러한 주제 구분은 한국어 화자들의 다양한 언어 사용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주제적 특성에 따른 신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각 주제 내에서 댓글을 수집할 영상을 선정하기 위해 구독자 수가 많고, 쇼츠가 아닌 동영상 위주로 업로드하며 대상 기간인 2025.1.~2025.6 내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업로드 주기를 가지며 영상 댓글의 주요 언어가 한국어인 채널을 선정하였다. 이후 각 채널별 영상을 최신순으로 정렬하여 대상 기간 내에 댓글 수가 500개 이상인 영상을 월별로 1개씩 선정하였다. 주제에 따라 단일 영상의 댓글 수가 부족한 경우 2~3개 영상을 추가하여 목표 표본 크기를 확보하였다.

(1) 채널 및 영상 선정 기준

ㄱ. 채널의 구독자 수

ㄴ. 동영상 위주 채널

ㄷ. 대상 기간(2025.1.~2025.6) 내 정기적 업로드 주기

ㄹ. 댓글 주요 언어: 한국어

ㅁ. 댓글 수 500개 이상

댓글 수집을 위해 Python 기반의 웹 크롤러를 활용하였다. 댓글 수집은 YouTube Data API v3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API 키를 인증한 뒤 각 영상의 댓글 데이터를 호출하였다. 그 결과 작성 시각, 작성자, 좋아요 수 등 메타데이터와 함께 댓글 원문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댓글 원문은 줄바꿈 및 제어 문자 제거, 연속 공백 축소, 한국어 외 언어 댓글 제거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총 90개 영상에 달린 한국어 댓글

68,313개가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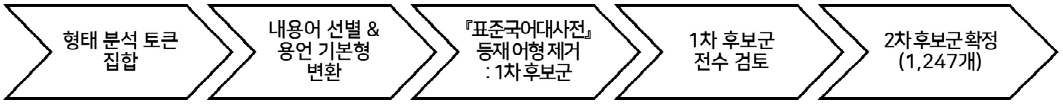
주제 분류	한국어 댓글 수	어절 수
1. 뉴스/정치/사회	9,025	106,860
2. 경제/금융/재테크	3,350	29,690
3. 엔터테인먼트	5,789	49,374
4. 영화/드라마	3,828	30,668
5. 게임	4,343	25,110
6. 음악/댄스	4,351	22,542
7. 뷰티/패션	6,687	52,443
8. 음식/먹방	1,736	14,332
9. IT/과학기술	3,926	47,518
10. 교육/강의	6,299	105,433
11. 생활/노하우/반려동물	1,372	9,072
12. 여행/아웃도어	10,967	80,972
13. 스포츠/헬스	6,640	49,828
총합계	68,313	623,842

<표 3> 유튜브 댓글 말뭉치 규모

이러한 전처리를 거친 원시 말뭉치는 구어체 및 비정형 온라인 텍스트 처리에 강점을 가지는 Kiwi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형태 분석되어 유튜브 댓글 내 신어 후보를 어휘 단위로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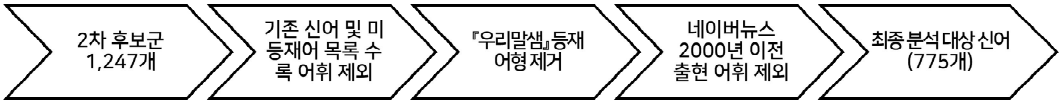
2.2. 신어 수집 과정

기존의 '신문/뉴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신어 수집은 보통 다음의 절차로 후보군을 정제해 왔다. ①『표준국어대사전』등 기준 사전에 등재된 어형 제거, ②『개체명 사전』에 등재된 고유명 및 표기 변이 제거, ③ 굴절형·복수형 등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형 제거, ④ 대상 기간 외 신문/뉴스에 출현한 어형 제거 등이다. 이러한 절차는 지난 십수 년간 신문·뉴스 텍스트를 대상으로 축적된 신어 추출의 방법론적 경험을 반영한다.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유튜브 댓글은 장르적 특성과 표기 관행이 아직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불필요한 가정과 편향의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화한 기본 절차만을 우선 적용하였다.



<그림 1> 유튜브 댓글 말뭉치 기반 신어 수집 절차 ①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형태 분석된 토큰들에서 내용어 단위를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NNP, NNG, MM, MAG, MAJ, VA, VV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용언은 기본형으로 변환하였다. 그런 다음 선별된 형태를 『표준국어대사전』과 대조하여 등재 어형을 1차 제외함으로써 신어 후보군을 형성하였다. 이 단계는 Rey(1976)가 제시한 신어 판정의 사전학적 기준에 해당한다.[2] 이 후보군 목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전수 검토를 실시하였다. Rey(1976)의 심리학적 기준, 즉, 동시대 화자에게 '새롭다'고 지각되는지를 적용하며, 실제 담화에서 새로운 의미 또는 형태로 사용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차용뿐 아니라 합성·파생·혼성·축약 등 조어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 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한 관행에 따라 특정 인물의 별명과 같은 고유명 성격의 어휘나 '-적, -성, -화' 등 생산적 접사가 결합한 규칙적 조어 등을 배제해 온 기존의 신어 수집 기준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47개의 신어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림 2> 유튜브 댓글 말뭉치 기반 신어 수집 절차 ②

1,247개의 신어 후보 목록에서 기존 신문/뉴스 텍스트 기반으로 수집된 국립국어원 1994~2019년 신어 및 미등재어 목록과 경북대학교 언어정보연구센터의 2020~2023년 신어 목록에 수록된 어휘는 제거하였다(1,055개). 이중 사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등록된 269개와 네이버뉴스에서 2000년 이전에 출현한 어휘를 제거한 후 남은 775개를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 신어로 한정하였다.

2) Rey(1976)에서는 신어 정의를 위한 기준으로 ㄱ) 시간적 기준(Critério temporal), ㄴ) 심리언어학적 기준(Critério psicolinguístico), ㄷ) 사전학적 기준(Critério lexicográfico)을 제시하였다(de Jesus, 2021 : 248).

3. 유튜브 댓글 신어의 특성

3.1. 주제 분류별 분포

앞서 한정한 분석 대상 신어 775개가 본 연구에서 분류한 13개 주제 영역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신어가 여러 주제 영역에서 출현할 수 있으므로, 총합은 775개보다 더 많은 수로 나타난다.

주제 분류	신어 수	비율(%)	누적비율(%)	댓글 1만 건당 신어 수
뷰티/패션	154	16.0	16.0	230.3
여행/아웃도어	125	13.0	29.0	114.9
뉴스/정치/사회	124	12.9	41.9	137.4
스포츠/헬스	111	11.5	53.4	167.2
엔터테인먼트	70	7.3	60.7	178.3
IT/과학기술	70	7.3	68.0	120.9
영화/드라마	68	7.1	75.1	177.6
교육/강의	65	6.8	81.8	149.7
게임	65	6.8	88.6	103.2
경제/금융/재테크	54	5.6	94.2	161.2
생활/노하우/반려동물	21	2.2	96.4	153.1
음악/댄스	17	1.8	98	39.1
음식/먹방	17	1.8	100	97.9
합계	**961**	**100**		

<표 4> 주제 분류별 신어 분포

13개 유튜브 주제 분류 가운데 가장 많은 신어가 출현한 영역은 ‘뷰티/패션’ > ‘여행/아웃도어’ > ‘뉴스/정치/사회’ > ‘스포츠/헬스’ 순으로 네 범주가 53.5%를 차지한다. 그러나 댓글 1만 건당 신어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순위가 바뀌는데, ‘뷰티/패션’ > ‘IT/과학기술’ > ‘영화/드라마’ > ‘스포츠/헬스’ > ‘경제/금융/재테크’ 순이며 ‘음악/댄스’는 최저치를 나타낸다. ‘뷰티/패션’ 영역은 신어 수의 절대량도 크지만, 신어 출현의 밀도도 최상위로 나타나 신어 출현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여행/아웃도어’는 댓글 및 어절 규모가 매우 크지만, 신어 출현 밀도는 높지 않다. ‘교육/강의’, ‘음악/댄스’는 말뭉치 규모 대비 신어 출현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강의', '음악/댄스' 영역에서 장르에 따른 관습적 표현이나 정보 전달 위주의 반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2) '음악/댄스' 영상 댓글 예
ㄱ. 여왕들이 돌아왔다! 🖤💗
ㄴ. 오마이갓 블랙핑크 컴백 🎉
ㄷ. 블랙핑크가 돌아왔습니다! 준비됐나요, 블링크들?

(3) '교육/강의' 영상 댓글 예
ㄱ. 정말 확고하고 딱부러지고 그러나 사려깊은 교수님 멘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도 수고하셨어요 😊🖤🍀
ㄴ. 말에 빈틈이 없이 어쩜 술술 막힘없이 요점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말씀하실까요? 귀에 한번에 콕콕 박힙니다.❤
ㄷ. 모두 모두 정말 옳으신 말씀이시네요. 끝까지 듣게 됩니다. 모두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에서 보인 '음악/댄스' 영상 아래에는 1,300여 개 이상의 한국어 댓글이 작성되었는데, 대부분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명, 팬덤명의 호명, '컴백'이라는 행사성 어휘와 감탄 및 축하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담화 맥락에서 어휘 선택은 고유명이나 이미 관습화된 차용어 등에 크게 의존하며 새로운 어형의 도입 빈도는 낮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강의' 영상에서는 (3)에서 보인 예들과 같이 영상에 대한 정중하고 긍정적인 평가, 감사의 관용구 사용이 빈번하다. 정보 전달이나 강의 담화의 규범성, 청중의 강연자에 대한 예의 표시라는 기능적 요구가 표현의 창의성보다 두드러지며 이는 신어 출현 확률을 낮추는 주제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편, 3개 이상의 주제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어휘는 39개이다.

출현 주제 수	신어
9개	개웃기다, 졸귀
8개	개쩔다, 섬넬
7개	존버
6개	개지리다, 느좋
5개	개좋다, 외노자, 유튜버

4개	개귀엽다, 개많다, 개빡치다, 개콘, 개호감, 댕웃기다, 졸잼, 좌빨, 헤메코
3개	개극혐, 개부럽다, 개존잼, 개짜치다, 개처웃기다, 고영희, 넷플, 리자이밍, 블핑, 씹창, 억까, 이찍, 존나, 존웃, 존잘, 존잼, 찐따, 찢재명, 커뮤, 풀버전

<표 5> 3개 이상 주제 공통 출현 신어 목록

여러 주제의 유튜브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신어들은 문금현(2019)에서 보고된 '극한표현'[3]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 먼저 접두사 '개-/존-/졸-'이 형용사, 동사, 명사에 폭넓게 결합해 평가와 감탄을 강화하는 파생 형태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개웃기다, 졸귀, 개좋다' 등의 극한표현과 함께 '이(2)찍, 찐따, 좌빨, 외노자' 등 사람 또는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주제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섬넬(섬네일), 유튜버, 풀버전'과 같이 유튜브 플랫폼 및 콘텐츠 생산과 관련된 메타 어휘가 주제 상관없이 자주 사용되는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형태적 특성

3.2.1. 품사적 특성

776개의 신어를 대상으로 품사 분류할 때 '명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신어 조사 결과와 같다. 2012~2021년 신어를 분석한 이수진(2024 : 54)에서는 단어 단위 신어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7.8%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본 연구의 유튜브 댓글 신어에서 명사 비율은 8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다른 품사의 비율이 기존 신어 조사 결과에 비해 조금 더 높아 명사의 상대적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품사	개수	비율(%)	예
명사	672	86.7	감다뒤, 감다살, 돈낳괴
동사	36	4.6	개웃기다, 뛰걷하다, 털찌다

3) '극한표현'이란 보통보다 지나친 표현으로 접사나 다른 단어와의 결합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가 정도가 강한 긍정이나 부정으로 달라진 표현을 말한다(문금현, 2019 : 152).

형용사	29	3.7	개귀엽다, 귀욤뽀짝하다, 엠지하다
부사	26	3.4	둠칫둠칫, 뽀용뽀용, 츄르릅
어근	5	0.6	개굡, 댕청, 초크초크
감탄사	3	0.4	가보즈아, 럭키비키, 힝구
접사	1	0.4	-트째
품사없음	3	0.1	말모, 말모말모, 개내거
합계	775	100.0	

<표 6> 품사별 분포

용언 목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웃기다, 개빡치다, 개뿜다’와 같은 접두사 ‘개-’에 의한 파생어 유형이다. 이 유형은 동사 17개(47.2%), 형용사 21개(72.4%)로 동사의 절반, 형용사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개-’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긍·부정적 평가를 모두 증폭하는 정도 강화 기능을 하는데, ‘땡기-, 짜치-, 킹받-’과 같은 비표준적 구어 어간에도 접속한다. 또한 ‘개처망하다, 개처웃다’ 등 ‘개-’와 ‘처-’의 이중 접두화 패턴을 통해 비속어적 속성을 더욱 강화한 어휘의 출현이 관찰되는데, 이는 댓글 장르의 과장적인 표현 특징을 보여준다. ‘개-’, ‘처-’ 외에도 비속성과 정도 강화를 위한 ‘졸-’, ‘댕-’, ‘쌉-’ 접두사가 결합된 ‘졸웃기다, 댕웃기다, 쌉지리다’와 같은 형식도 다수 관찰된다.

‘곽며들다(곽튜브+스며들다)’, ‘준며들다(준빈+스며들다)’와 같이 ‘X-며들다’ 틀에 고유명 일부를 결합하며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에 점차 빠져듦’을 표현하는 동사 형식이 보이며, ‘기깔나다, 야랄나다, 뽕뽑다’ 등 방언이나 은어가 사용역을 확대한 양상도 발견된다.

부사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출현이 두드러지는데, ‘둠칫둠칫, 빡빡빡, 뽀용뽀용, 또륵, 부힛부힛, 츄르릅’ 등 소리 및 움직임의 상징성을 활용한 언중들의 어휘적 창조성을 부각한다. ‘넘흐넘흐, 늠흐늠흐, 알흠답다’와 같이 유형도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표기·음운적 특성을 활용한 유희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어의 음운적 특성과 표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친밀감, 애교, 과장성 등의 의미적 속성이 더한다. 이들은 정보 전달 외에도 텍스트를 통해 화자의 태도와 정서 강도 등을 표지하기 위한 텍스트 매개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말모, 말모말모, 개내거’와 같이 품사를 분류하기 어려운 어휘들도 있다. ‘말모’는 ‘말해 모(뭐) 해’의 축약어인데, “(N은/는) 말모(말모).”와 같이 그 자체로 문장 단위의 기능을 한다. ‘개내거’는 ‘내 거(것)’에 접두사 ‘개-’가 결합한 것으로, ‘완전히 내 것이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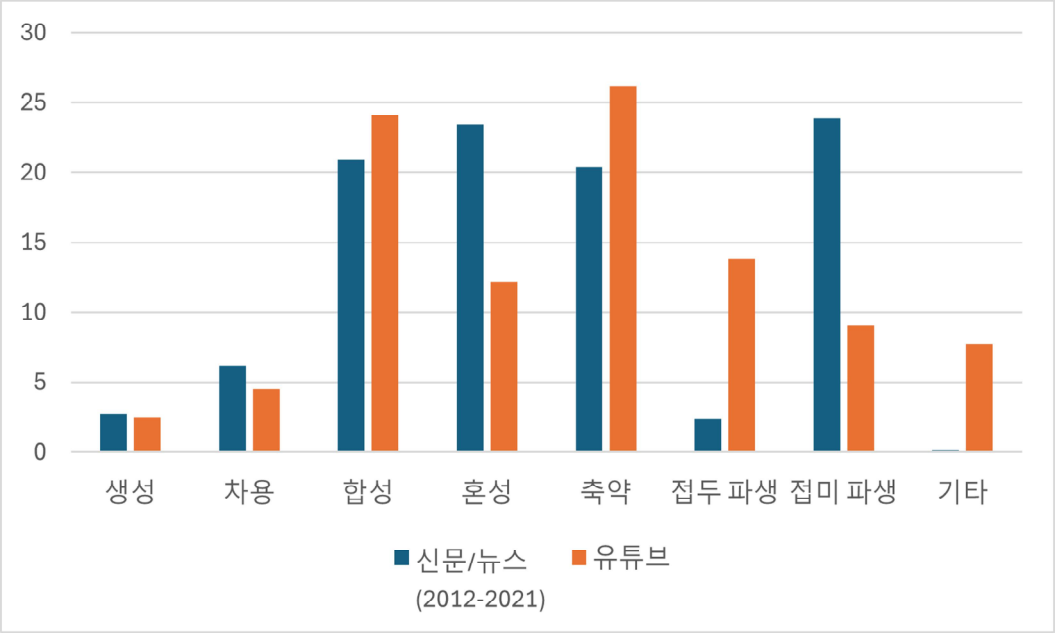
3.2.2. 조어적 특성

이 절에서는 분석 대상 775항목을 조어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분류 체계는 기존 국립국어원과 경북대 언어정보연구센터의 신어 자료집에서 사용된 체계를 활용한다. 기존의 어휘재를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는 ‘생성’으로 분류하고, 외국어의 어휘재를 들여온 것은 ‘차용’으로 분류했다.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은 ‘합성’으로, 신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절단 뒤에 결합된 것은 ‘혼성’으로, 구성 요소의 결합 이후 줄어든 것은 ‘축약’으로 분류했다. ‘파생’은 ‘접두’, ‘접미’로 하위 분류하였다. 철자 변형 등 일반적인 형태론적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		개수	비율(%)	예
생성		19	2.5	뽀용, 웅앵웅, 쨔스
차용		35	4.5	구글링, 샤라웃(shout out), 엠지(MZ)
합성		187	24.1	나르사패, 도른맛, 딸고영
혼성		94	12.1	골댕이, 밥플릭스, 틀튜브
축약		203	26.2	감다살, 돈낳괴, 아묻따
파생	접두	107	13.8	개귀엽다, 대존잘, 처발리다
	접미	70	9.0	국뽕러, 엠지하다, 존예녀
기타		60	7.7	고먐미, 마봉춘, 하룰라라
합계		775	100	

<표 7> 조어 유형별 분류

유튜브 댓글에서 수집한 신어의 조어 유형은 ‘축약’ > ‘합성’ > ‘접두 파생’ > ‘혼성’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수진(2024 : 56~65)에서 보고된 기존 ‘신문/뉴스’ 기반으로 수집된 2012~2021년 신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접미 파생(23.9%)’ > ‘혼성(23.5%)’ > ‘합성(20.9%)’ > ‘축약(20.4%)’ 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어 수집 기반 자료의 장르적 특성이 조어 유형의 경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뚜렷이 확인된다.



<그림 3> 조어법별 신어 비율 비교: 신문/뉴스(2012-2021) vs 유튜브 댓글

유튜브 댓글에서 '축약' 유형의 신어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은 '신문/뉴스' 매체에 비해 사용자 생성형 콘텐츠에서 경제적 의사소통 전략을 더 많이 지향한다는 특성과 연관된다. 즉, 의미적 단서를 유지하면서도 타이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기능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축약' 유형의 신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신문/뉴스 신어에서는 '접미 파생'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유튜브 댓글 신어에서는 '접두 파생'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개-/대-/처-'와 같은 강조의 접두사가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되면서 출현하는 '극한표현'의 높은 사용 빈도를 반영한다. 비속어의 사용이 제한적인 신문/뉴스 장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접두사에 의한 파생의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신문/뉴스에 비해 유튜브 댓글에서 '혼성' 유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유튜브 댓글에서 '축약'이나 '접두 파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상대적 감소로 이해할 수 있다. '혼성'은 새로운 대상, 정책, 브랜드 등에 '이름'을 부여하는, 즉 강력한 '명명' 기능을 담당한다. 신문/뉴스는 이러한 명명 과제가 많아 '혼성' 유형이 자주 등장할 수 있지만, 유튜브 댓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명명보다는 평가, 감탄, 언어유희의 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므로 강조 접두사를 활용한 파생어나 축약어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먐미(고양이)'와 같은 철자 변형 등의 '기타' 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담화 목표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3.2.3. 의미적 특성

여기서는 이수진(2024)의 16개 의미 범주[4]를 활용하여 유튜브 댓글 신어의 의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미 범주	개수	비율(%)	예
인간	195	25.2	개귀엽다, 개웃기다, 키작녀
문화	155	20.0	믿보배, 밈잘알, 야외콘
사회생활	106	13.7	선댓후감, 맥커터, 샤라웃
정치와 행정	85	11.0	이찍, 좌좀비, 트황
의생활	48	6.2	세컨백, 잘쓴템, 헤메코
개념	37	4.8	개많다, 급허접, 첫빠
경제생활	36	4.6	개비싸다, 금투세, 돈낳괴
삶	34	4.4	로뚱, 무인글램핑, 호적메이트
식생활	26	3.4	개노맛, 저메추, 햄최
정보·기술	26	3.4	갤폴, 딥페, 램크루지
동식물	17	2.2	러블, 무릅냥, 집냥이
교육	3	0.4	딩초, 유딩, 찐고딩
주생활	3	0.4	로청, 로청기, 캣휠
보건·의학	2	0.3	구급키트, 촘파
종교	2	0.3	개독교, 영발
합계	775	100.0	

<표 8> 의미 범주별 분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신어 775항목의 의미 분포는 '인간 > 문화 > 사회생활 > 정치와 행정'의 순으로 집중되어 상위 네 범주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는 유튜브 댓글이 인물과 집단에 대한 평가, 대중문화 소비와 팬덤 활동,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시사·정치적 이슈에 대한 즉각적 반응 및 갈등이 주된 기능임을 보여 준다.

'인간' 범주에는 '개귀엽다, 개웃기다, 개빡치다'와 같이 강조의 접두사 '개-/대-/쌉-'이 결합된 감정 및 평가 표현의 용언류와 '키작녀(키가 작은

4) 이수진(2024)에서는 신문/뉴스 기반 '2015~2021년 신어'의 의미 범주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의 유튜브 댓글 신어와 신문/뉴스 신어의 차이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 범주를 적용하였다. 16개 의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삶,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교육, 종교, 문화, 정치와 행정, 자연, 동식물, 개념, 보건·의학, 정보·기술

여자)', '나르사패(나르시시스트+사이코패스)', '늙탱'과 같은 인물 특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명사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서 강도와 평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댓글 매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문화' 범주에서는 '믿보배(믿고 보는 배우)', '봉테일(봉준호+디테일)', '스우파(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와 같은 대중문화 요소를 지시하는 어휘가 다수 관찰된다. '밈잘알(밈을 잘 알다)', '야외콘(서트)' '아컨캠(아이 컨택트 캠)'과 같이 아이돌/무대/팬 활동을 빠르게 명명하는 축약과 혼성 유형의 사용이 활발하다. '문화' 범주의 유튜브 댓글 신어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수진(2024)에서 분석한 신문/뉴스 기반 2015~2021 신어에서 '문화' 범주의 신어가 5.3%를 차지한 것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사회생활' 범주에서는 '선댓후감(댓글 먼저 달고 영상은 나중에 감상)', '맥커터(대화의 맥을 끊는 사람)', '샤라웃(shout out, 특정인이나 단체를 언급함)' 온라인상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지시가 빈번하다. '디씨남', '일베펨', '커뮤' 등 온라인 공동체 내의 행위자에 대한 명명 또한 흔하다.

'정치와 행정' 범주에서는 '이찍(선거에서 2번을 찍는 사람)', '좌좀비(좌파+좀비)', '트황(트럼프+황제)'과 같이 정치적 진영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별명이나 비하형 명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은 '세컨백', '잘쓴템(잘 쓴 아이템)', '헤메코(헤어+메이크업+코디)'와 같은 패션·뷰티 지시어가 포함된 '의생활' 범주이다. 이 범주가 상위 네 범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뷰티/패션' 주제의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어가 수집된 점과 모든 주제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영상에 출현한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교육, 보건·의학, 종교' 영역의 낮은 신어 비율은 유튜브 댓글 담화의 주된 관심사와 이 의미 범주가 거리가 있어 주제 노출 빈도 자체가 낮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수진(2024)에서 분석한 신문/뉴스 기반 2015~2021 신어에서도 이들 범주는 낮은 비율을 보이므로 이 범주에서 신어의 생성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을 기반으로 신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술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영상 주제·품사·조어법·의미 범주별로 기술하였

다. 2025년 상반기 13개 주제의 유튜브 영상에서 수집·정제한 68,313개 댓글(623,842어절)을 분석해, 사전 대조와 기존 신어 목록 배제를 거친 775개의 분석 대상 신어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신문/뉴스 중심의 전통적 신어 조사에 비해 사용자 생성 담화(UGC)를 직접 반영하는 기반 자료를 제시해 장르 편향을 보완하고, 신어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 주제에서 공통 출현한 항목은 '개웃기다, 졸귀, 섬넬, 유튜버' 등으로, 강조 접두사가 결합한 어휘 및 플랫폼 메타어가 주제 경계를 가로질러 쓰임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기존 신어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품사 분포에서는 '명사'(86.7%) 다수를 차지했는데 동사·형용사·부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댓글 담화에서 출현한 신어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셋째, 조어 유형은 축약 > 합성 > 접두 파생 > 혼성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대-/쌉-/처-' 등 강조 접두사가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극한표현'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넷째, 의미 범주에서는 인간(평가 어휘), 문화(대중문화 및 팬덤 용어), 사회생활(온라인 의사소통 행위)-정치와 행정(정치 진영 및 인물 명명)이 상위를 차지해, 유튜브 댓글 신어의 평가·감정 표현 기능과 함께 드러나는 '라벨링' 즉, 특정 사람이나 집단, 행위, 사건 등에 '라벨'을 부여하여 빠르게 대상을 분류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유튜브 댓글에서 수집한 신어의 '최초 출현(시간적 기준)'을 정밀히 판정하기 위한 근거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점과 표본이 2025년 상반기, 비(非)쇼츠 동영상, 구독자 상위 채널 중심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남길임, 송현주, 안진산, 강범일. 2024.「신어는 어디에서 탄생하고 확산하는가 -뉴스 중심 신어 추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언어사실과 관점, 63(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35쪽.

남길임, 안진산, 강현아. 2021.「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67~101쪽.

문금현. 2019.「신어 생성의 최근 경향 분석-극한표현을 중심으로」. 어문학, 145. 한국어문학회. 151~177쪽.

이수진. 2023.「신어로 보는 한국 사회: 2017~2021년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2023년 민족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민족어문학회. 173~187쪽.

이수진. 2024.「현대 신어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연구-신어 정착양상에 대한 단기 통시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e Jesus, A. M. R. 2021.「Princípios metodológicos para a detecção de neologismos da comunicação digital」. *Estudos Linguísticos*, 50(1). pp. 243~261.

Rey. 1976.「Néologisme: un pseudo-concept?」. *Cahiers de Lexicologie Revue Internationale de Lexicologie et de Lexicographie*, 28. pp. 3~17.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알면 알수록 빛나는 조선말 사전: 언어 주권의 확립

2025년 10월 17일(금) 10:00~17:0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연구 주제 발표

17세기 인용 구문의 대표성 연구
—장르에 따른 인용술어를 중심으로—*

이주현

카이스트 연구조교수
juhyunlee@kaist.ac.kr

1. 연구 목적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나, 최근에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계기로 연구 방법론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영문학을 중심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개별 작품에 대한 전통적 정밀 읽기를 넘어 동시대 다수 작품을 일괄 분석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약 10년간 추진된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말뭉치가 수집·정제·연

* 본 발표문은 '한글학회 2024년도 신진학자 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구되었으며, 최근 AI 연구의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기초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어사 분야에서는 국립국어원이 구축한 '국어 역사 말뭉치'를 통해 15세기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한글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1] 여러 차례의 사업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한 정비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동시대 문헌을 일괄적으로 묶어 분석하는 통시적 연구 방법론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예컨대 중세·근대 국어 자료 가운데 불경 언해류는 원문·언해문·주해문 등이 혼재되어 있어 서로 다른 층위의 언어 현상이 단일 시기의 언어 현상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의 산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동시대 언어의 전형적 표본성을 가진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까 한다. 특히 국어사 분야의 경우, 주로 세기 단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과정에서 개별 자료의 장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동일한 시기의 자료라 하더라도 장르에 따라 언어적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근대 국어 문법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 비해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의 말뭉치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 국어 자료 역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문헌의 통사적 특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통시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온 인용 구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용 구문은 현대 국어 연구자뿐 아니라 국어사 연구자들에게도 일찍부터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으며,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시적 연구는 언어 변천의 거시적 흐름을 밝히는 데 주력한 나머지, 자료의 성격이나 장르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자료만 보더라도 윤리서, 불교서, 사서 언해류, 언간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동일하게 '17세기 자료'라는 범주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비 연구(pilot study)의 성격으로, 17세기 인용 구문을 장르별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근대 국어는 한글 확산 시기와 맞물려 다양한 장르의 문헌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1)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 공개된 「국어 역사 말뭉치(ver.1.0)」은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과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2014, 2015, 2016, 2018)'과 연계하여 구축된 1,153종의 원시 말뭉치이다(기준일: 2025년 8월 29일).

인용 구문은 특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의 과도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7세기라는 시기를 한정하면서도 문헌의 장르를 구분하여 인용 구문을 분석함으로써, 통시적 연구에서 자료의 성격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이 통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표본성'과 '대표성'의 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2.1. 연구 대상

본고는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 대해 오역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DB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자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구축·운영하는 「세종한글고전 DB」에[2] 수록된 17세기 자료이며(<표 1-1>), 두 번째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조선시대 한글편지 DB」에[3] 수록된 17세기 자료이다(<표 1-2>). 1차 자료의 경우 명확한 간행 연도가 밝혀진 경우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 1-1>. 연구 대상 목록①(한글 세종고전 DB)

번호	구분[4]	원자료명	간행 연도	역주본의 서지 사항
[1]	불교서	『권념요록(勸念要錄)』	1637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13), 『역주 칠대만법, 권념요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윤리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19),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권1~5, 속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과학서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1608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09), 『역주 언해두창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1)][5]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1635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13), 『역주 화포식언해, 신전자취염소방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2)]		『신전자취염소방언해(新前煮取焰硝方諺解)』		
[5][6]		『벽온신방(辟瘟新方)』	1653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09), 『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http://db.sejongkorea.org/
3)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list.do?itemId=letter&gubun=lettername
4) 「세종한글고전 DB」에 수록된 자료는 '불교서, 윤리서, 과학서, 문학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

<표 1-2>. 연구 대상 목록②(조선시대 한글편지 DB)

번호	편지 명칭	간행 연도	편지 건수	영인본의 서지 사항[7]
[A]	선조대왕 언간	1603년	1건	·김일근(1986/1991), 『三訂版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예술의전당(1991), 『한글서예변천전』, 우신인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2002), 『조선왕조어필』, 한국서예사특별전 22.
[B]	「숙명신한첩」 언간	1653~1666년	22건(전체 68건)	·문화재청(2009), 「宸翰帖 乾」, 『한국의 옛글씨-조선왕조 어필』, 22~99쪽. ·국립청주박물관(2011),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통천문화사.
[C]	「어필」 언간 [해주오씨 오태주 가문 명안공주 관련 유물]	1665년	1건(전체 12건)	·강릉시립박물관(1996), 『寶物第1220號 明安公主關聯遺物圖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2002), 『조선왕조어필』, 한국서예사특별전 22.
[D]	「선찰」 언간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1687~1699년	34건(전체 116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4,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태학사.
연구 대상 합계			58건	

<표 1-1>은 <표 1-2>와 비교할 때 1차 텍스트인 원문을 직접 언해한 자료이며, 이에 비해 <표 1-2>의 언간류는 구어적 성격이 강하고 언해본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특히 <표 1-1>에 속하는 [1-5]는 모두 언해본이라는 공통 범주에 속하나, 구성과 언어 처리 방식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우선, 불교서 [1]는[8] 구결문을 만들고 이를 우리말로 옮긴 언해본이며, 윤리서인 [2]는[9] 한문 다음에 언해를 붙인 형태이며, 과학서인 [4]는[10] 구

되어 있다. 이 가운데 17세기 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윤리서, 불교서, 과학서'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과학서'에 속하는 『역주 마경초집언해』의 경우 간기가 없어 권7에 수록된 『마경언해서』에 근거하여 이서(李曙, 1580~1637)의 편찬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표 1-1>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5) 『화포식언해』의 후반부에는 『신전자취염소방언해』가 함께 수록되어 전해지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 자료를 각각 [4(1)], [4(2)]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6) 실제로 [5]에는 인용 구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실제 분석 대상은 [1~4]이다.

7) 영인본의 서지 사항은 황문환 외(2013)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8) 『권념요록(勸念要錄)』은 불교 설화 11편을 수록한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현존하는 판본은 인조 15년(1637)에 구례 화엄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자료는 한문 원문에 단락을 지어 한글로 구결을 달아 구결문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한글로 옮긴 언해본이다(김무봉 2013).

9)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조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 임진왜란 이후 정표를 받은 효자·충신·열녀의 행적을 중심으로 1,500여 인물의 전기를 정리한 책이다. 각 인물마다 그림을 부착하고 한문 원문 다음에 언해를 붙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정호완 2019).

10)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는 각 조마다 한문 원문을 먼저 제시한 뒤 언해문을 덧붙였으며, 원

결을 달아 언해로 옮겼다는 점에서 [1]과 유사하나, 한자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3]은 한문 원문 다음에 언해를 붙인 점에서 [2]와 구조상 유사하다.

이처럼 [1-5]는 모두 언해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책의 구성과 언어 처리 방식에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반면, [A-D]는 언해본이 아닌 별도의 장르에 속하므로, 동일한 시기의 말뭉치에서도 특정 구문이 서로 다르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용 구문이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가를 면밀히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점은 백두현(2023)에서[11] 동시대 자료라 하더라도 장르와 목적에 따라 언어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맞닿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인용 술어와 관련한 선행 연구

인용 구문은 오래전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특히 근대 국어 시기의 인용 술어에 주목하여 해당 영역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인용술어는 특히 현대 국어의 인용 표지인 '-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현대 국어에서는 직접 인용된 발화 뒤에 '-(이)라고'라는 인용조사가, 간접 인용된 발화 뒤에는 '-고'라는 인용어미가 붙는다(이선웅 외 2024 : 578).[12] 반면 중세 국어에는 이러한 인용조사나 인용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대 국어는 한문 언해 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대 국어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되어 왔다.

문에는 한글 구결(입겻)을 달고 한자마다 한글 음을 표기한 국한혼용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경서나 기술서 언해본의 공통된 점이다(정호완 2013).

11) 백두현(2023 : 70~78)은 17세기 간행 문헌을 한글 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불교서, 특히 진언이 포함된 한글 문헌은 한글의 사회 계층적·공간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②자훈서(字訓書)는 계층적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삼강행실도』(1608년 중간본),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년) 등 교화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며, ④사서언해류는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양반층이 공인된 현토와 함께 활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⑤의약서·구황서 언해본은 주로 관리나 의원들이 이용했기에 계층적 확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⑥『병학지남』과 같이 '언문을 모르는 이를 위해 편찬되었다'는 목적을 밝힌 자료는 한글 확산과 관련이 있다. ⑦역관서는 전문 인력의 규모가 작아 확산에 기여한 바가 적다. ⑧음식 조리서와 언간은 17세기 양반가 남녀 모두가 언문 사용에 능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한글의 확산을 실증하는 근거다. ⑨김만중(1637~1692년)의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같은 한글 소설은 양반가 여성 독자층을 거쳐 중인과 평민층으로 독서 범위를 확장시켰고, 이는 19세기 중후기에 방각본 소설 출판 성행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글 소설은 최상위층에서 하위층으로 독서 계층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한글 확산에 크게 기여한 매체라 할 수 있다.

12) 직접인용(direct quotation)은 발화/문자화된 언어 표현이나 머릿속으로 생각한 언어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며, 간접인용(indirect quotation)은 해당 언어 표현을 현재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이선웅 외 2024 : 577~578).

인용술어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대 국어의 인용술어를 중세와 현대 국어 사이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김수태 1993; 홍종선 1997; 권재일 1998; 안주호 2006; 유춘평 2012 등). 둘째, 인용술어의 종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이다(안주호 2003, 2006; 이주현 2021 등). 특히 'ᄒᆞ-'의 활용형은 인용표지 '-고'와의 상관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위치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세 국어는 한문 어순의 영향을 받아 인용동사가 피인용문 앞에 전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유춘평 2012 : 329), 권재일(1998 : 257~267)은 중세 국어에서 [-도입절] 형식이 드문 것은 언해문의 문체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도입절] 유형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한 바 있다. 홍종선(1997 : 168~169)은 초기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후기에 '-고'라는 보문소가 도입된 것으로 보았다. 안주호(2006 : 4)는 인용문을 인용동사의 위치에 따라 ① [NP-인용동사-[피인용문]], ② [NP-인용동사-[피인용문]-ᄒᆞ(-)], ③ [NP-[피인용문]-인용동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근대 국어 인용술어의 종류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는 안주호(2003, 2006)가 대표적이다. 그는 인용동사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눈 뒤, 다시 대화 인용동사와 혼잣말 인용동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니ᄅᆞ다'와 'ᄀᆞᆯ다'를 중세·근대 국어의 대표적 인용동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안주호(2006 : 18~22)는 한자어 인용동사를 '曰'류, '젼ᄒᆞ다'류, '告ᄒᆞ다'류, '쳥ᄒᆞ다'류로 구분하여 문법적 특성까지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 인용술어의 위치에 따른 근대 국어 인용구문의 유형
가. 유형 1: NP이 V [S]
나. 유형 2: NP이 V [S] V
다. 유형 3: NP이 [S] V

본고 역시 앞선 연구들과 유사하게 (1)과 같이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장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이 나타났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3. 장르별 인용 구문의 유형

3.1 장르별 인용 구문의 구조

3장에서는 인용술어의 위치에 따라 근대 국어 인용 구문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다만 이 장에서는 전형적인 인용 구문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피인용문이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날 때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13] 연구 대상 목록 ①과 ②에 나타난 인용 구문의 유형별 절대 빈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용 구문의 유형에 따른 절대 빈도

	불교서		윤리서		과학서				언간	
	[1]		[2]		[3]		[4]		[A-D]	
유형 1	**27**	**(50.9%)**	104	(23.9%)	**316**	**(95.2%)**	-		-	
유형 2	25	(47.1%)	**268**	**(61.6%)**	13	(3.9%)	-		3	(5%)
유형 3	-		55	(12.6%)	-		2	(33.3%)	**57**	**(95%)**
기타	1	(1.8%)	8	(1.8%)	3	(0.9%)	**4**	**(66.6%)**	-	
총 빈도수	53	(100%)	435	(100%)	332	(100%)	6	(100%)	60	(100%)

<표 2>의 절대 빈도는 문헌별 어절 수 차이가 커 일대일 비교보다는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1]과 [3]에서는 (유형 1)이 우세한데, [1]은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3]은 그 차이가 큰 편이다. 반면, [2]는 (유형 2)가 우세하며, 언간 자료인 [A-D]에서는 현대 국어 인용 구문과 유사하게 (유형 3)이 대다수의 용례를 차지한다.

한편, [2]는 교화적 목적을 가진 장르이기 때문에, 각 장의 말미에 지역명 변경·관직 부여 등 이른바 명명 구문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문헌류와 구별되며, 이는 인용 구문의 유형 분포 차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 가. 일향 ᄆᆞ을히 아ᄅᆞᆷ다이 녀겨 그 ᄆᆞ을 일홈을 닐어 ᄀᆞ로ᄃᆡ <u>효우ᄒᆞᆫ ᄆᆞ을히라</u> ᄒᆞ니라<[2] 효자도 8:65ㄴ>
나. 일홈이 ᄀᆞᆯ온 <u>散산花화砲포</u>ㅣ라<[4(1)] 22ㄱ>
나′. 이 닐온 밧 <u>滓지水슈</u>ㅣ라<[4(2)] 11ㄴ>

[2]의 명명 구문은 대체로 (유형 2)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4]의 명명 구문은 [3]에서 대표적으로 관찰되는 (유형 1)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이처럼 <표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용술어의 위치에 따른 인용 구문 유형은

13) [3]의 경우 피인용문이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에 대개 원문의 '曰'에 대응한다.

동일 시기 문헌이라도 일률적이지 않으며, 각 문헌의 장르적 성격과 서술 목적, 구성 방식을 반영하여 상이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장르별 인용술어의 분류

3.2절에서는 문헌별로 선행 인용술어와 후행 인용술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상위 3위까지의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문헌별 인용술어, 인용명사의 목록(절대 빈도)

<table>
<tr><td></td><td colspan="2">불교서</td><td colspan="2">윤리서</td><td colspan="2">과학서</td><td colspan="2">언간</td></tr>
<tr><td></td><td colspan="2">[1]</td><td colspan="2">[2]</td><td colspan="2">[3]</td><td colspan="2">[4]</td><td colspan="2">[A-D]</td></tr>
<tr><td rowspan="3">선행
인용술어</td><td>니ᄅᆞ-</td><td>20</td><td>ᄀᆞᆯ-</td><td>147</td><td>ᄀᆞᆯ-</td><td>325</td><td colspan="2" rowspan="2">-</td><td>듣-</td><td>2</td></tr>
<tr><td>ᄀᆞᆯ-</td><td>17</td><td>니ᄅᆞ-</td><td>114</td><td rowspan="2">니ᄅᆞ-</td><td rowspan="2">4</td><td rowspan="2">보-</td><td rowspan="2">1</td></tr>
<tr><td>(복합)</td><td>10</td><td>(복합)</td><td>70</td></tr>
<tr><td rowspan="3">후행
인용술어</td><td rowspan="3">ᄒᆞ-</td><td rowspan="3">25</td><td>ᄒᆞ-</td><td>291</td><td>ᄒᆞ-</td><td>12</td><td>ᄒᆞ-</td><td>1</td><td>ᄒᆞ-</td><td>58</td></tr>
<tr><td>니ᄅᆞ-</td><td>7</td><td rowspan="2">(인용
명사)</td><td rowspan="2">1</td><td rowspan="2">니ᄅᆞ-</td><td rowspan="2">1</td><td rowspan="2">니ᄅᆞ-</td><td rowspan="2">2</td></tr>
<tr><td>(인용
명사)</td><td>7</td></tr>
</table>

<표 3> 역시 <표 2>와 마찬가지로 문헌별 어절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미를 가진다. (유형 2·3)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인용술어는 문헌의 종류와 무관하게 [1-4, A-D] 모두에서 'ᄒᆞ-'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2·3]에서는 피인용문 뒤에 인용 명사가 후행하는 예가 확인된다.

(3) 가. 진이 쟝ᄎᆞᆺ 주글 제 댱시ᄅᆞᆯ 도라보와 닐오ᄃᆡ 네 ᄌᆞ식 ᄇᆡ여시니 아ᄃᆞᆯ 나하ᄃᆞᆫ 잘 기ᄅᆞ라 <u>말ᄉᆞᆷ이</u> 다ᄒᆞ며<[2] 열녀도 2:26ㄴ>
나. 닐운 힝역과 독약과 ᄠᅳ리 섯단 <u>말이라</u><[3] 상:47ㄱ>

<표 3>에서 확인되는 선행 인용술어의 형태 역시 문헌에 따라 고정된 경우도 있다. [3]에서 대다수의 용례를 차지하는 'ᄀᆞᆯ-'은, 그 활용형이 'ᄀᆞᆯ오ᄃᆡ'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2]의 선행 인용술어 'ᄀᆞᆯ-'은 다양한 활용형으로 실현되고, 복합 인용술어의 양상도 관찰된다. [1] 역시 선행 인용술어로서 'ᄀᆞᆯ-'을 사용하되, 활용형은 [3]과 같이 'ᄀᆞᆯ오ᄃᆡ'로 제한된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의 구성 방식과 목적이 인용술어 선택 및 형식화에 상이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4) 가. 쟈이 <u>골오ᄃᆡ</u> 몬져 금강경 일만 권을 허ᄒᆞ야 오ᄃᆡᄅᆞᆯ 두로 절호 미언졍 왕싱코져 아니ᄒᆞ로라<[1] 21ㄱ>
나. 업슝이 소겨 <u>ᄀᆞ로ᄃᆡ</u> 몸이 더러워시니 빌건댄 조히 뫼욕 ᄀᆞ믄 후의 드로리라<[2] 열녀도 3:40ㄴ>
나′. 공슌이 <u>ᄀᆞ로ᄃᆡ</u> 네 음식 먹고 살기ᄅᆞᆯ 구홈으로ᄂᆞᆫ 네 머리ᄅᆞᆯ 티고 반ᄃᆞ시 주금만 ᄀᆞᆺ디 못ᄒᆞ다<[2] 열녀도 6:64>
나″. 최시 소리ᄂᆞᆯ 노펴 도적을 ᄭᆞ지저 <u>골오ᄃᆡ</u> 도적놈은 엇디 ᄲᆞᆯ리 날ᄋᆞᆯ 주기디 아니ᄒᆞᄂᆞ뇨<[2] 열녀도 4:87ㄴ>
다. 고금의감의 <u>골오ᄃᆡ</u> 발열ᄒᆞᄂᆞᆫ 처엄의 ᄲᆞᆯ리 발표ᄒᆞ여 (…) 젹ᄂᆞ니라<[3] 상:13ㄱ>

선행 인용술어의 또 다른 특징은 복합 인용술어의 존재이다. 복합 인용술어란 인용술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본 연구 대상에서는 [1-2] 문헌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복합 인용술어는 ‘ᄀᆞᆯ-’과 ‘니ᄅᆞ-’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 둘이 상호 결합하거나 둘 중 하나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5) 가. <u>ᄃᆡ답ᄒᆞ야 골오ᄃᆡ</u> 셔방의 부톄 겨샤ᄃᆡ 일후미 아미태시니 (…) 의심을 닐위미 업스니다<[1] 22ㄱ>
가′. 다ᄅᆞᆫ 겨집ᄃᆞ려 <u>닐어 닐오ᄃᆡ</u> 내 오ᄂᆞᆯ 바ᄆᆡ 반ᄃᆞ기 셔방의 냇노라 ᄒᆞ니<[1] 22ㄴ>
나. 복남이 조방쟝 김경노ᄃᆞ려 <u>닐러 ᄀᆞ로ᄃᆡ</u> 우리 등이 쟝싊되여 얻디 안자 이ᄅᆞᆯ 보랴<[2] 충신도 1:88ㄴ>
나′. 아히죵이 <u>고ᄒᆞ여 골오ᄃᆡ</u> 업고 가면 면ᄒᆞ기 어려우니 (…) 거의 냥젼ᄒᆞ리라<[2] 효자도 6:19ㄴ>

또한, <표 3>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선행 인용술어 ‘니ᄅᆞ-’와 ‘ᄀᆞᆯ-’의 한자어 대응도 차이가 있다. ‘니ᄅᆞ-’는 문헌별로 상이하게 대응하는데, [1]에서는 “云(言云), 曰, 謂”에, [2](『충신도』 권1)에서는 “曰, 謂, 云, 言”에 각각 대응하는 예가 확인된다. [3]에서는 “曰, 謂, 云”에 대응하되, 이 가운데 “謂”는 본문이 아니라 주해문에서만 나타난다.

(6) 왕호괴 골오ᄃᆡ 믈읫 역질이 ᄒᆞᆫ 가지만 돋ᄂᆞ니ᄂᆞᆫ 됴커니와 혹 두 가지 세 가지 서ᄅᆞ 합ᄒᆞ야 도ᄃᆞ니ᄂᆞᆫ 흉ᄒᆞ니 <u>닐운</u> 힝역과 독약과 ᄠᆞ리 섯단 말이라/王好古曰 凡痘疹 只出一般者 善 或二色三色

相合而作者 兇【謂痘瘢疹相合也】<[3] 상:47ㄱ>

반면, ‘ᄀᆞᆯ-’은 대체로 “曰”에 대응하며, [1]에서는 “言”에도 상응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4. 장르별 인용 구문의 대표성 판별 기준

4.1. 장르별 인용 구문과 구어성의 연관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국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인용 구문은 동일한 시기라 하더라도 장르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인용 구문이 단순히 통사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각 장르가 지닌 목적과 기능, 그리고 해당 텍스트가 사용된 사회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1절에서는 특히 간접 인용을 중심에 두고, 장르별 구어성과 인용 구문 선택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문헌들은 대체로 직접 인용이 중심이나, [3]과 언간 자료 [A-D]에서는 간접 인용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3]은 질병에 따른 증상을 해석할 때, 고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보다 ‘간접 인용’의 방식을 따른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고서명 + ᄀᆞᆯ오ᄃᆡ + 피인용문”(유형 1)과 같은 고정된 양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7) 가. 득효방의 ᄀᆞᆯ오ᄃᆡ 열ᄒᆞ여 알호ᄃᆡ (…)<[3] 상:19ㄱ>
나. 의학입문의 ᄀᆞᆯ오ᄃᆡ ᄀᆞᆺ 도ᄃᆞᆫ 얼구리 (…)<[3] 상:42ㄴ>
다. 젼듕양이 ᄀᆞᆯ오ᄃᆡ 힝역 더데 ᄆᆞᄅᆞ디 (…)<[3] 상:35ㄴ>

반면, 언간 자료인 [A-D]는 구어성이 높아 직접·간접 인용이 혼재하고, 편지라는 장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신자의 감정, 추측, 평가 등이 간접 인용의 형태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특히, [1-4]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곧 피인용문이 의문형 종결어미로 종결되는 (유형 3)이 많이 관찰된다. 이때의 후행 인용술어는 ‘ᄒᆞ-’와 ‘싶-’으로 한정되는 편으로 내적 사유 구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가. 너ᄂᆞᆫ 언제 아ᄃᆞᆯ을 나하 뎌 늘근 ᄉᆡ아비ᄅᆞᆯ 싱광을 뵐고 ᄒᆞ노라
<[B], 1654년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

나. 이 압흘 어이홀고 시브고<[D], 1699년 안동김씨가 아들 송상기에게 보낸 편지>

즉, 언간류가 구어성이 짙어 당시 실제 언어 사실을 대표한다고 가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2>에서 언간류는 현대 국어와 유사하게 (유형 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피인용문 종결어미의 유형까지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면, '내적 사유'에 해당하는 구문이 상당히 많이 관찰된다. 이는 편지라는 장르 특유의 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동시대의 특정 구문을 곧바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언간류가 구어성 성격이 짙어 시대적 대표성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장르 간 교차 검증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2. 장르별 인용 구문의 통시적 변화와의 연관성

주지하듯, 근대 국어 시기의 인용 구문도 언어 현상과 마찬가지로 통시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근대 국어의 인용 구문과 관련한 첫 번째 변화는, [NP이 -기를 (S) ᄒᆞ-] 구문의 확대이다(이지영 2017). 이는 명사형 어미 '-음'에서 '-기'로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후행 인용술어인 'ᄒᆞ고'가 점차 '코'나 '고'로 점차 '코'나 '고'로 축약·변이되어 현대 국어의 인용 표지 '고'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2>에 따르면, 언간 자료인 [A-D]가 (유형 3)이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해당 시기를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실제 [NP이 -기를 (S) ᄒᆞ-]과 'ᄒᆞ고'의 축약형 '코'가 관찰되는 문헌은 윤리서인 [2]에서만 관찰된다.

(9) 가. 그 어미 늘곰을 탄ᄒᆞ야 목계가ᄅᆞᆯ 지어 일홈을 오관산곡이라 ᄒᆞ니<[2] 효자도 1:63ㄴ>

가′. 공헌대왕묘애 졍문ᄒᆞ시고 일홈 주시기ᄅᆞᆯ 효뷔라 ᄒᆞ시다<[2] 열녀도 2:70ㄴ>

나. 알비 울고 ᄀᆞᆯ오ᄃᆡ ᄒᆞᆫ 몸의 두 남진은 비록 주거도 감히 몯ᄒᆞᆯ 거시라코<[2] 열녀도 2:54ㄴ>

따라서 (9)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구어성이 가장 높다고 될 수 있는 문헌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기의 대표 양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구문의

대표성을 논하려면 개별 자료의 성격, 장르적 목적, 사회적 사용 맥락, 통시적 분포 등을 교차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형 3)의 확대, 인용표지 '고'의 발달, 명사형 어미의 통시적 변화 등과 같은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인용 구문의 변화가 장르별로 상이한 속도와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17세기의 여러 장르의 문헌에 나타난 인용 구문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시기라 하더라도 장르적 특성과 서술 목적에 따라 인용 구문의 분포와 형식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시적 국어사 연구에서 자료를 세기별로 일괄 묶어 분석하는 관행이 지니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는 거시적 시대 구분에 따른 변천의 큰 틀과 더불어, 개별 문헌의 성격을 반영한 미시적 관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료의 표본성과 대표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고, 한국어 통사 구조 변천의 다층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7세기 방대한 문헌 중 일부 자료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정 구문이 시대적 대표성을 지니는지 판단하려면 장르별 반복성, 사회적 맥락, 통시적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교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진행될 자료 스펙트럼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09.『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09.『역주 언해두창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13.『역주 칠대만법, 권념요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13.『역주 화포식언해, 신전자취염소방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19.『동국신속삼강행실도』권1~5·속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황문환 외. 2013.『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권1~3. 역락.
세종 한글고전 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
조선시대 한글편지 DB.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list.do?itemId=letter&gubun=letternameㅡ

2. 논저류

고영근. 2020.『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제4판). 집문당.
권재일. 1998.「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59~79쪽.
권재일. 1998.『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권재일. 2019.「문법 변화 개관」,『국어사 연구 2: 문법·어휘』(국어사대계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13~70쪽.
김수태. 1993.「인용월의 변천에 대하여 - 15·16·17세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331~352쪽.
나찬연. 2008.『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 이론편』. 교학연구사.
도재학. 2024.「'구문적 단위'의 유형에 대하여」, 배달말 74. 배달말학회. 1~30쪽.
박미은. 2022.「인용동사 구문과 인용명사 구문의 구조와 기능 - 인용술어와 인용표지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3. 우리말글학회. 29~57쪽.
박창원. 2023.「국어사대계 서설」.『국어사 연구 2: 문법·어휘』(국어사대계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66~67쪽.
백두현. 2023.『조선시대의 한글 교육과 확산』. 태학사. 70~78쪽.
안병희 외. 2002.『중세국어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안주호. 1991.「후기 근대국어의 인용문 연구」, 자하어문논집 8. 상명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357~408쪽.
안주호. 2003.「인용동사 '니ᄅᆞ다'와 'ᄀᆞᆯ다'의 통사적 특성 연구」, 어문학 79. 한국어문학회. 167~192쪽.
안주호. 2003.「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10. 담화·인지언어학회. 145~165쪽.
안주호. 2006.「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143~169쪽.
유춘평. 2012.「중세 한국어 인용문 구조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311~333쪽.
윤혜영. 2008.「17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윤혜영. 2011.「『여사서 언해』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어문학 112. 어문학회. 49~78쪽.

이강혁. 2024.「중세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관규. 2023.『학교 문법론』. 역락.
이광호. 2004.『근대 국어 문법론』. 태학사.
이금희. 2006.「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 조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이래호. 2023.「근대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33~68쪽.
이선웅 외. 2024.『한국어 문법론의 점과 선』. 한국문화사.
이승재. 2010.「명명 구문의 통시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 65~84쪽.
이주현. 2013.「17세기 국어의 명사형 어미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이주현. 2021.「근대 국어 언간의 인용구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이주현. 2022.「인용표지 '고'의 태동 요인에 관한 재고 - 한글편지와 노걸대류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63(9). 한말연구학회. 1~19쪽.
이지영. 2017.「'-기를' 인용구문의 발달과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59~83쪽.
이지영. 2021.「중세·근대 국어 인용 구문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33. 국어사학회. 7~38쪽.
이필영. 1993.『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현희 외. 2014.『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이현희. 1986.「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191~227쪽.
이현희. 1994.『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홍윤표. 2017.『국어사 자료 강독』. 태학사.
홍종선. 1997.「근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 국어』(국립국어연구원 편). 국립국어연구원. 143~190쪽.
홍종선. 2017.『국어문법사』. 아카넷.
김무봉. 2013.『권념요록』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front/contentlist.do?bkCode=P49_GN_v001
이상규. 2019.『동국신속삼강행실도』「열녀도」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front/contentlist.do?bkCode=P12_DS_v004&status=tab5
정호완. 2009.『언해두창집요』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front/contentlist.do?bkCode=P54_DC_v001&status=tab5
정호완. 2013.『화포식언해』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front/contentlist.do?bkCode=P58_JY_v001
정호완. 2019.『동국신속삼강행실도』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db.sejongkorea.org/front/contentlist.do?bkCode=P12_DS_v001&status=tab5

57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5년 10월 10일 박음
2025년 10월 15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03175]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